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이 경 립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신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인 ‘악’이 무엇으로 규정되었는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어떤 기능을 행하는가를 규명하였다. 표상이 특수한 인식의 형식으로서 사회화·역사화의 산물이라고 할 때, 악의 표상 체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함축한다.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체계는 부정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형성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국면을 드러내준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하던 근대로의 전환기에 존재한 문학 장르로서 신소설의 의의는 그것이 특정 시기에 수행한 지식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근대 전환기의 가장 대중적 문학 형식으로서 신소설이 기존의 악의 표상과 교섭하며 새로운 악을 가시화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과제였다.

Ⅱ장에서는 전근대 사상·문화에 나타난 악의 표상과 이와 상응하여 만들어진 전근대 소설의 서사구조·인물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신소설의 토대를 규명하고자 했다. 전근대 사상의 주요 요소인 유교, 불교, 도교 각각에서 선악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층위에서 선악에 관한 철학적 차이들은 단순한 공통 인식으로 수렴되었다. 대중적 층위에서 선악은 대체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질을 기술·판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기준으로 개별 행동의 선악을 판별하는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선악에 각각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요소는 근대 초기 악의 표상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선악에 관한 공통인식에 대한 미학적 상응물이 복선화음이라는 서사구조다.

Ⅲ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 신소설을 대상으로 근대 전환기에 출현한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화된 악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애국 계몽 담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담론이 공익을 공동선으로 규정함

에 따라, 공익을 저해하거나 공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기심이 악인의 주요 자질이 되었다. 독립 국가를 지향하는 국민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적 정체성인 국민 의식의 획득을 저해하는 비국가주의로서의 이기주의가 악으로 규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구양반 계층이 근대 사회의 지도자로 이행하기 위해 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완고가 악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근대 교육을 중심에 둔 계몽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악에 대한 대처 기제도 변화하였다. 근대 교육이 도덕적 악에의 대응 기제로 제시됨에 따라 악인이 근대 교육을 통해 교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IV장에서는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체제가 성립하는 역사적 국면 속에서 식민지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을 고찰하였다. 근대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구성원의 보호를, 대내적으로는 법 질서 확립을 내세움으로써 그 존재를 합리화하고 폭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 체제 성립이 식민지 지배 체제 성립과 중첩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악의 표상은 근대 국가 체제=제국 체제에 대한 적응과 저항으로 분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는 근대 국가의 무능력·방관을 폭로하는 ‘무법자’와, 근대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가하는 힘을 과시하는 ‘범죄자’ 인물 유형의 분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V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식민지 시기 신소설을 대상으로 악의 표상에서 주체성의 영역이 열리는 궤적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죄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악의 표상이 징치라는 외부적 관계가 아니라 회개·속죄의 구조를 통해 주체적·내면적 관계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죄와 관련하여 악의 내용은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악은 주체가 스스로 인식하고 응분의 속죄행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악의 원인인 욕망, 욕망을 추구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이성과 욕망을 조정하고 속죄를 행하게 하는 감정에 주목하는 형상화 방식이 부각되었다.

주요어 : 신소설, 선, 악, 내셔널리즘, 근대화, 국민, 국가, 개
화, 계몽, 교육, 이기심, 이기주의, 식민주의, 범죄,
기독교, 죄, 욕망, 이성, 감정, 주체

학 번 : 2010-30008

목 차

I. 서론	1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1
2. 연구의 시각	10
II. 근대 이전 선악의 의미와 그 서사적 표현	20
1. 선악 개념의 두 층위: 철학과 문화	20
2. 선악 인식에 상응하는 미학적 구성물: 복선화음	62
III. 대한제국기 내셔널리즘과 악의 유형	88
1. ‘공익’과 이기심의 이중성	90
2. 비국가주의로서의 이기주의	114
3. ‘개화’라는 공동선과 ‘완고’	134
4. 근대 교육과 악의 교화 가능성	149
IV. 식민지-근대 국가 체제와 악의 분기	169
1. ‘무법’ 상태: 제국에 대한 우회적 비판 가능성	169
2. 식민 지배 체제에 적응한 상상력과 ‘범죄’	194
V. 근대 초기 악의 주체성과 미학적 변용	222
1. 심리의 주체: 기독교적 죄의식과 주체성의 형성	222
2. 이성과 감정의 주체: 합리적 악인과 속죄의 역학	249
VI. 결론	277

I. 서론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1900년대와 1910년대에 걸쳐 광범하게 향수되었던 문학 장르로 신소설을 간주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왔던 것은 이 장르의 ‘본질’ 규정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문학 장르란 연구에 의해 사후적으로 분류된 구체적 작품 군(群)으로부터 추출된 문법과 코드의 집합으로 인식되는 가상이다.¹⁾ 그러나 이처럼 ‘만들어진’ 장르의 산개와 쇠퇴가 문학사적 계열 속에서 포착될 때, 그 의미는 장르의 본질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 본질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혼효되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해석의 강조점을 두고 구분하여 볼 때 신소설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두드러지는 ‘본질’ 규정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소설을 개화·계몽의 미디어로 규정하는 ‘근대주의’적 관점이 있다. 19세기-20세기 초반 대한제국 시기의 화두였던 근대화 프로젝트 속에 신소설을 위치시키고 개화 담론의 일반화와 대중 계몽을 담당한 미디어로 규정한다면, 신소설은 강제병합 이후 문학사적 사명을 일거에 상실하는 장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족국가 독립을 전제로 한 개화·계몽에의 의지는 식민지화와 함

1) 파울러는 문학 장르를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된 개별 작품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닮았으나 동일하지는 않은 가족 구성원과 같이, 어떤 장르로 분류된 작품들은 서로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로부터 불변하는 공통성을 추출할 수는 없다. 특정 장르로 분류된 모든 작품들이 모두 그 장르의 ‘문법’이나 ‘사상’, ‘정신’을 완전히 구비한 채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파울러는 문학 장르를 식별케 하는 기준자인 문법, 태도, 주제 등이 연구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 장르 내의 작품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유사성 전체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42-43면) 이는 장르를 모종의 동일성(본질)에 기대어 정의하는 관점의 반대에 서있다.

게 급격하게 둔화·굴절되기 때문이다.²⁾

임화의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9.2.~1940.5.10./『인문평론』, 1940.11.~1941.4.)가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선행연구라 하겠다. 임화는 언문일치 문장, 소재의 현대성, 인물과 사건의 실재성 등 ‘현대소설’적 특징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어 ‘구소설의 유형을 파괴’한 이인직의 작품을 신소설의 시작점에 위치시켰다. 그런데 임화는 고소설과 구분되는 형식적 특성의 출현을 ‘새 정신’의 출현, 특히 개화사상의 도입이라는 배경과 연관하여 해석했다. 저자가 ‘새로운 시대가 생성하는 역사적 환경’을 텍스트에 적확히 반영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형식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구소설의 유형’의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역사적·사회적 변화(내용)를 형상화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신소설이 새로운 시대를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구소설과 구별되는 것이요, 새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상의 표현과 부합한 것”³⁾이라 기술했을 때, 신소설은 실상 개화사상을 핵심에 둔 장르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넓은 양식에 대한 새 정신의 지도적 지위”⁴⁾를 기준으로 신소설의 문학사적 의의가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상’·‘새 정신’의 요체인 개화사상의 퇴조는 ‘신소설

2) ‘문명개화를 통한 독립자강 사상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소설적 과제로 보고 신소설의 ‘정치소설’적 성격을 강조한 김윤식·김현, 『한국소설사』, 예하, 1993과 신소설의 가치를 당대 개화계몽담론과의 상호텍스트성 유지 정도에 따라 평가한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신소설을 ‘대한제국’을 전제로 하여 가능해진 문학 양식으로 본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 2014 등이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개화 담론의 민족주의적 지향성과 식민지 이데올로기로 함몰되기 쉬운 개량주의적 지향성을 구분하고 개화 담론 자체의 이중성과 연관된 신소설의 이중성을 지적한 선행 연구로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과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과 현실 인식의 역사』, 소명, 2002를 들 수 있다. 1900년대 서사문학의 특징인 계몽성과 대중성의 결합이 파탄된 결과 1910년대 서사문학에서 계몽성의 약화, 대중성(오락성) 지향이 강해졌다고 보고, 이를 신소설의 통속화로 평가한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도 이와 같은 궤에 있다.

3)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179면.

4)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 문학예술 전집 2-문학사』, 소명출판, 2009, 334면.

이 역사적인 자기발전을 중지'한 징후로 간주되며, 이는 '통속성의 대두 내지 증장'을 초래함으로써 신소설의 '퇴보'를 불러일으킨 직접적 원인으로 해석된다.⁵⁾

다음으로 '근대문학'의 전사(前史)라는 관점에서 신소설은 '과도기'의 문학으로 규정된다. 이 때 '과도기'란 전근대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로 규정되며, 신소설의 문학사적 가치가 '근대소설'이라는 가상의 척도에 기대어 평가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인물의 입체성 성취, 언문일치체·국문체 혁신, 서구적 근대소설을 모델로 한 서사 문법 구현,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 문제 등 '근대소설'과의 유사성 규명과 함께 전근대문학 전통과의 불연속성 혹은 연속성 고구(考究)가 주요 관심사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특히 리얼리즘을 근대문학으로서의 소설(novel)의 핵심으로 본 임화·김태준 등 신소설 초기 연구자들의 프레임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⁶⁾ 이처럼 주로 신소설의 형식적 '근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 신소설의 문학사적 수명은 1910년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인직의 소설에서 ①제재의 현대성, ②사실주의적 태도, ③어문일치의 신문체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그를 신극운동·신소설운동의 선구자로 고평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가 이와 같은 시각을 대표한다. 김태준은 '이야기'의 수준에 머무르는 구소설과 대비하여 "언문일치의 문체로서 어떤 한 개 사건을 취급하여 그 사건의 추이를 따라 순간순간의 행동과 대화까지 그대로 쓰는"⁷⁾ 특징이

5) 위의 책, 334-335면.

6) ①표기형식, ②문장형식, ③표현형식, ④수식방식, ⑤전개방식, ⑥문장의 성격 등의 기준에서 어떻게 '현대소설'로 접근해왔는가를 고구하고 신소설을 각 항의 과도기적 양상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본 조연현, 『한국신문학교』, 문화당, 1966과 개화기 문학은 개화사상의 그릇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며 그 주제는 대개 계몽적 기반 위에 있다고 보는 한편 이전 시기 소설 전통과의 연속·단절을 상세히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 송민호,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리얼리즘의 성취라는 기준을 두고 신소설이 '노벨'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고찰한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등에서 이러한 시각이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드러난 소설을 ‘신소설’이라 부르고, 이를 구소설과 현대소설의 “과도기적 혼혈아”⁸⁾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1910년대 신소설은 ‘현대소설’의 특징들이 구비되는 ‘발아기의 소설’이라는 맥락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김태준은 이해조, 최찬식, 김교제 등의 작품들을 형식적 측면에서 ‘구소설’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에 따라 평가했다. 이 때 ‘구소설’로부터의 멀어짐은 서구 소설이 모델인 ‘근대소설’로의 접근이라는 일직선상에서 이해된다. 즉 ‘구소설’에서 멀어지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구 소설에 이르는 단 하나의 발전경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문학사는 조선에 있어서의 서구적 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⁹⁾이라 한 임화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의 가치는 과거의 형식적 전통과의 단절에서 찾아진다.

‘근대소설’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개별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위의 경향과 달리, 전근대 문학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전대 소설 형식의 계승과 극복을 고구한 대표적 연구로 조동일의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이 있다. 조동일은 삽화, 유형, 인물형, 주제의 각 측면에서 신소설에 나타난 전대 소설의 ‘긍정적 계승’과 ‘부정적 계승’을 변별하고, 신소설의 ‘새로움’은 전대 소설의 ‘부정적 계승’에서 비롯했다고 보았다. 서사구조 차원에서 신소설과 전대 소설 전통의 강한 유대를 강조한 그의 시각은 신소설의 ‘새로움’을 주로 서구 문학·일본 문학을 모방한 결과로 해석하는 ‘이식문학론’적 연구 경향과 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¹⁰⁾ 그러나 전대 문학

7)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228면.

8) 위의 책, 229면.

9)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5-16면.

10)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전대 소설 전통과 신소설의 관계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신소설 창작의 주요 참조향으로 중국 서사의 영향력이 재평가된 것이다. 송민호는 신소설의 주요 참조향으로 전근대 한글소설 전통과 함께 중국 전근대 소설이 있다는 데 주목하여 신소설의 창작 방식에서 드러나는 혼효성을 상세히 고찰했다.(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전대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소설이 모티프, 서사구

전통과의 연속성을 중시한 이 연구에서도 신소설의 문학사적 가치는 ‘새로움’, 즉 ‘근대소설’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신소설을 ‘뚜렷한 주제가 없는’ 미디어로 간주하고, 근대적 ‘대중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 경향이 비교적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¹¹⁾ 이 때 신소설은 형식·주제 등 서사 내적 지표뿐만 아니라 대중적 향수 양상이라는 서사 외적 지표를 통해서도 인식되는 장르로, ‘대중’을 구심으로 하는 다양한 척도에서 분석가능하다. 신소설의 매스미디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내셔널리즘과의 접합 속에서 신소설이 민족·국민국가(nation-state) 단위로 통합된 대중을 창출하는 데 미친 영향력, 대중의 경험과 감성을 조직·정향하는 방식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신소설과 신파극서사가 공유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비애(悲哀)와 같은 특정 감수성이 식민지인으로 전락한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식, 신소설이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성과를 축적해왔다.¹²⁾ 이러한 연구들에서 신소설은

조 등을 수용한 주요 원천으로 그간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던 중국 경로를 밝힌 강현조(『한국 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 근대 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의 연구를 함께 고려할 때, 신소설이 참조한 ‘전통’의 범주는 동아시아 범위로 확장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11) 움베르토 에코는 대중매체에 게재되는 서사들이 ‘말해야 할 것’(의도·주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채워야 할 것’(지면)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움베르토 에코, 『매스컴과 미학』, 윤종태 역, 열린책들, 2009, 43면:58면) 이는 서사 생산·유포를 둘러싼 근대적 환경의 핵심 특징을 지적한 것이다.
- 12) 수용미학적 관점을 채택한 천정환(『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과 김석봉(『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의 연구 등이 대표적 선행 연구이다. 신소설의 대중문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성과는 최근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었으며, 그 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소설의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이영아(『신소설에 나타난 신파극적 요소와 시각성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와 김기란(『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대중문화적 의의: 신소설과 신파극의 상호참조를 통한 여성의 멜로드라마적 형상화』,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의 연구가 있다. 신소설의 대중의 감수성을 정향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인식을 구성하는 방식에 주의한 연구로는 권보드래(『죄, 눈물, 회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

1910년대-1920년대까지도 대중에게 읽히며 동시기의 다른 소설과 영향을 주고받은 장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수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 경향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볼 때, 신소설 연구에서 ‘악(惡)’의 문제가 일종의 맹점(盲點)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소설에서 ‘악’이라는 개념은 가장 먼저 ‘권선징악’이라는 관습과의 연관선상에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근대주의’적 관점에서 권선징악을 대체하는 “권신징구(勸新懲舊)”¹³⁾가 신소설의 주요 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일체의 ‘낡은 것’이 ‘악’으로 규정되었다고 논의되거나, (2)‘과도기’적 관점에서 전형적 선인과 악인 유형의 대립으로 조직된 전근대적 복선화음(福善禍淫) 서사 구조로부터의 탈피 양상이 중시되거나, (3)‘대중문학’적 관점에서 선악 대립 구도가 가지는 대중적 호소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각각 접근되었다. (1)‘근대주의’적 관점에서 ‘낡은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새로움을 ‘선’으로 규정하는 시도와 맞물려 주제면의 ‘근대성’을 확보한 증거로 나타났다면, 반대로 (2)‘과도기’적 관점에서 전형적 선인 대 악인의 갈등 구도가 지속되는 것은 형식면의 ‘근대성’을 저지하는 장애물로 나타난다. 한편 (3)‘대중문학’적 관점에서는 급격한 사회 질서 변동으로 인해 가치혼란 상태에 빠진 근대 특유의 성질로 인해 선악 갈등을 축으로 하는 도덕질서의 강화가 일어났다고 봄으로써, 서사 내에서 선악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문화적 ‘근대성’의 반영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1)‘근대주

근대문학회, 2007)와 김동식(『신소설과 철도의 표상: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1910년대 신소설의 주요 매체였던 『매일신보』와의 관계 속에서 신소설의 이데올로기적 대응 양상과 대중성을 분석한 연구로 배정상(『이해조 문학 연구: 근대 출판 인쇄 매체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과 함태영(『1910년대 소설의 역사적 의미』, 소명출판, 2015)의 연구가 있다.

13) “권선징악은 분명히 권신징구(勸新懲舊)가 되고, 선승악패는 신승망구(新勝亡舊)의 성질을 정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새정신이 구양식을 이용하는 최고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의미 깊은 예이다.” - 임규찬·한진일 편, 앞의 책, 283면.

의'적 관점에서 '악'은 내용의 차원에서 개화·계몽 담론이 투사되는 대상으로, (2)'과도기'적 관점에서 '악'은 형식의 차원에서 탈피해야 할 소설 관습적 요소로, (3)'대중문학'적 관점에서 '악'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인지·감성 구조의 극(極)으로 각각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악'은 신소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지각되기는 하였으며 단독 주제로서 고구되기보다는 대개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근대성'의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 동원된 보조적 주제에 머물렀던 것이다. 신소설이 '선'이라 할 만한 미덕(美德)보다는 악인(惡人)과 악행(惡行) 등 악의 현상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형상화와 해부에 집중한 문학 장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신소설에 드러나는 '추(醜)'나 '범죄'처럼 '악'으로 포괄될 수 있는 모티프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바가 있으나¹⁴⁾, 실제로 신소설에 드러난 '악'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표상되는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규명하려 한 연구는 드물다. '근대성'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1), (2), (3)의 경향 외에 신소설에 형상화된 '악'은 대개 전 근대 소설에서부터 익히 '악'으로 규정되어 왔던 탐욕·음욕 등의 레퍼토리를 답습한 것으로 다소 단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악'의 문제까지 포괄하여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드물게 존재한다.

선에 대립되는 악이라는 범주는 인류 보편의 인식 구조의 일부로 기입되어 있으나, 그것의 표상(representation)은 언제나 사회화와 역사화의 산물로 나타난다. 표상이 특수한 인식의 형식임을 감안할 때,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변화는 우리 자신, 그리고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일어난 변화를 드러낸다"¹⁵⁾는 점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은 부정적인 것들

14)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조영란, 「신소설에 나타난 '추(醜)'의 인식과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 Susan Neiman, *Evil in Modern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9면.

에 관한 지식이 형성·변화하는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재배치하는 상징체계로서의 문학의 기능을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하던 근대로의 전환기에 존재한 문학 장르로서 신소설의 의의는 그것이 특정 시기에 수행한 지식의 재배치라는 역사적·상징적 측면에서 부여될 필요가 있다. 신소설은 근대로의 전환기에 새로이 규정된 ‘악’을 어떻게 가시화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악’의 표상과 어떠한 교섭·변화를 겪는가? 또는 신소설에서 권선징악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할 때, 징치되어야 할 부정성으로서의 ‘악’은 무엇들로 규정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본 논의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선행 연구는 이재선의 「한국 문학과 악의 사상」이다.¹⁶⁾ 이재선은 선과 악을 창성(創成)의 본질로, 인간 삶의 본질적인 이원적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따라서 그는 선과 악을 이해하는 작업을 한국 문화/학의 정신사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과 연계하여 수행했다. 이재선은 먼저 고전적 인성론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현대 소설에 나타난 집단·제도·조직에 내재된 악의 문제, 식민지배의 정치권력 조직체에 의한 국가악, 독재권력에 의한 탄압·착취·고문·학살 등의 폭력적 악, 전쟁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상호배제적 악, 계층이질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악, 기계와 기술사회에 내재된 비인간성 등 매우 광범위한 ‘악’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¹⁷⁾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악’은 인물 유형이나 서사 내 이분법적 갈등 구도를 기술하기 위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부터 세계의 이원성, 인간의 도덕성 등을 지시하는 추상적 개념, 자율성의 차원에서 예술지상주의와 연관된 비교적 현대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되는 등 서사의 형식과 사상·세계관을 포괄하는 다양한 층위에서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리

16) 이재선, 「한국 문학과 악의 사상」,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17) 위의 책, 76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악’의 표상을 통해 고구될 수 있는 시대적 특수성의 문제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것이다.

‘악’을 표상의 층위에서 접근한 대표적 연구로는 정은경의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악(惡)의 표상 연구: 김동인과 이상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정은경은 조르주 바타이유와 루디거 자프란스키가 의미화한 ‘악’의 개념을 원용하여 문학에 등장하는 ‘악’의 표상이 기존의 관습·윤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초월적 계기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은경은 이상과 김동인 작품에 드러난 ‘악’의 표상을 미적 근대성 논의와 접합시켜 다루고 있다.¹⁸⁾ 다만 여기서 논의되는 악의 표상의 성격은 신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대적’인 것이므로 그 개념을 본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

18) 정은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악(惡)의 표상 연구: 김동인과 이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 연구의 시각

①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인 ‘선악’·‘표상’의 의미와 이 용어에 수반된 조건, 이로부터 비롯된 논의의 방향과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악은 문화권을 불문하고 종교적·법적·도덕적·윤리적·심미적·실용적 차원에 걸쳐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긍정적인 것으로서의 선과 대립하는 부정적인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¹⁹⁾ 그러나 각 시대·문화·사회·집단·개인에 따라 무엇을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선과 악은 세계를 이원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기능을 가진 한 쌍의 기호다. 이는 선악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 채워질 수 있는 빈 그릇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악의 본질적 의의는 그것이 운반하는 가변적 내용이 아니라, 상호배제적 의미망을 창출해내는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논문은 선악을 그 내용 규정의 역사적·사회적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호 쌍으로 간주한다. 이때 선악의 기호 쌍이 세계를 양극화된 것으로 표상함으로써 매우 선명하지만 경직된 세계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악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여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단순화하여 처리하는 상징체계임을 의미한다.

19) 예를 들어 김학철은 서구에서의 ‘악’의 어원적 변천을 고찰하면서 ‘악’이란 먼저 실용적 차원에서 구성된 개념이었으리라고 추정했다. 처음에 ‘악’은 인간에게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이거나 실제로 해를 끼치는 재해나 상처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었고, 이에 대해 인간은 추(醜)하다는 미감과 불쾌의 정서로 반응하였으며, 그것이 도덕적·윤리적 감정과 종교적 차원에서 심화되면서 경멸과 분노와 혐오의 정서를 발생시키는 대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김학철, 「네 이름이 무엇이나?—성서와 신학 속 악의 고고학적 지형도」, 『문학동네』 가을호, 문학동네, 2016, 467-469면) 이 논의의 시사점은 악의 의미론적 핵심이 선과 대립되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지시되는 현상·개념 등은 다양한 맥락들과의 접속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데에 있다.

한편 본 논문이 representation의 역어로 미학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재현(再現)’이 아니라 철학적·심리학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표상(表象)’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현’은 예술의 도구인 언어와 예술의 대상인 세계(실재)의 관계를 강조하는 역어라고 생각된다. ‘재현’이라는 용어에는 언어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모방 혹은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 언어를 세계와 주체 사이에 놓인 ‘투명한 매개체’로 간주하려는 태도가 기입되어 있다.²⁰⁾ 이에 비해 ‘표상’은 언어와 세계 사이에 놓인 주체의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역어라고 생각된다. ‘표상’이라는 말은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에게 주어진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시대’, ‘문화’와 같이 어떤 것의 표상을 성립시키고 지탱하는 언어 외적 맥락이 떠오를 수 있다.²¹⁾ 이처럼 주체와 불가분한 조건, 즉 상이한 외적 맥락이 개입하는 언어는 근본적으로 ‘불투명’하며, 실재로서의 세계를 반영하는 ‘매개체’라기보다 주체가 만들어낸 세계상을 반영하는 ‘투사체’라 기술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넬슨 굤맨은 예술의 기능인 표상(representation)이 대상을 모방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을 분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표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해석을 투사하여 대상을 선택·식별·분류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에 관한 상(像)을 구성해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상의 핵심 기능은 모사가 아니라 지칭(denote)이 된다.²²⁾ 표상할 때마다 우리는 세계

20) 신지연,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 2007, 27면.

21) 이효덕은 ‘표상’을 “어떤 실재를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재현전화(再現前化)한 것”이라 정의함으로써 표상 작용의 ‘심리학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론적으로 세계를 투명하게 매개하는 ‘재현’이 보편적·독립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면, 표상은 그것을 성립 가능케 하는 사회적 맥락(주체가 표상을 위해 동원하는 사회문화적 코드, 표상을 유통하고 순환시키는 시스템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가 그러한 맥락 속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상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면 표상도 변화한다. - 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박성관 역, 소명, 2002, 19면.

22) 김희정, 『굤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90-91면.

에 관한 어떤 해석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의 한 판본을 창조해내는 것이다.²³⁾ 군맨은 이처럼 표상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상을 '세계 기호판(world visions)'이라고 불렀다.²⁴⁾

선악의 기호 쌍을 사용하여 주체가 세계를 표상한다고 할 때, 이 주체는 표상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간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근대 문화에서 선악의 분간은 그 표면 상 보편적 초월자·초월적 원리에 기탁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초월자에 의해 이미 분간되어 있는 선악은 개별 주체에게는 선형적 체계로 주어진다. 전근대 문학에서 인물이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기 보다, 기존에 합의된 선악을 바르게 인식하고 따르는 문제가 주된 테마로 나타나는 점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전근대·근대 초기 소설이 주로 '선인(주인공)'과 '악인'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형상(figure)을 통하여 선악을 표상하는 방식, 이로써 선악이 충돌하는 장(場)을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는 방식 등에는 선악을 개별 인간과 분리된 선형적 체계로 간주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선악이 '주어진 것'일 때, 인물은 주로 그것에 대한 순종 혹은 반발의 프레임 속에서 형상화된다.

전근대와 근대의 결정적 차이는 표면적으로도 선악 분간의 자리가 초월자가 아닌 인간에게 양도되었다는 데에서 촉발된다. 세계 내 고유의 위치에 선 인간들이 '하늘'과 같은 초월자를 경유하지 않고 그 특수성을 직접 노출시킴에 따라, 신분, 계층, 직업, 성(性), 나이와 같은 집단적 표지는 물론 개인사에서 비롯된 개인적 표지들이 선악의 표상에 개입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분기점은 순종과 반발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이 선악의 체계 자체를 스스로 구성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23) 넬슨 군맨, 『예술의 언어들』, 김혜숙·김혜련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7면.

24) 김희정, 앞의 책, 18면.

우리가 신소설이 창조한 세계 기호판에서 읽어낼 수 있는 문제성은 이러한 지점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신소설은 대상의 역사(‘무엇을 말하는가’)와 스타일의 역사(‘그것은 어떻게 말해지는가’)를 매개하는 예술 형식으로서, 근대 전환기에 무엇이 출현·변화·소멸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특수한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예술 형식에서 대상(subject)을 그것이 말해지는 방식(style)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다.²⁵⁾ 이는 본 논의가 사회학적 접근과 문학사적 접근의 혼재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한다.

신소설이 ‘악’의 표상을 통해 말한 대상에 관한 분석은 근대 전환기 긍정적/부정적 가치의 구조 재편 과정을 조망하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 주로 대상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악’의 표상을 다룬 것은 3장과 4장이다. 한편 이전의 소설과 이후의 소설을 매개하는 스타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보다 문학사적인 태도로 ‘악’의 표상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관심사는 말하는 방식의 변화가 어떤 대상의 발견을 촉진했나라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관심이 중점적으로 드러난 것은 2장과 5장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전환기 긍정적·부정적 가치를 둘러싼 인식의 변동과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의 구조’²⁶⁾에 일어난 변화를 가늠하는 한편으로, 신소설이 전근대 소설과 근대 소설을 연결하는 독특한 경로를 발견해보이고자 한다.

② 신소설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에서 선악 기호 쌍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신소설이 전근대 소설 특유의 구성(composition)과 강조(weighting) 방식을 계승했다는 점을 보여준다.²⁷⁾ “문학은

25) Nelson Goodman,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8, 24-27면.

26) 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93면.

27) 굴뎨는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볼 것을 제안했다. ①구성

진보도 발달도 하지 않는다”²⁸⁾고 말하며 문학의 선형적 발전을 부정하는 노드롭 프라이는 “문학의 모든 형식은 계통(pedigree)이 있고,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은 그에 선행하는 문학에 대한 경험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다—이것이 작가에게 관습(convention)이라는, 전형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글 쓰는 방식을 제공해준다”²⁹⁾고 통찰했던 바 있다.

프라이는 “문학이란 문학 그 자체에서만 그 형식이 기원할 수 있다”³⁰⁾고까지 말하면서 문학 ‘발생’을 둘러싼 관습의 압력을 강조했다. 신소설의 인물형과 서사구조에 관해서는 그의 통찰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근대 소설의 전형적 인물형인 ‘선인’과 ‘악인’은 이들이 서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기대되는’ 결말까지 결정된 견고한 서사구조에 기입되어 있으며, 이 서사구조에는 선악에 관한 당시의 인식이 투사되어 있다. 이는 신소설에 압력을 가한 ‘관습’의 정체에 해당하는 바, 신소설의 토대로서 전근대 소설이 구축한 관습을 선악 표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소설이 물려받은 ‘관습’의 정체와 존재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근대 초기까지 지속된 전근대 선악의 의미망을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여 성립된 복선화음(福善禍淫)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먼저 전근대 사상·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유교·불교·도교에 나타난 악의 의미망을 살펴 악에 관한 전근대적 인식의 요체를 밝히고, 근대 초기 대중매체에 쓰인 악의 의미망을 함께 살핌으로써

(composition)과 해체(decomposition), ②강조(weighting), ③배열(ordering), ④삭제(deletion)와 보충(supplementation), ⑤변형(deformation)이 그것이다.(Nelson Goodman,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8, 7-17면) 군맨의 개념을 빌렸을 때, 전근대 소설에서 선악 대립이 두드러진다는 특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두 개로 이뤄진 기호 쌍은 세계를 이원론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둘째, 선악이라는 기호 쌍은 세계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간략히 말하여 신소설은 이 ‘구성’과 ‘강조’를 계승하면서, 그 내면에 관해서는 ‘삭제’와 ‘보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28) 노드롭 프라이,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이상우 역, 집문당, 1987, 22면.

29) 위의 책, 33면.

30) 위의 책, 36면.

전근대·근대 초기에 나타난 ‘악’의 의미론적 핵심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악’을 대하는 특수한 미학적 태도가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이며 한다. 또한 복선화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소설이 전근대 소설과 공유하는 스타일의 요체를 밝힘으로써, 그 계승과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대한제국기 신소설을 중심으로 근대 전환기에 새로이 발견된 ‘악’의 대상을 살펴보려 한다. 사회 질서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초월적 주체가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촉발된 ‘탈신성화’는 근대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주권이 신성(神性)하다는 중세적 관념을 부정하면서 국가 존립근거를 인민의 ‘사회계약’에서 찾는 사회계약론적 사고가 탄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사회계약론적 사고의 핵심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선(common good)³¹⁾을 욕망하기 때문에 상호 계약을 맺고 국가에 권리를 위임한다는 발상에 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의 욕망을 공동선을 향해 정향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social force)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사회적 힘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위’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³²⁾

이처럼 ‘권위’에 기초하여 공동선의 내용을 규정하고 개인의 욕망을 정향시키는 ‘사회적 힘’은 본질적으로 ‘담론’³³⁾에서 유래하는 것

31) 공동선은 특히 정치사회의 공동의 선을 가리킨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치와 법의 주요 목적을 공동선의 추구로 정식화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공동선은 평화와 질서의 유지,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위, 시민적 덕성의 육성, 범죄 등의 제거 등을 포함한다. 공동선은 정치사회 각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해되었다. 이후 공동선의 개념은 서구에서 ‘공익(公益)’, ‘공공복지(公共福祉)’ 등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근대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계보로 이어졌다.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32) Nancy 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2-33면.

33) 문학 연구에서 ‘담론’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가 산출되는 사회적·정치적 담론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언어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담론은 특수한 맥락 속에 존재하며,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담론양식인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이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문화적 담론과의 특수한 맥락

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전 방면에 걸쳐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영향을 행사했던 시기에 안정되었던 전통적 공동선의 내용은 다양한 맥락에 접속된 담론들이 출현한 근대 초기에 이르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1910년 강제병합에 이르는 시기는 신문, 학회지, 교과서, 신소설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쇄매체들로 이루어진 ‘담론 생산의 장’에서 다양한 제도와 관념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한국 근대의 ‘기원의 시공간’이라고 말해진다.³⁴⁾ 여기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문명, 야만, 교육, 식산(殖産), 개화, 개혁, 위생, 민족, 자조(自助), 민권(民權), 사회, 국가, 민족 등의 키워드를 가진 각양각색의 담론들이 비록 세부에서는 상충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민족·국민-국가’³⁵⁾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내셔널리즘적 열망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1900년대 신소설이 발견한 대상은 내셔널리즘적 열망 아래 정당화된 모든 새로운 시도들과 관계되어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어떤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론은 사회의 갈등과 투쟁양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형성에 재참여하며 의미를 구성·변용해나가는 작용을 한다.(이진우 외,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 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철학연구』 56, 대한철학회, 1996, 279-282면) 본 논의에서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담론’을 사용한다.

34) 고미숙 외,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4면.

35) 어니스트 겔너가 내린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 또는 문화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강상중, 『내셔널리즘』, 임성모 역, 이산, 2004, 25면)라는 정의가 내셔널리즘의 핵심이라 할 때, 그 목표인 네이션-국가(nation-state)의 기체(基體)인 nation은 ①자생적 공동체로 나타나는 동시에 ②작위적인 추상적 통일체로도 간주되는 이중적 개념으로 나타난다.(같은 책, 31면) 우리말에서 nation의 두 가지 역어인 ‘민족’과 ‘국민’은 각각 ①과 ②의 범주를 가리킨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도 ‘독립’의 주체는 네이션-국가로 상정되었으나, ‘네이션’은 ‘국민’, ‘민족’, ‘인민’ 등 서로 다른 말들을 통해 호명되었고 이 사용은 결코 안정되지 않았다. 자생성·자연성을 강조하는 ‘민족’이라는 어휘가 일반화된 것은 1905년 이후 국가 독립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부터의 일이며, 강제병합 이후 ‘국가’와는 별개로 공동체의 ‘정신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휘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405-407면)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nation-state의 역어로 ‘민족·국민-국가’를 썼으며, 이후 문맥에 따라 ‘민족’과 ‘국민’을 별개로 사용한다.

위치에 선 주체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공동선으로 정당화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을 ‘악’으로 규정·설득하는 과정을 국가와 국민의 명분을 빌려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 ‘악’의 표상은 당시 공동선의 내용 규정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담론 투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근대 초기에 출현한 담론들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화·계몽 담론, 국민 담론, 교육 담론 등 새로운 세계상을 적극적으로 구상해나간 다양한 담론들과 신소설이 접촉한 결과 나타난 ‘이기주의’, ‘이기심’, ‘완고’ 등이 주 분석 대상이다.

4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신소설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 체제 하에서 분기하는 ‘악’의 표상을 살펴보려 한다. 1910년대 신소설이 발견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1900년대적 대상과 성질을 달리 한다. 1900년대에 출현한 담론들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국민(nation)’을 만들어내려는 열망이다. 그러나 발화자·수신자의 고유한 위치에서 비롯한 ‘차이’의 지표들이 ‘국민’이라는 말로 상상되는 균질한 집단적 정체성 속에서 실제로 용해되는 경험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국민’을 소환하는 각종 담론들은 은연 중 지식층과 대중의 관계를 중세적 신분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계적 관계로 표상한다. 하지만 1910년 강제병합과 함께 근대 국가 체제가 성립되자 내셔널리즘적 열망 속에서 이상으로만 존재했던 ‘국민’은 강제로 실체화되었다. 다만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층이 각자의 이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우열을 가를 수 있는 가상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근대 국가가 통치해야 할 물질적 대상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1900년대에 호명된 ‘국민’이 독립과 부국강병의 역할을 부여 받은 주체로 상상되었다면, 1910년대의 ‘국민’은 신분, 계급 등의 지표가 모두 용해된 균질적 피치체로서, 즉 통치의 객체로서 나타났다고도 말할 수 있다.

폭력 독점으로 정의되는 근대 국가 체제의 성립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국에서는 근대 국가가 곧 식민국가(제국)였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근대 국가가 수행하는 통치는 흔히 ‘법의 지배’라 표현되곤 한다. 이 통치는 인정투쟁적 열망으로 추동되는 ‘담론의 지배’와 대조적으로 일원적인 것, 투명하고 위압적인 것, 물질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감각된다. 신분, 계층, 성, 나이 등 발화자 각각의 다양한 지표가 개입해 들어간 1900년대적 ‘악’의 표상은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다는 의미에서 두꺼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10년대 신소설에서 부각되는 것은 법의 지배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납작한 ‘악’의 표상이다. 법의 부재인 무법과 법으로부터의 이탈인 범죄가 그것이다.

1900년대적 ‘악’의 표상을 통해 주로 수행되는 것은 예컨대 〈국가를 위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와 같이 개별적 악행·악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추상적 관념이나 의도를 ‘악’으로 규정하려는 ‘해석’이다. 반면 무법과 범죄의 경우, 배후적 관념으로서의 악에 대한 해석은 요구되지 않는다. 행동의 배후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 법을 위반하고 통치를 교란하는 구체적 행동들의 집합이 악의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0년대적 ‘악’의 표상에서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비슷한 것을 말하는 다른 방식—체제를 내재화하는 태도와 체제를 상대화하는 태도의 분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이 분기는 1910년대적 법의 지배가 식민지-법의 지배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담론이나 체제라는 말로 기술한 데서 알 수 있듯, 대개 신소설에서 선악을 분간하는 ‘권위’는 개별 인간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적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하늘’과 같은 초월자 혹은 ‘국가’, ‘국민’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선악의 체계는 개별 인간에게 내면화된다. 그런데 인물이 내면화된 외부 질서·윤리에 준거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려 하는 양상이 근대 초기 몇몇 작품에서 징후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설 내에서 인물이 개별적 주체성을 확장하기 시작한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방식(style)에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인간의 자유, 의지, 욕망, 이성, 감정과 같은 새로운 대상의 발견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스타일상의 어떤 차이들은 전적으로 ‘말해지는 것’의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다”³⁶⁾는 점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이 변화는 악이 선과의 대조라는 대대적(對對的) 관계에서 탈각하여 표상되는 양상을 통해 감지된다. 선악 기호 쌍의 의미론적 양극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장에 비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악이 선의 대립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하여 악이 그 자체로 탐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텍스트의 역점은 악의 내용을 규정·설득·제시하기로부터 악의 현상에 내재된 역학을 드러내는 데로 옮겨간다. 악을 행하는 인물의 심리·감정·생각과 관계된 ‘내면’으로부터 접근하여 악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이 이행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악’의 표상은 이후 시대에 출현할 ‘광기’나 ‘정신적 이상성’과 같이 자율적·독립적 성격을 지닌 ‘현대적’ 악의 표상의 성립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소설이 이후 소설과 연결되는 독특한 경로를 노출시킨다.³⁷⁾ 이러한 맥락에 있는 ‘악’의 표상을 5장에서 고찰하려 한다.

36) Nelson Goodman, 앞의 책, 25면.

37) 이재선은 1920년대 소설부터 광기와 정신적 이상성이 뚜렷한 모티프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본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광기나 정신적 이상성은 정상(正常)-비정상(非正常)이라는 의미론적 양극 관계 속에서 포착된 것으로, 심리학·의학·생리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도입으로 인해 일어난 긍정적 가치-부정적 가치의 구조 재편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소설의 역점은 ‘비정상’을 식별해내고 ‘정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 자체를 해부하여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반항 혹은 천재성 등을 발견함으로써 부정성을 ‘긍정’하려는 시도에 놓여 있다.(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48-53면을 참고) 이와 같은 표상 방식의 역전은 지향해야 할 긍정적 가치(선)-식별·배제해야 할 부정적 가치(악)라는 양극적 관계로부터 탈각하여 악이 그 자체로서 탐구되기 시작했던 신소설 단계를 생략한다면 ‘돌출’이나 ‘이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수밖에 없다.

Ⅱ. 근대 이전 선악의 의미와 그 서사적 표현

1. 선악 개념의 두 층위: 철학과 문화

전근대·근대 초기 서사가 악을 규정하고 형상화하는 특수한 방식은 일차적으로 전근대의 사상적·문화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교와 함께 전근대 한국 문화의 근간을 형성했던 불교·도교가 이 토대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를 통과하며 선악의 내용과 형식에 일어난 ‘근대적’ 변화는 간단히 말하여 이 ‘전통’과 기독교, 민족주의, 계몽주의와 같은 신생 사상·문화·담론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악 표상에서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요소와 ‘변화하는’ 요소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근대적 토대에 나타난 선악의 의미와 쓰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난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선악이라는 말에 층위가 존재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글턴은 악(evil)에 관하여 논하면서 쇼펜하우어의 논의를 빌려 ‘선함(the good)’과 ‘선하지 않음(the bad)’와 ‘악(the evil)’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인간의 이기적 행동은 대개 ‘선하지 않음’으로 분류된다. 진정한 ‘악(the evil)’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목적도 없이 악 자체를 위하여 악을 원하는’ 근본악적 본질이기 때문이다.³⁸⁾ 이글턴의 논의를 받은 강상중도 돈이나 감정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범죄와 같은 ‘통속적이고 진부한 악’과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는 동기를 통해 드러나는 ‘불가해한 악’을 구분하였다.³⁹⁾ 논의의 결은 다르지만, 두 논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려는 바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분쟁으로 설명되는 수준의 악과 이러

38) 테리 이글턴, 『악-우리 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오수원 역, 이매진, 2015, 134-135면.

39) 강상중,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노수경 역, 사계절, 2017, 30면.

한 설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심층적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악에 관하여 전자가 사회학적 차원을 열어준다면, 후자는 철학적 차원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의 차원과 관념의 차원을 구분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악의 전근대적 토대를 고찰하려는 본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선악의 형성 토대를 두 개 층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보다 명징한 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본 절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각각 독자적 세계관을 표방하는 체계적 사상으로 발전해 온 철학적 층위와, 오랜 시간 한국적 삶의 방식에 공동으로 관여해 온 문화적 층위를 나누어 접근하려 한다.

이처럼 토대의 층위와 구역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층위와 문화적 층위를 매개하는 기호로서 선악은 전자에서는 구성력을 가진 개념으로, 후자에서는 다수의 사회적 삶을 통어하는 코드로 달리 기능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철학적 층위에서 볼 때, 유·불·도 각각의 맥락에서 선악은 상이한 의미와 쓰임을 부수하고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적 층위에는 이러한 철학적 차이들을 수렴시키는 선악에 관한 공통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전근대적 토대의 철학적 층위에 나타난 선악의 의미와 쓰임을 고찰한 후, 문화적 층위에서 이 철학적 차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되는지를 보이려 한다. 이와 함께 근대 초기 미디어에 나타난 악의 용례를 아울러 살펴으로써, 이 문화적 공통 구조가 전근대와 근대를 매개하며 신소설에 영향을 미친 ‘지속적인 것’의 핵심임을 보이려고 한다.

1.1. 유교·불교·도교 사상에서의 선악

유교·불교·도교적 사유에 나타난 각 선악의 차이는 그 관계성에

주목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큰 차이는 유교에서 선악이 체계적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반면 불교와 도교에서는 동등선상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선악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선악이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도교에서 선악은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교적 사유에서 악의 위상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실질에 따른다면 선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선이다. 불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수오지심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공경지심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오지심은 의이며, 공경지심은 예이고, 시비지심은 지이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라고 말했다.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품격의) 차이가 두 배, 다섯 배, 심지어 셀 수 없게 나는 것은 그 타고난 재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못 백성을 생육하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품덕을 좋아한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칙이 있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품덕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舍則失矣.’ 或相倍蓰而無算者，不能盡其才者也. 詩曰：‘天生蒸民，有物有則. 民之秉彝，好是懿德.’ 孔子曰：‘爲此詩者，其知道乎! 故有物必有則，民之秉彝也，故好是懿德.’”⁴⁰⁾

(나)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敬志於仁矣，無惡也.)⁴¹⁾

(가)와 (나)는 각각 『맹자』 「고자(告者)」 편과 『논어』 「이인(里仁)」 편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위에서 보이듯 『논어』와 『맹자』에서는 악(惡)이 선(善)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는 상태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악이 미(美)와 대립하는 추(醜)의 의미로 새겨지거나 ‘미워하다’의 의미인 오(惡)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반면, 선과 대립하는 것은 대개 불선(不善)이라 표현된다. 이는 유교 사유 체계에서 선과 악이 위계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기호라는 점을 암시한다.

인간의 본성을 인(仁)(『논어』) = 선(善)(『맹자』)으로 규정하는 유교 사유 체계에서, 악은 선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선에 종속된 변수로 나타난다.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인 = 선이 실현된 자리에는 악이 사라지고, 인 = 선이 ‘버려진’ 자리에는 악이 나타난다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가)는 선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선에의 지향은 본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지향을 충실히 따라갈 때 인간이 행하는 악을 ‘없앨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여기서 악은 타고난 선을 확충하려는 ‘법칙’을 따르지 못한 결과로, 인간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은 선이 확충된다면 일소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선악 간의 위계 관계는 선이 본성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 전제는 도덕형이상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유교

40)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맹자』, 민음사, 2016, 381-383면.

41)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논어』, 민음사, 2016, 85면.

적 사유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몽배원에 따르면 유교적 사유는 이기론에 근간을 둔 심성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리학적 개념체계는 자연의 생성과 발전 원리를 탐구하는 우주론과 세계 근원, 제1원리 등을 탐구하는 본체론을 논하는 이기론(理氣論)에서 출발한다. 이 때 이(理)는 자연법칙이자 자연원리라는 의미로 보편성과 초월성을 가진 것이며, 기(氣)는 물질적 실체를 의미한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차츰 이(理)를 실체화·절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이(理)가 본체론적 존재로 사유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이 본체론적 존재로서의 이가 ‘지극히 선한 도리’라 말해진다.⁴²⁾

이후 우주·자연에서 인간으로 철학의 관심이 옮겨지면서 이기론은 심성론(心性論)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유교 사유 체계에서는 공자·맹자에서 시작하여 『대학(大學)』·『중용(中庸)』을 거치면서 심성론의 전통이 공고히 형성되었는데, 이 전통에서 이(理)는 성(性)의 근원으로 설명된다. 우주의 보편적·초월적 원리로서 이(理)에는 두 가지 구체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물리(物理), 즉 사물의 이치로 우주론에서 말하는 소이연자(所以然者)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가 성리(性理), 즉 인륜의 이치로 인성론에서 말하는 소당연자(所當然者)에 해당한다. 성리학은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하여 사유하려 하였는데, 역점을 물리가 아니라 성리의 탐구에 둔 탓에 그 결합 양상은 물리를 성리로 귀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리학적 개념체계에서 진리론과 가치론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⁴³⁾

리(理)는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인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가 객관적 자연법칙과 규율로만 존재하면서 인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일 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선악의 의미는 없다. 다만

42) 몽배원(蒙培元),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 외 역, 예문서원, 2008, 21-23면.

43) 위의 책, 344-347면.

그 리가 변화되어 사람의 인성으로 내재할 때에만 비로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⁴⁴⁾

위와 같은 심성론적 이해에 따르면 “이(理)는 본디 선하고 악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부여받아 성(性)이 되는 바, 또한 본디 선할 뿐 악함이 없다.”⁴⁵⁾ 그러나 사람의 성(性)이 이(理)로부터 얻어진 반면 몸은 기(氣)로부터 얻어지며, 기(氣)에는 선악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선(不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⁴⁶⁾

한편 ‘심(心)’은 이(理:본성)와 기(氣:몸)가 합하여 만들어진 ‘한 몸의 주재’라고 말해진다.⁴⁷⁾ 심에는 두 가지 함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인식, 지각, 사려 등 인식의 기능과 작용을 가리키는 지각영명(知覺靈明)의 심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내재적 도덕본능이나 도덕정감을 가리키는 의리지심(義理之心), 본심(本心), 양심(良心)이다.⁴⁸⁾ 양지(良知), 양능(良能)이라고도 말해지는 양심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정감이 일체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⁴⁹⁾ 이러한 논리상에서 선의 실천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유래한 ‘당연한 것(所當然者)’으로, 온전한 ‘심’을

44) 위의 책, 360면.

45) 진순(陳淳),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북계 진순의 『성리자의(性理字義)』 완역』, 박원식 역, 여강출판사, 1993, 43면. 『성리자의』는 주희의 제자 진순의 강학을 정리한 책으로 성리학 입문서이자 사서(四書)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이 책은 주자학과 함께 조선에 전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15-16세기 일본으로 전해진 후 조선에서는 사라졌다고 한다.

46) 위의 책, 51면.

47) 위의 책, 50면.

48) 몽배원, 앞의 책, 347면.

49) 이혜경, 「왕수인의 ‘양심’」, 『양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63면; 공맹유학에서 도덕감정은 구체지(具體知)의 요소이자 실천 동기의 원천으로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주체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기체다. 공맹유학의 관점에서 목자의 겸애론과 같이 도덕 감정을 배제하는 보편주의적 도덕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구체지)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공허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 정용환, 「공맹유학의 도덕 감정론」, 『철학연구』 128, 대한철학회, 2013, 246-247면.

가진 ‘인간다움’을 증거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반대로 현실에 만연한 악의 현상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인간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유교적 사유에서 선은 ‘배워서 아는 것(學)’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논어』는 “자기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인(仁)하게 된다(克己復禮爲仁)”⁵⁰⁾고 하여 인의 실현에 예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이 때 예란 주체가 본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사욕(私慾)을 가려내기 위해 참고할 기준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객관적 도덕규범을 말한다.⁵¹⁾

다시 말해 예에 따르면 먼저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논어』에서 학(學)은 깨닫거나 본받아 새롭게 배우는 것, 습(習)은 이렇게 안 것을 반복해 익혀 잊어버리지 않음을 뜻한다고 한다. 이 때 학과 습의 대상은 ‘사람 되는 도리’,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이며, 이는 객관적 도덕규범인 예악에 의해 주어져 있는 것이다.⁵²⁾ 이러한 논리상에서 악의 현상은 ‘배우고 익히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유교적 사유에서 악은 선에 종속된 변수이자 ‘인간답지 못한’ 열등한 상태를 암시하는 자질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유교 사유 체계에서 선은 자신의 인간성을 완성하고 나아가 도학적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전면에 내세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불교와 도교 사유 체계에서 정점에 위치한 것은 ‘깨달음’의 문제로, 선악은 깨달음/미혹의 구도에 부속된 부차적 위상을 차지한다.

베르나르 포르에 의하면 불교는 기원전 5세기 경 북인도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소승(小乘)·대승(大乘)의 양대 전통으로 나뉘었으며, 중국·한국·일본 등지에는 주로 대승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한

50)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논어』, 민음사, 2016, 249면.

51) 위의 책, 251면.

52) 위의 책, 22-23면.

다.⁵³⁾ 인도와 아시아 일대에서 크게 번성한 불교의 교리는 분파, 지역,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이지만, 초기 불교에서 확립된 사성제(四聖諦)가 불교적 사유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성제는 현재의 삶을 고통이라 보는 고제(苦諦), 고통의 원인인 집제(集諦),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멸제(滅諦), 고통을 소멸하는 길인 도제(道諦)를 말한다.

첫번째 진리는 고(苦)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태어남이 고이며, 늙는 것이 고이며, 병드는 것이 고이며, 죽는 것이 고이다. (중략) 다섯 가지 집착의 대상, 즉 오온(五蘊)이 고이다.

두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친다. 고통의 원인인 갈망은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를 이끌며 쾌락과 욕망을 동반한다. 이 갈망은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쾌락에 대한 갈망과 존재에 대한 갈망이다.

세번째 진리는 완전한 욕망의 해체를 통해 고통을 멸할 것에 대해 가르친다. 모든 욕망과 고통이 사라진 것을 니르바나라고 한다.

네번째 진리는 이러한 고통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가르친다. 팔정도는 불교적 수행 체계 혹은 ‘수행의 교리’를 구성한다. 팔정도의 요체는 붓다가 중도로써 정の内렸는데, 중도란 감각적 쾌락과 고행과 같은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그 여덟 가지 길은 계(戒), 정(定), 혜(慧)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⁵⁴⁾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니르바나(涅槃)란 붓다가 도달한 궁극적 경지를 일컫는 말로, 생사의 반복을 의미하는 삼사라(輪廻)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런데 소승불교에서 니르바나가 모든 욕망이

53) 베르나르 포르,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김수정 역, 그린비, 2011, 16-21면.

54) 위의 책, 66-67면.

소멸된 순수한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 니르바나는 ‘깨달음(bodhi)’을 얻어 붓다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깨달음’이란 미혹으로 인해 갖게 되었던 거짓된 이해를 없앴으로써 얻게 되는 최고의 행복감을 말한다.⁵⁵⁾ 본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깨달음 혹은 니르바나의 의미가 변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이다. 불교적 수행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고(苦)로부터의 해탈이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 상태에서 집착(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미혹된 존재’로부터 ‘깨달음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시된다.⁵⁶⁾

불교적 사유에서 고(苦)는 윤회적 실존인 ‘중생(衆生)’을 특징짓는다. 인도 소승불교 계열 경전인 『구사론』에 의하면 중생은 깨달음을 얻어 번뇌와 업이 소멸할 때까지 3계(欲界·色界·無色界)와 5취(지옥·아귀·축생·인간·천신)를 오가며 생사를 반복한다고 한다. 그리고 중생이 겪는 이러한 고통은 번뇌가 조건이 되고 업이 인(因)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라 설명된다. 윤회의 조건을 설명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선악은 선인낙과(善人樂果), 악인고과(惡人苦果)라는 업(業, karma)과 인과의 체계에 속한 기호로 나타난다.⁵⁷⁾

업은 동아시아에 불교가 수용될 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교리였다. 업이 기존의 세계관과 불교적 사유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업은 ‘하늘(天)’이 인간의 운명을 주재한다고 여기던 기존의 세계관에 큰 충격을 가했다. 인간이 서로 다른 업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인과의 논리는 하늘이 아니라 인간을 운명의 주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⁵⁸⁾ 이처럼 윤회를 설명하는 업의 체계 속에서, 선과 악은 각각 낙(樂)과 고(苦)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들인 과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55) 위의 책, 42-43면.

56) 요코야마 고이츠, 『불교의 마음사상』, 김용환·유리 역, 산지니, 2013, 16-17면; 176면.

57) 이지수, 『인도 불교철학의 원전적 연구』, 여래, 2014, 40-41면.

5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편, 『테마 한국불교 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3, 104-105면.

대립적 개념 쌍으로 나타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자취처럼.(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惡 卽言卽行 罪苦自追 車轍于轍)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卽言卽行 福樂自追 如影隨形)⁵⁹⁾

대체로 불교적 사유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형태에서만 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⁶⁰⁾ 따라서 업의 인인 선악도 중생의 여러 존재 형태 중 특히 인간과 관련된 개념으로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은 『법구경(法句經)』⁶¹⁾ 1장 「쌍서품(雙敍品)」의 일부분으로, 선과 악의 대(對)가 있음을 밝히는 첫 대목이다. 이 구절에서는 불교적 선악이 특히 인간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업에는 몸·입·마음(身·口·意)으로 짓는 3업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 중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속의 의도·동기인 의업으로, 신·구업은 의업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이해된다.⁶²⁾ 다시 말해 불교적

59) 김달진 역주, 『법구경』, 문학동네, 2005, 14-15면.

60) 베르나르 포르, 앞의 책, 69면.

61) 불교 경전은 율장(律藏), 경장(經藏), 논장(論藏)의 3장으로 나뉜다. 율장은 붓다가 만든 승단의 계율에 관한 문헌, 논장은 불교 교리에 대한 조직적 해설이며 경장은 3장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전군으로 다시 5개 모음집으로 분류된다. 『법구경(Dhammapada)』은 경장에 속한 경전으로 붓다가 생전에 남긴 진리의 말씀을 4행시 형태로 모은 선집이다.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중 하나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팔만대장경의 입문서 역할을 하는 책이다.(진재성 역주, 『법구경-담마파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8, 11-14면) 『법구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다음 페이지에 인용한 183 계송이다.

62) 이지수, 앞의 책, 41면.

사유에서 선악을 분간하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동기로서, 만일 동기가 선하다면 행위가 나쁜 것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⁶³⁾ 이러한 의미에서 선악은 각각 서로 다른 결과를 부르는 대립적 인(因)이면서, 인간 마음의 측면에서 대(對)가 되는 기호 쌍으로 나타난다.

인과의 논리상에서 보면 악은 고(苦)를 불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 선은 낙(樂)을 불러오기 때문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은 낙을 향유하려는 이기적 욕망을 넘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나타난다. 선의 실천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⁶⁴⁾

『법구경』의 위 구절에서 보이듯, 선의 실천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 중 선의 실천은 부처의 계율에 따른다는 계(戒)의 범주에 귀속된다.

특이한 점은 이 때 선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로 규정되는 양상이다. 세속의 중생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란 살생(殺生), 투도(偷盜), 사음(邪淫) 망어(妄語), 음주(飲酒)를 금지한 오계(五戒)의 위반으로 규정되며, 실제에서는 앞서 말한 3업이 구체화된 10악으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이 때 선이란 오계에 따르고 10악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청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구성된다. 즉 이러한 선에서는 적극적 이타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불교적 선의 의미망에서 이타주의가 도드라지는 국면은 대승불교

63) 베르나르 포르, 앞의 책, 141면.

64) 김달진 역주, 앞의 책, 209면.

적 형상인 보살의 등장과 관계되어 있다.⁶⁵⁾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보살을 통해 ‘악을 없애고 선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이타행(利他行)이 중시되게 되었던 것이다.⁶⁶⁾ 이처럼 다른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고 중생을 구제하여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이타주의적 선과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이기주의적 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깨달음은 공덕(선) 자체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선악은 근본적으로 윤회를 지속하게 하는 업과 인과의 체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는 악업뿐 아니라 이기적 동기를 가진 선업조차도 벗어나야”⁶⁷⁾ 하는 것이다. 선에 대한 집착 역시 욕망이므로, 깨달음을 위해서는 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성(佛性)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⁶⁸⁾는 화엄경의 교리와, ‘악과 선이 함께 자성(自性)에 깃들여 상호의존하고 있으므로 악은 본질적으로 선하다(善惡不二)’⁶⁹⁾는 선종의 교리는 표면 상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모두 불교 사유 체계 내에서 선악이 차지하고

65)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시기에 타인의 해탈구제를 목적으로 발흥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이해된다. 대승불교의 사상은 크게 『반야경』에 근거한 ‘공(空)’ 사상과 『해심밀경』 등에 근거한 ‘유식(唯識)’ 사상으로 분류된다. - 요코야마 고이츠, 앞의 책, 33면.

6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사상개관』,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75-76면; 무비 스님, 『법화경 강의』 하, 불광출판사, 2008, 540-541면. 이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보살을 통해 공덕이 회향(回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과의 논리가 부서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악한 자라 하더라도 보살의 자비로 구제받으면 예정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67) 이지수, 앞의 책, 41면.

68) “혹은 선, 혹은 악이라 하는 것은 마음먹음에 따라 전(轉)한다. 그러므로 회전 선성이라 한다. 마음 외에 다른 경계란 없다. 그러므로 유심(唯心)이라 한다. (중략) 불성(佛性)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모두 유심이다.” - 지엄(智儼), 『화엄일승십현문(華嚴一乘十玄門)』, 『중국불교사상자료선편』 2, 홍문관출판사, 1985, 29면(송현주, 『과정신학과 화엄사상에서 ‘악’의 문제』, 『한국종교연구학회보』 3, 한국종교연구회, 1991, 7면에서 재인용).

69) 안옥선, 『불교의 ‘선악불이(善惡不二)’에 대한 이해-『육조단경』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4, 불교학연구회, 2006, 227면.

있는 부차적 위상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통한다. 바로 여기가 선(도덕)의 실천을 통해 도학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유교적 사유와 불교적 사유가 근본적으로 분기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깨달음을 정점에 둔 체계에서 선악이 부차적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도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불교적 사유에서 깨달음이 붓다의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면, 도교적 사유에서 깨달음, 즉 도의 인식은 “영원불변의 작용을 답습하고 체득하는”⁷⁰⁾ 것이다. 불교적 깨달음이 계·정·혜와 같은 수행을 요구하는 데 비해, 도의 체득은 그것을 목표로 수행하는 등의 인위(人爲)를 요구하지 않는 데서 그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유교·불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서도 보이는 경향이지만, 도교의 경우에는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老子)』·『장자(莊子)』를 기초로 형성된 철학적 사상으로서의 도가(道家)와 종교형태로서의 도교를 구분하는 경향이 유난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도가 철학과 도교 신앙 사이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가 철학과 도교 신앙의 핵심적 차이는 그 목표가 다르다는 데 있다. 도가 철학의 정점에 도(道)의 체득이 놓여 있다면, 도가 철학과 중국의 무속적 민간신앙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도교에서 수행의 목표는 장생불사(長生不死)에 있다.⁷¹⁾ 그러나 노자가 도교의 개조(開祖)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원시적 민중 도교의 대표 경전인 『태평경(太平經)』과 『상이주(想爾注)』 등이 노자 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도가 철학과 도교 교리는 연속적 사유 체계를 형성한다고 여겨진다.⁷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교적 사유에 나타난 선악의 기원은 노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 철학에서부터 가늠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70) 오오하마 아키라, 『노자의 철학』, 임현규 역, 인간사랑, 1992, 66면.

71) 윤찬원, 『도교 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24-25면.

72) 위의 책, 77면.

도가 철학의 정점에 있는 것은 도(道)와 자연(自然)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대개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여 그러함(自然而然)’이라는 술어적 개념으로 비교적 명징하게 해석되는 반면⁷³⁾, 도는 우주 만물의 본체이자 객관적 원리라는 형이상학적 해석부터 처신(處身)에 관계된 사회적 태도, 정치적 테크닉, 인간의 심리적 경지라는 실천철학적 해석까지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⁷⁴⁾

진고응은 『도덕경』에 나타난 도를 ①실존의 의미를 갖는 도, ②법칙성의 도, ③생활규범으로서의 도로 나누어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실체로서 도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도는 만물을 창조한 근원이자 만물을 생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초월하는 동시에 만물에 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실체로서의 도가 만물에 작용할 때에는 일종의 법칙성이 드러난다. 이 법칙성은 모든 현상이 상반대립 속에서 계속 변하며 전화하고, 또한 만물의 운동이 끝까지 나아가면 근본으로 돌아가며 순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만물 중 특히 인간 사이의 삶에 드러나는 도의 작용을 덕(德)이라고 부른다. 생활규범으로서의 도란 이 덕을 일컫는다.⁷⁵⁾

이와 같은 도 개념에 기초한 체계에서 선악은 도가 작용할 때 드러나는 법칙 속에서, 특히 인간의 덕이라는 견지에서 나타나는 부차적 개념이다. 그 의미와 쓰임이 잘 드러난 구절이 『도덕경(道德經)』 2장과 8장이다.

(가) 천하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으로만 다 안다면, 이것은 역겨운 추함일 뿐이다. 선(善)이 선이 되는 것으로만 다 안다면, 이것은 불선(不善)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

73) 유소감, 『노자철학-노자의 연대 고증과 텍스트 분석』, 김용섭 역, 청계, 2000, 120면.

74) 위의 책, 286-301면.

75) 진고응, 『노장신론』, 최진석 역, 소나무, 1997, 18-34면.

무는 **상생**(서로 공생함)하고, 난·이는 **상성**(서로 조성함)하며, 장·단은 **상형**(서로 형성함)하고, 고·하는 **상경**(서로 기울음)하며, 음·성은 **상화**(서로 조화함)하고, 전·후는 **상수**(서로 수반함)한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聲音相和. 前後相隨.)⁷⁶⁾

(나) 상선(上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선리(善利)케 하며 서로 다투지 않는다. 물은 못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마음이 물처럼 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땅과 사이좋게 지내고, 마음이 물처럼 되면 마음은 연못과 친하게 지내며, 마음이 물과 같이 되면 마음의 사طم은 인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마음이 물과 같이 되면 말은 신의와 친교하게 되며, 마음이 물과 같이 되면 정치는 다스려지는 백성들과 친교하게 되고, 마음이 물처럼 되면 마음의 일하기는 능력과 친교하게 되고, 마음이 물과 같이 되면 마음의 모든 움직임도 그 시절과 어기지 않고 잘 지낸다. 대저 물은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于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⁷⁷⁾

(가)에서 선·악, 미·추, 유·무, 전·후, 장·단, 고·하 등은 만물을 생성·변화시키는 상반대립의 법칙을 드러내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대립항을 가지며, 동시에 그 대립항을 근거로 해서만 서로 존재할 수 있다.⁷⁸⁾ 선악은 만물의 본

76)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58-59면. 이 구절에서는 악(惡)이 미(美)와 대조되는 자리에 쓰이고 선(善)이 불선(不善)과 대조되는 자리에 쓰이는 고전적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선과 악은 또한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善之與惡. 相去何若.)”(같은 책, 194면) 같은 구절을 나란히 두고 볼 때 알 수 있듯, 궁극적으로 미는 선과, 불선은 악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77) 위의 책, 116면.

78) 진교응은 『도덕경』 2장 앞부분을 “천하에서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까닭을 알면 이에 따라 추하다는 관념도 발생하게 된다. 모두 선이 선인 까닭

절인 상관론적 상대성이 드러나는 한 가지 양상일 뿐이므로, 선악에 따로따로 집착해서는 만물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배후의 원리인 도 역시 체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반대립의 상태는 화(禍)가 복(福)이 되고, 정상적인 것(正)이 기이한 것(奇)이 되고, 선한 것(善)이 요사스러운 것(祲)이 되는 것처럼 서로 전화(轉化)한다고 여겨진다.⁷⁹⁾ 지금 정상적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은 실제로는 기이한 것, 악한 것, 추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에 따라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8장은 도의 성격을 물에 비유하여 풀이한 구절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선(上善)은 앞서 말한 만물의 상반대립면으로서의 선·악을 초월한 것으로서, 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 이 구절은 특히 인간의 삶 속에 도가 잘 나타났을 때의 양상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에서 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利物) 서로 다투지 않으며(不爭) 낮은 곳에 처하는(居下) 것이라 말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의 작용은 ‘친교하게 된다’, ‘사이좋게 지낸다’, ‘잘 지낸다’는 자연스럽고 원만한 상태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노자가 논한 덕은 사회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질을 중심에 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⁸⁰⁾ 특히 다투지 않고 공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상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논해지는 데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도덕경』에서 덕의 자질은 ‘자애로움(慈)’·‘검약함(儉)’·‘감히 세상

을 알면 이에 따라 불선의 관념도 발생하게 된다.”(진고응, 앞의 책, 26면)고 해석하고 있어 본문에 사용한 김형효의 번역과 충돌한다. 2장 해당 부분 해석에 관련하여 본 논의는 진고응을 따른다. 다만 김형효의 번역에 만물의 상반대립면 사이의 상관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어 김형효의 번역을 인용했다.

79) 『도덕경』 58장의 “화여,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이여, 화가 앞드리고 있는 바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이 세상에는 정사(正邪)가 없는 것 같다. 정상적인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은 다시 요사스러운 것이 된다. 인간이 이런 대대법적인 도를 잃고 헤맨 적이 아주 오래 되었다.(禍兮福所倚, 福兮禍所伏. 孰知其極, 其無正邪. 正復爲奇, 善復爲祲. 人之迷也, 其日固久矣.)”(김형효, 앞의 책, 432면)라는 구절에서 상반되는 것이 전화한다는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80) 진고응, 앞의 책, 74면.

사람들보다 앞서지 않음(不敢爲天下先)’이라는 삼보(三寶)나 순박(淳朴)함, 허정(虛靜)함, 유약(柔弱)함, 취후(取後)함, 무사(無私)함 등으로 제시된다.⁸¹⁾ 이러한 자질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人倫)가 아니라, 도에 부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소용된다. “천도(天道)에서 인도(人道)를 연역해내는”⁸²⁾ 도가적 사유에서, 도로부터의 ‘얻음(得)’이라 설명되는 덕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은 ‘절대자유’라는 견지에서 이해된다.⁸³⁾ 즉 덕이란 “자연에 맡기는 태도”⁸⁴⁾를 갖추는 문제이다. 따라서 덕은 그대로 행했을 때 세상이 자연스럽고 원만하다는 결과로부터 거꾸로 증명되는 것이다. 반대로 덕을 잃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황폐해졌다는 결과로부터 증명된다.

최상의 덕은 무위하여 의도적인 마음이 없다. 최고의 인은 행하여도 의도적인 마음이 없다. 최고의 의는 행하면 의도적인 마음이 있다. 최고의 예는 행할 때 응해오지 않으며,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예를] 행하게 한다.(上德無爲而無以爲, 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중략) 그러므로 도가 없어진 뒤에 덕이 있게 되었고, 덕이 없어진 뒤에 인이 있게 되었다. 인이 없어진 뒤에 의가 있게 되었고, 의가 없어진 뒤에 예가 있게 되었다. 대저 예란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부족한 상태이며, 혼란의 시초이다.(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而亂之道.)⁸⁵⁾

도가 작용 그 자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도덕경』이 무위(無爲)를 강조하면서 유가적 도덕규범을 유위(有爲)라고 비판하는 논리를

81) 위의 책, 33-49면.

82) 위의 책, 7면.

83) 신순경, 「자연과 덕 그리고 인간-도·장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19, 새한철학회, 1999, 83면.

84) 유소감, 앞의 책, 126면.

85) 백서본 『도덕경』 38장.(위의 책, 147-148면에서 재인용)

이해할 수 있다. 『도덕경』은 도가 무지(無知)의 상태인 반면 인간의 지혜는 소지(小知)라고 여기는데⁸⁶⁾, 인의예는 바로 소지의 소산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기 때문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된다. 위 인용문에서 덕-인-의-예는 점차 하강하는 단계처럼 나타난다. 상덕이 ‘무위하여 의도적인 마음이 없는’ 것인 반면, 다음 수준인 상인은 ‘행하지만(=유위하지만) 의도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고, 상의는 ‘행할 뿐만 아니라 의도하는 바도 있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인 상례는 ‘행할 뿐만 아니라 남을 강압’하는 것이다.⁸⁷⁾ 덕 역시도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도 자체에 비해서는 ‘인위’적인 것인데, 인의예는 이 인위의 정도가 점차 심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뒤로 갈수록 도는 더욱 멀어져 세상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덕의 위계 속에서 선은 “하늘의 도는 친근하지 않아서 언제나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天道無親, 常與善人.)”⁸⁸⁾과 같은 구절에서처럼 상선일 때와 “만물 자연은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는다”⁸⁹⁾라는 해석에서처럼 하선(下善)일 때로 위계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악은 오로지 하선·하악의 상반대립 속에서만 나타나는 보다 하위적인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불·도 각각의 사유 체계에서 선악은 그 맥락에 따라 복잡한 의미망을 거느리고 나타난다. 그것은 우주가 운용되는 원리·법칙이거나 인간이 타고난 본성(性) 혹은 배양해야 하는 기질(氣)과 관련된 요소이기도 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복록과 재앙의 원인이자 삼세(三世)에 걸쳐 관철되는 초월적 섭리의 요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선악은 상이한 맥락 속에서 특수한 의미와 쓰임을 가지는 기호 쌍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별개의 구역에 적층된 선악의 의미나 쓰임이 어떠

86) 오오하마 아키라, 앞의 책, 47면.

87) 『도덕경』 79장.(유소감, 앞의 책, 148면에서 재인용)

88) 위의 책, 325면.

89) 이는 이식재가 『노자익』에서 주해한 것으로 김형효, 앞의 책, 71면에서 재인용했다.

한 실존도 없이 대중적 차원에 통용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설과 같이 대중적으로 향유된 문화 형식에서 우리가 더듬어볼 수 있는 것은 기원과 맥락을 간직한 투명한 개념의 체계가 아니다. 소설에서 선악은 의미의 파편을 둘러싼 정서나 '믿음'과 같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상(figure)을 통해 2차적으로 감지되는 범주다. 특히 고소설이나 신소설의 경우, 이 형상은 철학적 층위보다는 문화적 층위에 훨씬 가까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다음 항에서는 문화적 층위에서 형성된 선악에 관한 공통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1.2. 선악 표상의 사회성과 인과응보에의 믿음

철학적 층위에서 선악은 이상과 현실을 대조하고 그 차이를 식별하는 기호 쌍으로 기능한다. 선은 이상을 가정·상상하기 위한 범주로, 악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부분을 식별하기 위한 범주로 고안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전근대의 사상적·문화적 토대에서 추구된 이상은 도학(道學) 사회 구현과 같은 현실적·정치적 층위에서부터 열반·해탈이나 도의 체득과 같은 존재론적·관념적 층위에 걸쳐서 나타난다.⁹⁰⁾ 그리고 이 이상과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포착된 현실 속의 어떤 경험이나 현상들이 악이라 불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악은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거나 선과 적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90) 유가적 사유에는 존재론적·관념적 이상이, 불교·도교적 사유에는 현실적·정치적 이상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理)의 궁구, 불국토(佛國土)·정토(淨土) 구현, 분쟁 없이 평화롭고 자발적인 사회 풍토의 구현 등 각 사상은 그 발생·전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사회적 현실부터 존재론·우주론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는 이상을 제시했다. 다만 본 논문은 각 사유 체계의 강조점이 상이한 지점들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강조점들의 차이가 불교·도교가 허무주의적이라거나 유교가 보수주의적이라는 상이한 비판들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각 사유 체계에 따라 이상의 외연과 내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악 역시 이상의 실현을 위해 교화·제거해야할 대상,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속시켜 이상의 실현을 가로막는 원인, 이상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증명하는 지표 등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포착된다. 이러한 경우 이상이 성취된 상태는 지극히 선한 상태 혹은 선악의 분별을 초월한 상태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상이 성취되었을 때 악의 자리는 없어진다. 선은 이상 그 자체, 혹은 적어도 이상에 다가갈 수단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악은 상대적으로 현실에 못 박힌 개념으로 나타난다.

보다 정확히 말하여, 이상을 지향하는 움직임과 이에 못 미치는 현실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에 당위(當爲)의 뉘앙스를 씌워 표상할 때 소용된 것이 선악이라는 기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상을 제시하는 것과, 제시된 이상에의 지향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나타난다. 전근대적 사유에서 흔히 철학적 차원에 종교적 차원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은 후자에의 대응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악의 응보를 주재하는 초월자를 상정함으로써, 선의 추구하고 악의 거부하는 초월자에의 경외심, 복락(福樂)에 대한 희망과 재화(災禍)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비이성적’ 장치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문화의 층위에서 선악이 실천적 개념으로 통속화하면서 철학적 차이들을 흡수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한 시대에 특수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는 본질적으로 통속적이다.⁹¹⁾ 김기진

91) 본 논문은 시대, 지역, 세대, 성, 계층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는 특수한 집단적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영어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18세기-19세기 이전에는 본래 ‘자연스런 성장의 육성’을 의미했다고 한다. 근대에 보편화된 문화라는 말은 첫째로 인간의 완성이란 개념과 관련된 ‘정신의 보편적 상태 내지는 습성’, 둘째로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지성적 발전의 상태’, 셋째로 ‘예술의 총체’, 넷째로 ‘물질, 지성, 정신에 걸친 전반적 생활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네 번째 용법은 19세기 후반에 보편화되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화와 사회 1780-1950』, 나영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17-18면) 이 중 윌리엄스의 주요 논의에서 사용되는 ‘문화’는 사상적·감성적 반응을 포괄

은 ‘통속(通俗)’을 “보통인의 견문과 지식의 범위”⁹²⁾라는 말로 설명했던 바 있다. 물론 그는 유물사관을 갖추지 못한 ‘대중’의 취향을 경멸하는 어조로 통속성을 설명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핵심을 짚고 있다. 통속적이라는 말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한 평범하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통용됨을 일컫는다. 유물사관과 같은 특수한 사고방식이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하는 ‘대상’에 가까운 반면, 통속적인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동화될 수 있는 ‘환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선악에 관한 철학적 차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하강하며 상쇄·수렴되어 ‘보통인의 견문과 지식의 범위’에서 통용되는 ‘통속적’ 공통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선악은 구성력을 가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삶을 통어하는 코드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 이 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그 기원 상 외래적이었던 유교·불교·도교가 ‘한국화’하는 양상 속에서 선악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유교 문화에서 선악은 기성 사회윤리(=유교 윤리규범)에의 부합 여부에 따라 분간되는 범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정감의 경험을 도덕 내용으로 보고 그 보편성·초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선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한 맹자에게서 잘 드러난다. 맹자는 사

한 ‘전반적 생활방식’이라는 네 번째 용법에 가까우며, 특히 한 시대 특유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 예술은 ‘공통 경험의 감각을 재창조하는 수단’으로서, “‘창조적 행위’와 ‘삶의 전체적인 방식’이라는 문화의 두 가지 의미”(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81면)를 매개한다. 윌리엄스는 한 시대의 경험 속에는 모든 요소들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어떤 요소를 복합적 전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모든 활동들은 특정한 ‘사고방식’, 즉 ‘생활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의 공동체’적 특징을 가리킬 때 ‘감정의 구조(the structure of feelings)’라는 말이 사용된다. ‘감정의 구조’는 ‘경험의 공동체’가 공유한 의사소통 기반으로서 한 시대의 문화이며, 한 시대의 예술에서 그 특성은 표현될 수 있다.(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91-94면)

92) 김기진, 「우리들의 견해(상)」, 『조선일보』, 1928.11.26.(조성면, 『한국 근대 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40면에서 재인용)

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으로부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보편성을 끌어내었는데,⁹³⁾ 이와 같은 논리상에서 선은 보편의 원칙을 의미하므로 ‘보편적인 것이 곧 선’이라는 역전이 생겨난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도덕법칙”⁹⁴⁾은 당연히 사회윤리의 본체도 형성한다고 여겨지므로, 자연스럽게 기성의 “사회윤리를 주체가 실천해야 할 자율적인 원칙으로 바꾸어”⁹⁵⁾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것(所當然者)’인 기성 윤리규범으로부터의 이탈·위배가 유교적 악 표상의 의미론적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유교 문화에서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이 예(禮)이다. “예는 인의 형식(禮節者, 仁之貌也.)”⁹⁶⁾으로, 인(仁)한 본성을 가로막는 사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속해주는 규범이라 여겨진다. ‘자기 몸가짐을 단속하여 예에 맞게 행동하면 인하게 된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관념은 이와 같은 예의 위상에서 도출된 것이다.⁹⁷⁾ 특히 입신(立身)이라 할 때 입이 ‘예에 입각하여 사회에서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서 자립한다(立於禮)’⁹⁸⁾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에서 드러나듯, 예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서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악은 대개 주어져 있는 예에 맞는 행동과 어긋나는 행동을 통해 식별되는 범주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에서 유교 문화 보급에 선두적 역할을 했던 『소학(小學)』이 ‘선’을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⁹⁹⁾ 『소학』은 내편과 외편

93) 장승희, 「맹자의 양심론」, 『양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39면.

94) 몽배원, 앞의 책, 350면.

95) 위의 책, 389면; 공자, 맹자가 전제한 사회윤리의 모범은 대개 주나라 대의 문물이다. 이처럼 과거의 모델에 입각하여 규범을 구성하려는 경향 때문에 유학은 기성 봉건 윤리규범 재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보수적 철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몽배원, 앞의 책, 348-349면)

96) 『예기(禮記)』 「유행(儒行)」편.(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논어』, 민음사, 2016, 61면에서 재인용)

97)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논어』, 민음사, 2016, 249-251면.

98) 위의 책, 136면.

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중 내편은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내용을 통해 유교적 가치의 근본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외편 「선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예시해 보인다.

「선행」에 기재된 81가지 ‘선행(善行)’은 가(家)-향당(鄉黨)-국가(國家)로 이어지는 유교적 사회질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각 경우에 개인이 본뜰 수 있는 모범적 행동을 망라하고 있다.¹⁰⁰⁾ 가정, 향촌, 관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부모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화를 내지 않고 도박과 유희를 하지 않는 것,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휼하고 손님을 성대히 대접하는 것, 임금에게 직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¹⁰¹⁾

여기서 선은 선현들의 ‘선행’을 모방함으로써 실천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것은 예(禮)·법도(法度) 등으로 칭해지는 기성 유교 윤리규범과 그것이 지탱하는 유교적 사회질서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선은 신분, 지위, 성, 나이 등으로 구분되는 위계적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불교에서 선악을 분간하는 근본 규준이 마음, 즉 동기에 있음은 앞서 언급했던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행은 사랑·자비심·지혜라는 ‘세 가지 선한 근본(三善根)’에서, 악행은 탐욕·

99) ‘유교입국(儒敎立國)’의 기치 아래 국가 성립 직후부터 주자학을 국가의 교학(敎學)으로 보급했던 조선에서 『소학』은 선두적 위치를 차지한다. 『소학』은 양반계층의 학문수양과 입신출세에 필수적인 학습 텍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교화할 때에도 항상 활용되었던 텍스트였다. 대중 교화서로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나 『경민편(警民編)』 등이 보급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과 논리의 체계성에 있어서는 『소학』이 압도적이었다. - 정호훈, 『조선의 『소학』』, 소명, 2014, 9-10면.

100) 이는 『논어』와 『맹자』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이다. 선왕의 사례를 들어 바른 정치의 방법을 역설하는 대목부터 공자와 맹자가 왕을 만났을 때, 상가(喪家)를 방문했을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보인 행동들은 모두 후세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기록되어 있다.

101) 주희·유청지 편, 『쉽게 풀어 쓴 소학』, 기주연 역, 박이정, 2007, 357-470면.

증오·미망이라는 ‘세 가지 악독한 마음(三毒心)’에서 기원한다고 여겨진다.¹⁰²⁾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적 악 표상의 의미론적 핵심에는 악의(惡意)라는 심리·의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선행을 예시하려는 유교와 달리 불교에서는 악행을 예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오륜(五倫)과 오계(五戒)를 나란히 두고 보면 알 수 있듯, 유교 문화에서 선이 ‘조직화’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불교 문화에서는 악이 ‘조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¹⁰³⁾ 구체적으로 말하여 전자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후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금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 윤리규범인 오계는 살생(殺生), 도둑질(偷盜), 음행(淫行), 거짓말(妄語), 음주(飲酒)를 금지한 계율이다. 오계의 위반은 다시 산 목숨을 죽임, 도둑질 함, 남녀 간 문란한 행위를 함, 거짓말을 함, 이간질함, 거친 말을 함, 간사한 말을 함, 탐을 냄, 성을 냄, 잘못된 견해를 가짐이라는 십악(十惡)으로 구체화되어 예시된다.¹⁰⁴⁾ 이는 불교도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목록이다. 이에 비해 십선(十善)이란 ‘십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후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계(菩薩戒)로 나아가면

102) K. 스리 담마난다, 『불교이야기』, 이병두 역, 미토, 2004, 232-233면.

103) 로트만은 문화텍스트에서 보편적으로 ‘내부’와 ‘외부’, ‘우리’와 ‘그들’, ‘성(聖)’과 ‘속(俗)’, ‘문화’와 ‘야만’, ‘지식인’과 ‘민중’, ‘질서’와 ‘혼돈’과 같은 이원적 대립이 나타나는데, 이 대립에서 한쪽이 조직화의 특성을, 다른 한쪽은 조직화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어느 한쪽은 어떤 구체적 자질들을 유효화함으로써 표상된다. 그리고 그 반대쪽은 유효화된 자질들의 결여를 통해 표상된다. 예컨대 성직자가 ‘조직화’된 표상일 때, 그와 대립하는 속인은 성직자가 지닌 자질들의 결여로 표상된다. 성직자가 청빈함, 금욕적임 등 구체적 자질들을 통해 설명되는 표상이라면, 속인은 청빈하지 못함, 금욕적이지 못함 등으로 표현된다. 반대로 속인이 여유 있음, 활기가 있음과 같은 자질들로 조직화된 표상일 때에 성직자는 여유 없음, 활기 없음 등으로 표상될 것이다. ‘조직화’와 ‘비조직화’의 원리에 관해서는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11-32면 참고.

104) 앞의 셋을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 중간에 넷을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 뒤의 셋을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으로 구분하여 10악을 신삼구사의삼(身三口四意三)이라 부른다.(김지건, 「악에 대한 불교적 이해」, 『악이란 무엇인가』, 서봉섭 편, 도서출판 창, 1992, 146면) 이는 몸·입·마음으로 짓는 3업이 구체화된 것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의 의미망에서 적극적·이타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한다.¹⁰⁵⁾ 그러나 불교적 선의 기저에 존재하는 것은 금지의 준수, 즉 ‘선(가치)의 추구’가 아니라 ‘악의 기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근대 한국의 불교 문화에서 선악 인식은 유교적 그것에 상당히 가까워지는데, 이는 불교가 ‘중국화’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탈속적 성격이 충효(忠孝)를 근간에 둔 중국의 전통적 도덕관과 근본적으로 상충했기 때문에, 인도의 원형적 불교가 ‘중국화’ 과정을 겪으며 천태종, 화엄종 등의 교학 불교와 선, 정토 등의 실천 불교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동아시아 불교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이다. 그리고 한국이 받아들인 불교는 이처럼 ‘중국화’된 불교라 여겨지고 있다.¹⁰⁶⁾

‘중국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도가 따라야 할 선이 충효, 신의 등 유교적 덕목과 동일시되는 현상이다.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중국화’ 양상은 도교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즉 인륜(人倫)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도덕관이 중국에서 전개된 유교, 불교, 도교 문화의 근간에서 선악의 의미 형성에 발원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특징은 ‘부처의 가르침(戒)’ 안에 유교적 덕목이 포섭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불교 수용 초기에 해당하는 신라시대에 원광이 보급한 세속오계(世俗五戒)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事君以忠),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事親以孝), 신의로 벗을 사귀고(交友以信), 전쟁에 임하되 물러남이 없으며(臨戰無退), 살생을 하되 가려서 한다(殺生有擇)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오계는 유교적 가치를 반영한 ‘바람직한’ 행동을 예시하는 형태로 바뀌며, 그 역점은 악의 금지에서 선의 추구로 옮겨진다. 이와

105) 권탄준,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불교연구』 26, 한국불교연구원, 2007, 87-88면.

10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편, 『테마 한국불교 2』,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4, 38-39면.

같은 ‘불교의 유교화’ 양상은 유교적 도덕의 실천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중국 사회에 스며들고자 했던 ‘불교의 중국화’ 전략을 모방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이해된다.¹⁰⁷⁾

불교 수용 초기에 교세 확장을 위해 유교적 가치가 수용되었다면, 불교가 크게 흥성했던 고려시대를 지나 숭유억불(崇儒抑佛)을 내세운 조선시대로 접어들자 이는 반대로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되었다. 불교 억압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조선시대에는 유불융회(儒佛融會)나 유·불·도 삼교 통회 사상과 같이 불교와 유교의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¹⁰⁸⁾

일상적 차원에서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충효, 인의예지신 등 유교적 도덕과 상응함을 보이거나, 불교야말로 유교적 도덕의 실천을 권장할 수 있는 근본적 교화 방안을 가졌다고 내세우는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유교가 상벌을 내세워 덕행의 실천을 강요하고 표면적 순종을 이끌어내는 데 비해, 불교는 인과의 이치를 가르침으로써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게 하여 진정으로 인심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⁹⁾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경우 불교도가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선악은 유자(儒子)의 그것과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층위에서는 선악이 선명히 분별되지 않았던 도교의 경우에도, 문화적 층위에서의 선악 인식은 ‘유교화’ 경향을 띠고 나타난다. 전근대 한국에서 불교·유교 문화가 점했던 지배적 지위에 비해, 주로 민간 차원에서 성행했던 도교 문화는 주변적 지위를 차지했다. 불교는 삼국·통일신라·고려 시대에 국교 혹은 지배적 문화로서, 유교는 조선 시대의 국교 겸 지배적 문화로서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비해 도교는 공식적 교단 없이 무속·민속 등 토착 문화와 결합한 민중 신앙의 형태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

107) 위의 책, 75-77면.

10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6면.

109) 김용태,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313-314면.

지 성행했다. 한국 도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한국 자생설과 중국 전래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재서에 의하면 한국 도교는 고대 한국 문화에 존재하던 원시 도교적 요소가 후대에 전래된 조직화·이론화된 중국 도교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¹¹⁰⁾

선악 인식의 ‘유교화’ 경향은 일찍이 중국 도교 교리 형성 초기부터 드러나는 특징이다. 도교 교리의 요체는 태평도(太平道)의 소의 경전인 『태평경(太平經)』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 민중도교의 원형이 된 태평도 자체는 후한(後漢) 말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배경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 개혁적 지향을 강하게 표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¹¹¹⁾ 그러나 『태평경』이 제시한 윤리규범은 기성 유교 도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효(孝)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¹¹²⁾ 이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교세 확장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도교의 유교화’ 경향은 이후 당·송대 관방도교 시기를 거치며 더 짙어졌다. 중국 관방도교의 대표적 이론서인 『포박자(抱朴子)』에서 충(忠)·효(孝)·화(和)·순(順)·인(仁)·신(信)이 신선이 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언급되거나, 민중도교인 신천사도(新天師道)의 교리를 집대성한 구검지가 충·효·인·신을 중심으로 하는 예도(禮度)를 강조한 데에서 이러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¹¹³⁾ 나아가 명·청대에는 유교적 도덕을 실천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며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권선서(勸善書) 신앙이 민간에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¹¹⁴⁾

한국으로 유입된 권선서 신앙은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바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윤리규범이 향약(鄉約) 등의 형태를 통

110)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25-27면.

111) 윤찬원, 앞의 책, 45면.

112) 이는 『태평경』이 하늘, 땅, 사람의 관계를 부, 모, 자라는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파악함으로써 세계를 가족적 구조로 표상하는 방식, 따라서 사회 구성단위로 가족을 가장 중시했다는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 위의 책, 178-179면.

113) 정재서, 앞의 책, 100-102면.

114) 위의 책, 130면.

해 민간에 정착해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통해 복록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기복적 취지를 가진 권선서 신앙이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⁵⁾ 권선서 자체는 조선 초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선행은 권선서의 효시인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대체로 충·효·신 등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행동들이다.¹¹⁶⁾ 이러한 경우에 선은 권선서류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된 행동들을 모방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이는 정확히 『소학』이 작동하는 방식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적 층위에 나타난 선악 인식에는 실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성 규범·사회질서에 부합하는 ‘바람직함’/‘바람직하지 않음’을 기술하는 선악이 있다. 이 때 선은 전범에 따르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성 체제의 재생산 기제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돕는 등 원시적 사회윤리의 맥락에 위치한 ‘착함’/‘나쁨’을 기술하는 선악이 있다. 세 번째로 개인적 수행, 수양 등 깨달음, 해탈 등과 관계된 종교적 맥락에 존재하는 선악이 있다. 다만 전근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선악이 종교적 맥락에서 의의를 부여받는 것이기는 하나, 유교적 선악의 경우 종교성이 희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선악의 총체 자체는 결코 사회윤리의 영역으로 완전히 축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악이 대체로 사회적 삶 속에서의 인간 행동의 질을 기술·판별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전근대적 문화에서 선악은 거의 언제나 행위(선행과 악행)와 인성(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통해 인식되는 범주로 나타난다. 즉 선

115) 위의 책, 135면.

116) 권선서 신앙을 통해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조선시대 민간 도교 윤리규범은 유교적 덕목과 대개 중첩되는 내용을 가졌다. - 김낙필, 「조선 후기 민간 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문화』 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1, 436면; 439면.

악에 관한 가장 ‘통속적’ 인식은 서로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 실질적으로 선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람직함’/‘바람직하지 않음’, ‘착함’/‘나쁨’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유교적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하극상(‘바람직하지 않음’)이나 원시적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살인·도둑질(‘나쁨’)이 모두 ‘악하다’고 기술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짝에서 공통적으로 공동체로서의 삶에 해를 야기했느냐를 기준으로 악을 판별하는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¹⁷⁾

전근대 문화에 나타난 선악 인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공통 특징은 응보(應報)에 대한 ‘믿음’이다. 응보는 선행의 권장과 악행의 규제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관계하는 메커니즘이다. 한 치 어긋남 없이 응보를 주재하는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믿음’ 상에서, 선악은 각각 보상에 대한 기대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라는 비이성적 장치를 통해 주체가 ‘자발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변한다. 특히 이는 직접 경전을 연구하거나 수행할 여력 없이 생활 속에 묻혀 있는 ‘대중’을 교화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상술했듯 ‘선업과 악업은 각각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善因善報, 惡因惡報)’로 요약되는 인과응보 사상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으로, ‘불교의 실리이자 근본’으로까지 여겨

117) 클라우디아 카드는 서구의 도덕철학에서 악의 문제가 ①행동의 옳음과 그름(wright and wrong), ②행동, 사건 등의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못함(desirable and undesirable), ③사람, 동기, 자질 등의 존경받을 만함과 그렇지 못함(worthiness and unworthiness)이라는 세 가지 기본 짝패에 따라 표상된다고 보았다. 이 중 서구의 사상 체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①과 ②로서, ①은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의지의 잘못된 사용은 모두 악이라고 주장한 스토이시즘(stoicism)적 경향을, ②는 인간이 경험하는 해(harm)를 그 원천에 관계없이 악으로 간주하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경향을 대변한다. 한편 ③은 악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좋은 삶을 사는 데 실패하거나 잘못된 방법들, 자질들에 초점을 맞추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경향에 해당한다.(Claudia Card, *The Atrocity Paradig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0면) 스토이시즘적 경향이 악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리주의적 경향은 악의 결과와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특정 행동의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못함은 사후적으로 그것이 집단에게 해를 야기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별될 수 있는 것이다.

질 정도로 대중화된 사상에 해당한다.¹¹⁸⁾ 불교적 인과응보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업이 한 생의 범위를 초월한다는 점이다. 불교적 세계에서 인간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전세·현세·후세의 삼세(三世)를 윤회하며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다양한 중생의 존재형태 중 오직 인간일 때에만 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내세의 다른 존재 형태들은 인간일 때 지은 업의 결과에 종속되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¹¹⁹⁾ 즉 내세에서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기대어 주체가 자발적으로 선악을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도교 신앙에도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승부(承負)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이어받아서 짐을 지운다’고 직역되는 승부의 기본 전제도 ‘선한 행위는 좋은 응보를 받고, 악한 행위는 나쁜 응보를 받는다(善有善報, 惡有惡報)’는 것이다. 승부가 불교적 인과와 다른 점은 내세의 관념이 없는 대신 선악의 영향이 행위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의 후손과 인간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데 있다.¹²⁰⁾ 만일 내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나의 후손에게 천벌이 내릴 수 있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후대 세상에 재이(災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혼란은 선대가 저지른 악행에 의해 초래된 승부다. 이러한 논리 속에 위치한 선악은 후손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견지에서 규율해야 할 것이 된다.

또한 도교의 신격들은 대개 인간의 선악에 따라 응보를 주재하는 주재신으로 나타난다. 『태상감응편』에서는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다(善惡之報, 如影隨形)”¹²¹⁾고 말한다. 이 때 과보는 구체적으로 인간 수명의 증감(增減)으로 실현된다. 천지에 인간의 행위를 주관하는 신(司過之神)이 있어 선행과 악행에 따라

118) 안병국, 「귀신과 수용집단 심리기저-불교의 인과응보관과 세속인의 공리성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 동양고전학회, 1995, 298면:305면.

119) 베르나르 포르, 앞의 책, 69면.

120) 윤찬원 역주, 『태평경』,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23-25면.

121) 김낙필, 앞의 글, 438면.

수명을 늘리거나 줄이므로,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積善成仙)는 것이다. 조선 후기 민간 도교에서 신앙한 주요 신격인 복두칠성 역시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여 복록과 재앙을 내리는 주재신으로 나타난다.¹²²⁾ 이 때 선악은 복록을 받고 장수하며 나아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한편 유교의 경우에는 초월자가 아닌 현실적 집단주체가 당사자에게 즉각적 상벌을 내림으로써 선악을 규율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¹²³⁾ 일반적으로 유교에 종교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積善有餘慶, 積惡有餘殃)”는 『주역(周易)』의 구절이나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받는다(福善禍淫)”는 『서경(書經)』의 구절에서 드러나듯, 응보에 대한 ‘믿음’은 유교적 사유 내에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은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한 무제 때 동중서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옹립하면서 유교적 덕치(德治)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인감응설을 내세웠다. 본래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재이(災異)는 위정자가 실정한 결과로 발생한다. 그런데 하늘과 인간이 같은 본류에서 나왔으므로 상응할 수 있다(天人感應)는 논리상에서 <위정자의 실정>은 <인간의 악>으로 대체된다. 즉 인간들이 악을 행한 결과 하늘이 그에 대한 견책으로 재이를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다.¹²⁴⁾ 따라서 덕으로 인간을 교화함으로써 악행을 막아야 한다는 유교적 덕치의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속(嗣續)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서 선조의 선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친자감응설(親子感應說)이 나타나기도 한다.¹²⁵⁾ 즉 유교적 선악 역시 중국

122) 위의 글, 430-437면.

123) 박신환, 「악에 대한 유가철학적 이해」, 『악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봉섭 편, 도서출판 창, 1992, 183면.

124) 위의 글, 166면; 윤찬원, 『도교 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67면.

125)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222면.

의 전통적 주재신격인 ‘하늘(天)’을 전제한 ‘믿음’ 상에서, 응보에 대한 기대와 공포를 통해 주체가 자발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근대 문화적 층위에 나타난 선악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고 소결할 수 있다. 첫째, 선악은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질을 기술·판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때 선악은 대중의 사회적 삶을 통어하는 코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선악은 초월적 인과응보의 논리에 속한다.

이 때 전자에서 〈무엇이 공동체의 삶에 해를 야기하느냐〉를 규정하려는 해석이 개입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해석은 특정 집단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유교적 도덕규범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불·도 각각에서 말하는 악행의 세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유교가 공(公)보다 사(私)를 앞세우는 소인배적 행태를 악으로 규정하는 반면, 도교는 나서서 명예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인위적 행태를 악으로 규정한다.¹²⁶⁾ 여기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열등한 자질(不德)이라 보는 해석과 서로 경쟁하려는 태도라 보는 해석의 차이가 드러난다.

근대 초기 대중매체에 나타난 악의 용례를 일별해 보면, 이 해석의 다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간 행동의 사회적 질을 판별하는 기준 그 자체가 해당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해석이

126) 도계(道誡)는 도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행위의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태평도와 함께 도교 원형 중 하나였던 오두미도의 소의경전은 노자의 『도덕경』을 주해한 『상이주(想爾註)』이다. 『도덕경』의 형이상학적 선악 개념은 『상이주』에서 신도의 생활규범으로 재해석되었는데, 그 요체가 도계이다. 도계는 9행 27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공명을 탐내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등의 통속적 도덕규범을 중심으로 한다. (정우진, 『노자상이주 역주』, 문사철, 2014, 35-38면)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도덕경』의 주해인 만큼 충효 같은 유교적 덕목의 추구보다는 다툼을 피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서서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등 ‘인정투쟁’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가적 태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기 때문이다.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양상 역시 해석의 유동성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1899년 4월 8일자 『황성신문』에는 “선악상반(善惡相反)”이라는 소제목 하에 학정(虐政)을 일삼던 평양군수 이계필이 옥천으로 이임함에 따라 평양군민은 행복을 되찾았으나, 옥천민은 반대로 그 악을 받게 되었으니 처지가 상반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¹²⁷⁾ 같은 신문의 1900년 2월 16일자 논설에서는 “정치의 선악”이라는 표현 아래 또다시 학정의 문제가 언급된다. 학정을 하는 자가 국가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인민을 유린하여 국가에 미치는 해가 매우 크니 그 탐풍악행(貪風惡行)을 뉘우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¹²⁸⁾ 마찬가지로 같은 신문 1907년 8월 9일자 「공익과 사익의 이해」라는 논설에 따르면 선인(善人)이 국가의 고통을 그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인 반면 국민의 고통을 빨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폭정(暴政)하는 자는 악인(惡人)이다.¹²⁹⁾ 이처럼 1900년대 『황성신문』에 나타난 주요 ‘악인’ 형상 중 하나는 “악정(惡政)”¹³⁰⁾하는 지방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대중의 삶 속에서 국토 장악력을 상실한 채 거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라는 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지방관의 행태를 통해 감각된다.¹³¹⁾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형상이 ‘탐관오리’라는 전통적 ‘악인’과 유사하지만 그 입각점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변 사또로 대표되는 ‘탐관오리’는 왕이 하사한 권력을 휘둘러 백성을 학대했으므로 왕

127) 「善惡相反」, 『황성신문』, 1899.4.8.

128) 「虐政必招外患」, 『황성신문』, 1900.2.16.

129) 「公益과 私益의 利害(續)」, 『황성신문』, 1907.8.9.

130) 위와 같음.

131) 1890년대 후반부터 1907년 고종 퇴위까지 10여 년 간 대한제국 중앙정부가 근대화를 목표로 제도상의 개혁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실천이 수도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되지 못했음은 당시 지방 통치의 문제로 자주 지적된다. -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102-103면.

을 대리하는 암행어사에 의해 처벌 받는다. 이에 비해 『황성신문』에서 학정은 왕권에의 침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民)을 중심에 둔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이익(公益)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악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관리 스스로 공익에 해가 됨을 깨우쳐야 한다는 주장이 앞설 뿐, 구체적 처벌 수단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그러짐은 민주주의적 권력 개념이 왕권의 범주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민권에 입각하여 관리를 처벌할 언어와 절차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처럼 선악이 국가·민족과 같은 새로운 항(項)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대중’의 선악을 논할 때에도 드러난다.

(가) 然則 吾人 社會의 善類를 言하면 一般志士가 現在 慘狀에 對하야 비록 困難과 危險이 渺無津涯하나 一毫라도 絶望心이 無하고 將來 新鮮 文明하 大帝國을 建立할 希望點이 萬折不回하야 生死도 不顧하며 成敗도 不恤하야 認定할 目的을 不達하면 不止하기로 決心進就하논 者는 上等善類라 할 것이오 其 才局과 力量을 隨하야 恒常 公德心を 方寸에 存在하며 國民의 義務를 教育 上에 擔荷하야 教育과 公益 等事に 補助 成就하기로 職分을 삼고 一毫라도 國家와 人民에 被害가 될 者면 誓死不爲하논 者는 皆 善類社會니 (중략) 其 惡類를 言하면 滔滔胸海에 慾浪이 充滿하고 公德이 蔑如하야 國家가 亡하던지 人民이 滅하던지 世上 輿論과 後世 史筆이 我를 小人이라 謂하던지 奸臣이라 謂하던지 賊臣이라 謂하던지 於我에 何關고 하야 오자 我的 富貴나 享有하며 權利나 占取하얏스면 志願이 足矣라 하논 者는 上等惡類오 國家와 人民은 題念할 것이 無하고 我的 官職이나 □□하던지 金錢이나 □取하야 我的 生活를 圖謀하얏스면 快足하 □이니 世人이 我를 外人의 □鬼라 偵探軍이라 하논 것이 非我所關이라 하논 者와¹³²⁾

(나) 병은 우리가 생각건대 다른데 잇는것이 아니라 대한 인민이 인민의 직분을 못 하는 자들이라 직분을 하기 실여 아니 하는 사람도 잇것지마는 대테는 무엇이 직분인지 몰나 못 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지라 (중략) 본즉 국중에 직무 하는 백성이 몇기가 업는지라 아모 말도 아니 하고 감안히 안것는 백성도 직무 하는 백성이 아니요 못 된 말을 하며 못된 형실을 형 해야 정부 명령이 억이게 하는것도 직무 하는 백성이 아니요 슈효에 눌너 그른줄을 알면서도 그른 일을 하는것은 직무 하는 백성이 아니라 지금 대한에 이 세칭이 만히 잇스니 엇지 나라가 병들지 아니 하리요 (중략) 국민을 위 해야 일 하는 사람은 전국 인민이 사스로는 이중 간에 다만 말노만 그 사람을 붓들어 줄뿐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 버려 가면서라도 그 사람을 붓잡어야 하고 국민을 희롭게 하는 주는 남녀 로쇼가 다 말노만 죄인으로 돌널뿐이 아니라 목숨을 내 버려 가면서라도 그 놈을 범률노 다스리게 하는것이 직무이니 선악을 이럿케 힘 들여서 붉히는것은 그 착한 사람을 스랑 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리와 형실을 스랑 해야 내 목숨을 버려 가면서라도 그 사람을 도아 주는것이니 그것은 그 의리를 돕는 것이요 그 나라를 지탱 하주는 본의라 악한 사람을 괴어히 미워 하는것은 그 사람을 미워 하는것이 아니라 그 형실과 의리 업는것을 미워 함이요 나라에 희가 업시 하주는것이라¹³²⁾

(가) 『황성신문』 1908년 3월 26일자 논설 「선악종류의 분별」과 (나) 『독립신문』 1898년 3월 3일자 논설 「대한인민의 직무」는 일반 인민의 선악을 논하는 데 적용된 패러다임을 잘 보여준다. (가)에 따르면 선한 무리(善類)란 ‘장래 문명한 대제국 건립’의 희망과 공덕심을 가지고 교육과 공익에 봉사하는 한편 국가와 인민에 피해가 되는 행동은 결단코 거부하는 자이다. 반면 악한 무리(惡類)란

132) 「善惡種類의 分別」, 『황성신문』, 1908.3.26. 띄어쓰기 인용자.

133) 「대한인민의 직무」, 『독립신문』, 1898.3.3. 강조 인용자.

공덕심을 결여하고 국가와 인민이 망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관직, 금전, 생활에만 구애 받는 자다.¹³⁴⁾ 여기서 악인은 ‘국민’으로서의 공적 정체성을 지각하지 못하고 사욕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로 규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나)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견지에서 ‘악인’을 형상화한다. 이 논설은 정부의 법령에 따르는 것, 그리고 정부가 옳은 법령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이 인민의 직무라고 규정한다. 모든 인민이 이 직무를 깨닫고 수행해야만 대만을 ‘성(成)한 기계’로 만들 수 있으며, 만일 이를 수행치 않으면 부속이 고장난 기계가 제 기능을 못하듯 대만도 병든 채 망할 것이라는 것이 논설의 요지다. 여기서는 <인민의 직무 수행=나라에 도움이 됨>이 선으로, <인민의 직무 방기·방관·방해=나라에 해가 됨>이 악으로 규정된다.

위 두 글은 내셔널리즘의 영향 하에서 대중의 행동·태도를 규율하는 코드로 선악이 사용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상적 ‘국민’의 행태가 선으로 분류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체 행태는 악으로 분류된다. 특히 위의 두 글에서는 행동의 의도·동기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 선악을 판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한 사람, 나아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직무’를 행하지도 않은 사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세에 눌려 ‘그런 일’을 해버린 사람은 모두 결과적으로 ‘나라에 해를 입히는’ 악을 행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 독립에의 열망이 가파르게 국권 침탈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지는 1900년대의 지평에서 대중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은 국가에 헌신하지 않는 일체 행태로 규정된다. 이러한 선악 표상에는 ‘생사도 불고하고 성패도 근심치 않으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는 자’(가), ‘자기 목숨을 내버려 가면서’(나)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을 보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의 구분을 통해 중세적 신분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계를 구축하려는 논리가 개

134) 「善惡種類의 分別」, 『황성신문』, 1908.3.26.

입되어 있다. 개인의 열도(熱度)를 주요 지표로 하는 이러한 악의 표상은 분명 전근대적 그것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을 통해 선악 규정을 정당화하는 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체의 이해(利害)에 관한 해석이 근대적 ‘국가’의 관점에서 재수행됨에 따라 구체적 선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리종태는 눈을부릅쓰고 원리의악한의본성을낫타니이며 소
 리를질너 말히되 만일이돈을 너의가니이지안이호고 핑계호는
 날에는 너의집안식구는모다죽이어바리겄노라 너의구변으로 무
 습죄를짓던지 나는죄를면할것이오 네가지금 돈삼백원을너이지
 안이훈다하야도 너의지산은 너슈중에잇는것과 다름업다호고공
 갈호며 혹은요란호형동을감히호야 편후수측에 돈삼백원을 리
 규열에게밧아가고 리규열은 인호야 탕피가산을호얏는디¹³⁵⁾

반면 강제병합 이후인 1910년대 신문지상에서 ‘악인’은 주로 범
 죄학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1914년 12월 2일 『매일신보』에 실렸던
 위 기사는 「죽은죽은한 대악인(大惡人)」이라는 제목 하에서 ‘대악인’
 이종태의 행각을 묘사한다. 원래부터 ‘수단이 교활하고 구변이 능란
 하여 항상 수단과 말솜씨로 공갈취재와 횡령 등사가 무수’하던 이종
 태가 같은 동리의 이규열에게 분묘 관련 사기를 친 것으로도 모자
 라 공갈·협박을 자행하여 재산을 갈취하던 중, 헌병에게 잡혀 결국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
 그의 ‘악행’의 줄거리다. 위 인용문은 이종태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나타낸 ‘악한의 본성’을 묘사한 대목이다.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매일신보』는 ‘악인’을 주로 욕설과 폭행 등
 ‘무례패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자이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범 죄를 저
 지른 자로 형상화한다. 이에 따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싸움 끝에

135) 「죽은죽은한大惡人」, 『매일신보』, 1914.12.2.

폭행, 욕설, 집단구타를 저지른 자, 문서 위조, 공갈, 협박, 사기, 밀고를 자행하며 거액의 돈을 갈취한 자 등 생활세계에 실존하는 특정 범법자들이 ‘악인’ 이미지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¹³⁶⁾ 1910년대 『매일신보』 3면 기사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악인’들이 경찰과 헌병, 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았다는 짙막한 서사들로 채워져 있다. 김현주는 이와 같이 조선 사회를 무질서하고 위험한 곳, ‘악인’이 횡행하는 곳으로 표상하는 『매일신보』의 시선에 식민주의적 관점이 기입되어 있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¹³⁷⁾

신문지상에 나타난 1900년대적 ‘악인’과 1910년대적 ‘악인’의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악에 관한 해석의 유동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900년대에 악인이 ‘국가에 피해를 주는 자’와 같은 추상적 형상으로 나타났다면, 1910년대에 악인은 경상남도 밀양군에 사는 이종태와 같은 개별적 범죄자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악행은 ‘국민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세상에 죄를 끼쳤다’¹³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총기 불법 소지와 같은 민형사상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된다.¹³⁹⁾

이러한 경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식별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악이 가졌던 해석의 힘이 축소되는 대신, 대중의 삶을 통제하는 코드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됨을 볼 수 있다. 악이 범법과 동일시될 때, 악은 주로 국가 권력의 집행 선상에서 출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동체의 안정을 파괴하는 ‘해로움’을 악으로 분류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기저에 존재한다. 다만 ‘해로움’을 해석하는 주체가 ‘법과 질서’를 내세운 제국으로 바뀐 것이다.

136) 「仁港에 惡人何多」, 『매일신보』, 1914.5.9., 「偽造紙幣八萬圓」, 『매일신보』, 1917.1.11. 등.

137) 김현주, 『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1910~1925)』, 소명, 2013, 183면.

138) 「戒惡人」, 『신한민보』, 1911.11.27.

139) 이상 근대 초기 미디어에 나타난 악의 표상 분석은 이경림, 「김교제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관한 연구-젠더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17 1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삶에 근간을 둔 악의 표상은 서구에서의 악(evil)과 한국에서의 악(惡)이 결정적으로 분기하는 지점을 밝혀준다. 피터 듀스는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악이라는 개념에는 도덕적 깊이(moral depth)에 대한 초월적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악은 교육·처벌·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교정·제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악하다(perverse)’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악,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⁴⁰⁾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악은 절대선인 신과 대립하는 이원론적 힘으로 간주되어 왔다. 신과 대립하는 신적 원리로 악의 원리를 인정하는 마니교식 사유나, 신의 질서에서 벗어난 질료를 악의 원리로 간주하는 플라톤식 사유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중세에 이르면 신의 선함과 전능함을 모두 인정하는 기독교 교리 상에서 악이 논리적 난점으로 떠오르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한다.¹⁴¹⁾ 그러나 교리상의 논쟁과 별개로 사탄은 신의 품에서 인간을 빼낼 수 있는 힘, 절대선에 도전하는 힘으로 표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악의 기호는 인간이 겪는 부정적 경험들을 초월적이고 양극적인 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하는 데 소용되었다. 기독교적 상징체계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도덕적 악(moral evil)과 인간이 겪는 고통(suffering)을 일컫는 자연적 악(natural evil)이 모두 악(evil)으로 분류되는 점, 악이 “목적의식적인 힘으로 느껴지고 인격을 가진 것으로 지각”¹⁴²⁾되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40) Peter Dews, *The Idea of Evil*, Blackwell Publishing, 2008.

141) 신의 선함과 전능함을 모두 인정하는 기독교적 사유 체계에서 악은 논리적 난점으로 존재한다. 세계의 창조자인 신이 전능하다면 세계에 실재하는 악의 원인은 선한 신이라는 모순이 도출되기 때문이다.(이경재, 「토마스 아퀴나스 형이상학의 원리에 비추어 본 악의 원인물음」, 『중세철학』 19, 한국중세철학회, 2013, 81면) 악의 존재 자체가 신의 섭리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모순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신정론(theodicy)으로 전개되었다.

142) 제프리 버튼 러셀, 『고대로부터 원시 기독교까지 악의 인격화-데블』, 김영범 역, 르네상스, 2006, 13면.

그러나 전근대·근대 초기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서구 특유의 종교적 감수성(절대선 대 절대악)이 희박하게 나타난다. 어떤 이유나 목적도 없이 악 자체를 위해 악을 원하는 근본악(radical evil)적인 형상, 비인간적인 동시에 위력적인 ‘사악함’을 담지한 형상을 고소설이나 신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지옥·천당·극락과 같은 종교적 공간이 묘사된다 하더라도, 이 내세는 선악에 대한 응보가 실현되는 장소이지 신에 대립하는 힘으로서의 악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다. 선악에 대한 응보는 선악을 초월하는 섭리에 의해 주재되는 것이며, 이 속에서 선악은 상호대립하는 힘이 아니라 섭리를 구현하는 상호의존적 요소로 나타난다.

전근대·근대 초기 한국에서 일신교적 감수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악의 표상이 사회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과 결합하여 악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style)의 차이를 결정했다. 예컨대 신소설과 자주 비교되는 서구 멜로드라마의 이원적 구성요소로서 선악은 도덕적 선악과 혼동되기 쉬우나, 피터 브룩스에 의하면 멜로드라마의 선악은 속이 빈 기호이다. 그것은 윤리의 내용을 운반하는 기호가 아니라 “윤리적인 힘의 기호”¹⁴³⁾이기 때문이다. 멜로드라마에서 선악의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구체적 선악이 아니라 인간 경험을 초월한 “근원적이고 강렬하며 양극화된 힘”¹⁴⁴⁾이 존재한다는 감각이다. 즉 선과 악은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표현’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브룩스가 멜로드라마의 목표는 독자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힘과 명령을 발견함으로써 세계를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⁴⁵⁾

멜로드라마와 신소설은 선악으로 양극화된 갈등 구도를 공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소설에서 위와 같은 멜로드라마적 감수성이

143)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외 역, 소명출판, 2013, 53면.

144) 위의 책, 334면.

145) 위의 책, 87면.

드러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특히 숭고 또는 신성함으로 고양되는 멜로드라마 특유의 감수성은 유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고소설이나 신소설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¹⁴⁶⁾ 고소설과 신소설에 형상화된 악이 선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선에 대적할 수 없는 열등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악은 ‘두려운 것(恐)’이 아니라 ‘미워할만한 것(惡)’에 더 가깝게 위치해있다. 이 때문에 고소설이나 신소설에서 악(인)은 대개 교육·처벌·사회적 압력 등에 의해 교정·교화·제거될 수 있는 열등한 것으로 표현된다. “이 칙은 착훈 이를 칭찬훈며 악훈 이를 경계훈며 게으른 이를 권면훈며 부즈런훈 이를 포양훈 칙이오”¹⁴⁷⁾라는 근대 초기 재담집 『요지경』 서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악은 남을 타일러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경계(警戒)’·징계의 차원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신소설에서 악인들이 서술자와 독자가 함께 멸시·혐오할 수 있는 하등한 존재로 형상화되는 경향은 상징체계에서 악이 차지하는 열등한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인의 외양과 대조하여 악인의 외양을 못생기고 불쾌하게 묘사하는 관습적 방식, 서술자가 악인의 신분과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우악스러운 놈’, ‘늙은 놈’과 같이 하대하는 양상 등에서 이러한 태도가 노출된다. 반대로 주인공을 돕는 선인은 노비의 신분이나 어린 나이로 하더라도 서술자가 하대하는 경향이 희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선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해석이 다변화하는 것과 별개로, 다양한 해석들을 관통하는 특수한 미학적 태도가 지속되는 국면을 보여준다. 심층의 서사구조를 통해 표명된 이

146) 멜로드라마에 특징적인 강렬한 감정의 고양, 양극화된 갈등, 상황이나 행동의 극단성, 과장된 표현 등은 ‘도덕적 비의’의 초자연성, 신성성을 상기시키는 장치들로 이해된다. 멜로드라마에서 악이 신에 대립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는 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위의 책, 40-41면) 이 때문에 멜로드라마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대하고 불가해한 힘에 대한 감각이 감정의 과잉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독자는 이를 통해 숭고와 고양을 경험한다.

147) 『요지경』 3판, 수문서관, 1913, 5면.

미학적 태도에 대하여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악 인식에 상응하는 미학적 구성물: 복선화음

2.1. 복선화음(福善禍淫)과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구분

악에 관한 해석의 다변화 양상에 비해, 선악에 응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믿음’ 내지 감수성은 근대 초기에도 비교적 확고하게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점은 유동하는 해석에 따라 변화하는 ‘악인’ 형상과 별개로, 그것을 담고 있는 서사구조가 근대 초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소설이 고소설과 공유하는 주요 서사구조인 복선화음(福善禍淫)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상술했던 바와 같이, 문화적 층위에 나타난 선악 표상에서는 본래 가지고 있던 철학적 차이들이 흐려진다. 유·불·도만을 고려하더라도 각 사유 체계에 따라 선악에 독자적 의미와 쓰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차이들을 수렴하는 어떤 공통 인식이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층위에서 선악은 사유를 통해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선악에 관하여 주어진 수많은 사례, 즉 ‘이야기’들을 통해 감각되는 범주로 존재한다.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입는다>¹⁴⁸⁾는 복선화음도 바로 이와 같이 선악에 관하여

148) 김경애는 선악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설의 보편적 주제로서의 권선징악의 구체적 내용도 유동적인 반면, ‘선인이 수난을 당하다 행복에 이르고,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다 패망한다’는 서사 구조상에서의 ‘권선징악’은 일관적 구조로 나타나므로 효용성이 있는 개념이라 보았다. (김경애,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권선징악’」,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6-37면) 여기서 김경애가 말하는 ‘구성적 국면의 권선징악’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실현시키는 서사구조로서의 복선화음(강재철, 앞의 책, 87면)과 거의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이라는 인물유형을 구성요소로 하는 복선화음이 서사구조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한다. 또한 영웅소설의 경우에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주인공과 반동인물의 대립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겠으나, 고소설에서 반동인물은 대개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주인공이 반란의 평정 등으로 복록을 받는 반면 반동인물은 반역 등을 일으켰다가 처벌받는 등 인과응보 논리가 관철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도 복선화음이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전란소설과 같이 가족이산 구조를 중심

존재하는 일반적 감각·공통 인식을 담은 서사적 지식(savoir narratif)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근대 한국의 ‘경험의 공동체’¹⁴⁹⁾ 내에 공유된 선악에 관련된 서사적 지식이 미학적으로 변용된 구조물이라 하겠다.

복선화음은 선악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상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사구조다. 서사적 지식으로서 복선화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통해 표명된 선악에 관한 감각이 별도의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사적 지식은 한 문화 내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무엇이 말해지고 행해질 권리를 갖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집단적 합의가 ‘이야기’ 형태로 표명된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문화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스스로 정당화된다는 특징을 가진다.¹⁵⁰⁾ 다시 말해 전근대·근대 초기 서사물에서 복선화음 구조가 공통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선인은 왜 복을 받고 악인은 왜 화를 입는가?’, ‘선을 행하고도 불행해진 것은 왜일까?’, ‘악행을 저지르고도 잘 살지 않는가?’ 등과 관련된 질문들, 즉 복선화음의 정당성에 대한 심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거나 적어도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복선화음 구조가 신소설에서도 지속하는 양상은 일찍이 신소설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던 바 있다.

으로 하는 경우 선인과 악인의 대립 자체는 주요 초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고난을 겪다가 가족과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맞으며, 서사 내에서 주인공을 해하려 하거나 도움을 준 부차적 인물들이 각각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복선화음 구조가 부수된다고 볼 수 있다.

149) 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91면.

150)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역, 서광사, 1992, 51-59면; 리오타르는 지시적 진술인 ‘과학적 지식(connaissance)’과 ‘행할 줄 알(savoir-faire)’, ‘생활할 줄 알(savoir-vivre)’ 등을 망라한 화용론적 지식인 ‘이야기적 지식(savoir narratif)’을 구분했다. ‘이야기적 지식’은 대상에 관한 사실의 진술뿐만 아니라 윤리적·미학적 기준을 대상에 적용하고 규정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지식으로 존재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라는 역어에 story의 뉘앙스가 강하다고 판단되어, narratif/narrative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서사’라는 역어로 바꾸었다.

신소설은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인물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로 선인·악인의 유형을 대치하는 구소설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권선징악이란 구소설의 운용법을 별로히 개조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양반, 관리, 내외국인, 노비를 물론하고 개화 소년에게 유리한 인간이면 다 선인 유형에 속하고 또한 상하귀천을 불문하고 봉건묵수의 인간은 악인 편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개화 소년이나 혹은 그 처와 동류는 어떠한 고생을 하고 참경에 있더라도 나중에는 영달하며 악인들은 죽거나 불연이면 깨끗이 전비(前非)를 후회하고 선인이 된다. 이러한 점은 모든 신소설의 공통점이다.¹⁵¹⁾

위에서 임화가 신소설에 ‘답습’된 ‘구소설’의 구조라 말한 것은 사실 신소설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선악에 관한 서사적 지식의 뼈대에 해당한다. 이 구조상에서는 ①선인과 악인의 대치를 통해 갈등이 표면화되고, ②선인이 고난을 겪게 되지만 나중에는 보상을 받는 반면, ③악인은 악행을 자행하다 끝에는 파국을 맞으며, ④악인이 개과천선하여 선인이 되거나 혹은 죽어 없어지는 결말을 맞는다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또한 위에서 임화가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사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⑤악인이 서사를 추동시키는 능동적 행위자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석봉은 악인의 능동성을 부각시켜 신소설의 서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던 바 있다.

〈악인이 욕망을 실현하려 함〉→〈주인공이 욕망 실현의 방해물이 됨〉→〈악인이 주인공을 제거하려 함〉→〈악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감〉→〈주인공이 지위를 회복함〉¹⁵²⁾

15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 편, 『임화 문학예술 전집 2-문학사』, 소명, 2009, 175면.

152)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117면.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은 ①~⑤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 서사구조가 전근대 서사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으나 위에서 임화가 말한 ‘구소설’은 전근대에 발생한 개별 서사물들의 집합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작품들로부터 추출한 모델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사구조로서의 복선화음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勸善懲惡)’는 (저자의) 주제·의도와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화를 입는다>는 서사 전개만으로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주제의 투명한 실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서사는 ‘기능(functions)’, ‘행동(actions)’, ‘서술(narration)’의 세 가지 층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서사의 의미는 ‘기능’과 ‘행동’의 논리가 표명되는 서사구조와 ‘서술’을 통해 드러나는 담론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한다.¹⁵³⁾

바르트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작품들이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서술 층위에 나타나는 관점·태도와 같은 담론 요소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권선징악적 주제가 투명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서사구조뿐만 아니라 ‘서술’ 역시 이 의도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선화음 구조를 가진 모든 작품의 ‘서술’이 권선징악적 주제만을 떠받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에게 반역한 죄로 영원히 돌을 굴러 올리는 시지프스의 신화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보편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시지프스를 비극적 주인공으로 그리는 이 서사의 태도(style)는 ‘징악’의 의도 내지 주제와 충돌한다.

전근대·근대 초기 한국의 맥락에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특히 유교적 선악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관습적 이해를 담은 표현

153) 서사의 구조주의적 분석에 관한 바르트의 논의는 Roland Barthes,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English trans. Lionel Duisit, *New Literary History* 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를 참고.

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권선징악의 직접적 출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춘추(春秋)』의 기록은 문장은 간략해 보이지만 뜻이 다 담겨있고, 사실을 서술했지만 뜻이 깊고, 사실을 다 기록하되 왜곡하지 않고,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 것이니, (공자와 같은) 성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었겠는가?(春秋之稱, 微而顯, 志而晦, 婉而成章, 盡而不汙, 懲惡而勸善, 非聖人, 誰能脩之.)”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¹⁵⁴⁾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¹⁵⁵⁾는 유교적 인성론의 토대에서 선이란 인간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性)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性)을 흐리는 악을 누르고 지선(至善)의 본성을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 ‘선의 권장과 악의 징계’는 특히 스스로는 선악을 잘 분간할 수 없다고 여겨진 대중을 교화하려는 의도와 방법을 함축한 표현이다. 이처럼 권선징악에서의 선악이 인간성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특성을 가리켜 김윤식은 “고대소설이라는 확고한 구조를 지닌 장르(……)는 따라서 조선조 사회 구조 속의 인간성격의 완결 파악을 지닌 장치였다”¹⁵⁶⁾고 말했던 바 있다. 이 때 이 인간성의 완결은 물론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문제는 김윤식의 서술에서도 드러나듯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주제와 형식의 혼선을 쉽게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선행 연구에서 고소설의 권선징악은 대개 주제·의도의 확일성과 선인·악인이라는 인물의 유형성, 도덕적 갈등 구조의 단순성, 평면적 인물 형상화 방식, 내면 묘사 부재와 같은 형식상의 유형성을 아울러 지적하는 말로 사용되었다.¹⁵⁷⁾ 그리고 “인물의 선인악인식 유형화와 권선징악”

154)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61면.

155) 『중용』, (강재철, 앞의 책, 55면에서 재인용)

15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90, 217면.

157) 정주동(『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5)과 김기동(『이조시대 소설론』, 인명문화사, 1975)의 선구적 논의 등에서 고소설 주제·의도 상의 확일적 도덕주의는 인물 유형과 갈등 구조가 단순하다는 형식상의 유형성과 아울러 다뤄진다.

이 “신소설 가운데 남은 가장 큰 구소설의 유제(遺制)”¹⁵⁸⁾라는 임화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고소설의 한계는 신소설의 한계와 동일시되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소설에 나타난 권선징악은 고소설적 주제와 형식 양자의 ‘답습’으로, 고소설에서 멀어질 수 없는 신소설의 ‘과도기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던 것이다.

신소설 연구 초기부터 복선화음(구조·형식)과 권선징악(특히 유교적인 주제·의도)이 혼선되는 양상은 초기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구소설’이 실제로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된다. 예컨대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조선소설의 제문제’를 개괄하면서 이들 소설일반이 “엄격한 유교의 가정과 허망한 도선(道禪)의 동산에서 자라난 소설인 만큼 그 근본사상은 봉건적 충효대절(忠孝大節)과 더욱 편협하고 고루한 동양 원산(原産)의 윤리를 고조함”¹⁵⁹⁾에 그친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문단에서 그는 ‘조선소설’의 대표작으로 그가 살던 시대에 “가상(街上)에서 ‘싸구려 싸구려’ 하는 책”¹⁶⁰⁾들인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을 열거한다. 마찬가지로 임화도 『개설 신문학사』에서 “이조 시대의 언문문학의 양식적 전통이 상당한 기간 신문학을 지배”¹⁶¹⁾했다고 보고,

이 때 “이조소설에서는 「선자필흥(善者必興) 악자필망(惡者必亡)」이라는 윤리학적 상상력 아래서 갈등 관계가 설정되고 처리되는 게 보통이었다”(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192면)는 서술에서 볼 수 있듯, 주제의 확일성은 대체로 형식상 유형성을 야기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경애는 같은 ‘권선징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과 실체가 서로 달라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망(해야)한다는 인류 보편적 관념, 고소설의 일반적 주제, 고소설 작품의 주제이자 형식, 문학적 이념, 문학 이론 등 매우 다양한 내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제로서의 권선징악과 ‘선인이 수난을 당하다 행복에 이르고,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다 패망한다’는 ‘구성적 국면의 권선징악’을 분리하여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경애,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권선징악」,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1면; 36-37면) 강제철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소설적 주제의 유형성을 고소설에 나타난 형식적 특징과 분리하여 볼 것을 강조했다.(강제철, 앞의 책, 37면)

158)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문학사』, 소명, 2009, 176면.

159)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26면.

160) 위와 같음.

161) 임화, 『임화 문학예술 전집 2-문학사』, 임규찬 편, 소명, 2009, 137면

신소설의 특징을 ‘구소설’과 대비하여 설명하기 위해 ‘흥부와 놀부’, ‘홍길동과 활빈당’, ‘낡은 가정소설’인 『장화홍련전』 등을 예로 들었다.¹⁶²⁾

이보다 앞선 1900-1910년대에는 박은식이 ‘황당무계하고 음미불경하여 인심을 흐리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려 정교(政敎)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대표적 ‘국문소설’의 예로 『소대성전』, 『소학사전』, 『장풍운전』, 『숙영낭자전』 등을 들었던 바가 있다.¹⁶³⁾ 그와 같은 세대인 이해조 역시 『자유종』에서 국문소설의 빈약한 전통을 개탄하며 인물의 입을 빌려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홍길동전』을 보아 도덕을 알겠소? 말 할진대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 교과서라 할 것”¹⁶⁴⁾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바 있다. 정치성·민족성 고취를 위해 번역·번안을 택한 박은식과 소설의 허구성·감화성과 함께 계몽성을 중시하면서 이후 신소설 창작으로 나아가는 이해조를 통해 알 수 있듯, ‘신소설’은 초창기부터 ‘구소설’과의 의식적 대조를 통해 차별성을 획득하려 했다.

박은식부터 김태준까지 세대를 달리 하는 이들이 ‘구소설’ 대표작으로 꼽은 것은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등의 국문소설이다. 즉 전근대 여러 소설 중에서도 조선 후기 특정 국문소설들이 ‘구소설’ 이미지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구소설’을 논할 때 언급하는 작품들 대개는 조선 후기 국문소설의 하위장르인 영웅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에 속한 것들로, 논자들과 근접한 시기인 18-19세기에 출현한 것들이다. 반면 한문소설은 물론 같은 국문소

162) 위의 책, 165-178면.

163) “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國人小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호고 自支那而來者는 西廂記와 玉麟夢과 剪燈新話와 水滸誌 等이오 國文小說은 所謂 蕭大成傳이니 淑英娘子傳이니 호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호야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호니 是는 ○○誕無稽호고 淫靡不經호야 適足히 人心을 蕩了호고 風俗을 壞了호야 政敎와 世道에 關호야 爲害가 不淺호지라”(피어쓰기 인용자) - 謙谷生, 「瑞士建國誌譯述序」, 『대한민일신보』, 1907.2.8.

164) 이해조, 「자유종」, 권영민 외 편, 『한국신소설선집 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92면.

설이라 할지라도 『완월회맹연』이나 『소현성록』과 같이 대장편 규모를 가진 가문소설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즉 이들이 상정한 ‘구소설’은 특정 몇몇 작품들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이 ‘구소설’은 실제로는 신소설의 선조(先祖)가 아니라 신소설과 공존했던 경쟁자였다고 말하는 편이 보다 정확하다. 박은식과 이해조는 『홍길동전』 등이 ‘여항지간에 성행하여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¹⁶⁵⁾ 읽고, ‘전국 남녀들이 자유권으로 틈틈이 보고 곳곳이’¹⁶⁶⁾ 읽었기 때문에 더욱 비판했다. 즉 1900-1910년대에 ‘구소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신문학’이 독자를 빼앗아 와야 할 경쟁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¹⁶⁷⁾ 그들보다 한 세대 후인 김태준·임화는 1900년대적 ‘구소설’ 이미지를 수용한 대신 이를 ‘신문학’의 전사(前史)로 위치시켰지만, 실상 ‘구소설’은 ‘신문학’과 동시대에 유행하며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었던 ‘환경’으로 존재했다.

흔히 ‘이야기책’, ‘딱지본’, ‘육전소설’ 등으로 불리는 활자본 고소설의 출판이 1912년 이후에 성행했던 사실을 감안하면¹⁶⁸⁾, 박은식·이해조가 언급한 ‘구소설’은 독서대중 사이에 필사본이나 방각본으로 유통되었던 작품들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필사본 고소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볼 때 유독 적은 종수가 발견되고 있어, 필사본 유통이 매우 빈약했다고 추정되고 있다.¹⁶⁹⁾ 따

165) 겸곡생, 위의 글.

166) 이해조, 앞의 책, 192면.

167) 실제로 1900-1910년대에는 고소설과 신소설의 서사 내적 상호작용이 계속 해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독자층 역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6면.

168) 권순금,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22면.

169) 필사본 고소설로 현재 확인된 513종 중 영남 222종, 호남 82종, 충청 132종, 서울·경기 52종, 강원 16종, 북한 9종이 유통되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독 필사본 고소설 유통이 빈약한 이유는 도시화, 상업화와 더불어 방각본, 활자본과 함께 신소설 등의 새로운 독서물이 성행했고, 또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하는 마을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186-187면) 필사본 향유 패턴과 반대로 방각본은 확인된 60종 중 경관이 52종으로 가장 많고 완판 19종, 안성판 9종이 뒤따른다.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

라서 ‘구소설’의 전형은 방각본으로 유통된 소설들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박은식·이해조가 예로 든 작품들은 모두 경판 방각본으로 유통되었던 것들이다.¹⁷⁰⁾ 19세기에 경판 방각본 고소설은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간행되었으며, 특히 1900년부터 1920년까지는 방각본 고소설 출판의 전성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방각본으로 유통된 고소설들은 제작·이윤 상의 문제 때문에 대개 서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단편물’들이 선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¹⁷¹⁾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소요되는 판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량이 작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이다 보니 방각본 고소설의 장르도 영웅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등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방각된 단편물만이 소설의 모든 것인 양 호도하는”¹⁷²⁾ ‘착시’가 발생했다고 지적될 정도이다.¹⁷³⁾ 예컨대 경판 방각소설 52종은 영웅소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화홍련전』 등 가정소설, 『숙향전』 등 애정소설 등이 소수 존재한

고사, 2004, 171면)

170) 경판 방각소설은 현재 52종이 확인되며 박은식이 언급한 『소대성전』, 『장풍운전』, 『숙영낭자전』과 이해조가 언급한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경판 방각소설 52종의 제목은 이창현,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를 참고.

171) 풍부하고 다양한 행문을 가진 필사본과 사건의 서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간략한 행문의 방각본 사이의 균형은 세책가의 몰락에 의해 무너졌다. 방각본으로 선택되는 ‘단편물’ 분량 자체도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폐가치 변동에 따라 18세기에는 권당 40여 장 분량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들어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권당 16-17장 분량까지 축소되었다. - 위의 글, 311-313면.

172) 위의 글, 312면.

173)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은 18세기에 사대부 사회에서 성행했던 대장편 분량의 가문소설로부터 분화되어 유형성을 띠고 나타난 ‘통속적 영웅소설’로, 18세기 후반에 나타나 주로 평민층에서 성행했다. 특히 이는 1책짜리 방각본 형태로 유통되어 대중화에 부응했다. 이후 영웅소설은 19세기의 『유충렬전』, 『조웅전』 등 수십 종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42-44면) 홍희복(1794-1859)의 분류에 의하면 『명주보월병』, 『조씨삼대록』, 『옥린몽』과 같은 소설은 백 권이 넘는 정도의 장편인데 비해 『숙향전』, 『장풍운전』 등은 1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65면)

다.¹⁷⁴⁾

즉 복선화음 구조가 전근대·근대 초기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전근대’ 소설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 발생하여 1900-1910년대에 방각본·구활자본으로 널리 읽혔던 국문 고소설로, 그 주요 장르는 영웅소설·가정소설·애정소설이다. 이 ‘착시된’ ‘구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충, 효, 열, 우애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복선화음 구조를 통해 선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 대표적 작품으로 『심청전』과 『유충렬전』이 있다. 이들은 주인공이 효와 충을 추구함으로써 “평심 왕낙”¹⁷⁵⁾을 누리거나 반란을 진압하고 출세하여 복락을 누렸다는 표명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복의 인(因)인 선으로 규정해보였다.

이와 같은 ‘착시’로 인해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이 혼선되면서 고소설 일반에서 유교적 덕목이 곧 선이고, 이에 반하는 반역이나 불효, 탐욕 등이 곧 악이라는 선입견이 강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설 전통 내에서 선인(주인공)이 지향하는 바는 인물의 유형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재철이 지적하고 있듯 조선시대 소설만 고려하더라도 유교적 덕목을 중심으로 했던 선의 내용이 조선 후기 유교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함께 다양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¹⁷⁶⁾

복선화음은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저자들이 다양한 의도와 주제를 담기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대중문화적 틀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틀이 신소설의 ‘토대’이자 동시에 ‘환경’으로 공존했던 고소설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지속된 관습’의 정체에 해당한다. 임화가 적확하게 지적했듯, 복선화음은 상이한 내용을 가진 신소설들에 공통된 서사구조로 ‘구소설’과의 밀접한 연

174) 필사본으로 확장하여 보더라도 장르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울·경기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은 영웅소설이 24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가정소설 5종과 장편가문소설 3종, 판소리계 소설 2종 등이 확인되고 있다. - 김재웅, 앞의 책, 193면.

175) 김진영 외 편,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70-71면.

176) 강재철, 앞의 책, 263면.

관성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이는 신소설에서 선악의 내용이 다기하게 규정되었으나, 그 서사적 표명은 주로 ‘구소설’에서 유래한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신소설의 악의 표상에서 ‘지속되는 관습’을 명확하게 분간하기 위해, 신소설의 주요 레퍼런스가 되었던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주요 ‘악인’ 유형과 그를 통해 표명된 악의 성격,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인물형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2.2. ‘구소설’ 전통에 나타난 주요 ‘악인’ 유형에 관한 고찰

전형적 복선화음 구조상에서는 악인에게 서사를 추동할 동력이 부여되어 있다. ‘구소설’적 전형의 핵심인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을 참고해보면 서사는 거의 언제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¹⁷⁷⁾과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이 행동을 개시함에 따라 주인공의 반응·대응이 촉발되면서 진전한다. 이러한 서사 상에서 악인은 충신을 모함·살해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고, 전설 자녀·며느리 혹은 처를 모해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나타난다. 따라서 복선화음 구조의 역학적 특성은 행동자(actant) 차원에서 악인과 그 파생인물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행동자란 “다른 모든 한정 수식어들로부터 독립해서 행위를 완수하거나 감수하는 사람이나 사물”¹⁷⁸⁾을 말한다. 행동자는 “의미론적 투자에 선행하여 엄밀하게 형식적인 특징을 띠는 통사적 단위의 유형”¹⁷⁹⁾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문학 연구에서는 ‘인물’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인간, 동물, 물건, 추상적 개념 등을 아우르는 행동자 개념이 인물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서사 내 형식 요소

17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51면.

178)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05면.

179) 위와 같음.

간 역학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자 모델에서는 행동자의 본질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함수’)에 따라 규정하는데, 그레마스가 기초한 행동자 모델은 서술 담화 상에서는 ‘주체(=주인공)’를 기준으로 ‘조력자’와 ‘대립자’로 구성되어 있다.¹⁸⁰⁾ 본 논의는 악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레마스의 모델을 복선화음 구조 분석에 적용하였을 때, ‘피해자’, ‘대립자’, ‘징치자’라는 행동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 ‘악한 인성(惡性)’의 악인과 무고자(無辜者)

가정소설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데도 악행의 대상이 되어 고난을 겪는 ‘무고자’ 유형이다.

가정소설이라는 명칭 자체는 안확이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용한 데에서 기원했다. 안확은 “가정소설은 (중략) 형제간의 갈등보다 계모자간의 갈등 시앓싸흠”이 많은 소설이라 개략적으로 말하고, 이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씨남정기』와 『장화홍련전』을 들었다.¹⁸¹⁾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가정소설은 특정 소설양식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집안을 무대로 하여 주로 가족·친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심 소재로 하는 이 양식은 논자에 따라 광의의 ‘가정소설’과 협의의 ‘가정소설’로 분류된다. 광의의 ‘가정소설’은 조선 후기에 소설이 장편화, 연작화 경향을 보이게 됨에 따라 몇 대에 걸친 갈등을 다루게 된 가문소설을 지칭한다. 이들의 무대는 서로 다른 두 집안 간에 걸쳐 있거나 한 집안의 수 세대를 포괄하며, 주로 연작소설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협의의 ‘가정소설’의 주요 하위 장르는 남성의 총애(寵愛)를 쟁취하기 위

180) 바르트가 서사의 구조주의적 분석에서 논한 ‘행동’의 층위가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이 적용되는 층위이다.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에 관해서는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05-216면을 참고.

181) 안확, 『조선소설사』, 한일서점, 1922, 101면.

해 다수의 처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쟁쟁형 소설과, 주로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모형 소설이다.¹⁸²⁾ 신소설의 주요 레퍼런스에는 협의의 ‘가정소설’ 작품들이 많다.

1900년대 방각본 고소설의 주류가 영웅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에서 가정소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주요 독자층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화되어 있었는데, 『제국신문』과 같은 초기 신소설의 주요 매체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일반 독자 상을 상정했다는 점이 이와 관련하여 시사적이다.¹⁸³⁾ 또한 전근대-근대에 걸쳐 비교적 유사하게 유지되었던 일반 가정 내 생활·관습을 소재로 한 가정소설에 비해, 왕권을 수호하는 전쟁 영웅과 변방의 역적이라는 영웅소설 특유의 인물형·서사구조가 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실존 없이 변용되기 어려웠다는 서사 내적 난점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가정소설 유형의 악인은 ‘악한 인성’을 핵심에 두고 만들어진다.

(가) 허씨를취하니 그룡모로의론홀진디 혼번보암죽호것다
두뺨은한자가남고 눈은통방울갓고 코는질병갓고 입은메역이아
가리오 목소리는시랑의소리오 허리는두아람은혼데 그중에도또
온갓병신을검호엿것다 곰비팔이에슈중다리를검허엇고 쌍언청
이에즈가웃난장을갓초왔스며 열기는콩명석갓고 그입살을글
거쓰으면열사발은되갓고 턱밋헤쥬먹갓흔거문사마귀는 식거문
털이구레나룻보다못지아니호중 열골도리는즈근미판만호니 그
형용은참아호시라도견디여보기어렵고 또병신고은데업다고 그
용심이더옥불측호야 남의못될노릇은또차가며헛호니 집에두
기일시난감이로되¹⁸⁴⁾

182) 김광순, 『고소설사』, 새문사, 2006, 83-85면.

183)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67면.

184) 『장화홍련(薔花紅蓮) 부(附) 적성의전(積成義傳)』, 세창서관, 1915, 4-5면.
이하 『장화홍련전』, 면수로 약칭한다.

(나) 교녀 | 밧그로 얼굴을 공근이호고 말을 공순이호니 사
부인이 그간악함을 아지못호고 다만 음란혼곡도로 군즈를
비례에 인도홀가 녀너호여 경계호엿시니 실노 스랑호는뜻이어
늘 일노써 간악호 참소를 지어 한림을 격동하니 이로말미암
어 보건더 인가의 적첩(嫡妾)지간에 엇지 삼가지아니호며 경
계치아니리요¹⁸⁵⁾

(가)와 (나)는 임화 등이 가정소설의 전형으로 지목했고 근대 초
기 구활자본으로 대중에게 널리 읽혔던 『장화홍련전』과 『사씨남정
기』의 한 대목이다. 『장화홍련전』의 허씨와 『사씨남정기』의 교씨는
각각 처첩형과 쟁총형이라는 가정소설 하위 유형에 등장하는 전형
적 악인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서술자가 그 악의 원인을 ‘간악한’,
‘용심(用心)이 불측한’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인성(人性)의 문제로 수
렴시킨다는 데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서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악행에는 나름대로의 합
리적 이유—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맥락—
도 존재한다. 『장화홍련전』의 경우에 배 좌수의 후취로 들어온 허씨
는 세 아들을 연달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화·홍련 자매를 더욱
애뜻하게 여기는 배 좌수로 인해 불안을 느낀다. 장화·홍련 자매가
특별히 허씨에게 효성을 보이는 대목도 없다. 이들은 항상 죽은 어
머니를 그리워하며 비회(悲懷)에 잠겨있는 것으로 그려질 뿐이다.
그런데 허씨의 시기를 짐작한 배 좌수가 풍족한 생활이 모두 전처
장씨가 남긴 재산으로 가능한 것이라 꾸짖자, 허씨는 장화·홍련이
“식집을가는날은 반다시가산을만이가져갈지니 나논기밥에도토리가되
리로다”¹⁸⁶⁾라는 마음을 먹고 “불측헌마음을먹어장화와홍련을 죽여업
시홀뜻을쥬야로궁리”¹⁸⁷⁾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즉 허씨의 경우,

185) 『사씨남정기 상하』, 영풍서관, 1913, 23면. 이하 『사씨남정기』, 면수로 약
칭한다.

186) 『장화홍련전』, 6면.

187) 위와 같음.

후처의 의무인 사속(嗣續)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내의 위치가 위태로운데다 재산 분배에서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계산이 있어 모살(謀殺)까지 실행하게 된 것이다.

『사씨남정기』에서도 교씨가 반발심을 품게 된 계기가 명확하게 그려진다. 교씨가 첩으로 들어와 아들을 얻어 지내는 대목까지 시기나 질투를 암시하는 언급은 없는데, 사씨가 교씨의 거문고 소리가 “화(和)치못흐니 이는 진실노 음란흐고 유탕흐 곡도오 청루(靑樓)상 곡도니 엇지 이러흐 곡도를 외오리오”¹⁸⁸⁾라고 질책하는 일이 생긴다. 이에 앙심을 품은 교씨가 마치 사씨가 투기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모함하기 시작한다. 직후에 사씨에게 태기가 있다고 듣자 낙태를 유도하려 음식에 약을 탔지만 무사히 아들 린아가 탄생하여 남편이 그를 애지중지하자 교씨는 다음과 같이 화를 내며 말한다.

교녀 | 대로대한(大怒大恨)흐여 왓 내가 샴씨로더부러 인물이
갓지못흐중 또흐지질이 갓지못흐고 문치가 갓지못흐고 지혜가
갓지못흐중 또흐 적서지분이 현슈(懸殊)흐나 내 호갓 아들이
잇기로상공의 편벽도이 스랑흙을 닦엇더니 이제 메으들이
이시니 이제논 린으가 이집쥬인이 되고 내즈식은 무용이
라¹⁸⁹⁾

자신의 인물, 지혜가 모자라는 등의 이유로 사씨에게 시기심을 느끼던 중, 마침내 적자(嫡子)가 탄생하자 첩인 자신은 친아들의 위치까지도 위태로워졌다는 이유로 교씨의 악심이 커졌던 것이다. 허씨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질서 내에서 사속(嗣續)을 위한 혼인이라는 계약적 관계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여성의 불안한 지위 역시 교씨가 악행을 저지르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텍스트에 이러한 점이 암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허씨와 교씨의 악행의 원인을 ‘간사하고’ ‘불측한’ 마음·성격에서 찾는다.

188) 『사씨남정기』, 21면.

189) 『사씨남정기』, 25면.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갈 바는 위와 같은 형상화 방식을 통해 대개 ‘간사’, ‘요약’, ‘악독’, ‘음험’, ‘편협’, ‘독살’ 등의 형용사를 수반하고 나타나는 악한 인성이 유교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의 덕성으로 강조되었던 화유(和柔)의 결여태라는 점이다. 조선시대 각종 교훈서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여성의 덕성은 부드러움, 약함, 순종함, 화합, 정절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체화된다.¹⁹⁰⁾ 유교적 사회질서 유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유순하고 온순함’이라는 여성의 이상적 인성(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친인척 간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태도를 악의 범주로 밀어낸다.

즉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첩이나 후처라는 지위의 열세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을 ‘유순하고 온순한’ 태도로 봉합하는 것이 허씨나 교씨에게 부과된 과제였던 것이다. 이 ‘유순하고 온순함’의 결여는 ‘악독하고 간사함’, ‘패악을 부림’이라는 가정소설적 악인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전실 소생 혹은 본처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악행의 대상이 된 장화·홍련이나 사씨 등 무고한 피해자는 ‘유순하고 온순함’이라는 ‘선한 마음과 태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이 악인에 직접 맞서 갈등을 표면화하는 대신 축출당하는 전개는 이 수동적 ‘선’에 충실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악인을 묘사하는 이러한 태도는 텍스트가 악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악성(惡性)과 악행이 일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⁹¹⁾ 이처럼

190)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62-363면.

191) 예컨대 가정소설의 전형적 악인형 중 하나인 ‘악비(惡婢)’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귀의 성』의 점순이나 『목단화』의 옥단, 추월 등은 특정 대상에 대한 악의가 있기 때문에 악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은 재물이나 면천(免賤)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특히 『귀의 성』의 침모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나듯 악의가 없더라도 욕심 때문에 악행에 조력하는 ‘악인’ 형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는 이들이 욕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보다 오히려 더 잔인하거나 교활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한다.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에게서도 악행은 결국 욕심뿐만 아니라 악한 인성의 결과인 것처럼 표현된다.

악을 개별 주체의 인성의 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특징은 악을 개인적 도덕성의 범주에서 사유하게 한다. 그러므로 가정소설적 악의 표상을 도덕적 악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② 공동체에 반하는 악인과 대적자(對敵者)로서의 영웅

영웅소설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한글 소설로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전개한 소설군을 일컫는다.¹⁹²⁾ 창작 영웅소설 중 방각본과 구활자본으로 거듭 출간되며 전근대·근대 초기에 널리 읽힌 작품으로는 『소대성전』, 『장풍운전』, 『조웅전』, 『유충렬전』 등을 포함하여 10여 종을 꼽을 수 있다.¹⁹³⁾ 본 절에서는 먼저 출간 횟수가 가장 많으며 영웅소설 하위 서사유형을 대표하는 작품인 『유충렬전』, 『소대성전』을 대상으로 하여 영웅소설적 악인의 특징과 이에 맞서는 대적자로서의 영웅 형상의 특징을 고찰하려 한다.

서대석에 따르면 창작 영웅소설은 서사유형에 따라 크게 『소대성전』 유형, 『유충렬전』 유형, 『장백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⁹⁴⁾ 『소대성전』 유형의 특징은 주인공의 개인적 박해자와 국가의 적대세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주인공의 공로는 외적을 물리치

192) 서대석은 조동일이 사용한 ‘영웅소설’이라는 명칭이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기적 서사 유형으로부터 도출된 명칭으로 『숙향전』, 『심청전』 등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이라 부르기 어려운 작품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주인공이 전쟁에서 활약하는 소설군을 ‘군담소설’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다만 서대석도 인정하는 바 이러한 소설군에서 군담은 흥미의 중추가 아니라 주인공의 출세의 계기로 등장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창작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일대기를 펼쳐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대석, 앞의 책, 11-16면) 본 논문에서는 특히 『홍길동전』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영웅이라는 인물형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영웅소설’이라 부르겠다.

193) 방각본, 활자본 출간 횟수를 합하여 『조웅전』 49회, 『유충렬전』 29회, 『소대성전』, 『장풍운전』, 『이대봉전』이 21회 등을 기록했다. 창작 영웅소설 출간 횟수는 위의 책, 27면을 참고.

194) 『장백전』 유형은 주인공이 새로운 임금의 창업(創業)을 도와 구 왕권을 타도하는 활약을 보이는 유형으로 주인공이 왕권을 수호하고 외적을 방어한다는 『소대성전』 유형, 『유충렬전』 유형과 역학적 차이를 보인다. 또한 널리 읽힌 작품들이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본 절에서는 논외로 하려 한다.

는 데 있다는 점이다.¹⁹⁵⁾ 한편 『유충렬전』 유형의 특징은 주인공의 개인적 박해자가 국내의 반란세력과 일치한다는 점, 주인공의 공로가 국내 반란의 평정에 있다는 점이다.¹⁹⁶⁾

(가) 경피바로진전이나아가위여왈밋친오랑키턴시를알지못호
고훈갓강포흙을밋어외람이턴도를침범호니그죄맛당이죽엄죽
호도다 (중략) 호왕이텅파에대노호여진전이나세며위여왈내이
지턴명을밋아훈명대를버히고턴하강산을뭍히고저호거늘너는
턴명을알지못호고엇지감히의병을막으리오경패대노호여왈무지
호호왕아강포흙을밋고턴도를범호면서도로의병이라호니하늘
이두렵지아니호나¹⁹⁷⁾

(나) 조정에 두 간신이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都摠大將)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대라. 다 천상(天上) 익성(翼星)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서 대전(對戰)한 고로, 상제 노하사 인간에 적강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데라. 본시 천상 사람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비상하며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벼슬이 일품에 거하니 강악(強惡)이 무상(無狀)하여 만민의 생살지권을 가졌으니, 위엄이 천하에 진동하고, 일국 대권을 손가운데 넣었으니, 초희왕의 항적이요, 당명황의 녹산이라. 평생 마음이 천위(天位)를 찬탈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 유심의 강직함과 퇴재상 강희주를 꺼려 자저(趲趲)한 지 오랜 지라.¹⁹⁸⁾

특정 인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가정소설적 악인과 비교해 보았을

195) 서대석, 앞의 책, 85면.

196) 위의 책, 112면. 『조웅전』은 『소대성전』 유형에 속한다.

197) 『소대성전』, 광문책사, 1916, 39면. 이하 『소대성전』, 면수로 약칭한다.

198) 김유경·이윤석 교주, 『세책 고소설 5-유충렬전·정비전』, 이회, 2005, 32-33면. 본 논문에 인용한 텍스트는 서울 세책집에서 유통되었던 '항목동 세책본'이다. 『유충렬전』은 이본이 매우 많으나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유충렬전』, 면수로 간략히 표기한다.

때 영웅소설적 악인의 특징은 공동체 전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당화된 명분이나 욕망에서 찾아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소대성전』에서 변경을 침범하여 “인심이요란”¹⁹⁹⁾하게 한 북흉노는 자신이 천명(天命)을 받아 천하강산을 맑히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유충렬전』의 경우에는 정한담과 최일대가 먼저 천상에서 유충렬의 전신(前身)인 자미성과 대전했던 인연으로 인해 현세에서도 대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현세에서 정한담과 최일대는 자질과 용맹이 뛰어나 이미 큰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위를 찬탈하려는 욕망이 있어 반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소대성과 유충렬은 개인적 원한을 품은 악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반역을 일으킨 악인들과 맞서 싸워 왕권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지킨 영웅으로 형상화된다.

영웅이 “집단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그 때문에 집단의 존경을 받는”²⁰⁰⁾ 인물로 형상화되는 이유는 그들이 맞서 싸우는 악인이 ‘집단의 삶을 저해하고 이 때문에 집단의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서술자의 준거집단이 어디냐에 따라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의 내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악인의 구체적 형상이 결정되는 것이다.²⁰¹⁾

예컨대 국가(왕권)를 공동체로 상정한 위와 같은 영웅소설에서 악인이 왕권을 위협하는 외적·간신·역적으로 형상화되었다면, ‘민중 영웅’을 내세운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에서 악인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다.

(가) 길동이 조호를 활빈당이라 하여 도선 팔도로 다니며 각 읍 수령이 불의로 지물이 이시면 탈취하고, 혹 지빈무의혼

199) 『소대성전』, 38면.

200) 서대석, 앞의 책, 13면.

201) 영웅소설에도 진실 소생을 미워하여 살해를 모의하는 후처나 첩, 그들이 고용한 자객과 악독한 시비 등 가정소설적 악인들이 등장하며 이들의 형상화 방식은 전술했던 바와 유사하다.

지 이시면 구제하며 빅성을 침범치 아니하고, 나라의 속흔
짐물은 추호도 범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제적이 그 의취를
항복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제 함경 감시 탐관오리로 준민고택하여 빅성이 다 견
디지 못하느니라, 우리등이 그져 두지 못하리니, 그디등은
나의 지휘디로 하라.”²⁰²⁾

(나) 남방 해변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의 노략을 넘
은 늪아지에, 업친디 덤쳐 무서운 흉년을 만나니, 그곳 빅성
의 참혹한 형상 이로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그러나 **조정에
벼슬하느** 이들은 권세를 다향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오, 빅성의 질고논 모르는 듯키 버려두니, 뜻 잇는 이
의 팔을 썩내여 통분함이 널을 길 업더니, 우치 **또한** 참다
못하여 **그윽히**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간을 헛치고,
턴하로써 집을 삼고, **빅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하더라.²⁰³⁾

인용문 (가)에서 보이듯 『홍길동전』에서는 백성에 해악을 끼친다
는 관점에서 탐관오리가 대표적 악인으로 제시되며, 그를 징계한 홍
길동은 백성의 영웅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활빈당 활동에 대하여 관
리가 장계를 올렸을 때 홍길동은 ‘각 읍 재물을 탈취하고 물종(物
種)의 붕송을 방해하는 등 작난(作難)이 무수한 대적(大賊)’²⁰⁴⁾이
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서술자가 백성과 관권(官權)의 관점 사이에
서 흔들림에 따라, 같은 텍스트 안에서도 홍길동은 ‘백성의 영웅’과

202) 김일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5-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36면. 본 논문에 인용한 텍스트는 현전 이본 중
최고본(最古本)이자 최선본(最善本)으로 간주되어 온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경
관 24장본이다. 이하 『홍길동전』, 면수로 약칭한다.

203) 김일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5-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84면. 본 논문에 인용한 텍스트는 1914년 신문
관에서 발행한 『전우치전』이다. 이하 인용할 경우 『전우치전』, 면수로 약칭하겠
다.

204) 『홍길동전』, 13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인’으로 달리 규정된다. 텍스트 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충돌은 결국 길동이 국내에 머물지 못하고 울도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나간다는 방식을 통해 해소된다. 이처럼 서술자의 준거집단에 따라 악인과 그에 대적하는 영웅의 형상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홍길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우치는 교만한 선비, 거만한 선전관, 도적, 관리, 임금, 질투하는 여성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인을 징계하고 억울한 이들을 구제해주는 백성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된 활자본 『전우치전』을 보면 서두 (나)에서부터 ‘조정에서 벼슬하며 권세를 다투는’ 벼슬아치 일반을 전우치가 대적할 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필사본 『전우치전』이 신통한 도술을 휘두르는 전우치의 활약을 다양한 종류의 악인이 등장하는 삽화들을 통해 펼쳐 보인데 비해, 신문관본 『전우치전』에서는 전우치를 권세만을 좇는 조정에 대항하는 민중의 상징으로 조형하려는 의도가 부각된다. 이러한 선악 표상에서 권력과 저항의 관계는 역전된다. 집권자가 악인 반면, 저항하는 자가 선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참혹한 처지의 ‘백성’을 대변하는 전우치,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정’의 이미지에 1914년의 맥락이 기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적어도 필사본과 신문관본 사이에서 악의 내용 규정을 둘러싼 담론 투쟁의 흔적이 드러남은 분명하다.

이상의 논의를 소결해 보면, ‘악한 마음’을 구심으로 하는 가정소설적 악인 형상이 문화적 토대(‘관습’)에 근거하여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반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영웅소설적 악인 형상은 서술자의 준거집단(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홍길동전』의 사례에서 보이듯, 한 텍스트 내에서도 서술자의 준거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자신이 귀속된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해(利

害)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다른 맥락들과 접촉한다. 따라서 가정소설적 악인이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다’는 형상화 방식 상에서 더 이상의 합리화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영웅소설적 악인은 독자에게 어떤 것이 악이고 왜 그러한지를 설득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웅소설적 악인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식별된 부정적 행동이나 사상 등을 가시화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²⁰⁵⁾ 이와 같이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결정된다는 특징을 염두에 둘 때 영웅소설적 악의 표상을 사회적 악이라 부를 수 있다.

③ 악인의 징치자(懲治者)로서의 복수자

고소설과 신소설에서 악인은 타인에게 모종의 해악을 끼치는 인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악인에게 해악을 당하는 무고자가 만들어지는 한편으로, 해악을 중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악인에 맞서 싸우는 대적자가 만들어진다. 복수자 형상은 악인에게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영웅과 동류에 놓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복수자가 근본적으로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형상이라는 점에 있다.

복선화음 구조상에서 복수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복수자는 선악의 내용을 운반하는 기호가 아니라, 선악에 대한 인과응보의 ‘믿음’을 보복지리(報復之理)의 형태를 빌려 실현시키는 행동자로 존재한다. ‘선의 권장, 악에 대한 징계·징치’(勸善懲惡)라는 표현에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가 기입되어 있다. 서사 내에서 ‘징치·징계’는 악(인)의 제거 혹은 격리를 통해 표명되는데, 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복수자

205) 랑시에르는 문학을 통해 “세계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되는 방식, 이 가시적인 것이 말해지는 방식, 이를 통해 표명되는 역량들과 무능들”(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09, 16-17면)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학이 어떤 행동·인간을 악행·악인으로 그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악으로 가시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표명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형상이다.²⁰⁶⁾

복수는 “타인으로부터 입은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해자나 그 연고자에게 되돌려 갚는 행위”²⁰⁷⁾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적(私的) 폭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사법권이 개인의 복수 행위를 대체하는 양상이 일반화된다. 그러나 도덕질서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복수를 정당화하는 경향과 법 질서 위배라는 측면에서 복수를 금지하려는 경향은 오랜 기간 충돌하면서 공존해왔다. 예컨대 삼국시대에 복수는 국가 이념으로까지 승화되어 순국(殉國) 이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반면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러 율령이 반포된 후 복수에 대한 인식은 장려에서 용인으로 바뀌었고, 자비(慈悲)·불살생(不殺生)을 교의로 내세운 불교의 영향이 커지면서는 복수를 회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기도 하였다.²⁰⁸⁾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복수는 특히 유교적 맥락에서 악을 응징하는 ‘정당한 폭력’으로 용인되어 온 역사가 길다. 복수가 유교적 예치(禮治)의 실천으로서 율령에 입각한 법치의 대상에서 벗어나있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 윤리에 합당한 복수 행위는 사회적 용인을 얻어 처벌받지 않았다.²⁰⁹⁾ 전근대 소설 전통에서

206) 신소설에서는 『목단화』의 검홍에서처럼 복수가 완전히 사적(私的) 맥락에 위치한 경우, 복수를 정당화하는 논평적 서술보다는 복수의 폭력성 그 자체가 표출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악에 대한 폭력성이 복수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정당한 복수자’로 형상화되는 국면에 이르면, 사적 복수자가 정당화의 맥락을 상실하고 일그러지거나(『귀의성』), 경찰·순사 등 사법적 인물로 육화된 국가권력이 주인공의 복수를 완전히 대리하는 경우(『명월정』)가 분기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07) 김창석,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한국 역사연구회, 2013, 145면.

208) 위의 글, 161-165면.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살생을 금하고 자비를 중시한 불교의 영향이 확장됨에 따라 복수를 반대하고 원한을 없애자는 주장도 확산되었지만, 인과응보, 윤회, 환생이라는 불교적 요소가 본래의 복수 관념과 결합하여 〈다른 세상에서의 복수〉라는 특이한 형상화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리펑페이(李鵬飛),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372면)의 논의가 시사적이다. 복수가 도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직접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타 담론을 흡수하면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수가 ‘정당한 것’으로 형상화되는 방식 역시 이러한 배경과 밀착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복수는 특히 ‘의로움(義)’의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적 폭력으로 규정되었다. ‘의살(義殺)’에 관한 김호의 논의에 따르면, 복수를 정당화하는 가치인 ‘의로움’은 복수의 대상과 주체라는 두 측면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 복수의 대상이 ‘큰 잘못(大惡: 不孝, 不友, 悖逆, 淫亂)을 저질러 인정과 도리로 따져보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를 ‘죽일 권리가 있는 자’가 복수했을 때 복수는 정당화되었다.²¹⁰⁾ ‘죽일 권리가 있는 자’라는 복수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직접적 피해자인 가족, 국가, 그리고 제3자인 의인(義人)으로 대별된다. 이 때 의인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도덕적 각성을 도와 궁극에는 만인의 도덕성 위에 정의 사회를 구축한다’는 주자학의 핵심을 구현한 인간형, 즉 타인의 부도덕에 개입함으로써 ‘의분(義憤)’할 줄 아는 인간형에 해당한다.²¹¹⁾ ‘의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과 무관한 복수를 대리하는 협객(俠客), 의협(義俠)과 같은 인물형이 ‘의인’을 대표한다 할 것이다.

고소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춘향전』과 『유충렬전』에서 이 세 가지 주체의 성격이 한 인물에 응집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가) 네 근본이 명나라 정총독(總督)의 아들이 아니냐? 세대(世代)로 명나라 녹을 먹고 그 임금을 섬기다가, 무엇이 부족하여 충신을 죽이고 부모국(父母國)을 치려 하니 이는 만고의 역적이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시랴? 억조창생(億兆蒼生)들이 네 고기를 먹고자 할 뿐더러 지하(地下)의 귀신도 너를 죽여 천자에게 드리려 할 것이니, 너 같은 만고역적이 살기를 어찌 바라리오. 너를 사로잡아 전후(前後) 죄악(罪惡)을 다 묻은 후에 너의 육신을 포(脯)를 떼서 종묘(宗廟)에 제

209) 위의 글, 150면.

210)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다산(茶山)의 『흙흙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340면.

211) 위의 글, 343면.

사하고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우리 부친 충효당(忠孝堂)에
제사하고자 하나니 바빠 나와 목을 늘리어 내 칼을 받으
라. 212)

(나) 턴은이 망극호오미 알월 벉를 모로오느 왕화 불급쳐의
탐관오리 만스와 민원이 등턴호오니 어스를 호이시면 각읍
수령의 선악을 념탐호와 탐전의 알외리이다 상이 괴특이 너
기스 호남어스를 제슈호이니 평싱 소원이라 어전의 하직호고
즉일 발헝홀 제 213)

유충렬은 네 차례의 전쟁에 출전함으로써 국내외의 반역 세력을
평정하였는데, 이 ‘만고의 역적’은 유충렬의 부모를 모함하고 아내를
접박한 악인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에 드러나듯 아버지의 복수
를 갚는 ‘효’의 실천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충’의 실천과 겹쳐져
서 나타나며, 이는 “충렬은 가히 충효를 쌍전(雙全)한 인재”²¹⁴⁾라는
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 때 유충렬은 부친 살해의 직
접적 피해자면서 왕을 대리하여 공적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장수이며, 동시에 패역과 불효라는 ‘대악’에 대한 집단적 공분
(公憤)을 대변하는 의인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는 『춘향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변 사또는 이몽룡
의 배필을 빼앗은 악인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성을 높이 하는’²¹⁵⁾ 탐관오리로서 공동체에 대한 악인이기도 하

212) 김유경·이운석 교주, 『세책 고소설 5 - 유충렬전·정비전』, 이회, 2005, 106
면. 『유충렬전』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창작되어 방각본으로는 완판본만이 확인
되지만 활자본으로 매우 많이 출간되었던 소설이다. 본 논문이 참고한 텍스트는
서울 세책집에서 유통되었던 ‘향목동 세책본’이다. 『유충렬전』은 이본이 매우 많
으나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
유충렬전』, 면수로 간략히 표기한다.

213)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33면. 본 논문에서 인용한
『춘향전』은 경판 35장본으로 『춘향전』 경판 판각본들의 원형에 가깝다고 추정
되고 있다. 이하 『춘향전』, 면수로 약칭한다.

214) 『유충렬전』, 138면.

215) “기름 고 놉홀 고즈어놀 순식간 다라스되 금준미주는 천이혈이오 옥반가효는
만성괴라 축누낙시민누낙이오 가성고쳐원성괴라” - 『춘향전』, 41면.

다. 한편 변 사또를 징계하는 이몽룡은 배필을 빼앗긴 직접적 피해자이면서 임금으로부터 ‘각 읍 수령의 선악’을 염탐하여 징계할 권리를 부여받은 암행어사이고, 동시에 학정이라는 ‘대악’에 대한 공분을 대변하는 의인으로 나타난다.

다만 세 가지 주체의 성격이 응집되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 신소설의 복수자가 형상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동일하게 명대 단편소설집인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채소저인옥보수(蔡小姐忍辱報讐) 삽화를 저본으로 삼은 이해조의 『모란병』과 박이양의 『명월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금고기관』의 원본에서는 직접적 피해자인 여주인공 서홍이 복수자로 나타나는 반면, 『모란병』과 『명월정』에서는 여주인공이 무고자로 변용되고 국가가 복수를 대리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면서 ‘정당한 복수자’의 자리 역시 독점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복수자는 인과응보를 주재하는 초월자를 대리하는 형상이다. 복수자와 마찬가지로 영웅도 악인을 징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과응보를 구현하지만, 행동자 차원에서 영웅이 수행하는 더 중요한 기능은 악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수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복수자는 선악에 대한 인과응보의 ‘믿음’ 내지 감수성이 가장 직관적으로 구현된 미학적 형상이라 할 수 있다.

Ⅲ. 대한제국기 내셔널리즘과 악의 유형

영웅소설적 전통에서 ‘악인’과 대립하는 주인공(영웅)을 선(善)이라 부를 때, 선악이라는 말은 도덕적 악의 표상에서처럼 선성(善性)과 악성(惡性)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선악은 인성론적 의미망보다는 공동선에 기여하는 ‘좋은(good)’과 공동선을 저해하는 ‘나쁨(bad)’의 의미망을 거느리고 사용된다. 다시 말해 영웅소설적 전통에서 ‘악인’은 ‘악한 인성을 가졌다’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공동선의 담지자로 표상되는 영웅에 대한 반동인물로, ‘공동체의 안녕에 해를 끼친다’는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통해 표상되는 악을 도덕적 악과 구분하여 사회적 악이라 부를 필요가 있음은 전술했던 바 있다.

실상 이러한 인물은 도덕적 악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악인’이라는 명칭보다, 행동자 차원의 역학 관계를 강조할 수 있는 ‘반동인물(antagonist)’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²¹⁶⁾ 특히 신소설의 경우, 주인공을 공격·반대·방해함으로써 공동선을 저해하는 ‘악인’들이 부수적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동자 차원의 역학 관계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소설의 주요 주제로 익히 주목받아 왔던 친구갈등이 실제로는 ‘주요인물’ 대 ‘주요인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요인물(major figure)’ 대 ‘소인물(minor figure)’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 경우가 많은 데서 알 수 있듯, 당대 담론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악이 소설에서는 왜소한 인물을 통하여 형상화된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와 관련하여 반동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설과 신소설의 서

216) 작중 인물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게끔 하는 개념인 주동인물(protagonist)과 반동인물(antagonist)은 일반적으로 전자가 작가가 긍정하려는 인물, 후자가 작가가 부정하려는 인물로 설명된다. 문학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립은 신과 악마(신화), 영웅과 악인(로망스·서사시), 선인과 악인(소설) 등 다양한 쌍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근대 이후로 ‘도덕적 상상력’이 계발됨에 따라 선악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130-131면.

사구조를 고찰한 김수봉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김수봉은 한 명의 주요 반동인물이 처음부터 주인공을 공격하다 실패한다는 단순구조의 단순형,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명의 반동인물이 서사 중간 부분에 등장·협력하여 주인공을 공격하다 각각 실패한다는 이중적 사건을 다룬 중층구조가 나타나는 혼합적 중층형, 서로 무관한 복수 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별개 목적을 위해 순차적으로 주동인물을 공격하다 순차적으로 패배한다는 연합적 중층구조가 나타나는 연합적 중층형의 3유형으로 서사구조를 분류하였다.²¹⁷⁾

김수봉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주동·반동의 기능이 주요인물과 소인물의 수준을 포괄하여 복수로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은세계』에 나타난 인물들을 개화·계몽의 담지자(주동인물)와 그의 저해자(반동인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반동인물들이 반드시 주요인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주동인물/반동인물과 주요인물/소인물의 교차 양상은 각 텍스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 하에 신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악의 표상에 접근하려 한다. 다만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반동인물을 악인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겠다.

217) 김수봉, 『서사문학의 반동인물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82면.

1. ‘공익’과 이기심의 이중성

대한제국 시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애국계몽운동의 요체는 교육과 실업의 두 갈래로 대별할 수 있다.²¹⁸⁾ 이 두 운동을 통해 대한제국 시기 근대화를 주도했던 새로운 사회 계층—‘교양 시민’과 ‘경제 시민’—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국내외에서 신학문을 수학한 후 교육계·언론계에 투신하여 개화계몽 사상의 확산에 주력했던 신지식층과, 각종 상회·회사·동업 조합 등의 설립을 통해 활발하게 실업 활동을 펼친 경제인들이 각각 대한제국 시기 ‘교양 시민’과 ‘경제 시민’의 원형을 만들어냈다고 여겨진다.²¹⁹⁾ 이 두 계층은 학교, 신문, 학회, 부인회, 청년회, 국채 보상 단체, 동업조합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을 조직하여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쳤다.

1900년대를 풍미한 이 다기한 활동들은 대개 부국강병·독립을 향한 내셔널리즘적 열망에 의해 견인되었다. 송호근은 “단순한 집합체에 공익 추구의 기능과 의미를 불어넣”²²⁰⁾은 1900년대적 경향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저항의 성격이 강한 서양의 ‘시민성’과 국가 권력과의 대결 구도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시민성’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기도 했다. 내셔널리즘이 새롭게 창출된 사회적 활동·관계는 물론 그와 연결된 담론·상징을 흡수하며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국가와 신민 혹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발견된 근대적 영역인 ‘사회(社會)’ 역시 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받았다.

218) 대한제국기 계몽사상가들의 공통된 인식 기반은 사회진화론이었다. 민족·국가 간 생존경쟁이라는 사회진화론적 도식을 통해 ‘지식과 세력’이 있는 ‘문명’한 민족·국가만이 생존하고 ‘야만’한 민족·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당시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실력양성론이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핵심이 되었다. 대한제국기 계몽단체들은 ‘지식과 세력’의 열세를 국권 피탈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식과 세력’을 양성해 줄 교육과 ‘부강’의 방도인 식산(殖産)을 중시했다. - 이송희,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2011, 25-37면.

219) 송호근, 『시민의 탄생』, 민음사, 2013, 238-244면.

220) 위의 책, 385면.

교육과 경제의 영역인 ‘사회’는 “개인이 공민(公民)이 되는 영역”²²¹⁾, “國家와 民族의 公益事業”²²²⁾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정의되었고, 개인과 국가를 연결할 수 있는 실체로 구상되었다. 이에 적합한 ‘사회인’ 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인公德(公德)을 갖춘 인간상이 제시되어 깊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²²³⁾

사회의 여러 ‘공익사업’ 중 교육과 실업이 가장 중시되었던 것도 인재 양성과 실력 양성이 자주독립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²²⁴⁾ 대한제국 시기에 교육을 통한 인민 계몽과 실업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은 국가를 위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으로 확고히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질적으로는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행위인 경제 활동이 ‘천하다’는 전근대적 인식을 탈피하여 ‘영웅’적인 것으로 격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토대하여, 근대 초기 영웅 형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근대 초기 영웅 형상은 주로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잔 다르크 등 서구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번역 역사·전기소설과 을지문덕, 이순신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 역사·전기소설을 통해 형성되었다.²²⁵⁾ 이 시기 역사·전기 소설은 군담소설이나 전(傳)의 전통 외에도 근대 초기 여러 신문에 실렸던 「인물고」, 「인물기사」 등과의 영향 관계에 있었다고 논의되고 있는데, 후자에 등장한 주요 ‘영웅’들 역시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등 역사적 실존인물이다.²²⁶⁾ 즉 근대 초기에도 영웅 형상은 외적·역적에 맞서 공동체를 구원하는 전통적 전쟁 영웅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실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근대성’에 대한 열망이 커짐에 따라 전쟁 영웅이 교육인·경제인으로도 변신하는 사례가

221) 위의 책, 360면.

222) 박은식, 「敬告社友」, 『서우』 2, 1906.2., 5면. 이 글에서 박은식은 ‘정계(政界)’와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는 ‘일반인민이 상호결합’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223) 송호근, 앞의 책, 339면.

224) 위의 책, 374면.

225) 권영민, 『서사 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71면.

226)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 소명출판, 2005, 40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전근대 소설 전통의 계보에 속하는 『여영웅』에서 먼저 발견된다는 점은 상당히 이채롭다. 『대한일보』에 1906년 4월 5일부터 연재되었으나 미완으로 끝난 국한문소설 『여영웅(女英雄)』은 고소설 「이학사전」을 저본으로 확장한 소설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외세의 위협에 맞서 출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학사전」의 골격인데, 『여영웅』은 후반부에 주인공이 해외로 진출하여 미개한 섬을 골라 개화시키고 자주독립국을 이루는 서사를 첨가함으로써 ‘개화기’적 특색을 선명히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다.²²⁷⁾ 본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 역시 〈교육 강화·경제 부흥 → 군사력·정치 제도의 완비 → 자주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이라는 당시 애국계몽운동의 전망이 투명하게 투사되어 있는 후반부이다.

『여영웅』 후반부 서사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전쟁에 공을 세워 얻은 벼슬을 사직하고 명산대천을 유람하던 이형경은 유럽과 아메리카를 유람하다 “화성돈이 열심히 대중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한”²²⁸⁾ 것을 보고 그것이 ‘대장부의 과업’이라 생각하여 인도양에 위치한 살마이도(薩摩伊島)에 들어간다. 이 섬은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오랑캐 사회’였으나, 이형경이 사람을 모아 개명주의(開明主義)를 가르치자 점차 교화되었다. 이에 살마이도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형경을 부락장(部落長)으로 추대하였다. 부락장이 된 이형경은 뛰어난 인물 200명을 직접 통솔하고 영국에 들어가 농·상·공업을 배워 돌아온 후, 각종 공장을 세워 물품을 제조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으로 유학을 꾸준히 보냈다. 이에 힘입어 10여년 사이에 ‘문명’이 펼쳐지자 살마이도 인민이 의회(衆議院)를 설립하였는데, 이 의회에서 이형경은 또 다시 도장(島長)으로 추대되어

227)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여영웅」 연구」, 『여영웅-바다로 나간 최초의 여성영웅 이야기』, 민속원, 2012, 17면.

228) 위의 책, 325-326면.

살마이도를 다스리게 된다. 어느 정도 교육과 실업이 육성되었다고 판단한 이형경이 육해학교(陸海學校)를 세워 사관(仕官)을 양성하고 금융부를 설치하여 재정을 정돈함으로써, 살마이도는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 마침내 “만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주독립국”²²⁹⁾이 된다.²³⁰⁾

『여영웅』 전반부에서 이형경은 기이하고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여 산호 채찍 하나로 주왕(周王)에 맞서 싸우는 등 전형적인 전쟁 영웅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이형경은 살마이도의 ‘개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영웅으로 변신한다. 이미 부국강병의 꿈을 고립된 외국 섬에서 실현해 보였던 『홍길동전』 등과 『여영웅』이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형경이 전근대적 군주를 자임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회의 지도자’로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실천해보였다는 점이다. 이형경이 연설을 통한 민중 교화에서 출발하여 교육과 실업 진흥을 이끌고, 군제(軍制)와 관제(官制)의 정비를 마쳐 “교육의 성대함과 식산의 융성함과 국방의 엄정함과 재무의 풍부함”²³¹⁾을 세계에 떨치기까지는 10여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후반부에서 영웅은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민의 생활을 ‘근대화’시키는 사회의 영웅으로 변용된다. 이와 같은 변용은 갑신정변으로 대변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시도가 무산된 후, 민간 영역의 잠재력에 명운(命運)을 걸 수밖에 없었던 1900년대의 맥락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여영웅』 연재 2년여 후에 발표된 『송뢰금』에서 ‘사회적 영웅’으로 경제인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 역시 애국계몽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러나 『여영웅』에서 이형경의 교육·경제 활동이 아무런 저항에도 부딪치지 않는 순탄한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송뢰금』에서 근암의 활동은 끊임없이 저항에 부딪치는 지난(至難)한 것으로

229) 위의 책, 329면.

230) 「여영웅」 84-85회, 『대한일보』, 1906.7.19.-7.20.(조용호, 앞의 책, 323-329면)

231) 위의 책, 329면.

그려진다.

즉 『여영웅』의 역점이 자주독립으로의 인과적 연쇄를 그려 보임으로써 교육·실업을 민족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으로 규정·설득하는 데 놓여 있다면, 『송뢰금』의 역점은 이렇게 합의된 공동선의 추구를 방해하는 ‘반동’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규탄하는 데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영웅』의 살마이도 개화 서사는 실제로는 연재 2-3회에 불과한 짧은 분량 속에 압축적으로 제시된 ‘희망적 진술’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 『송뢰금』은 승리가 아닌 역경의 서사를 두껍게 펼쳐 보임으로써 ‘사회적 영웅’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한편으로, 그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의 정체를 규정하는 데에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송뢰금』의 서사는 근암을 중심으로 한 실업 서사와 김경식 일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 이민 서사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미완으로 끝나 후자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속에서, 『송뢰금』은 ‘공익사업’으로서의 ‘실업’을 강조하는 흐름을 대변하는 회귀한 ‘실업소설’로 “제국주의의 압박 앞에서 이처럼 강렬한 민족적 지향을 보여주는 토착자본의 구체적 활동”(232)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실업에 종사했던 저자 육정수의 개인사 등을 단서로 하여 구한말 개화파가 펼친 실력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송뢰금』을 독해하는 연구들이 있다.²³³⁾

232)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256면; 한편 양진오(「육정수의 『송뢰금』 연구」,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는 『송뢰금』이 식민담론이 유포한 문명개화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고평했다.

233) 김종철, 「한말 민족현실과 신소설: 『송뢰금』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5,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조경덕, 「초우당 주인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임기현, 「근대 계몽기 작가 육정수 연구」,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한편 노동 이민 서사에 주목하여 텍스트에 반영된 당시의 이민 현황과 민족의 디아스포라에 주목한 연구로 양진오, 「신소설이 재현하는 20세기 초반의 한반도 현실: 『송뢰금』에 나타난 러일전쟁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2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 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축이 되었을 노동 이민 서사까지 포괄하는 작품으로 볼 때, 『송퇴금』이 실업가·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민족사회의 ‘바람직한’ 질서를 재편해 보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할 만하다. 다양한 사회 활동 중 특히 경제(생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송퇴금』의 관점은 신분, 나이, 성별과 같은 태생적 지표에 입각하여 구성된 기존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효과를 거둔다.

만세 소리는 금강산 만폭동 폭포소리 갓치 활발이 천지를
뒤집는듯 전후좌우에 눈을 비비고 나쁜 남녀노소의 눈에 보이
는 것은 큰 깃디에 쓰인 거시라

독립은 영웅열사의 상(賞)

자유는 호걸남아의 상(賞)

교육은 유지청년의 상

실업은 진직 국민의 상이라 디서특셔하엿논디 나이 이십
되락물낙흔 남녀승각들이 사방모자에 독립자유교육실업을 혼
모통이에 하늬식 쓰고 태극기를 혼드러

(남즈) 이는 **용감인너하야 유진무퇴하고 국민의 직분을
다하는 즈에 계잡 업시 주는 깃디요 나타퇴축하야 국민의
직분을 방긔흔 즈에게 스읍시 썩려 썩우는 거라**

(너즈) 의 깃디 일흠을 보라거든 속에 묵은 스상을 썩고 몰
근 정신을 느홀지어다²³⁴⁾

위 인용문은 『송퇴금』과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던 육정수의 단편 소설 「혈(血)의 영(影)」의 일부이다. 여기서 독립은 열사의 상이며 자유는 호걸의 상, 교육은 유지청년의 상인 것에 비해 실업은 국민의 상이라고 역설된다. 여기서는 표현 상 열사·호걸·유지청년이 국민과 구분되는 주체로 기술되는데, ‘실업은 진직 국민의 상’이라는 서술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이란 신지식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

234) 육정수, 「혈의影」, 『장학보』 1권 2월호, 1908, 30-32면. 띄어쓰기 인용자.

성원을 경제주체로 호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실업’이 ‘국민의 직분’의 수행과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국부론』적 논리가 이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 담론이 전도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싶다. 여기서 ‘국민’ 담론은 전근대 조선 사회에서 공상(工商)으로 하대 받아왔던 경제주체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경제가 정치·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유되고 있다. 실업이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제국 사회 구성원이 모두 투신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송뢰금』에서 실업가·노동자로 전화(轉化)하는 인물들이 김경식, 근암, 검둥어멈, 검둥이 등과 같이 정치 엘리트부터 노비에 가까운 하층인물을 아우르며 사회 각계각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뢰금』의 시점에 이러한 논리는 ‘자조(自助)’ 담론을 경유함으로써 구체화된다.

대저 이 세상 허다한 영웅 호걸과 스업가 들이 그 곤란한
자리와 위험한 곳을 몇번을 지나 그 일홈을 일잇는가

오날 우리나라 현상이 비록 어려운 때나 물산의 풍부와 운
수의 편리와 인민의 덕의심이 다른 곳에 비할바이 안이니 이
때에 유위의 청년으로 하여곰 실업의 표준을 세우면 전국에
영향이 바람 이러나듯 할지라

평안도의 용감력과 함경도의 인리력과 전라도의 민활 공교
한 지조로 괴호에 화려한 스상을 비양하여 팔역에 통공업을
발달하면 불쫓기년에 니국에 물산이 극동장시에 편만할지니
이 때는 그대의 스업이 하여홀고 팔항구에선 룬선에 티극국괴
가 빛나리로다

비로소 전국에 지정이 풍부하여 가이 선비를 기르고 운하와

착산의 길을 통하여 저 궁향소촌이 모다 미국에 치카코시와
 치 번성하기를 바랄지라 무론 그 가온디 허다한 장의와 무
 궁한 낙심이 잇슬지나 험한 길에 중로에 도라셔지 안이함
 으로 목적지에 도달함과 궂디 이것을 이기는 자라야 이 압
 해 무궁한 행복을 이천만 민족에게 끼쳐주리라

그대는 내 말을 듣고 밋지안이 하거든 력더의 스기와 조조
 론(自助論)일편을 다시 읽으라²³⁵⁾

근암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먼저 ‘사업가’를 ‘영웅호걸’과 동등하게
 위치시킴으로써 경제주체를 ‘이천만 민족’의 새로운 영웅으로 호명하
 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전
 국의 부(富)를 ‘사업’을 통해 증진시킴으로써 ‘태극국기’를 세계에 빛
 나게 할 과업이 부여된다. 이 때 ‘사업가’가 걸어갈 ‘운하와 착산의
 길’은 ‘미국의 시카고 시와 같이 번성’한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믿어
 지지만, 동시에 이 길은 ‘허다한 장애와 무궁한 낙심’이 있는 ‘험한
 길’이 되리라 전망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유위
 의 청년’이 참고해야 할 방침이 ‘역대의 사기(史記)’와 ‘자조론’ 1편
 으로 제시된다.

대한제국 시기 ‘자조’ 담론은 ‘문명부강’의 수단으로 교육과 식산
 (殖産)을 강조하던 흐름 속에 위치해있다.²³⁶⁾ 특히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자조’ 개념이 부상했던 것은 당시 국권 침탈의 위기가 도
 래한 근본 원인을 ‘의존’에서 찾으려 했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계되
 어 있다. 대한제국기 담론장을 양분했던 식민주의와 내셔널리즘 양
 측에서 모두 ‘의존’은 국권 침탈 위기 상황의 원인을 ‘민족성(民族
 性)’에 수렴시키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²³⁷⁾ ‘학자·정치

235) 육정수, 『송회금』, 박문서관, 1908, 106면.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
 송회금』, 면수로 간략히 표기한다.

236) “우리 동포는 교육과 실업을 아울러 힘써서 혼편으로는 의식지조를 넉넉히
 하고 혼편으로는 지식을 닦아 문명 부강에 나아가게 할지어다” - 탄핵성, 「교육
 과 실업을 아울러 힘쓸 일」, 『제국신문』, 1908.6.21.(강현조 외 편역, 『제국신
 문 미공개 논설 자료집 1907.5.17.~1909.2.28.』, 현실문화, 2014, 542면
 에서 재인용)

가·관리·인민 등 모든 국민(一國之人)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의뢰(=의존)의 고질이 있기 때문에 자강자립할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238)는 논리 속에서, '의존'은 '자유와 인격을 잃게 하여 노예와 우마(牛馬)로 전락시키는 인간 만악(萬惡) 중에서도 가장 큰 악(惡)'239)으로 규정되었다.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의존'은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조선인의 '민족적 결함'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내셔널리즘 진영은 '의존'이라는 말 자체에 기입된 식민주의적 뉘앙스를 축출하는 대신, '의존'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함'으로 표상하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조 담론은 생활, 정치, 외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고질적 '의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의존을 비판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주체로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담론으로 수용되었다.240)

自助精神이란 것은 自主自立해야 他人의 力を 依치 아니
 하는 것이니 人의 才智를 由야 生는 根原이라 推而言之
 컨딘 家庭에 自助는 食口—多면 家道—和平야 活計產
 業을 永續히 保存하며 國內에 自助는 人民이 多면 國
 權이 充實야 獨立基礎를 堅固히 構成하리니 (중략) 家庭
 에 自助者ㅣ 無면 產業이 低傾고 禍事ㅣ 層生야 蕩

237)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309-310면.

238) 장지연, 「團體然後民族可保」, 『대한자강회월보』 5, 1906.11.

239) “人之萬惡에 何惡이 爲最오 曰 依賴가 是라 人依賴於人하면 失其自由하고 墮其人格야 將不免爲奴爲隸하며 爲牛爲馬하느니”(띄어쓰기 인용자) - 「依賴於人者는 必傾覆於人」, 『황성신문』, 1907.6.3.

240) 자조 담론의 뼈대를 제공한 새뮤얼 스마일즈의 *Self-Help*는 185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어 곧바로 인기를 얻었고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조선에서의 본격적인 자조론 수용에 관계가 깊은 것은 1871년 일본에서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나카무라 게이우(中村敬宇)의 책이라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조선에서의 자조론 수용 양상에 관해서는 류시현, “Multiply-Translated Modernity in Korea: Samuel Smiles' *Self-Help* and its Japanese and Korean Trans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6,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1과 최희정,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청년”의 “자조”」, 『한국사상사학』 39, 한국사상사학회,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敗_하 境遇를 致_하 것_이오 國內에 自助者ㅣ 無_하면 內政이 紊亂에 外侮가 至_하고 人民이 怠惰에 國勢가 貧寒_하야 岌岌_하形局을 當_하리니²⁴¹⁾

위 인용문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직접 파견한 학생들로 조직된 공수학회가 발행한 학회지 『공수학보』에 실린 글의 일부다.²⁴²⁾ 여기서 ‘자조정신’은 산업을 융성케 하고 국권을 충실하게 하여 독립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필수적 정신으로 규정된다. 특히 위 글은 ‘국세를 빈한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유의유식(游衣游食)’하며 ‘자주 자립(自主自立)’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 생산단위·사회 구성단위로서의 ‘가정(家庭)’²⁴³⁾의 자조에 기여하지 않는 자,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일컫는다. <자조하는 인민=경제(생산) 활동하는 인민>으로 규정하는 이와 같은 논의에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사회 질서를 구상했던 스마일즈의 *Self-help* 논의에 함유되었던 급진적 ‘정치성’이 잔류하

241) 김성목, 「自助精神」, 『공수학보』 1호, 1906.1., 14면.

242) 1906년 결성된 공수학회(共修學會)는 타 유학생 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관비유학생들로만 구성된 학회였다는 점에서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지향점을 가늠케 해준다. 공수학회의 구성원과 창립 과정에 대해서는 김기주, 「구한말 재일한국 유학생의 민족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7-18면을 참조.

243) 이 글에서 ‘가정(家庭)’은 경제 생산의 단위이자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oikos)에 합치되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국가와는 구분되는 민간 영역인 사회의 구성단위로 나타난다. 오이코스란 경제적 사업체와 가족으로서의 독자적 가계라는 사회적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니콜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2, 장준익 역, 새물결, 2012, 1067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개인의 유지, 종족 보존과 관련된 경제 활동은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가정’(oikos: household, house 등으로 번역 가능한 고대 그리스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정치)의 구분은 고대 도시국가 발생 이래로 존재해왔다고 보고, 사적 영역도 공적 영역도 아닌 ‘사회적 영역’의 출현은 근대의 출현과 일치하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다. 이는 가계(家計), 즉 경제활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영역이다. 아렌트는 ‘집단적 살림’의 주제, 즉 경제적으로 조직된 가족집합체를 ‘사회’라고 부르고 그 사회가 정치적 형태로 조직화된 것을 ‘민족’이라 부른다고 했다.(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80-85면) 아렌트의 논의에서 오이코스는 가부장을 정점으로 하며 노예를 포함하는 고대 그리스의 ‘가정’을 가리키지만, 경제 활동 단위라는 점에서 인용문의 ‘가정’과 일치하는 의미를 가진다.

고 있다.²⁴⁴⁾

서구 사상사에서 영리 추구는 본래 악(플라톤, 『국가』)으로, 또는 현실과의 타협에 의한 필요악(토마스 아퀴나스)으로 간주되다가 애덤 스미스에 이르러 적극적 선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리 추구·경쟁 행위가 사회의 이익을 상승시켜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사고를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이기심을 정당화했다.²⁴⁵⁾ 전근대에 탐욕·사욕으로 격하되어 있었던 이기심을 ‘자조’ 담론이 암묵적으로 긍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근대적’ 사고방식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 시기 ‘자조’ 담론이 어디까지나 국가·민족을 정점에 두는 내셔널리즘의 자장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 인용문에서 ‘활계산업’의 활동이 ‘국권의 충실’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듯, 새로운 근대적 인간형인 경제주체는 궁극적으로 국가·민족의 이익인 공익(公益)과의 관계 속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존재로 표상된다.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가) 財産은 人生須要의 第一要件이니 小인 者는 一個人의

244) *Self-Help*에서 스마일즈는 노동자계급이 국민의 주성분이라는 전제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자조를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 프로젝트와 직결시켰다. 조선의 맥락에서 이는 경제와 노동의 가치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지만, 스마일즈에게서 이러한 도식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출되었다. 노동자계급의 교육을 위해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인민의 통제를 받는 국가적 교육 체계의 설립’을 주장했던 이 시기부터 스마일즈는 다른 급진주의자들과 달리 “(노동자계급의) 집단의 자조(collective self-help)”에 대비되는 “개인의 자조(individual self-help)”를 강조했다.(Alexander Tyrrell, “Class Consciousness in Early Victorian Britain: Samuel Smiles, Leeds Politics and the Self-Help Creed”,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21-122면) 스마일즈가 특히 국가 단위의 일반 교육을 중시했던 것은 그가 “모든 남자가 투표권을 가져야한다고 믿었지만, 노동자계급 남성이 교육 받지 못했다면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Cara E. Murray, “Self-Help and the Helpless Subject: Samuel and Biography’s Objects”,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6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489면)

245) 사토 야스쿠니·미조구치 고헤이 편, 『모럴 아포리아』, 김일방·이승연 역, 글항아리, 2013, 42-43면.

獨立幸福으로브더 大호 者는 國家의 安寧富強에 至호기
지 總히 財産을 相湊치 아니호는 바 | 無호니 故로 財産을 做
出호야 此를 增殖호는 人生의 要務 | 니라 然이나 世人이 往往
財産을 增殖호는 當初의 目的을 忘却호야 自他間에 何等の
福利를 不與호고 다만 財貨를 蓄積호는 樂事로 思호야 其 利
用호는 些少도 着念치 아니호는 者 | 有호니 此를 吝嗇이라
云호며 또 此와 相反호야 無益不急호 慾望을 充得코져호야
金錢을 浪費호는 者 | 有호니 此를 奢侈라 云호느니 此 二者
는 中正호 道를 共失호는 者니라²⁴⁶⁾

(나) 문 사람의 의무가 종류와 경우를 따라 각각 다르지 아니
호노

답 의무가 비록 종류와 경우를 따라 갓지 아니호나 나아가면
공익을 힘써 꾀호고 물너가면 타인을 헐치 안임을 힘써 구
할 뿐이며 또 사람의 처호바 경우는 천티만상이나 크게 분별
호면 두 가지밖에 안이되니 한 가지는 사회상을 위호는 일이
오 한 가지는 자기 마음을 위호는 일이며 사회를 위호는 경우
로 의론호면 크게 공익을 도모호야 사회진보의 방침을 명
함으로부터 적게 각인의 레법과 조건등스에 이르기까지 불가
불 각각 그 썩와 처디를 응호야 실행호지니 이는 경우와 의무
가 서로 연락호시오 마음을 위호는 승티로 의론호면 호는 사
회상에 더호야 의무를 다호는 큰 관계라 호지니²⁴⁷⁾

(가)는 대한제국 시기 민족계 사립중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에서 ‘재산’ 추구 활동의 성격을 규정한 부
분이다.²⁴⁸⁾ 『윤리학교과서』는 “財産을 欲호며 快樂을 求호는 念이

246) 신해영, 『倫理學教科書』, 보성중학교, 1903, 40-41면. 띄어쓰기 인용자.

247) 「윤리학」, 『제국신문』, 1908.7.22.~23.(배정상, 앞의 책, 492면에서 재인
용)

248) 개화기 교과서들은 대개 내셔널리즘의 자장 아래서 ‘국력 배양’에 기초를 두
고 편찬되었다. 국민의 의무, 애국심 고취, 황실에 대한 의무 등을 강조하는 『
윤리학교과서』의 편찬 취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 때문에 1909년 『윤리학
교과서』는 학부 불인가 교과용 도서가 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 김민재, 「근
대 수신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도덕과 교육’의 연속성: 『윤리학교과서』와 『고등

全無하면 其 幸福의 太半을 失함이니다만”²⁴⁹⁾이라 하여 행복(재산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긍정하였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는 사회의 일원이므로 ‘일신의 이해’보다는 ‘사회의 공익’을 반드시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⁵⁰⁾ 따라서 ‘자타간의 공공의 이익’을 기여하지 않고 재산 축적에만 골몰하는 ‘인색’과, ‘아무런 이익이 없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돈을 낭비하는 ‘사치’가 모두 ‘공정한 도’에 어긋난다고 역설된다. 즉 공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개인의 이기심은 부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던 「륜리학」(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회를 위해 일하든 자기를 위해 일하든 어느 경우에서나 ‘사회의 공익을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공동선을 침해한다는 적극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공동선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견지에서 악이 규정되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공익에 기여하는 한 이기심은 긍정될 수 있지만,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기심은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스업가는 일국에 경제를 제일로 생각호야 공익상 일을 제 스스 영위보다 크게 알아 천번곤란에 락심을 견디여 전진”²⁵¹⁾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공익상 효험”²⁵²⁾을 공동선으로 공공연히 규정하는 『송퇴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 (우) 여보게 자네 곤곤장강동서수에 량화도 진 영웅이
란 말을 못드렀나
(근) 하늘은 조조호는 조를 도으 신다호니 설마 날이 잇겠지

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 103면.

249) 신해영, 앞의 책, 38면.

250) “社會의 公益을 爲호야 永遠호 基業을 設計함에 一身의 利害를 不顧호은 實로 社會의 一員이 되어 其 本務를 完全히 호는 者」라 - 신해영, 『倫理學教科書 下編』, 보성중학교, 1906, 8-9면.

251) 『송퇴금』, 18면.

252) 『송퇴금』, 23면.

(우) 말이 낫스니 말이지 지금 현상을 보게 정치 실업 사회
가정이 무비부퓌흔디 엇더흔 영웅이 도라가는 풍도를 흘연이
막을고

(근) 우리 나라 사람의 오희가 무비 이것이니 한 두 사람의
힘을 빌어 이일을 엇지 다 하기를 바라리오 사람마다 각각
제 일만 잘 하면 그 후에 소소한 분주의 즈림이 일국에 즈
림이 되는것이지 우리는 우리일을 잘 하면 비록 실업 일본
을 도을뿐이나 이것이 곧 일국 즈림에 귀초이니 달은일은
저 정당 사회에 맞기는 것이 합당하지²⁵³⁾

(나) (김) 가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사는 나
나리 달으니……

(리) 그 말 말게 하날은 스사로 일흔는 자를 도으시느니 설마
날이 잇겠지

(김) 약육강식하고 우승렬피하난 이십세기에 엇더흔 영웅
이 능히 도라가는 풍조를 막을고

(리) 영웅은 허다흔 무명영웅을 힘입어 사업을 일어나니 보
법전장에 영웅이 보로사 소학교에 무슈흔 영웅이라는 말을
못 들었나 우리의 원흔는 것은 이천만 명의 무슈흔 영웅이
저 물방아와 갯치 일하기만 바랄 뿐이지

(김) 시디는 동류슈와 갯치 흐르는데 지금 현상은 귀막힐 뿐
일세²⁵⁴⁾

『송퇴금』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선한’ 이기심을 가진 경제주체는
‘영웅’으로 호명된다. (가)에서 우초가 말하는 “곤곤장강동서수(滾滾
長江東逝水), 낭화도진영웅(浪花淘盡英雄)”이란 『삼국지』의 서두
에 실린 시 「임강선(臨江仙)」의 첫 구절이다. 동으로 흐르는 장강
(長江)은 예와 변함이 없으나,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웅들은 물결을
따라 사라졌다는 뜻이다. 우초는 이 구절을 탁월한 영웅이 나타나도

253) 『송퇴금』, 27면.

254) 육정수, 「수륜(水輪)의 성(聲)」, 『장학보』 1권 5월호, 1908, 19-21면. (띄
어쓰기는 인용자)

지금의 풍조를 막을 수 없으니 부질없다는 의미로 사용했으나, 근암은 ‘영웅’을 과거의 ‘소수 영웅호걸’이 아니라 각국이 경쟁하는 오늘날 국운(國運)을 좌우할 힘을 가진 ‘허다한 무명 영웅’, ‘이천만 명의 무수한 영웅’이라는 (나)의 의미로 재규정하면서 이를 반박한다.²⁵⁵⁾ 특히 사람들이 ‘제 일만 잘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업 일본’을 돕고 나아가 ‘일국 자립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이기심이 평범한 인민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기제로 긍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

반면 공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악한’ 이기심은 군수와 우초를 통해 탐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송퇴금』은 ‘일반사회’의 각 활동 중에서도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텍스트이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원산에서의 개발회사 체험은 『송퇴금』 창작의 주요 동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가 1910년대 이후에도 금광 사업이나 각종 회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실업을 통한 실력양성이라는 이상(理想)은 창작과 현실 활동 양면에 걸쳐 관철되었다.²⁵⁶⁾ 『송퇴금』이 ‘정치사회’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특히 아직도 조선 사회의 ‘상민’과 ‘무식한 백성’이 주체로 참여하는 영역인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정부는 “○○군수”의 형상을 빌려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군) 이 고을 물산은 하여호으며 외국에 수출입품 비교가 엇더
하옵닛조

(군) 그것은 날다려 물을 것이 안이요 외국 수출입품은 원
산감리가 알지요

(군) 군 너에 언으곳이 상업이 승호며 언으곳이 농업에 적의

255)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소수 영웅호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자조함으로써 스스로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부국강병이 성취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마찬가지로 자조론을 수용한 양계초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전동현, 「대한제국시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 개념의 수용」,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423-425면.

256) 육정수의 사회 활동 이력에 대해서는 임기현, 앞의 글의 4장을 참고.

호 읍닛가 심등은 상민 이기로 이것을 주의호와 엇주어 보옵
니다

(우) 농업이야 아맛영성홀 터이지 룡민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

(군) 무식호 백성이 모르고 가지요 저희가 엇지 속너를 알
고

(근) 무슨 속너가 잇습닛가

(군) 미국놈이 사가는 것이지

(근) 진실로 그러면 왜 금치 안이심닛쑈

(군) 내가 권리가 잇소

(근) 외부에 보고를 하시지요

(군) 내가 원 노릇을 멧칠이나 하려고 그려겡소

이 소리에 근암이 화가나서

**백성이야 죽던지 살던지 영감이나 불노초술에 만수무강만
하시면 죠켓습닛쑈**

남의 나라에서는 지금 동양평화니 엇지니 하며 후환이 뭇까
바 전정을 일으켜 만주들과 여순구 어구에 멧만명 사람의 생
명을 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수응에 곤란하야 가기가 분분하
고 성상의 인조하신 턴은은 팔역인민의 질고를 근심하시 병침
의 근심이 곱호시거늘²⁵⁷⁾

위 인용문에서 ‘원 노릇을 며칠이나 하려고’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군수는 정부가 파견한 관료로 존재할 뿐, 자신을 민족사회라는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근암의 질문에
대해 군수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무관심하게 답변하거나 ‘무식
한 백성’과 자신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정치사회’ 일반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한편으
로 ‘민족적 정체성’을 결여한 ‘악한’ 이기심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
지를 보여준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태도를 벗지 못한 군수의 전근
대적 현실 인식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 ‘만수무강’하려는 이기적

257) 『송회금』, 45-46면.

인 태도라는 점에서 근암의 ‘경멸’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형상화된다.²⁵⁸⁾

(근) 이것은 오히려 전에 일 일세 압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 안인가 원산항으로 말하면 북으로 함평랑도를 통하며 남으로 경상 강원을 연하며 동으로 대한회를 더하고 서으로 황성을 거하니 실로 사통 팔달하는 땅이라 겹쳐야 북방에 광산과 남방에 삼림이며 연회에 어업이 풍부하니 실로 무역상 추요지라 그러나 상업에 영성이 오히려 유치시디와 궂트니 이일이 큰 걱정이라 **광산 삼림 어업 등에 규제가 제정되는 날은 도쳐 우산 금광(美人所營) 전포어업(前日俄人所營) 압록삼림의 형상을 면치 못 하니 실로 이것이 근심 이로다**

(우) 당초에 우리나라 사람의 지미가 전혀 사회계에 잇서 오늘날 이모양이 되었스니 무엇을 주의할 히 보겠나

(근) 일 원산 이 강경 이란 말도 잇거니와 **경원 철도가 준공이 되어 운수가 편리하면 이 물산을 가지고 무엇을 못 하겠나**

경제변 사람들은 법률정치만 되면 다 되논줄 알데 마는 나라에 전정이 고갈하면 무슨 사업을 하나²⁵⁹⁾

근암이 민간영역을 경시하고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제변 사람들’에 대타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있다. 근암은 정부가 나서서 기간시설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퇴금』이 근암을 통해 암시하는 바는 ‘실업가’야말로 진정한 ‘국민’이며, 진정한 공동체는 실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사회’이지 ‘법률정치’에만 구애받는

258) ‘악’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공동체의 도덕·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겐 느끼는 ‘경멸’, 권리나 자유 등이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분노’, 나쁘다고 여기는 대상에 접촉한 순간 경험하는 불쾌감인 ‘혐오’가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존재한다. - 김학철, 앞의 글, 468면.

259) 『송퇴금』, 46-47면.

‘정치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를 저해하는 ‘정치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민족사회를 분리하여 사고하게 한다.

민족사회의 실업 진흥을 좌절시키는 외부적 조건이 군수와 그로 대변되는 정치사회의 무관심 내지 무능을 통해 제시되는 한편으로, 함께 실업에 투신한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악한’ 이기심의 문제는 우초를 통해 다뤄진다.

(가) 우초도 용늑흔 무리와 궂치 바이 스상이 업거나 스리를 모로논 사람은 안이로디 일시 욕심의 가리워 근암의 말은아 쥬 이져바리고 오직 적적흔 깃창에 생각흔것은 째 생각 이라²⁶⁰⁾

(나) 알수 업는것은 사람의 일이요 변흔는 것은 사람의 마음 이라 어제날 근암과 상업상 언론을 통쾌히 하며 ○○군슈를 여지업시 남으리든 우초가 오날날 이 루각 이 자리에 이 일은 의외라²⁶¹⁾

(다) 근암 소식을 시마다 기다리며 조급증이 나서 못 견딜 우초에 마음이 엇지면 그러케도 변 하여 김운성 깃쥬에 일천 원은 톱미 수중에 다 집어느코 원산 항구로 나와서 둘이 의론흔는 것은 근암 오기전에 삼십륙계에 줄행낭을 쓸 계획이라²⁶²⁾

『송뢰금』에서 우초는 근암과 함께 실업에 투신하였으나 ‘일시 욕심’때문에 자본을 빼돌리는 등 변절한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우초의 형상화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금 오천 원을 횡령하여 일본으로 달아난 본점 사무장 한봉기보다 일천 원을 사사로이 써버리고

260) 『송뢰금』, 60면.

261) 『송뢰금』, 91면.

262) 『송뢰금』, 94면.

근암을 속이려 했던 우초의 행동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서술자의 태도다. (가), (나), (다)의 대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 서술자는 ‘일시의 욕심’으로 인해 근암과 뜻을 같이 하던 우초의 마음이 변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 때 우초가 빠지게 된 ‘딴 생각’이란 실상 “가정의 즐거움”²⁶³⁾이라 표현될 만한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 데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개인적 행복이 자본을 소모하기만 함으로써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치’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우초의 이기심은 공익 지향이라는 공동체적 의지에 등을 돌리게 한 계기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악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공익 도모에 골몰하던 인물이 ‘딴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라는 의미에서, 한봉기를 통해 드러나는 보다 전통적인 이기심의 표상—사욕·탐욕—과 구분된다. 실제로 피해 액수가 더 적더라도 서술자가 ‘국가에 행복을 더할’ ‘공공한 일편심’을 상실하고 ‘조그마한 낙에 천부한 성정’을 잃은 우초를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²⁶⁴⁾

이처럼 공익(公益)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이기심과 그렇지 않은 이기심을 분간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이기심의 표상과 질적 차이를 보인다. 유교적 사유에 의하면 이기심은 ‘과도(過度)’할 때 악이 된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사회적 갈등과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악으로 규정되는데, 이 때 과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어진 처지와 상황에 대한 선형적 판단을 집약한 예(禮)에의 일치 여부이다.²⁶⁵⁾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각 신분이나 처지에 합당한 욕심의 범위가 이미 예·법도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한계를 벗어난 이기적 욕망 일체가 악으로 표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송뢰금』에서 이기심은 공익 창출과 연결될 전망이

263) 『송뢰금』, 92면.

264) “그간 엇더헌 사업을 호던지 아모조록 힘을 다호야 일만 위험과 벅천 곤란이 당전호더리도 낙심치 말아 국가에 행복을 더 호게 그러면 비록 우리에 사사 정의는 전과 갓지 못호더리도 **공공헌 일편심**은 마조쳐 행복호겔네 (중략) 이 세상이 이러케 위험호여 한쑥 리와 조고마호 낙에 텃부호 성정을 일코 밋두물신을 호니 진소위 돈 세상이로고” - 『송뢰금』, 104-105면.

2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82-183면.

있는 한 거의 무한히 긍정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공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일체의 욕심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표상된다.

다만 『송퇴금』이 노동자, 농민, 실업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모두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송퇴금』이 경제공동체로 민족 사회를 규정했다고 할 때, 그 긍정적 구성원의 구체적 형상은 근암으로 대표되는 ‘실업가(자본가)’와 김경식 일가로 대표되는 ‘노동자’다. 그런데 『송퇴금』이 하와이 노동이민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두 가지 경제활동이 실제로는 위계서열 속에서 표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김쥬스가 갑신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나와 남이알진 쉬쉬
하고 지내더니 갑오년 경장흔든 처음 공도로 쥬스를 해야
일 이 삭 형공하다가 뜻과 일과 꺾지안이흠을 한탄하고 평
양으로 낙향하였더니 미기에 일청전정이 일어나매 원산으
로 향해야 온뜻은 피란도 곁하고 원산이 포구로 일흠는 곳
이라 상업상에 유의해야볼가 혼터인디 박사과는 본리 봉사
나 식인다고 아달 한아를 양즈해야 두엇스나 사람이 본리 용
렬해야 쓸모이 적어 죽기눈에는 반도 들지안이 흠으로 바늘에
실짜라 단니듯 김쥬스 가는 곳 마다 짜라다니든 터이라 김쥬
스가 온다 간다 말 업시 포와도로 간 후로 진소위 끈썰러진
망석중이 모양이되야 잇스나²⁶⁶⁾

일본 유학을 경험하고 관료로 행사하던 김경식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원산으로 피난 온 후 상업에 먼저 뜻을 두었던 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몰래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게 된다. 시대적 맥락을 감안해보면 김경식은 국가 체제 개혁에 뜻을 두고 유학했던 엘리트 관료였을 터이나 결국 뜻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사회’에서 ‘일반사회’로 밀려난 인물에 해당하는

266) 『송퇴금』, 14면.

다. 그런데 그는 다른 신소설에서 흔히 그렇듯 ‘일반사회’의 지도자격으로 다뤄지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검둥어멈의 아들과 같은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²⁶⁷⁾ 이러한 설정에서는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조’함으로써 ‘허다한 무명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형상화하려 했던 텍스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서울 남촌 살던 싱각을 하야 무엇 홀고—으……………

뒤산에 쏙 심으고 압들에 못을 파서 남부럽지 안이 하게 살재
에 오늘 이 고싱 홀줄을 뉘 아라쓰리 으—으

륙월지변에 평양으로 내려가기 부터 잘못이지

전장은 우리 하고 무슨 원슈런고 간디마다 짜라 단이여 홀일업
시 이로와서 싱소홀 곳이 나마 사자 하엿더니

만리타국에 가기도 의외여든 로동싱활이 웬 일이요 익고—
호 호

년전에 서울갓다와서 호는말이 우리살던곳은 남의천디갓트여
이층양옥이 잇더라고 호시더니 후일을 싱각호시고 가섯단 말
습이요

아모리 즈립호지 남에게 의지안이호다 호기로 죠반석죽이
야 못 홀나구 듯도보도 못 호던곳에 이일이 웬일이요 호 호

—268)

그런데 김경식이 미국 하와이를 “몽장의 리가 풍족함으로 로동싱활 호는자에게 일디취집쳐라”²⁶⁹⁾고 묘사하면서 노동을 자조의 수단으로 긍정했다 하더라도,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김경식의 부인에

267) “검둥이 모는 본려 강원도 사람으로 서울와서 로동싱활을 허다가 남편이 죽으며 풀지에 싱이가 쏘어져 그 아달을 다리고 김쥬스집에 고용을 하엿는디 사람이 진실홀 뿐 안이라 김쥬스 너외에 두터온 은혜를 입어 그 말이라면 힘것은 다 호며 가는 곳 마다 짜라단이다가 원산까지 왔는디 김쥬스가 가세에 군졸홀을 인하야 여간 밋천 돈을 주어 장사를 식엿는디 김쥬스 포와에 가기전에 제 아들은 몬져 포와로 간터이라” - 『송뢰금』, 29면.

268) 『송뢰금』, 12면.

269) 『송뢰금』, 11면.

게 노동 생활은 ‘남부럽지 않게 살던 서울 남촌’ 시절로부터의 전략, ‘듣도 보도 못하던 곳에서의 고생’으로 감각된다. 여기서 ‘노동자’는 ‘양반’에서 ‘농민’으로의 하락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송뢰금』은 자조의 수단으로 김경식의 노동과 근암의 실업을 함께 내세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을 천대하는 의식을 노출하고 있다. 이 모순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감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뢰금』의 배경이 된 하와이 노동 이민은 임노동자로 이루어진 대규모 민족 사회를 해외에 발생시킨 사건이다. 그런데 이들은 산업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적 존재로서 192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장 노동자였다는 특징을 가진다.²⁷⁰⁾

(가) 원산 관다리목 넓은 벌판에 사방문은 활작열니고 십여길 되는 귀대에 열기자에 귀호는 바람에 날니논디 발선광고와 현판 건 것을 보면 룬선회사 지점도 궂터 보이고 **몽두난발에 노동자** 들이 방안에 들락 날락흐는 것을 보면 모군청도 궂터 보이논 곳에²⁷¹⁾

(나) 기발회사 에서 **통민 스오십명이 나오더니** 시간이 느것다고 써들며 분주이 룬선으로 올으논디 박사과일형도 그속에 석것더라 (중략) **여러통민을 도라보며**

비가 지금 곳 써나니 인제 작별이오 부디 만리타국에 가더럭도 오날 이 곤란을 싱각흐고 마음을 궂게 흐야 **도라오는 날 나라에 죠흔뵝성이 되게 흐며 집안에 사업흐는 사람들이**

270) 『송뢰금』의 배경이 된 하와이 노동이민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하와이 농장 주들은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대안으로 찾았다. 그리고 1902년 대한제국이 이민을 승인한 이래 1905년까지 약 7,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이민하여 농장 노동에 종사했다.(목수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태극기-20세기 전반기의 미주 한인들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8, 2010, 53-54면)

271) 『송뢰금』, 24면.

되게 하면 고심한 바람이 잊지 안켓소²⁷²⁾

(다) 조선환이란 룬선이 신호항에 도착해야 하로밤을 닛주고
셋다가 횡빈으로 썸나는디 **한국롱민 이빅오십여명**이 그 가온
디 타쓰되²⁷³⁾

위의 대목들에서 알 수 있듯, 『송뢰금』은 개발회사를 통해 하와이로 이주하려는 조선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노동자’(가)와 ‘농민’(다)을 번갈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이민의 의의는 사람들 각각이 자립적 경제주체로 거듭난다는 측면에서보다, 그들이 모은 돈이 장차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인 ‘사업’을 뒷받침해 줄 자본이 되리라는 암시에서 찾아진다. (나) 즉 『송뢰금』은 노동이 실은 실업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 개발회사가 모집한 노동자들 틈에 섞여 일본으로 건너가는 계옥 일행은 이들과 어떠한 종류의 연대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계옥 일행에게 이들은 어디까지나 ‘봉두난발’(가)한 “팔도 모산지배”²⁷⁴⁾로, 융화될 수 없는 하층민으로 감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뢰금』이 “노동을 천시하는 봉건적 의식을 타파”²⁷⁵⁾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송뢰금』에서 개발회사가 모집한 노동자들은 국가와는 거의 접점을 가지지 않은 채 자본의 중개를 통해 일본으로 이동한 후, ‘서양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합격점을 받아 미국 입국을 허락받는다. 이처럼 ‘상품화된 노동’으로서의 조선인에 밀착함으로써, 『송뢰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양

272) 『송뢰금』, 37면.

273) 『송뢰금』, 60면.

274) “대련환이 신호항에 닛주자 희안통을 지나 룬민 유숙소로 향호는것은 계옥이 모녀라 룬민 유숙소 경황이 엇더흔지 모르고 하로밤을 지는후에 / (부) 애 계옥아 선중에 고심은 오히려 락으로 왔다 이 일을 암만 생각호여도 그러케 안이 되겟다 사람은 삼빅여명이 썸는디 진소위 **팔도 모산지배**로구나” - 『송뢰금』, 53면.

275) 최원식, 앞의 책, 256면.

태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미완이므로 후반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하와이 동포 사회의 계급적 측면이 그려질 수 있었다면 김둥이와 김 주사의 관계를 통해 기존의 신분질서로부터 탈각한 ‘민주적’ 사회 질서가 구상되는 국면에 마주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고베에서 총사무원과 계옥 간의 관계를 통해 묘사되었듯, 서로 다른 처지에 선 타인들이 ‘우리나라’라는 이름 아래 상호부조의 공동체로 연대하는 민족 사회의 면모가 보다 상세히 그려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송퇴금』 텍스트에서 계옥 남매로 상징되는 어린 세대나 수출 노동상품으로 변용된 농민들은 교육을 받고 돌아와 대중을 계몽하거나, 돈을 벌어 돌아와 국내에서 사업을 하리라는 미래에 의해서만 긍정될 수 있는 존재들로 나타난다.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계화 양상은 『송퇴금』에 그려진 ‘선한’ 이기심의 심층에 기입되어 있는 ‘낯은’ 계층적 감각을 드러내준다.

2. 비국가주의로서의 이기주의

근대 초기 한국에서 인민의 ‘국민화’를 지향하는 담론은 생활·제도·환경·문화의 ‘개화’를 지향하는 담론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겹쳐져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근대 국가’가 거의 곧바로 ‘국민 국가’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개화’와 ‘국민화’가 사실상 동일시되었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송호근은 ‘근대 국가’와 ‘국민 국가’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명료하게 지적했다.

국민 국가는 근대 국가가 여러 발전 과정을 거쳐 도달한 역사적 유형이다. 근대 국가가 일반 개념이라면 국민 국가는 특수 개념이다. 가장 중대한 차이는 근대 국가에서 출현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다. 근대 국가는 개인의 탄생으로 태동한다. 그 개인은 왕과 자신을 연결하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변화했음을 인지할 뿐 개인과 개인의 관계,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가 집단적 연대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근대 국가에서 국가, 사회, 개인은 서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지 만 국민 국가에서 국가, 민족, 사회는 서로 수렴되었다.²⁷⁶⁾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국민’과 ‘근대’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이 근본적으로 심리적 범주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민화’가 공동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창출해 냄으로써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 심리 구조 과정이라면, ‘근대화’는 전근대적 사회·정치 체제의 붕괴에서 기인한 사상적·물질적 변화들, 혹은 봉건적 체제의 붕괴를 지향하는 의식적 운동의 결과들로 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근대’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복잡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법적 자주독립국가/국민국가를 ‘근대 국가’라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자

276) 송호근, 앞의 책, 286-287면.

본주의 혹은 산업화,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붕괴, 사상적으로는 자유평등 사상을 지표로 하는 ‘근대 사회’라 하여 전근대적 그것들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²⁷⁷⁾ 이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대한제국 시기 ‘국가의 근대화’와 관련된 테제들은 ‘국민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의 근대화’와 관련된 테제들은 ‘개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화’ 과정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보여주었듯 공통의 언어·기억·문화 등에 의거한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어(國語), 국학(國學), 민족문화와 같은 것들은 현실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세대·젠더·인종·계급·계층·지역 등—을 지우고 동일한 정체성을 연성해내는 기제로 활용된다.²⁷⁸⁾ 반공주의를 통해 ‘국민’을 만들어 낸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경우처럼, 특정 역사적 국면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역시 ‘국민화’ 기제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²⁷⁹⁾

국권 침탈의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대한제국 말기의 경우, ‘국민화’는 각종 매체에서 ‘국가사상’, ‘국가정신’, ‘국가주의’, ‘조선훈’, ‘국가의 정신’ 등으로 표현되었던 어떤 심리의 육성을 통해 가장 시급하게 도달해야 할 정신적 과제처럼 표현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라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이다.

277)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53면.

278)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다양한 일본어들의 차이를 지우며 만들어진 인위적 ‘국어’가 ‘국민’ 창출의 기제로 사용되는 과정을 조명한 이연숙의 논의가 주목받았던 바 있다. 이연숙은 국어가 “국가 지배를 위한 정치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의 정신을 주박하는 지적 장치이기도”(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고영진·임경화 역, 소명출판, 2006, 104면) 했다는 점을 밝히고, “언어 그 자체의 동일성도 언어공동체의 동일성도, ‘네이션’의 동일성 못지않게 상상의 산물”(같은 책, 17면)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네이션’이라는 정치공동체와 언어공동체를 중첩시킨 지점에서 언어-내셔널리즘이 배태된다.

279) 한국전쟁을 경과하며 반공주의가 남한 ‘국민’의 집단심성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영희, 「반공주의와 일상생활」,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해안, 2009를 참고.

민족이란거슨 다만 ㅅ흔 조상의 ㅅ손에 미인자ㅣ며 ㅅ흔 디
방에 사는자ㅣ며 ㅅ흔 력스를 가진자ㅣ면 ㅅ흔 종교를 ㅅ트는
자ㅣ며 ㅅ흔말을쓰는자ㅣ ㅅ이민족이라 칭ㅎ는바ㅣ 어니와 ㅅ
민이라느거슬 이와ㅅ치 ㅎ석ㅎ면 불가ㅎ지라 (중략)

국민이란자는 그 조상과 력스와 거디와 종교와 언어가 ㅅ
흔외에 또 반드시 ㅅ흔 정신을가지며 ㅅ흔 리해를 취ㅎ며
ㅅ흔행동을 지어서 그 니부에 조직됨이 ㅎ몸에 근골과 ㅅ
ㅎ며 ㅅ글 디ㅎ 정신은 ㅎ 영문에 군디ㅅ치ㅎ여야 이거슬
국민이라ㅎ는니라²⁸⁰⁾

이 논설에 의하면 자연적 발생체로서의 민족과 의식적 공동체인
국민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통일된 집단으로 조
직되었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한제국 시기 공
론장이 연성하려 했던 ‘국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일사불란한 통일체로서의 ‘국민’ 정체성에
는 공통의 기억, 언어, 문화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요소가 존재
했다. 그것은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국가의 이해’를 내면화함
으로써 만들어지는 공적(公的) 정체성이다. 단적으로 이는 “두 사람
이 만일 같은 문화를 공유할 때 두 사람은 같은 민족”²⁸¹⁾이라고 정
의되는 ‘민족(nation)’과 “ethnic(민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언어
나 종교의 공동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 부족이나 공동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선”²⁸²⁾ 균질성을 가진 ‘국민(nation)’의 차이라
말할 수 있다.

세계 경쟁 체제 상에서 ‘국민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체(政體)가 무
엇인지에 관해서는 민주공화제와 입헌군주제 등을 내세우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으나²⁸³⁾ 이와 별개로 ‘국가주의’ 교육 자체는 계몽사
상가들이 내세운 신교육의 핵심 방침이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

280) 「민족과 국민의 구별」, 『대한매일신보』, 1908.7.30.

281) 어네스트 겔너,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1988, 16면.

282)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9, 21면.

283) 유영렬, 『한국 근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2006, 250-289면.

듯,²⁸⁴⁾ 대한제국기 공론장에서 ‘국민화’는 국권 수호에 필수불가결한 공동선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민화’가 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행태들, 즉 국가를 앞세우는 ‘같은 정신’이 결여되었음을 드러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비국민의 생활철학”²⁸⁵⁾으로 규정되어 규탄되었다. 이러한 점이 『황성신문』의 다음 두 논설에서 잘 드러난다.

(가) 何以爲善人正人고 하면 將答之曰 一身之流血을 不以爲痛이라 國之痛을 以爲痛하며 一身之艱險을 不以爲苦라 國之苦를 以爲苦하야 百挫不折에 寧死不變호니 彼豈非大善大正人歟아 호며 又問之曰 彼路正梅相은 何以謂惡人邪人고 호면 將復答之曰 吸收國民之膏血호야 以供一人之誅求호며 剝奪國民之權利호야 以張一人之威力호야 奸詭暴虐에 靡不用極호니 彼豈大惡人大邪人歟아²⁸⁶⁾

(나) 然則 吾人 社會의 善類를 言호면 一般志士가 現在 慘狀에 對호야 비록 困難과 危險이 渺無津涯호나 一毫라도 絶望心이 無호고 將來 新鮮 文明호 大帝國을 建立호 希望點이 萬折不回호야 生死도 不顧호며 成敗도 不恤호야 認定호 目的을 不達호면 不止호기로 決心進就호는 者는 上等善類라 호 것시오 其 才局과 力量을 隨호야 恒常 公德心을 方寸에 存在호며 國民의 義務를 教育 上에 擔荷호야 教育과 公益等事에 補助 成就호기로 職分을 삼고 一毫라도 國家와 人民에 被害가 될 者면 誓死不爲호는 者는 皆 善類社會니 (중략) 其 惡類를 言호면 滔滔胸海에 慾浪이 充滿호고 公德이 蔑如호야 國家가 亡호던지 人民이 滅호던지 世上 輿論과 後世史筆이 我를 小人이라 謂호던지 奸臣이라 謂호던지 賊臣이라 謂호던지 於我에 何關고 호야 오작 我的 富貴나 享有호며 權

284) 이송희, 앞의 책, 30면.

285)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254면.

286) 「公益과 私益의 利害(續)」, 『황성신문』, 1907.8.9. 띄어쓰기 인용자.

利나 占取ᄃ얏스면 志願이 足矣라 ᄃ는 者是 上等惡類오
 國家와 人民은 題念ᄃᄃ 것이 無ᄃ고 我的 官職이나 □□ᄃ던
 지 金錢이나 □取ᄃ야 我的 生活을 圖謀ᄃ얏스면 快足ᄃ □
 이니 世人이 我를 外人의 □鬼라 偵探軍이라 ᄃ는 것이 非我
 所關이라 ᄃ는 者와²⁸⁷⁾

(가)에 의하면 국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 죽음을 불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선인(善人)=올바른 사람(正人)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악인(惡人)=간사한 사람(邪人)은 나머지 국민의 권리를 뺏거나 고혈을 빨아 자신의 위력만 늘리는 사람이다. (가)에 나타난 ‘악인’의 이미지가 부패 공직자에 가깝다면, (나)에서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의 ‘선악’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여기서 ‘선류(善類)’란 문명 제국의 건립을 향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여 교육과 공익에 기여하는 사람, 국가에 피해가 될 일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면 ‘악류(惡類)’는 국가의 존망에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부귀를 향유하며 권리를 누리기 바쁜 사람, 국가와 인민을 패념치 않고 자기 생활이나 도모하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서술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 앞 절에서 살펴본 『송뢰금』에서 ‘공익에 기여하지 않음’이 비판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학정을 저지름’과 같은 적극적인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정신이 없음’이라는 소극적 견지에서도 악이 규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악의 범주에 직접적 가해·침해 행위와 더불어 방관, 무관심과 같은 태도의 문제가 포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식 속에서 규정되는 악은 일상적 행태의 배후에 있다고 여겨지는 추상적 관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악은 그 성격 상 주인공에 대한 적극적 공격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방해자와 같은 반동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근대 초기 소설의 경우 그 형상

287) 「善惡種類의 分別」, 『황성신문』, 1908.3.26. 띄어쓰기 인용자.

은 적국(敵國)의 장수나 탐관오리와 같은 전통적인 주요인물-악인들로부터 떨어져 ‘국가정신’을 결여한 소인물-인민 일반으로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민화’를 주요 테마로 하는 이인직 신소설에서 이러한 특징이 특히 잘 드러난다.

이인직 신소설에서는 ‘국가정신의 결여’가 이기주의로 구체화되어 그려진다. 『혈의 누』는 평양에 살던 김관일 가족이 ‘일청전쟁’으로 인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가족이산-재회의 서사 구조에 기초해 있다. 전쟁터에서 혼란한 와중에 가족이 서로의 행방을 놓치고 각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 김관일은 유학을 떠나고, 어머니 최춘애는 평양에 머무른다. 딸 옥련은 전쟁터에서 만난 일본군 군의(軍醫)인 정상의 도움을 얻어 일본에서 유학하다, 정상이 러일 전쟁 와중에 사망한 후에는 기차에서 만난 구완서의 도움으로 그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한다. 그리고 졸업할 즈음 신문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재회하고, 구완서와 혼약을 맺어 귀국한다는 결말을 맞게 된다.

일찍이 『혈의 누』는 첫머리에 청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치하여 현장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이전 소설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주목 받아 왔던 바 있다.²⁸⁸⁾ 『혈의 누』에서 청일전쟁은 ‘청인’과 ‘일본 군사’가 만들어낸 시끄러운 ‘총소리’와 산과 들에 널린 ‘송장’의 이미지를 통해 조선인이라는 집단주체에게 닥친 불의의 수난으로 형상화된다.²⁸⁹⁾ 여기서 청일전쟁은 당대 미디어에서 그러했

288) 이인직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 한국어 통역으로 종군한 바가 있기 때문에(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58면) 러일전쟁의 경험이 『혈의 누』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현조에 따르면 이인직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치즈카 레시가 청일전쟁에 종군하던 시절 취재한 평양 전투 관련 기록이 『혈의 누』의 전쟁 묘사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강현조,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도일 행적 및 『혈의 누』 창작 관련 신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3, 2008, 227-231면)

289) “일청전정(日淸戰爭)의 총소리는 평양일경(平壤一境)이 켜는 가느듯 허더니, 그 총소리가 굿치미 청인(淸人)의 패(敗)훈군스(軍士)는 추풍(秋風)에 낙엽(落葉)갓치 훑터지고, 일본(日本)군사는 물미듯서 북(西北)으로 향(向)하야 가니 그 뒤는 산(山)과 들에, 사람죽은 송장뿐이라” - 『혈의 누』 1회, 『만세보』, 1906.7.22. 이하 「혈의 누」 『만세보』 연재본을 인용할 때 표기는 간략히 「혈의 누」, 회차로 하겠

듯 조선에 독립국의 지위를 가져다준 긍정적 사건으로 그려지지 않는다.²⁹⁰⁾ 대신 전쟁은 인물들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쳐와서 가족을 이산시키고 죽음을 경험케 하는 보다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리의 사태로 형상화된다.²⁹¹⁾ 그럼으로써 『혈의 누』는 전쟁, 피란, 가족 이산, 죽음과 부상의 경험을 조선 사회의 공동경험으로 창출한다. 또한 『혈의 누』는 이 전쟁 자체가 외국의 군대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함으로써 피해자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전쟁을 겪게 된 조선의 인민들이 무고한 피해자로만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평양(平壤)의총(銃)소리가, 의주(義州)로올머가더니, 백마산(白馬山)에논철환비가오고압록강(鴨綠江)에논송장으로다리를놓는다

평양(平壤)은난리(亂離)평정(平定)이되고의주(義州)논식으로난리(亂離)를만낫스니가령(假令)화재(火災)만논집에서안방(房)에논불을잡았스나, 건넌방(房)에논불이붓는격(格)이라, **안방이논건넌방(房)이논, 집은훈집이언뎡은, 안방식구(食口)논제방(房)에만, 불꺼지면, 다형으로안다** 의주(義州)셔논피비(血雨)가오논디 평양성중(平壤城中)에논춍춍우숨소리가논다²⁹²⁾

다.

290) 당대 미디어에서 청일전쟁은 조선에게 독립국의 지위를 확보해준 전쟁으로 의미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혈의 누』는 '국가의 기원'에서 출발하는 소설로도 독해되고 있다. - 권보드래, 「전쟁, 국가의 기원」,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 2014, 80-82면.

291) 신소설에 등장하는 러일전쟁이 대개 원경에 위치한 사건(『모란봉』, 『송뢰금』)이거나 군인이라는 근대적 영웅 유형 인물의 탄생 배경(『우중행인』)으로 활용되는 점에 비해 볼 때 이와 같은 근거리성은 이채롭다. 러일전쟁은 『두견성』, 『유화우』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지만 이 두 소설은 일본의 『불여귀』를 번안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한편 방민호에 의하면 『혈의 누』를 '다시쓰기'한 딱지본 소설 『절처봉쟁』(1914)은 여러 정황상 청일전쟁을 러일전쟁으로 바꾸어 썼다고 추정된다.(방민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또는 합방 전후의 소설적 거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292) 「혈의 누」, 12회.

『혈의 누』는 청일전쟁의 충격을 계기로 드러난 조선 사회의 실상을 해부하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이 실상은 조선인들이 ‘국민’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의 대목에서 청일전쟁은 서로 다른 데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향해 옮겨 다니는 재난처럼 표현된다. 즉 전쟁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초월한 ‘나라’의 체험으로 실감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전쟁이 옮겨가자 ‘다행으로 안다.’ 전쟁이 전 국토에 ‘철환비’를 내리고 ‘송장으로 다리’를 놓는 상황에 이르는 ‘국가’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관일은 “우리나라, 사람이제몸만위혀려고, 남은망혀던지흥혀던지, 제욕심만치우려혀고, 나라가망혀던지흥혀던지, 제벼슬만잘혀고제살만찌우려혀는사람들이라”²⁹³⁾고 하며 조선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혈의 누』의 조선인들은 ‘방’의 경계를 넘어 ‘집’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기주의는 조선인을 ‘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은세계』에서도 전쟁은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한 조선 사회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제로 활용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하던 중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옥남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세계풍운은 놀로변혀는씨라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이
엇지 되어가는지모르고 괴상극악혼짓만혀드가세계풍운이 변
혀는서술에 정신이 번쩍번쩍나논판이라 일로던징이후로 옥남
이가 신문만 정신드리 날마다보논더신문을 볼씨마드 속만터진
드
엇지혀야 그릇케 속이터지난고
옥남의마음에 우리나라일은 놀보의 박타드시 박은타논더로
경만치게 된판이로고 생각혼드박을타논것갓드 혀는말은원말
인고

293) 『혈의 누』, 6회.

넷놀 놀보의마음이 동포형메는 드 빌어먹게되드리도 남의
 것을째서서 너지물만숨으면조흠줄로 아든스름이라 (중략)
 옥남의마음에 우리나라에는 놀보에턴디라 세도지상도 놀
 보의심장이오 각도관찰스도 놀보의심장이오 각읍슈령도 놀
 보의심장이라
 흐로봇비 기혁당이나서서 일본정치를 개혁흐는씨에는 저허드
 혼놀보씨가 일시에박을타고 드러온젓스려니 심각흔드(294)

위 대목에서 옥남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풍운’을 좀처럼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신세를 한탄한다. 『혈의 누』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세계』에서도 이 ‘세계풍운’은 전쟁을 통해 감각되는 것이다. 『은세계』가 그리는 러일전쟁은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로 대변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에서 일어난 제국주의의 확장과 충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사회진화론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세계를 생존경쟁의 장으로 간주하는 사회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단위는 ‘국가’라 여겨지고 있었다.²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세계를 무대로 전개되는 격렬한 생존경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회진화론적 전쟁들이다. 그러나 『혈의 누』에 이어 『은세계』에서도 이 전쟁들의 충격으로 드러난 조선 사회의 인민들은 ‘놀부’처럼 자기 보신만 내세우는 근시안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이 ‘놀부’들이야말로 국가가 ‘경을 치게’ 만드는 반동인물들이라는 사실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국제 정세를 파악할 안목을 가진 옥남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인직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여한 채 ‘제 몸’, ‘제 집’만을 챙기는 조선인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고 할 때, 이 이기주의는 앞 절에서 다뤘던 『송뢰

294) 이인직, 『은세계』, 동문사, 1908, 120-121면.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은세계』, 면수로 간략하게 표기하겠다.

295)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아카데미, 1996, 140-145면.

금』의 이기심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퇴금』에서 이기심은 이중으로 표상된다. 개인의 ‘자립’과 국부(國富) 창출의 동력으로 긍정되는 ‘선한’ 이기심과, 공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악한’ 이기심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이인직 신소설에 나타난 이기주의는 ‘국가사상(國家思想)’ 내지 ‘국가정신(國家精神)’의 결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인직이 형상화한 이기주의는 ‘국가’가 아닌 모든 것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즉 ‘제 몸’, ‘제 가족’, ‘제 가문’을 ‘국가’보다 위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기주의는 곧 사고와 행동의 표준을 국가에 두지 않는 비국가주의적 태도 일반을 가리키게 된다. 『혈의 누』, 『은세계』, 『치악산』이 일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국가주의로서의 이기주의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사회’가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저지한다.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와 ‘사회’는 모두 신생 개념으로서 둘 사이의 관계 역시 새로이 정립되고 있었다. 국가는 ‘인민의 사회를 조직한 큰 집’²⁹⁶⁾에 비유되었고, “내부의 규리와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신민을 보호하는”²⁹⁷⁾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회진화의 단위로 간주되었다. 간단히 정리하여 ‘국가’는 ‘사회’를 보호할 능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조직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같은 취지를 가진 개인이 모여 성립한 인적(人的) 단체인 데에 비해 사회는 오직 많은 개인이 우연히 모였을 뿐’²⁹⁸⁾이라고 보

296) “國은 人民의 社會를 組織하야 生命財産을 付托한 一大家屋이라 家屋이 有하면 生活하고 家屋이 無하면 敗亡할줄은 愚婦痴男이라도 洞然皆知할지니 國을 愛하는 心이 一個時間이라도 忙忽치 못할 것이라” - 「愛國心」, 『만세보』, 1906.7.26.

297) “국가의 대직능(大職能)은 내부의 규리(暌離)와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신민을 보호하는 바라 차(此)와 여(如)히 일체의 사회적 제도는 선악의 각종인(各種人)을 일사회적단체에 결합한 것인데 기(其) 단체는 상적(相適)한 경쟁자와 경쟁하는 일단위라 부(夫) 자연 도태의 제법(諸法)은 차(此) 사회단체상에 행(行)하며 차(此) 단체는 사회진화과정에 중요한 단위라” - 이인직, 「사회학」, 『소년한반도』, 1907.1.

298) 「國家學」, 『만세보』, 1906.9.19.(김효전, 「『국가학』 번역」, 『동아법학』 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232-233면) 구장률은 『만세보』 사설 대부

는 이러한 관점은 이인직의 『혈의 누』와 「사회학」 시리즈 등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토대로 상정된 ‘사회’의 존재방식이다.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인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우연이라 말해진다.

사회(社會)라 ㅎ는거슨 다소(多少) 항구(恒久)ㅎ 관계(關係)로 공동생활(共同生活) ㅎ난 제인(諸人)의 일단체(一團體)라 정의(定義)ㅎ을 가(可)히 득(得)ㅎ지라 대저(大抵) 인(人)이 과학상(科學上) 목적(目的)에 상동(相同)ㅎ 자(者)를 포괄(包括)ㅎ고 불연(不然)ㅎ 자(者)를 배척(排斥)ㅎ는 제부류(諸部類)의 하(下)에 단결(團結)을 득(得)ㅎ는지라 연이(然而) 차단체(此團體)는 단(但) 사상가(思想家)의 심중(心中)에 존재(存在)ㅎ뿐이오 일사회(一社會)난 아니라 시(是)에 반(反)ㅎ야 철도열차내(鐵道列車內)에 집합(集合)은 가장 잡다(雜多)ㅎ 성질(性質)을 포함(包含)ㅎ야 기관계(其關係)가 심(甚)히 우연(偶然)ㅎ나 일종(一種)의 사회(社會)를 단결(團結)ㅎ얏고 차(且) 연설장리(演說場裡)에는 비록 잠시간(暫時間)이느 연설자(演說者)는 청중(聽衆)의 공동흥미(共同興味)를 결합(結合)ㅎ도 일사회(一社會)라²⁹⁹⁾

위의 인용문은 이인직이 연재했던 「사회학」 연재물의 1회인 「사회」의 첫 대목이다.³⁰⁰⁾ 여기서 ‘사회’는 마치 ‘철도열차 내의 집합’

분을 이인직이 집필했으리라 추정했으며, 「국가학」도 이인직이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의 『국가학』(1889)을 번역한 것이라고 추정했다.(구장률,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인직과 「혈의 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268면) 그러나 유봉희에 따르면 「국가학」은 이인직이 아니라 양한묵이 번역한 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유봉희,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이인직과 이해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5면)

299) 이인직, 「사회」, 『소년한반도』 1호, 1906.11. 띄어쓰기, 강조 등은 인용자.

300) 이인직은 『혈의 누』 연재(『만세보』, 1906.7.22.~10.10.)를 시작한 문필 활동 초기에 「사회」(『만세보』 창간호, 1906.6.17.), 「사회학」(『소년한반도』, 1906.11.~1907.3.)이라는 일련의 글을 함께 발표했다. 『소년한반도』에 연재된 글은 「사회」, 「사회학 속」, 「사회학」이라는 각기 다른 제목으로 게재되었으

과 같이 그 관계가 심히 우연하고 성질이 잡다하더라도 다소간 ‘항구한 공동생활’을 나누어가지는 인민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 집합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단결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러한 단체는 사상가의 마음속이나 존재하는 허구의 것으로서 실제의 ‘사회’와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잡다한 성질의 개체들이 모여 있을 뿐인 ‘사회’는 인민의 사상적·심적 단결을 통과해서만 ‘국가’로 통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인민을 ‘국민’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국가정신’이나 ‘애국심’과 같은 심리적 기제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혈의 누』가 연재되었던 『만세보』에 따르면 이 동원은 인민이 “국가정신(國家精神)을 국민뇌수(國民腦髓)에 포유(布諭)”하여 “국시(國是)”를 일정하게 하고³⁰¹⁾, “애국심(愛國心)”³⁰²⁾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장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團體로 言하야도 千岐萬派가 互相分裂하야 一家庭內에 團體를 不成하며 一社會內에 團體를 不成하며 一政府內에 團體를 不成하야 外樣으로도 剃髮不剃髮 洋服或韓服으로 形形色色이 各各不同함을 模出키 難하거든 何況腹中心志의 各各不同함을 團合함이오 團體程度가 開化階級에 未達함이니³⁰³⁾

한국 사회의 개화 수준을 주제로 하는 『만세보』의 이 논설은 ‘가정’과 ‘사회’와 ‘정부’ 내에 ‘단체’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개화에

나 목차를 확인해보면 모두 동일하게 “사회학”이라는 이름 아래 엮여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틀어 「사회학」 연재물이라 부를 수 있다. 이 글들은 이인직이 동경정치학교 시절 접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의 성질과 ‘국가’의 기능이 비교적 이론적으로 정돈되어 있어 이인직이 상정한 ‘국가사상’의 중요성을 가늠케 해준다. 「사회학」의 저본에 관해서는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 『사회학강의』(1901)라는 견해와(구장물, 앞의 글), 같은 저자의 『국가학』이라는 견해가 있다.(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 새미, 2006, 224-226면)

301) 「國是」, 『만세보』, 1906.7.13.

302) 「愛國心」, 『만세보』, 1906.7.26.

303) 「是而非」, 『만세보』, 1906.7.17.

미달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 사회, 정부와 같은 사회적 제 형태에서 드러나는 ‘서로 다름(各各不同)’을 지양하는 데 있다. 이 ‘서로 다름’을 지양하고 ‘서로 같음’을 확립하는 것, 다시 말해 이질적인 인민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상태로부터 인위적으로 동질성을 창출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개화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개화는 실상 ‘사회진화론적 생존경쟁에 적합한 상태로의 진화’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 할 수 있다.

(가) 여보시오 우리동포 드러보시오 나눈동포를위하야 공변
되게하논말이니 여러분이평심서고하고 자세이 드르시오

의병도 우리나라빅성이오 나도 우리나라빅성이라 나라위
하고 십흔 마음은일반이나 지식이드르면 하논일이 드른법
이라 이제여러분 동포게서 의병을이르켜서 죽기를헤아리지
아니하고 하시는일이 나라에리롭고자하야 하시는일이오 나
라에히를끼치려논일이오 말씀쥬 하야주시오

니가 동포를위하야그 리히를 자서히말하면 여러분의마음과
갓지못흔 일이잇서서나를 죽이실테이나 그러는니가 그 리히
를알면서 물을 아니하면 여러분동포가 화를먼치 못홀뿐아
니라 국가에 큰 히를끼칠터이니

츠라리 너한몸이 죽을지라도 여러분동포가 목전에 화를면
하고 국가진보에 큰방히가업도록 충고하논일이 오른터이
라³⁰⁴⁾

(나) 최병도는 강릉바닥에서 재스로 유명하던 사람이라

갑신년변란나던히에 나히스물두살이되얏는디 그히봄에 서
울로올라가서기화당에 유명훈김옥균을 차져보니 본러김옥균
은 엇더하사름을 보던지넛날륙국시절에 신훈군이 손대접하더
시 너그러운 풍도가 잇는사람이라 최병도가 김씨를보고 심복
이되야서 김씨를디단히 사모하논모양이 잇거날 김씨가 쏘훈최
병도를 사랑하고 괴이하게너겨서 텃하형세도 몰하일이잇고 우

304) 『은세계』, 137면.

리나라정치득실도 몰흔일이만히잇스나 **우리나라를 기혁홀경
륜은 최병도의게 몰흔지아니 했앗더라** 갑신년십월에 변란이
나고 김씨가일본으로도몽흔후에 최씨가 식골로니려가서 지물
모흐기를 시죽했앗는디 그경영인즉 지물을모와가지고 그부인
과 옥순이를 다리고 **문명흔나라에가서 공부룰하야 지식이
넉넉한후에 우리나라를붓들고 빅성을건지려는 경륜이라**³⁰⁵⁾

그런데 이인직 신소설에서 진정한 ‘국가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된다. ‘국가정신’은 집단적 심리·정서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학문을 경유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신지식’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것의 올바른 실천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묘사되는 『은세계』의 의병 형상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³⁰⁶⁾

(가)에서는 옥남과 의병이 모두 마찬가지로 ‘나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텍스트는 ‘나라의 이해’를 올바로 인식하고 ‘동포를 위하여 공변’할 자격을 갖춘 것은 유학을 경험한 옥남뿐이라고 제시한다. 인용한 장면 직후 “국민의지식이 진보될도리”를 당부하고 ‘국민동포의 만세’를 부르는 옥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병이라흔 봉두돌빈(蓬頭突鬢) 의여러스름들이 아우성을 지르며”³⁰⁷⁾ 옥남 남매를 잡아가는 『은세계』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서술자가 진정한 ‘국가정신’을 갖추지 못한 비-지식층을 멸시하는 태도까지 노출된다.

진정한 ‘국가정신’이 ‘신지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대목에서는 최병도가 갑신정변 나던 해에 개화

305) 『은세계』, 55면.

306) 당시 신문에서 의병은 대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병을 ‘나라에 화를 끼치는 요열(妖孽)’, ‘의(義)의 허명 아래 불량하게 날뛰다가 집과 나라에 화를 끼치고 민인(民人)에게 해를 남긴다’고 표현한 논설 「경고의병지우매(警告義兵之愚昧)」(『황성신문』, 1906.5.29.)이다.

307) 『은세계』, 141면.

당 김옥균을 만나 ‘심복’이 되었으나, 김옥균이 그에게 ‘우리나라를 개혁할 경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그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후에 최병도가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하여 ‘우리나라를 붙들’ 경륜을 한다는 서술과 나란히 볼 때, ‘우리나라를 개혁할 경륜’의 자격으로 ‘문명한 지식’이 요청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개화당’의 활동을 이어받아 ‘정치개혁하기를 경영’³⁰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지식’을 넉넉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인직 신소설의 표면에서 유학의 목적은 ‘정치개혁’³⁰⁹⁾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수준부터 ‘나라를 위하는 생각’³¹⁰⁾이라는 추상적인 수준에 걸쳐 다양하게 서술되지만, 인물의 차원에서 보자면 유학은 ‘제 몸’, ‘제 가족’을 벗어나 ‘나라’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국민화’ 메커니즘을 내면화하는 수행적(performative) 과정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지식 습득을 상징하는 유학은 인물이 ‘국가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 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유학(의 효과)을 정지·지연시키는 장애물로도 나타난다.

(빅)여보마누라 우리가절문터에구구헌싱각을 들거시아니라 마
누라는 니가죽고엎는사름으로녀기고 나눈마누라가죽고엎는
사름으로녀겨서 니가몇히만에 고국에도라오던지 다시만나는
날에는 죽엇던사름을만나보거니 녀겄스면 더욱반가울터이니
부디셔로잇고지냅시다

니가외국에가서 공부를흐더럭도 오날갓치 마누라를 싱각
흐면 허다흐 염녀되논마음으로 공부에착심이 되지아니홀터
이니 나눈니일우리집에서 찌나논길로 부모도엎고 동생도엎
고 안히도엎고미실미가흐 단독일신갓치 마음을먹고 나설터

308) 『은세계』, 96면.

309) 『은세계』, 96면.

310) 이인직, 『치악산』 상, 유일서관, 1908, 25면.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치악산』 상, 면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이니 니가외국가서 몇히가되던지 편지한장아니붓칠터이니 그
리알고 마누라도 니게편지붓칠싱각을마오 (중략)

우리나라사람들이 제몸과 제부모 제쳐즈 제집 제지물만중
히너기고 제나라는 망흐던지 흥흐던지모르논사람들이라 제
손으로 제발등씩드시 우리나라사람이 우리나라를망흐야놋
코 분흐니 절통흐니 남의게천디밧기가실이니 먹고살 도리가업
나니흐면서저무도록 흐는것은 나라망홀짓만흐니 그러케미턴흐
일이잇소

나는하날갓치 중흐부모의은혜를 저버리고 바다갓치깁히정
든안히를잇고 만리타국에가서 공부흐려흐는거슨 나라를위
흐는싱각에서 나온마음이오³¹¹⁾

『치악산』 상에서 ‘개화꾼’의 딸인 아내 태희의 권유를 받고 ‘나라
를 위하는 생각’에 유학을 결심한 백들은 자신의 다짐을 위와 같이
표현한다. 부모와 동생과 아내를 모두 죽은 셈 치고 공부할 것이라
는 백들의 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 유학은 ‘미실미가한 단독일신’
에게만 가능한 의례로, 혹은 가족과 가문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던
개인을 ‘미실미가한 단독일신’으로 재규정하는 의례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란 사사로운 정체성들의 완전한 부정을 통
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가문이라는 구(舊)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욕망은 곧 이기주의로 등
치된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유학을 “누더봉사흐는 아들”³¹²⁾을 빼돌
려 “홍가의집을 망흐야”³¹³⁾ 주는 행위로 매도하는 홍참의 내외를 통
해 표상되며, 이들이 ‘악인’으로 그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 텍스트는
이러한 행동을 독자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악행’으로 규정한다.

이기주의는 홍참의와 같은 전형적인 구세대에게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이기주의는 유학을 떠난 신세대조차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심리적 문제로 형상화되는데, 이인직은 이를 특히 여성인물

311) 『치악산』 상, 25면.

312) 『치악산』 상, 102면.

313) 『치악산』 상, 42면.

에게 의탁하여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혈의 누』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짐승갓치제품이나알고 제계집제식기
알고 나라를위하기논고 사하고나라지물을도적질하여먹으려
고 눈이 벌것케뒤집퍼서 도라돈기논거시 다어려서 학문을
비우지못혼연고라 우리가 이것혼문명혼세상에나서 나라에
유익혼고 사회에명예잇논큰사업을 하자혼 목적으로 만리
타국에와서 쇠공이를가라 바늘맨드논 성역을가지고 공부하
야 (중략) 너가일본디판잇슬짜에 심상소학교졸업혼던날은 혼
로밤에두번을 죽으려고혼얏더니 오날또엿 썩혼팔자사나운일
이논 업슬런지

너가 죽기가시려서 죽지아니한것도아니오

공부혼고자혼야 이곳에온것도아니라³¹⁴⁾

미국 워싱턴에서 5년을 보내며 고등소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옥련은 호텔에서 구완서와 만나 대화를 한다. 그런데 구완서가 제 몸과 가족만을 위하고 나라는 위하지 않는 조선인의 이기주의를 재차 강하게 비판하고 돌아간 이후, 옥련은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이라는 구완서의 지향에 동조하는 대신 자신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팔자 사나운 일’에 휘말려 여기에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워싱턴으로 떠돌며 긴 유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옥련은 여전히 ‘국가’의 관점을 내면화하는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 김관일과 재회하고 어서 돌아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호소하는 순간에 극적으로 드러나듯, 옥련은 정확히 구완서가 비판하는 바와 같이 가족이라는 사사로운 정체성을 끝까지 부정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³¹⁵⁾

314) 이인직, 『혈의 누』, 광학서포, 1908, 73-74면.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혈의 누』, 면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315) “(옥)아버지 나논니일이라도 우리집으로 보니쥬시오 날개가뚫쳐스면 지금이라도 나라가서 우리어머니얼굴을보고 우리어머니혼을 푸러드리고싶소” - 『혈의

『은세계』에서 신세대의 이기주의는 옥순과 옥남의 대조를 통해 그려진다. 유학을 지속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던 옥순은 공부를 그만하고 고국에 돌아가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며 옥남을 설득하려 한다. 이에 옥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누님이 문명훈나라에와서 문명훈신학문을 비웠스니 **문명훈**
심각으로 문명훈스업을호지아니호면 못습니다

누님

누님이 니말을좀 자세드려보시오

스람이부모의게 효성을호려면 XXX 부모봉양만하고 드러안
젓는거시 효성이아니라 부모의은XXX이몸이 **나라의국민의 의**
무를 직히고 국민의직분을 다호는거시 부모에게 효성이라

우리나라에는 세도지상이니 XX시니 쌍별입시니 무어시니 무
어시니 호는 스람들이성인갓트신 임금의총명을 옹폐호고 국권
을농록호야 **나라는망호던지 흥호던지제육만치우고 제술만찌**
호라고 빅성을 다죽여니는통에우리아버지 가그럿케 몸시도
라가시고 우리어머니도 그일을인연호야 그런몸슬병환이 드
르섯스니 그 원인을 심각호면 나라의정치가그른곡절이라

여보우리나라에서 원통훈일당훈스람이 우리뿐아니라 드러
나게 당훈사람도 몇천명몇만명이오 무형심으로 죽어나고XX
나서 삼천리강산에 처량훈빛을씩이고 이천만인민이 도툰에드
러서 느라는싸아노흔 돕의올갓치위 터호고 인종은봄바람에 눈
—녹듯 스러져 업서지느씩라 **이나라를 붓들고 이빅성을술니**
라호면 정치를지혁호는데잇는거시니 우리논아모썸록공부를
만히호고 지식을 널퍼서 아모씩던지 지혁당이되야셔 느라
의스업을 호는거시 부모에게 효성호는거시오³¹⁶⁾

위의 대목에서 ‘문명한 사업’, ‘나라의 사업’, ‘정치의 개혁’이란 물

누』, 82-83면.

316) 『은세계』, 116-117면.

론 발화하는 옥남 자신에게도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주목하여 신소설에 수용된 개화 담론의 추상성과 유학 모티프의 장식성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학이 옥남에게 미친 영향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은세계』에서 옥남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도 떨어져서 자라난 남자아이로, 김정수와 미국에서 만난 씨예기 아니쓰의 교육을 통해 ‘국가사상’을 완전히 내면화한 인물로 그려진다. 유학이 ‘나’,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라는 좁은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환되는 의례였다고 할 때, 옥남은 이에 성공한 전형인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옥남이 자신의 부모를 ‘이천만인민’ 중 한 명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옥남의 관점에서 가족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원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기주의는 ‘제 욕만 채우려는’ 부패한 관리들과, ‘문명한’ 공부를 했어도 옥남처럼 사고하지 못하고 ‘고국산천’과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는 옥순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처럼 『은세계』와 『혈의 누』가 신세대의 이기주의를 “여자의 편성”³¹⁷⁾으로 기술하면서 젠더의 문제로 치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오히려 이기주의를 일소불가능한 불안 요소로 확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여자도 국민으로 동원되어야 할 ‘사회’의 자원이기 는 마찬가지인데, 이인직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는 ‘편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원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영원히 ‘국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노출되는 것이다.

『혈의 누』의 조선인과 옥련, 『은세계』의 의병과 옥순, 『치악산』의 흥 참의 내외 등 이인직 신소설에서 이기주의는 구세대와 신세대, 양반과 하층민을 망라하는 조선 사회 전체에 뿌리 내린 악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유학한 남성으로 상징되는 소수 외에는 사실상 이

317) 『은세계』, 112면.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부여되지 않는다. 결국 사사로운 정체성에 묶여 ‘국민’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인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는 소설에서는 명확히 답변되지 못한 채 가족상봉의 형태로 임시 봉합된다. 다만 사회 구성원의 잡다한 정체성들을 ‘국민’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확인만이 되풀이될 뿐이다.³¹⁸⁾

318) 이 절의 『혈의 누』 분석과 「사회학」 분석은 이경림, 「‘인민사회의 출현 - 이 인직의 『혈의 누』론」,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의 3장, 4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3. ‘개화’라는 공동선과 ‘완고’

근대 초기 개화·계몽 담론이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점에 두고 개화와 계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할 때, 그 기제는 주로 풍속 개량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서구적 ‘문명’의 조명을 비추어 당시 한국의 병폐로 인식되었던 인습(因習)의 실태를 폭로하고, 이를 개명해야 근대 국가와 근대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태도가 견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병철은 근대 초기 개화·계몽 담론에 풍속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낡은 것’을 폭로하려는 ‘풍속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1890년대 『독립신문』이 ‘몇 백년을 두고 내려온 한국의 이상한 풍속’³¹⁹⁾이라는 말로 반상(班常) 차별, 남녀 차별, 산소치례, 무속과 미신, 풍수지리 등을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병폐로 표상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구체적인 ‘낡은 것’들이 부정되었다는 것이다. 계몽의 기제로 신교육을, 그리고 계몽·개화의 출발점으로 신가정을 내세우는 담론과 함께 일상 속의 ‘낡은 것’을 적발해내는 풍속 개량 담론은 근대 초기 개화·계몽 담론의 주요 축을 형성했다.³²⁰⁾

319) “대한이 몇 百년을 두고 내려오며 이상한 풍속이 잇는디 첫지 반상의 분별이 오 들지는 남녀의 차등이라. (중략) 당초에 굴으치기를 반상남녀 물론하고 세사에 무서운 것은 올흔것으로몬 알게 흐엿슬디경이면 남의게 의지할 생각도 업고 남의게 압제도 아니 밧아슬터이니 신문 보시는 이들은 이런 아습을 황연이 켜다라 제각기 귀운을 비양하야 국민이 일테로 나라를 보존하기를 힘쓸지어다” - 「사름은 일반」, 『독립신문』, 1899.4.26.(이병철,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전개와 서사 구현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2면에서 재인용)

320) 근대 초기 계몽 담론의 세 가지 주요 축으로 풍속 개량, 신교육(여성 교육), 가정과 결혼 담론으로 대별한 논의는 이병철,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전개와 서사 구현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장 2절을 참고. 다만 본 논의에서는 의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계몽’과 물질적·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화’라는 말을 병기하고자 한다. 이광린에 의하면 ‘개화(開化)’라는 말은 1881년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왕에게 바친 박정양의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서양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양화, 문명화를 지향하는 개화사상은 186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어 1870년대 후반에는 개화사상을 주창하던 이들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었고,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이 둘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었다가 1884년 갑신정변으로 급진파가 몰락하면서 대립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890년대 후반 『독립신문』, 독립협

이러한 전개 속에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대립에 선악의 의미
망이 덧씌워지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서 잘 드러난다.

(가) 行世家는 決不可以 國民 資格으로 待遇者라. 然이나
豈其 本性之 不善哉아. 但以世敎가 陵夷하고 風化가 久壤함
으로 所謂 人民中 翹楚者들이 紛競挾雜을 看作能事하고 認爲
當行하야 國民의 義務如何와 資格 如何를 全然不知함이니
豈不可憫哉아. 此 其 舊習을 不可不 改良者也오³²¹⁾

(나) 惑於風水者는 求福于塚中白骨하야 往往히 破産者ㅣ多하
고 惑於觀相及算命者는 平生窮達을 身數와 八字에 付하고 六
爻와 四課를 信하는 者는 事之成敗를 決於占者之妖言일시 其
行己의 善惡과 作業의 勤怠는 置之不問이라³²²⁾

(가)와 (나)는 박은식의 「구습개량론」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대목
이다. 이 글은 “현 시대는 국가가 부존(不存)이면 민족이 필멸(必
滅)”³²³⁾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국가의 존망을 위해 개명이 시급
한 데도 ‘도원춘몽’에 젖은 자들이 대다수라고 비판한다. 그 대표적
인 예로 네 종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상적 도덕론만을 고수하는 유림가(儒林家), 두 번째는 국가 존망
과 인민의 화복(禍福)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행세가(行世家), 세 번째는 미신으로 흑세무민하는 잡술가(雜術家),
네 번째는 신교육을 거부하고 아이들에게 낡은 학문 가르치기를 고
집하는 학구가(學究家)이다. 이 글 역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
치는 구체적인 ‘낡은 것’들을 열거·부정함으로써 개명의 필요성을 역
설하는 ‘풍속 개량’적 태도를 보여준다.

회의 활동을 통해 개화사상이 대중 차원에 확산되었으며, 1904년을 전후해 개
화사상은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사상이 되었다.(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 일조각, 1989, 41-42면)

321) 박은식, 「舊習改良論」, 『서우』 2, 1907.1., 8-9면.

322) 위의 글, 9면.

323) 위의 글, 8면.

본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나)에서와 같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견지에서 잡술(雜術)의 선악이 판별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선악은 사회적 ‘좋은’과 ‘나쁨’의 의미망을 거느린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를 함께 보면 ‘국민의 자격’이 ‘선함’과 등치됨을 볼 수 있다. ‘행세가는 국민의 자격을 잃었다 할 것이지만, 그 본성이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와 자격을 몰라서 그런 것이므로, 그 구습을 불가불 개량’함으로써 ‘선한 본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국민의 자격을 가짐’이 ‘구습을 개량함’과 등치되면서 선에 개량(改良)의 의미가 덧씌워진다. 즉 ‘새롭게 바꾼 것’이 선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은 “개화라 하는 것은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경우에 달함을 말한다”³²⁴⁾는 유명한 『서유견문』의 구절이나, “샤회의 일분조와 국민의 일분조된 의무를 다함”은 “문명국 인민”의 ‘선한 습관’과 ‘우리나라 사람의 허다한 악한 습관’을 대조하는 신문 논설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³²⁵⁾ 선악 개념이 문명·야만의 의미망을 부수하며 확장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개화·계몽 담론의 수사 체계에서 선이 국가와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롭게 바꾼 것(改良)’과 동일시됨에 따라, 악은 개명 전도에 장애물이 되는 ‘새롭게 바뀌지 않은 것’, 즉 ‘구습’의 질을 기술하는 개념이 되었다. 국가 존립의 필수 조건으로 개명을 내세운 개화·계몽 담론 특유의 표상 체계에 의해 “새로운 것은 선한 것이며 과거의 것은 악한 것”³²⁶⁾이라는 도식이 성립된 것이다. 신소설에 이 도식이 투명하게 적용된 것은 일상생활 속의 ‘낡

324) “大槩 開化라 하는 者는 人間의 千事萬物이 至善極美한 境域에 抵함을 謂함이니 然한 故로 開化한는 境域은 限定하기 不能한 者라 人民才力의 分數로 其等級의 高低가 有한나 然한나 人民의 習尙과 邦國의 規模를 隨한야 其差異함도 亦生한느니 此는 開化한는 軌程의 不一한 緣由어니와 大頭腦는 人의 爲不爲에 在할 所임이라” - 유길준, 『서유견문』, 교순사, 1895, 375면. 띄어쓰기 인용자.

325) 탄희성, 「습관의 선악」, 『제국신문』, 1908.7.7.; 탄희성, 「습관의 선악(속)」, 『제국신문』, 1908.7.8.(강현조 외 편역, 앞의 책, 555-557면에서 재인용)

326) 김석봉, 앞의 책, 50면.

은 것'을 대표하는 무당, 판수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구마검』이라 할 수 있다. 『구마검』은 점, 굿, 풍수지리 등의 미신이 모두 악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수단(악행)임을 폭로해 보임으로써 그 허상을 밝히고 독자의 계몽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구마(驅魔)를 수행하는 서사다.

그러나 대체로 신소설에서는 『구마검』처럼 정면에서 '낡은 것'을 악인으로 치환하는 경향보다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주요 인물을 저해한다는 차원에 존재하는 반동인물을 통해 개화를 지연시키는 장애물들을 폭로하고 독자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려는 경향이 나타난다.³²⁷⁾ 이는 <국가·민족의 존립을 위해 '낡은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현실 속에서 이 '낡은 것'들을 누가 어떻게 배제하여 갈 것인가>라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논의는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서사의 형태로 상상한 것, 즉 공론장에 결탁되어 있던 구체지(具體知)를 보충한 것이 신소설이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해조 신소설에서는 이 '바람직한' 개화·계몽의 과정을 특히 '양반'이라는 특정 계층의 관점에서 형상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당시 '양반'에 대한 이중의 표상과 정서가 존재했음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개화 담론의 상징체계에서 양반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자 '문명개화'되지 못한 국가의 병폐를 드러내는 모델적 이미지로 사용되곤 했다.³²⁸⁾ 그러나 현실 속에서 양반은 여전히 사회적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력한 지도계층이기도 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언론·교육에 종사한 지식계층의 주성분은 고종의 근대화 개혁으로 배출된 일본 유학생, 개신 유학자, 개명관료들이었다. 즉 실제로

327)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가치를 어기는 개인·행위에 대하여 공동체는 '공분(公憤)'한다. '공분'은 개인이 내면화한 가치를 구체적 현실에서 실천하게끔 하는 도덕감정이다. - 최기숙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51-53면.

328)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301면.

개화·계몽 담론을 주도한 세력에 양반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³²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양반 출신의 다수 계몽 지식인들이 ‘양반 자체가 병폐’라는 수사를 가감 없이 채용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대한제국 후기에 발표되었던 대표적 신소설 작품들은 대개 개화·계몽 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주요 작가였던 이인직, 이해조, 김교제, 최찬식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반, 왕족, 중인(中人), 평민 등 출신 성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신 상의 차이로 인해 개화 관련 주제가 변주되는 양상에 주목한 양문규는 이인직 소설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반봉건성을 한미한 계층 출신으로서 양반 계층에 대해 가진 적대감으로 해석했던 바 있다.³³⁰⁾ 이 논의는 신소설 내부에서도 저자의 입각점에 따라 개화·계몽에 대한 지지가 상이한 형태와 정도로 표현되는 양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당시 지식인 지형도를 감안하면, 양반을 ‘낡은 것’ 그 자체와 동일시하고 양반 일소를 주장하는 관점과 양반의 혁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부분적으로 양반을 옹호하는 관점이 공존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후자는 ‘구습·부패와 연관된’ ‘낡은 것’을 양반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다’, 나아가 ‘혁신된 양반 계층은 사회 지도계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도 좋다’는 전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개화양반’과 대조되는 ‘완고양반’이라는 특이한 인물형은 이러한 전망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조 신소설에서 개화·계몽을 지향하는 주인공에 대한 반동인물로 ‘완고양반’이 등장하는 양상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 1908년 7월부터 9월까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던 『홍도화』이다. 『홍도화』는 이태희와 심상

329) 송호근, 앞의 책, 330면.

330) 양문규, 「개화기 문학 담당층의 사회·역사적 성격」,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48-153면.

호의 결혼을 통해 과부 재가, 조혼 금지와 같은 개화 담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을 새로운 사회 지도층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서사다.³³¹⁾

『홍도화』에서 태희는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버지 이 직각에 의해 어린 나이에 홍 생원의 아들과 혼인하게 된다. 서술자는 그녀가 당연히 “우등으로 졸업후 너즈사회에 피수가되야 국민의 큰 의무를 다”³³²⁾ 해야 했다고 기술하면서, 이 ‘의무’가 ‘완고’한 구세대에 의해 거둬 좌절되는 양상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태희를 그녀가 혼인하기 전부터 흠모했던 학생 상호와 ‘과부 개가’라는 신식 방식으로 맺어 줌으로써, 풍속 개량의 모범을 제시하려 했던 저자의 의도는 성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도화』 상권은 태희와 상호가 구세대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국가의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 ‘개명한 나라’에 어울리도록 ‘구구한 풍속’을 개량해나가는 투쟁의 서사로 독해할 수 있다.³³³⁾

이인직 신소설에서 그러했던 것과 유사하게, 『홍도화』에서도 개화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맥락에서 긍정된다. 『홍도화』에서도 개인에게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의 관점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화’의 메커니즘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 나라의 인민되기는 **놈너ㄴ 일반이라** 이십세기 (二十世紀) 시디는 이왕 쇠국시디(鎖國時代)와 갓지안이호야 너즈가 규중에 갓쳐 오즈 술 밥이나 지을줄알고 지닐것이안이라 **각종**

331) 『홍도화』 연재 예고에서도 개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 나라의 일즉 혼인호는 폐단과 청상과부의 참혹호 경상은 세상사람이 항상 탄식호는 바어니와 이 피악호 풍속을 곳치고저 호야 우리 셔관에서 즈미잇는 쇼설 (홍도화)를 박여셔 발매호오니 첨군즈는 부디 사보시옵” - 『제국신문』, 1908.12.24.

332) 이해조, 『홍도화』, 동양서원, 1912, 7면. 이후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홍도화』, 면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333) “**지명호나라로**말호면 느졌다 홀것이업스오나 우리나라 풍속으로보면 과년헛다호겟습니다 사롬이세상에나서 **구々호풍속을버셔나지못호야** 스리에부적당호고 인정에최불명호일을 구츠로히 헝호야 빅년대계를 그릇되게호은 비단제물하나의 낭패가온이라 호사롬두사롬으로 전국동표가 모다호모양이면 **국가의낭패가 적지안이호 법이올시다**” - 『홍도화』, 69면.

학문을 넓히다가 국가사회의 큰사업을 성취하는것이 당연
훈직분이니 여러학도중에 서양 라란부인갓치 학문을열심히야
유시무종치말고 몸을 나라에 바쳐 천추에 으뜸다운일홈을
스취에빚니고져하는학도는 손을 들나³³⁴⁾

(나) (김참)죽식을내그 낫다 썬이지 남녀를물론하고 막중한
국민의 혼분주 된이상에 엇지죽기를바라며 또지금이갓치 기
명하여오는 이십세기(二十世紀)에 그져정신을 못차리고 량반
이니 상것이니 잠고디를 혼단말인그 기가훈조손은 청환을안이
식인드는 나라망홀말에몇빅년 전국의화괴를손상하던 그악훈습
관을 타파해야 버리지못하고 사정으로말하면 나의 금옥갓치
귀훈자식에 못홀노릇을해야 읊을자르고 소곰을치러들며 또 공
익으로말하면 청상과부를 억지로슈절케해야 국가생산에 큰
손해가 되게혼단말인가³³⁵⁾

(다) 그오히를 죽이지말고 잘보호해야길넛스면 장리에영웅이
나호걸이되야 국가의큰사업을홀는지 엇지알며 영웅호걸의
스업은그만두고라도 당장국가인구가 축이놋스니 엇지 국가
를위하야 급히 기량홀정책이안이리오³³⁶⁾

『홍도화』에서 근대 교육은 ‘국가사회의 큰 사업을 성취’한다는 명
분 아래 정당화되며, 학생들에게는 ‘몸을 나라에 바쳐’ ‘나라의 인민’
이 될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가) 과부 개가 금지라는 ‘악한 습
관’은 ‘국가 생산에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민의 한 분자’로서
폐지해야 할 풍속으로 규정되고(나), 청상과부의 낙태 같은 경우에
도 ‘국가의 큰 사업을’ 담당할 자원의 낭비라는 점에서, 또한 ‘당장
국가 인구가 축이’ 난다는 이유로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된다(다).
이와 같이 신교육, 과부 개가, 낙태 금지와 같은 ‘개화’된 삶의 방식

334) 『홍도화』, 8면.

335) 『홍도화』, 43면.

336) 『홍도화』, 70면.

은 ‘국민’적 삶의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여기에는 ‘국가’의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개화’를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사고 과정 전체가 이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인직과 달리 이해조 신소설에서 개화·계몽은 이기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개화가 이차적으로 ‘양반의 자구책’이라는 맥락에서 긍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도화』의 서술자는 태희의 시아버지인 홍 생원을 전형적인 ‘완고양반’으로 그리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집주인은 홍성원이라 홍성원의 부친홍판서가일즉이 대과를
 호야 웅주거목으로 호판 해당을 차례로지니여 가성도 혁々호
 러니와 지산도넉々호야 늑부를것업시지니더니 홍판셔돌아가자
 세월이 전갓지못하야 쇠옹도리갓치 더々로 울너먹던 디벌
 이니 양반이니 드 쓸디업서지니 오편호 홍성원이 구스상을
 버리고 신지식을 넓히어 크게 사회를 붓들고 적게 즈기집
 을 유지홀줄은 모로고 ㄱ장청고호체호야 서울을 하직호고 십
 등지디나 차즈ㄴ듯이 영평바모로 동리로 락향을호니³³⁷⁾

서술자는 ‘전 같지 못한’ 지금 세월에는 지벌이니 양반이니 하는 신분적 지표만으로는 ‘자기 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문벌 출신 양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구사상을 버리고 신지식을 넓혀야’만 한다는 절박감 역시 이 대목에서 짙게 표출된다. 여기서 개화는 ‘사회를 붓들기’에 앞서 먼저 양반이 점하고 있던 지배적 지위를 재생산(‘자기 집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맥락에서 긍정된다. ‘사대부’는 풍속 개량으로 상징되는 개화의 최전선에 섬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지도자적 존재인 ‘선각자’와 동등하게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³³⁸⁾

337) 『홍도화』, 4-5면.

338) “갑오경장홀때에 기가를트라는 정부명령이잇섯스되 조금도 변호지못호고 오
 늘々썅지 구습을직회어 하나도실상으로 호호는자ㅣ잇슴을 듯고보지못호엿스니
 / 이는다름안이라 여러빅년 전리호던풍속을 썅치지못홈이니 진실로 기탄홀바이

이해조 신소설에서 양반의 ‘개화’를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공통 표지가 근대 교육의 수용이다. 실제로 이해조가 신소설에 제시하는 사회 지도층의 전형은 구 양반 출신으로 근대 교육을 받아 개화 지식인으로 변모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 교육을 매개로 하여 양반을 새로운 사회의 지도계층으로 승계하려는 저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³³⁹⁾

(거)서방님 대감께서 공부하시라고 걱정을 각금하시는데 공부
 논힘을안이쓰시고 웨이리심닛가 **지금세상은 전과달나 아모리
 량반이 묘호셔도 공부없으면 속절업습니다**
 상놈들도 부지런히 공부를히셔 상등인물이 모다되는데 더
 구나 서방님께서야 공부만잘히시면 아모리기화판이라도 누
 가우누를 스름이잇겟슴닛가³⁴⁰⁾

『빈상설』에서 노복인 거복은 서정길에게 지금 시대가 달라져 ‘공부 없으면 속절 없다’는 충고를 한다. ‘개화판’인 이 시대에 ‘상등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양반이라는 신분 대신 ‘공부’라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상놈들’에게 뒤쳐져 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동반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빈상설』에서 위와 같이 날카로운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거복은 “소견은정길이 열쥬어밧구지안이홀만흐”³⁴¹⁾라고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서정길을 보조할 뿐 스스

로다 이풍속을버리고 인성의 1 행복을 얻고져홀진던 **사회의 선각자와 사디부의 집에서 문져형홀밧게 다른도가업슬지며**” - 『홍도화』, 32면.

339) 이러한 판단은 대한제국에서 관직 경험을 하기도 했던 이해조 자신이 스스로 한학적 구(舊) 지식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체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해조는 짧은 관직 경험 이후 상경하여 근대 교육 활동에 투신하는 한편 개화 지식인들과 교유하며 계몽의 의지를 관철해 나갔다. 이해조의 생애와 사상 형성 과정에 관해서는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장을 참고.

340) 이해조, 『빈상설』, 동양서원, 1911, 24면. 이하 『빈상설』, 면수로 약칭한다.

341) 위와 같음.

로 ‘상등인물’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텍스트가 거북을 충노(忠奴)라는 전형에 가둠으로써 계층 전복의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면 “기화훈세상에는 양반은 쓸데없고 남녀물론하고 학문이덕々하여야 **상등인**이 된다”³⁴²⁾는 태희의 발언의 배면에는 ‘상놈들’에 의한 계층 전복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은폐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양반의 후예에게 근대 학문의 목적은 ‘국가사회’를 위한 사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상등인’, 즉 ‘양반이 쓸데없어진’ 세상에서 개화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양반’ 되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교육으로 상징되는 개화가 ‘상등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본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완고한 아버지로 인한 태희의 좌절은 신세대로서의 딸이나 새롭게 국민으로 호명된 여성의 좌절에 그치지 않는다. ‘완고양반’은 양반 계층 전체의 혁신을 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반이 누리고 있던 ‘상등인’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가장 강력한 반동인물인 것이다.

한편 『홍도화』는 ‘얼개화꾼’이 직각을 또 다른 ‘완고양반’의 전형으로 제시해보인다.

(가) 부인의친정은 북장동 리직각집이니 리직각이 본리형세도 유명하야 눈치썩르게 붓침붓침이와 알음알이가 썩 도더하야 언의세도지상에게 안이긴히본디그업더니 **잡오경쟁이후로 시세 그 혼변변하넛 그 늑과갓치 머리로 짝고 양복도하야 이사회 더 사회로 도르단이며 국그독립이니 인민주유니** 입으로는 유지자의 **흥너를 드 너지만** 심중에는 **양반도 그더로잇고 교만도 그더로잇고 완고도 그더로잇는 얼기화군이**라 무늬독녀 십세된솔을 주괴싱각에는 글즈를 그르치던지 침선을 그르치던지 집구석에 처 박으두고 십하되 세상이 모든 학교 학교 하넛디 만일 늑하넛디로 안이하면 사회에 명예나 못엇을싸하야 그솔 티회를 너학교에 보니여 공부를식이니³⁴³⁾

342) 『홍도화』, 10면.

(나) (리)허 이사람자네는 시양각국에를 넓이류람허야 기화도
 남의밋혜안이들만치허고 세계풍속도 익히—아는터이닛가더런
 말을허나피마는 **나는완고라 그러허지** 썩 허락홀슈업네 그즈
 식정경을 생각허면으모것이라도 다 허고십으나**니집 ㄱ풍을성**
각허던지 남의외론을 고괴허던지 엇지그일이야형홀슈잇나³⁴⁴⁾

이미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실상(實狀)’과 ‘허명(虛名)’의 개화는
 분별되었던 바 있다. 유길준은 ‘허명’의 개화를 지식이 부족하면
 서도 타인의 경황을 보고 부러워서 따라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여 마
 지못해 하는 것, 그리고 추측할 지식도 없이 시행하기만 주장해서
 재산을 낭비한 데 비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의 두 가지로 구
 분했다.³⁴⁵⁾ 『서유견문』에서 ‘진짜’ 개화의 필수 조건으로 거론되는
 ‘지식’이란 “서양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인식”³⁴⁶⁾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조 신소설에서 ‘진짜’ 개화의 필수 조건
 은 〈국민 의식을 갖춘 양반〉이라는 주체의 측면에서 찾아진다.

이 직각의 개화는 유길준이 말한 첫 번째 ‘허명’의 개화, 즉 타인
 의 경황을 보고 부러워서 따라한 개화에 해당한다. (가)에서 알 수
 있듯 이 직각은 갑오개혁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을 타서 ‘유지자’의
 흥내를 내지만 심중에는 ‘양반’, ‘교만’, ‘완고’를 그대로 가진 열개화
 꾀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의 개화 흥내는 결과적으로 태회가 여학
 교에서 공부함으로써 ‘상등인’이 될 자본을 성취케 해주는 계기가 되
 기도 했다. 한편 (나)에서 보이듯 특히 그의 완고는 가풍이나 평판

343) 『홍도화』, 6면.

344) 『홍도화』, 44면.

345) “且夫 開化는 實狀과 虛名의 分別이 有하니 (중략) 虛名 開化라 呼는 者는 萬物上에 知識이 不足호오디 他人의 景況을 見호고 歎羨호야 然호든지 恐懼호야 然호든지 前後를 推量호는 智識이 無호고 施行호기로 主張호야 財를 費호기 不少호디 實用은 其 分數를 抵호기 不及함이니” - 유길준, 앞의 책, 380-381면. 띄어쓰기 인용자.

346) 김현주, 『『서유견문』의 과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수사학』,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213면.

에 구애 받아 구습을 고수하려는 태도로서 양반 계층 특유의 문제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태희의 지적에 의하면 ‘상등인’으로의 편입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망치고 양반 계층의 혁신을 저지하는 원인이 된다.

이 직각이 빚어내는 이와 같은 모순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열개화’가 ‘반(半) 개화’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직각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은 <국가의 진보를 위해 국민으로서 개화를 추구한다>는 공동체적 관점이다. 흥 생원과 달리 이 직각은 개화가 ‘자기 집’을 유지할 처세 수단임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붙들’ 수단이라는 점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직각의 ‘열개화’란 ‘국민화’되지 않은 주체가 추구하는 ‘근대화(개화)’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화가 이중으로 의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동인물에 기탁되어 있는 완고도 이중으로 의미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완고는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 양반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들은 개화가 ‘상등’ 지위를 재생산하는 필수 수단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 완고는 처세로 개화를 선택했으나 공동체적 관점을 결여한 열개화꾼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들은 개화가 ‘상등’ 지위의 재생산 수단임을 자각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근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완고는 무지한 양반과 열개화 양반의 공통 자질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은 양반 계층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쉽게 확장될 소지를 가진다. 그러나 텍스트가 유도한 ‘완고양반’에 대한 독자의 공분은 ‘개화양반’에 대한 지지와 옹호로 전환될 계기를 품고 있는 것이다.³⁴⁷⁾

347) 최근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과학과 유교의 관계에 주목한 한 연구는 이해조가 유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서구 자연과학 지식을 수용하려 한 기제를 자세히 밝혀 보이기도 했다. (이학영,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인문논총』 7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해조 신소설에서 사상적 절충성이 드러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논의에

19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국신문』에 연재된 『구마검』에서 함진해는 북촌 토호재상에게 재물을 뺏길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부유한 한편, 수십 대에 이르는 종가(宗家)의 가장으로서 팔도 함씨대종회가 열릴 정도로 세력 있는 양반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함진해는 ‘남이 흥불까 하여’ ‘주위들은 문견’으로 겉으로는 무당판수와 같은 미신을 반대하는 체 ‘점잖은 모양’을 꾸미지만 실제로는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열개화꾼으로 그려진다. 결국 구습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완고의 면 때문에 함진해 가족이 무당 금방울 일당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하는 서사가 『구마검』의 주요 서사에 해당한다.

(가) 최초에훈편지스연에호얏스되 「**무릇나라의진보가되지못
함은풍속이미혹함에싱기나니숯호다**우리황인종의지혜도빅인
종만못지안이호거날엇지타오날놀이갓치쥬잔멸망디경에이르러
나뇨 (중략) 무녀와판슈가능히지앙을사라지게호고복을마즈오
논줄너겨한사름두사름으로부터거세가본밧아**적게호집안만멸망
홀뿐안이라크게나라짜지쇠약케호느니이논곳억만명황인종의
금일참혹호형상을당호소이연이니다**」³⁴⁸⁾

(나) 그다음에보넨편지에또호얏스되 「**숯호다**형장이시여형장의
쳐디를싱각호시읍소서**형장은우리일문중십여디종손이시니큰
집에동량이나일반이라**그동량이썩어지면큰집이문어짐은먼치못
홀사세라」³⁴⁹⁾

『구마검』이 함진해와 대조하며 가장 긍정적으로 그리는 인물이 함일청이다. 그는 사촌 형 함진해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미

서는 이 절충성의 무게중심이 개화의 불가피성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해조 신소설이 개화 수용을 양반 계층의 존망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서 낙향 등의 경로로 이를 회피한 양반들이 서사적 징벌을 당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348) 이해조, 『구마검』, 이문당, 1917, 61면.

349) 『구마검』, 62면.

신 신봉은 ‘나라의 진보’를 저해하는 풍속으로 ‘적게 한 집안’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쇠약하게’ 하기 때문에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350) 그런데 함일청의 두 번째 편지에 의하면 함진해의 미신 신봉은 함씨 종가의 ‘동량’을 썩어지게 하여 결국 십여 대에 이어 존속한 가문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즉 함일청이야말로 개화의 거부가 멀게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가깝게는 양반의 집안을 멸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해가 된다는 논리를 체득한 진정한 ‘개화양반’인 것이다.

『구마검』의 후반부에 그려진 함씨종친회 장면의 정점은 “정신상실자”나 다름없게 된 함진해를 대신하여 “우리문중테일소중훈바”인 종통(宗統)을 이을 계승자로 종표를 지정하고, 그 후견인으로 함일청을 내세우는 대목이다. 351) 함씨종친회는 재산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회사 발기와 같은 근대적 사업을 외면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개화를 저해하고 352) 나아가 미신에 빠져 자신의 집안도 망하게 한 ‘완고양반’ 함진해 대신 함일청에게 종통 유지의 과업을 맡긴다. 이후 함씨 집안을 근대사회적 지도계층으로 편입시키는 전체 과정은 신교육을 받고 판사가 된 함일청의 아들 종표에 의해 완수된다.

『홍도화』, 『빈상설』, 『구마검』에서 개화는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공동선이면서 양반이 신 지도층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로

350) 함일청의 편지는 실제로는 편지 형식을 빌려 텍스트에 삽입된 계몽적 연설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편지에는 제3자 다수에게 발화하는 계몽적 논설로서의 내용과 읽는 이를 감화하는 연설 투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다. - 송민호, 앞의 글, 111면.

351) 『구마검』, 66면.

352) “함진해의위인이단(異端)을물니치고오도(吾道)를존중호는도학군주라던지원소(原素)를궁구호야물질(物質)을분석호는물리박스갓호면물갓혼심게ㄱ회져어도흐려지지안이홀것이오산갓혼지조ㄱ혼드러도빠지지안이홀터이지마는여간쥬이드른문견으로점잔은모양을강작호야무당판슈를반디호던것이첫지는남이홍불싸함이오돌지논인식에서는옴이라실상은의심이밋음보드만하귀신이잇는듯도호고업는듯도호던츠에업는증거는보지못호고잇는증거는확실히본듯심어서서회사를발기호던지학교를설립호던지고금이노보조를청구호면당장금고벗는듯이임살을더력々々호야ㄱ며한푼돈너기를썰던규모ㄱ별안간에엇지그리희써워졌는지” - 『구마검』, 22-23면.

하는 자본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양반은 모두 ‘완고’라는 딱지를 달고 몰락의 길을 걷도록 형상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벌가 출신의 부유한 양반이었던 홍 생원이 개화를 거부하고 낙향하자마자 화적당의 표적이 되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는 『홍도화』의 결가지 서사가 상당히 시사적이다. 저자는 개화에 동참하지 않는 양반들에게 서사적 징벌을 내림으로써 ‘완고’를 ‘징계’해 보인 것이다.

4. 근대 교육과 악의 교화 가능성

당대 새로이 규정된 공동선과의 가치 대립이라는 면에서 비교적 연관성이 적은 것은 전통적인 도덕적 악의 표상이다. 다만 이 장에서 이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도덕적 악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이 신소설에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는 교육 담론의 출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악한 인성(惡性)’을 구심으로 도덕적 악을 표상하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은 계승되었다. 달라진 것은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제로 근대 교육이 도입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제국 시기에 교육 관련 담론은 내셔널리즘의 강력한 자장 안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교육은 대개 ‘국가’라는 새로운 항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신문물로, 그 목표는 부국강병 내지 민족-국가의 독립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교육 담론의 세부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셔널리즘의 자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부분도 발견된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교육 담론이 이 시기 ‘국가’와 병행하여 ‘발견’된 ‘사회’라는 새로운 근대적 장의 인력에 이끌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악에 대처하는 새로운 태도는 후자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 내셔널리즘의 외곽에서 전개된 이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악한 인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가정소설적 악인 형상은 가정소설의 영향이 컸던 신소설에서도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악한 인성’이라는 전제는 대체로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선에 가깝다고 보는 전근대적 인식과 충돌한다. 전근대 문화에서 인간의 본성은 대체로 선한 것이거나 적어도 선을 회복·함양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이 표명된 것이 인간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모

터프다.

『귀의 성』, 『빈상설』, 『치악산』, 『목단화』 등은 인물 형상화 방식이나 서사구조 면에서 가정소설과 강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인물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을 ‘악한 인성’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서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성격·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묘사된다.

예컨대 『귀의 성』에서 김승지 부인은 강동지가 데리고 온 길순과 마주치자 “싱강썸”³⁵³⁾를 부르며 당시에는 관련이 없던 침모까지 의심하기도 하고, 하인들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부장의 권위도 꺾어내리는 “히거”³⁵⁴⁾를 벌이는 독하고 상스러운 인물로 형상화된다. 김승지 부인이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한 처지이기에 남편의 애정을 빼앗길까 걱정했다는 이유는 암시되지만³⁵⁵⁾, 서술자는 김승지 부인의 시기와 질투, 패악을 조금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면 “얼골은, 도다오논본들갓치, 탐스럽더라”³⁵⁶⁾는 관습적 묘사나 “비록상사 룰이느, 사족부녀ㄷ, 짜루지못홀헝실이잇던게집”³⁵⁷⁾이라는 서술에 의해 전형적 ‘선인’으로 인지되는 길순에 대조되어 김승지 부인은 ‘사족부녀가 갖추어야 할 행실을 갖추지 못한’ 악처(惡妻)로 형상화된다. 기존 가정소설과 달리 본처가 악인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특

353) 이인직, 『귀의 성』 상, 광학서포, 1907, 24면. 이하 『귀의 성』 상, 면수로 약칭한다.

354) 『귀의 성』 상, 25면.: “(부인) 즈근돌아, 쏘차보너기느, 누구를조차보닌단말이나, 네, 그춘천집인지, 마마님인지, 이리모셔다가, 안쌍에드러안지시게하여라 / 그교군타고, 니가쏘겨가갓다, 어셔드러웁시사고엿쥬어라, 니가그년지의입무락 좀보고십다 / 우익아니드러오고, 무슨거드름을, 그리피운다더냐 / 그것케거드름스러운년은, 니가그년의더궁이를, 께트려놋켓다” - 『귀의 성』 상, 25면.

355) “(부인) 그런말, 마라, 세상에고상, 치고, 시얏두고근심하논고성갓한, 고성이 쏘어더잇깃느냐, 느논시얏만업스면, 돈훈푼업드러도, 아무근심업깃다 / 니손으로, 보누질푼을과라먹드러도, 영감과느와단두식구야, 엿더케못살깃느냐 니가자식이잇느냐어더먹음부칠데가잇느냐 영감한분뿐이지……” - 『귀의 성』 상, 79면.

356) 『귀의 성』 상, 1면.

357) 『귀의 성』 상, 22면.

기할 만하지만, 김승지 부인의 형상화 방식은 도덕적 악을 표상하는 전통적 방식과 일치한다.

『빈상설』의 경우에는 서정길의 첩 평양집이 본처 이씨 부인에게 “칼날갓치독흔마음”³⁵⁸⁾을 가지게 된 뚜렷한 계기에 대한 서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양집의 악의가 일정 부분 계층적 적대감에서 기인했음은 암시되고 있으나,³⁵⁹⁾ 평양집이 이씨 부인의 축출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녀를 적대하는 이유는 표면화되지 않는다. 대신 『빈상설』은 양반가 출신으로 유순한 품성을 가진 이씨 부인을 “상년”³⁶⁰⁾으로 태어나 “뭇서방질”³⁶¹⁾이나 하던 평양집과 대조함으로써, ‘출신’을 인성과 연관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상설』에 형상화된 인성론적 선악 표상에는 신분·계층의 문제가 덧쓰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악한 인성’으로 악행의 원인을 수렴시키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은 그대로 나타난다.

『목단화』의 경우에는 후처 서씨 부인이 전처의 딸인 정숙을 미워하는 이유가 표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숙의 미모와 자태, 정렬(貞烈)함이 자기보다 나아서 미워한다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실상 정숙의 존재 자체를 맹목적으로 미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³⁶²⁾

358) 『빈상설』, 29면.

359) “나갓흔무지막지호고천흔년은 다시말홀것업지만 어되아씨흔분이야 처지가부인이오 지체가 당당스부신티 나갓흔년도 안이홀일을 한단말이오” - 『빈상설』, 41면; “이왕나를점지호거든 허구만흔량반에밋구멍을 다버리고 하필상놈의집에다 티어나게히던가 / 상년으로 티여났거든 상놈과내외가되야 살게팔즈가뭇되고량반아씨의시앗시되야 종놈종년에게까지 이망신을당호엿나 죽어도맛당호지” - 『빈상설』, 45면.

360) 『빈상설』, 45면.

361) 『빈상설』, 16면.

362) “서씨부인의 정숙이를미워호는것이 여러가지니 첫지는 정숙의 주티가 주기보다나흠이요 둘지는 정숙의승질이 정렬호야 주기의심정과 판이히달음이요 셋지는 주기의지은과실은 주기가물으고 그남편이 주기박티호는것을 혹시정숙의춤소로 그러호가흠이러라” - 김교제, 『목단화』, 동양서원, 1911.(『신소설전집』 1, 계명문화사, 1987, 239면.) 이하 『목단화』, 면수로 약칭한다.

서씨부인의 승질(性質)은 엇지그리 안초고달아지며 험악
 하고음흉흔지 나보다나은스름은 쫓차가며 음험을붓치고 무당
 불너푸닥거리하기 판슈청하여 경넓기 절에가서 불공하기 전후
 못된일은흔아썸지안코 다하논터이라 (중략) 리춤판의전실소
 심정속이를원슈갓치미워하니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목단화』에서도 서씨 부인이 ‘전후 못된 일은 하나 빠지 않고 다 하는’ 원인은 결국 ‘안차고 다라지며 험악하고 음흉하다’는 ‘성질(性質)’의 문제로 수렴된다. 『목단화』의 서술자는 텍스트 곳곳에서 서씨 부인이 전처의 딸 정숙을 ‘원수 같이’ 미워하는 것은 “원악 편협하고악독흔”³⁶³⁾ 성격 때문이라고 누차 강조하기도 한다.

한편 이인직이 쓴 『치악산』 상의 경우 후처 김씨 부인 모녀가 전처 소생 며느리 이씨 부인 노주에게 보이는 적대감에서는 이 시기 조선 사회에 존재하던 차별의 문제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며, 반대로 맹목적인 악의나 악한 성격에 대한 형상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다.³⁶⁴⁾ 이러한 양상은 가정소설의 ‘사회적’ 변용의 징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교제가 쓴 『치악산』 하에서는 김씨 부인이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다’는 전통적 방식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특히 『치악산』 하의 여성의 ‘악한 인성’을 시기, 질투라는 ‘유순하지 못한 정서’뿐 아니라 패악, 해거로 묘사되는 ‘유

363) 『목단화』, 238면.

364) “너의오리비택인가 티상노군의딸인가 그거슨서울지상의 딸이느되노고로 시어미와시늬를 몰나보려니와 검홍이란년은 지상집종녀이라고 시골냥반은 제발삿에 썩만치도몰라본단말이나”(이인직, 『치악산』 상, 유일서관, 1908, 8-9면); “나는춘천김성원의 딸로서 팔조조아서 랑반조흔홍참의김후취택이되야 드러왔더니 팔조조더조호려고 양반의 셔슬이퍼런 리관서의딸을 며느리삼았다가 복에겨워서 며느리의게 업스녀김만맞고 혼조 속만썩엿다 춘천김성원의딸이 서울리관셔딸의게 셔름을 아니바드러면되깃느냐”(『치악산』 상, 54면); “느갓치 팔조자느운 년은 참 기화속사름들의게 셔름만히보앗소”(『치악산』 상, 44면)와 같은 언급 등에서 신분·계층·지역에 의거한 차별과 개화 세대에 대한 평민 계층의 반감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 ‘악한 인성’이라는 전통적 자질은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여지를 가지게 된다.

순하지 못한 태도'를 통해 가시화하는 가정소설 특유의 방식이 신소설에서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여성인물의 '선한 인성'이 '분하거나 원통해도 참고, 불쾌하거나 기쁜 일에 행동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³⁶⁵⁾는 '태도'를 통해 가시화되는 경향은 가정소설이 특히 유교적인 장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유교적 배경에서 여성의 '선'은 '화유(和柔)'라는 덕성을 중심으로 표상된다. 화유는 부드러움, 약함, 순종함, 화합함, 정절을 지킴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데,³⁶⁶⁾ 이를 살펴보면 화유가 '태도'에 초점을 맞춘 덕성임을 알 수 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가족·가문의 유지와 존속이었다. 즉 친인척 간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집안의 분란을 방지하고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중재적 역할이 여성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선한 인성'이 주로 '태도'의 견지에서 규정되었던 것이다.

『치악산』 하는 이와 같은 이상의 반대에 위치한 여성의 '악한 인성'이 어떤 '태도'를 통해 형상화되는지 잘 보여준다. 전실 며느리 이씨 부인 노주가 축출된 와중에 남편 홍 참의가 송도집을 첩으로 들이자 김씨 부인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대목과, 제반 악행이 탄로나 김씨 부인이 홍 참의에 의해 축출 당하는 대목 등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가) 에그 령감이송도는 웨가셋든구 송도만 안이가셋드면 너
가시얏을안이보앗겠지 응 이탓저탓은ㅎ야무엇ㅎ게 **모도전실**
며누리고년짚똥이지 고년썩문에 집안도결단이나고 슈족갓

365) 신소설 『광악산』에서 아버지 목 동지는 딸 목태희를 시집보내며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여즈는 순흙으로 덕을삼느니 분혼일이 잇셔도 참고 원통혼일이잇셔도 참고 어려온일이잇셔도 참아서 불쾌혼일에 발끈ㅎ지말며 깃분일에 헉ㅎ지도마라라 여즈의성미는 너머 조급ㅎ야 압뒤일을 생각지온코 당장 마음 도라가는디로ㅎ느니 이것이 제일 삼갈일이라” - 박건병, 『광악산』, 박문서관, 1912, 23면.

366) 이숙인, 앞의 글, 362-363면.

치신임호든 옥단이까지 치악산호랑이게 물녀보니고 종말은
시앗쫓차보앗스니 에그 고년은 번々이 나호고 무슨원슈로
그러호가

호면서 급호곽란에 구안와스되듯 입살은 호편으로 비스죽
쫓니고 얼골은 파랏타못호야 자주빔이되게질너 두주목으로
방바닥을 황々치며 독살풀이를호고안져는디³⁶⁷⁾

(나) 가갸다 못가갸다 그대말은 안이호고 잠갸고안져서 져가
숨만쫓어쫓더니 악도 정지나면 겹이엿는법이라 너디고마쥬
악을쓰며

무어엇지고엇지히 날더러가라고오 가기는엇의로가라고호시
더냐 그리니가잇스면 그년을다리고 자미잇게못살갸다디 검은
머리가세여갈썩에 그여우갸흔시앗년에게쫓겨가아 나를비상먹
여죽인다니 웨너가 역적질을호다들넛나 죽이기는누구를죽인다
더냐 응 비상은그만두고 이년의몸동이를 토막토막 척々너여
보아라 이년이 갈터인가 (중략)

호면서 대청들보가 썩렁々々울니게 주목으로 말루바닥을
황々치며우넛디³⁶⁸⁾

(다) 죽으면죽엇지 가지안갸다든 김씨부인이 그런싱각이 들기
를시작호더니 셔슴엿시 일어서셔 놀이엇든치마자락을 거
듬々々호야 압에다 쥬셔안고 총알갸치 신표속으로 드러안
즈며 셔름에북밧쳐 우름이나오논디³⁶⁹⁾

(가)에서 김씨 부인의 욕설, 과장된 행동, ‘독살풀이’는 모두 그녀
의 ‘유순하지 못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한다. 실상 여기서 김
씨 부인을 통해 표출된 갈등은 여성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가부
장적 질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367) 김교제, 『치악산』 하, 동양서원, 1911, 38면. 이하 『치악산』 하, 면수로 약
칭한다.

368) 『치악산』 하, 52-53면.

369) 『치악산』 하, 55면.

사회 구조적 모순보다는 ‘성질이 편협하고 악독하다’라는 성격적 결함으로 악행의 원인을 수렴시킨다. (나)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축출 당할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부인이 보이는 ‘악을 쓰는’ 과격한 행동과 말은 이 성격적 결함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준다.

특히 이 대목 뒤에는 김씨 부인의 행동을 보다 못한 홍참의가 비상 봉지를 직접 내어 먹일 기세를 보이자 김씨 부인의 ‘악독이 당장 줄어지고’ ‘서슴없이 일어서서’ 가마로 들어가는 장면(다)이 이어진다. 그리고 김씨 부인의 이처럼 표변하는 행동과 기품 없는 행동거지는 서술자에 의해 회화화된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김씨 부인을 경멸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그녀의 ‘악독함’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얼마든지 줄어드는 상대적인 자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을 쓰고’ ‘독살스럽게’ ‘폐악을 부리는’ 행동의 묘사는 고소설과 신소설에서 여성을 악인으로 그릴 때 자주 동원되는 형상화 방식이다.

주로 여성인물에 기탁하여 만들어진 도덕적 악의 표상이 변용되는 지점은 그 형상화 방식이 아니라 대처 방식이 변화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작품들 중 『귀의 성』은 사적(私的) 복수로 김 승지 부인을 정치함으로써 도덕적 악의 교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태도를 보여 다른 작품들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반면 『치악산』 하·『목단화』의 김씨 부인과 서씨 부인은 서사 말미에 갑작스럽게 ‘자선한 부인’이 되었다고 서술된다. 이들은 ‘개과천선하는 악인’이라는 전통적 레퍼런스에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개과천선 과정이 빈약할지라도 “자괴의 허물을 씨앗기 시작”³⁷⁰⁾했다던가 “기과를 말나호여도 즈션훈부인이 될밧게업더라”³⁷¹⁾는 논리로 표현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들이 이씨 부인과 정숙이라는 더 나은 인물을 본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본성’을 회복할

370) 『치악산』 하, 122면.

371) 『목단화』, 391면.

수 있었다는 고전적 교화(敎化)의 수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빈상설』과 『목단화』에는 위와 같이 악인을 징치하거나 갑작스럽게 개과천선시키는 전통적 방식과는 결을 달리 하는 ‘교육적’ 태도가 표명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을 둘러싼 기제가 전근대적인 것에서 근대적인 것으로 교체되며 일어난 변화로 소결할 수 있다.

예컨대 전근대적 기제를 잘 보여주는 『장화홍련전』이나 『사씨남정기』를 살펴보면, 허씨와 교씨는 개과천선하는 일 없이 각각 능지처참과 교수형을 당하여 죽는 결말을 맞는다. 그런데 『장화홍련전』에서 허씨를 재판하던 부사는 그녀가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으나 공법(公法) 상 알맞은 죄목을 정할 수가 없어 고민 끝에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다. 그리고 임금의 권위에 의거해 “홍녀이죄는만々불측”하다고 선언되고 “릉지처참(凌遲處斬) 하야 후인을각별증계”³⁷²⁾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사씨남정기』의 결말에는 류씨 일족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류 상서와 사씨가 교씨의 ‘죄’를 선고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류 상서가 참소한 죄, 요술로 장부를 현혹한 죄, 시비와 동청을 염탐한 죄, 강도를 보내 부인을 모살하려 한 죄 등 열두 가지 죄목을 들고 사씨가 “문호에 득죄하고 상공을 모히”³⁷³⁾하였기 때문에 교씨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류 상서는 문 밖에 내어 교씨의 목을 매어 죽인다.

이와 같은 결말에서는 허씨나 교씨의 악이 궁극적으로 법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성을 핵심에 둔 표상임이 잘 드러난다. 두 작품에서는 허씨와 교씨의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선언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는 반면, 그 이후의 대처 과정은 법정(法定) 형이거나 사형(私刑)을 막론하고 매우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 서술되고 끝난다. 즉 이러한 형상화 방식에서는 권위 있는

372) 『장화홍련전』, 43면.

373) 『사씨남정기』, 108면.

자가 어떤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전체 과정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단 분간된 악에 대한 대처는 단순한 처벌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악독혼사람이 별도악독하게맞음은 텃지간에 보복지리라
평양집과 금분이의 추착된일은 불과송장감춘죄라 터뎡십도면
방석이 되여슬터인디 복단의부모가법정에서 두년의조초형실
을 력력히 고히노으니 모함죄투기죄가 설상가상이되야 졸
연히노이지못하게 되엿는디 그중에밥훈술 갖다주는 사람은업
고 흘일업시 죽을디경이라

그디경에도 제형실을버리지못하야 압죄놈들에게 가진아양
을다부려 식은밥덩이를 잇어먹고 잔명을보전하야가더니 그렇
저렇 여러달이되미 년놈들이 정의가 두터워져서 그일이타첩이
되야 옥문맞게를 나온디도 그놈씨러져는 못살디경썸 되엿는
디³⁷⁴⁾

도덕적 악의 분간·제시에 역점을 두는 고전적 태도는 『빈상설』에서 위와 같이 평양집과 금분이 법정에서 ‘송장 감춘 죄’에 더하여, 그들의 ‘행실’의 진상을 밝히는 모함죄·투기죄를 선언 받은 후 텍스트에서 사라지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위의 인용문에서 ‘행실’은 인물의 도덕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그런데 서술자가 ‘행실’은 ‘버리지 못한다’고 간주하는 데서 드러나듯, 평양집·금분의 악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악으로 규정한 후에는 단순히 처벌하거나 갑자기 하늘의 도움으로 개과천선하는 외에는 대처할 방도가 없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권위에 의해 분간되는 것’으로부터 ‘근대 교육을 통해 육성·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범주로 이동하여 사유되기 시작한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빈상설』이 서정길의 개과천선을 그리는 방식에서 이러한 징후가 뚜렷하

374) 『빈상설』, 135면.

게 드러난다. 서정길은 평양집·금분과 같이 전형적인 악인으로 그려 지지는 않았으나, 개과천선 모티프에서 강하게 암시되듯 부분적인 악인으로 형상화되었다.

현재 『제국신문』 연재본 『빈상설』에의 접근이 힘든 상황에서, 기존에 널리 알려진 『빈상설』 동양서원(1911) 판본에는 해배되어 돌아온 이 승지가 상해 동아학교에서 부친 서정길의 편지를 받아보는 장면 이후의 서사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소장 간기 미상의 『빈상설』에 이 누락 부분이 끝까지 실려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판본에 따르면 서정길은 동아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이씨 부인과 재회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협판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서정길이가 꺾가망신히 후에 비로소 허물을 썬다라 상히로 건너가 동아학교에 입학하야 열심히 공부하며 스스로 결심하길 「넛성인의 말슴에 스름이 누가 허물이 업스리오 곳치논게 귀하도 하섯스니 나는 즈금 이후로 문명하 공부를 충만히 하야 상당하 자격이 되면 가히 이왕에 요물에게 미혹하야 현쳐를 박디하고 가성을 타락케하 죄를 썬스리라」 하야 취하 술을 썬인 듯 곤하 꿈을 놀넛 듯 정신이 썬々히 시로 나서 일변 공부도 잠심하고 일변 고국 소식도 탐지하더니³⁷⁵⁾

신소설에서 유학이 구체적인 능력을 갖출 계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문명개화를 증명하는 기호로 소비되거나, 신기성이나 이국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기왕에 지적되었던 바 있다.³⁷⁶⁾ 서정길의 경우에도 상해 동아학교에 유학하여 배운 학문이 ‘문명한 공부’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375) 『빈상설』(서울대 소장본), 간기 미상, 104면.

376)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 유학의 문제-이인직의 「혈의 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98면;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1』, 민음사, 2000, 94면.

기술되는 바가 없으므로, 근대적 학문의 기호성과 장식성에 주목하기는 쉽다. 그러나 (가)에서 ‘문명한 공부’는 ‘요물에게 미혹되어 현처를 박대하고 가정(家性)을 타락케 한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자격처럼 기술된다. 즉 서정길의 유학은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그려지는 것이다.

『빈상설』은 이씨 부인에 대해서도 “가명에 학문이 상업지안코 텃성이 유순하야 범절이 덕기가 더럭더럭”³⁷⁷⁾하다는 묘사를 통해 ‘학문’을 그녀가 지닌 도덕성의 기초에 위치시켰던 바 있다. 이씨 부인의 가정에 있는 ‘학문’이 과연 서정길과 같은 ‘근대 학문’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성은 교육을 통해 육성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은 개과천선하지 않는 평양집·금분과 서정길을 대조하면서 ‘악함’을 ‘근대 교육을 통해 교화 가능한 정도의 차이’³⁷⁸⁾의 문제로 변환시킨다.

이와 같은 변환을 가능케 한 원인은 당대 교육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의 교육 담론은 크게 두 가지 계열 속에 위치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성했던 것은 <교육-문명-국가(부국강병)>으로 이어지는 내셔널리즘의 계열이다. 여기서 ‘부국강병’의 필수 수단으로 강조되는 교육은 19세기 말 개화파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확산된 <근대 교육=서구식 학문=문명>의 의미망을 수반하고 나타난다. 이처럼 문명과 동일시되는 근대 학문으로는 ‘쓸모없는’ 한학(漢學)과 대조되는 천문학이나 화학 등의 이학(理學), 법학, 정치학 등의 ‘부국강병학’이 주로 거론되었다.³⁷⁹⁾

한편 이와 역점을 달리 하여 “‘국가’로부터의 ‘사회’의 해방”³⁸⁰⁾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향성이 존재했다. 이는 정치학과 윤리학·경제학

377) 『빈상설』, 12면.

378) 송민호, 앞의 글, 109면.

379) 길진숙, 『『독립신문』·『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82-86면.

380) 박주원,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위의 책, 142면.

의 분화로 상징되는 흐름으로, 여기서 교육은 〈교육-도덕-사회〉의 계열 속에서 “정치권력과 구분되는 독립적 인간의 사회적 삶”³⁸¹⁾을 규율할 수 있는 기제로 나타난다. 신소설에 나타난 도덕적 선악 표상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교육-도덕-사회〉의 연결을 매개하는 ‘윤리학적 관점’의 도입이다.³⁸²⁾

근대 초기에 나타난 ‘윤리학적 관점’의 토대는 1907년 『공수학보』에 실렸던 현구의 「사회와 도덕의 필요」라는 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가) 道는 人의 不可不行할 法則을 云함이요 德은 道를 實行하는 能力을 云함이니 道와 德은 人生의 至重한 良知良能이라 (중략) 故로 材智財産身體는 完全無缺하드리도 道德이 無하면 是는 軌道가 無하고 運轉手가 無한 一大盛汽力한 機關車에 何가 異하리오 (중략) 盖人이 生함의 但 肉體만 爲 함이니 但 財産만 爲함이니 此等은 人生의 一部分을 補할 뿐이라 人의 人된 所以는 卽 人格을 完成케 함이 是 道德이니 然則 人의 所大欲은 道德에서 大함이 無하도다³⁸³⁾

(나) 且道德은 絶對的의 必要가 有하니 此는 自己의 호오 (好惡)로써 任意取捨키 不能하리라 忠은 自己의 好하는 바이니 行하고 孝는 自己의 不好하는 바이니 不行한다하면 是를 忠孝의 人이라 稱할가 正義는 其 極端까지 行할지로다 然하나 此世衆人은 監督의 嚴重을 因하야 不得已 道에 服從하되 其亦 機械的 行爲오 非絶對的 行爲라 然하나 因果의 法理는 毫라도 許함이 無하니 絶對에 必要한 道德을 背하는 者는 必코

381) 위와 같음.

382) 강제병합 이후 발표된 최찬식 신소설이나 『장한몽』, 『눈물』, 『재봉춘』 등의 번안소설에 등장하는 근대 교육 표상에서는 〈교육-문명-국가〉의 방향성은 물론 〈교육-도덕-사회〉라는 방향성도 소거된다. 대신 근대 교육은 개인이 ‘상등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계층 상승 수단이라는 맥락에서 뚜렷하게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 때 교육은 〈교육-출세-사회〉라는 새로운 계열 속에서 표상된다.

383) 현구, 「사회와 도덕의 필요」, 『공수학보』 2, 1907.4., 19면. 띄어쓰기, 한글 병기는 인용자.

此에 相當호 禍로써 應報호느니 曾子曰「戒之戒之로라 爾에 出호는 爾에 反호다」호니 此는 卽 因果律을 稱호이나 惡事를 行호고 他人에 制裁가 不加호 時는 必코 自己良心의 呵責을 不免호느니 감불구재(敢不懼哉: 감히 두려워하지 않겠는가)아³⁸⁴⁾

(다) 又 道德은 普遍的 必要一有호니 專門의 異同과 分業의 差別을 不問호고 人으로 生호야는 此에 絶對的 實行을 不取치 못호지라 特別才能과 巨大財産은 恥호비 아니오 人格의 光을 빛너고 萬物의 靈長됨을 完全케 호는 此 道德의 不備호는 大恥라 云호노라³⁸⁵⁾

(라) 要컨디 道德이 人生에 對호야 如斯(이와 같은) 必要가 有호진디 其 人生으로 組織호 社會國家에 對호야는 如何호 關係가 有호리오 社會進歩는 恒상 人々分化의 統一과 同伴호느니 若 其人々이 仁義를 不順호며 忠信을 不行호면 其 社會는 百鬼의 衆이 暗夜中에 爭鬪호고 如호 뿐이라 엇지 一日이라도 其 健全호 組織을 保存호야 榮昌호 光을 千載에 傳호리오 實로 社會國家의 最後運命을 決호는 單 財富에도 不在호고 單 兵強에도 不在호고 恒상 國民道德의 如何호에 在호다 호노라³⁸⁶⁾

위 인용문의 대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신체, 재산, 재주 등은 개인의 능력이지만 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과 능력’은 도덕으로, 도덕만이 인격을 완성시켜 사람을 사람답게 인도할 수 있다. (나)도덕은 개인의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인과의 법리’가 존재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다)보편적 도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라)사회 진보는 개인의 진보와 동일하므로, 개인의 도덕이 발전하지 않으면 사회는 ‘백귀가 서로 투쟁함

384) 위의 글, 19-20면.

385) 위의 글, 20면.

386) 위와 같음.

과 같다.’ 즉 도덕 진보의 필요성은 직접적 국력의 증강(‘재부(財富)’, ‘병강(兵強)’)이 아니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증강된 국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찾아진다.

이 글에서 주목할 바는 선악 개념이 탈신성화되면서 도덕이 곧 근대 사회 윤리와 동일시되는 양상이다. 도덕은 규범을 깨닫는 지식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교육적 방식에 의해 육성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가) 도덕의 실천과 ‘악사(惡事)’를 행(行)’함은 전통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인과의 법리’에 묶여 있다고 간주되지만, 이 인과는 초월적 주체가 내리는 상벌이 아니라 타인의 제재나 자기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난다.(나) 이러한 맥락에서 부도덕(‘도덕의 불비함’)은 천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타인의 제재와 양심의 가책을 내재화함으로써 육성되는 감정인 수치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다) 그런데 근대적 사회윤리로서의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위 글에서 실제로 도덕의 내용이란 충효(忠孝), 충신(忠信), 인의(仁義)와 같은 ‘넓은 도덕’의 되풀이로 나타난다.(라)

즉 이 시기에 갱신된 것은 선악(도덕)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도덕의 필요성을 근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둔 위 글은 ‘그렇다면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도덕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출함으로써 ‘윤리학’의 등장을 예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상설』의 저자인 이해조가 조선에 소개했던 근대 학문이 다름 아닌 윤리학이라는 점이 인상 깊다.

이해조는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에 1908년 12월부터 1909년 7월까지 「윤리학(倫理學)」을 연재했다.³⁸⁷⁾ 이 글은 연재 도중 중단되었는데, 배정상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던 「윤리학(倫

387) 이 글은 모토라 유지로(元良勇次郎)의 『윤리강화(倫理講話)』(1900)를 축약하여 편찬된 『중등학교 원량씨윤리서(中等學校 元良氏倫理書)』(1902) 상권을 번역하고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 송민호,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81면.

理學)」(1908.6.20.~10.27.)이라는 글이 중단 이후 부분을 포함하여 이해조가 연재했던 「윤리학」의 개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³⁸⁸⁾ 다만 『제국신문』 소재 「륵리학(倫理學)」은 무기명으로 연재되었으므로 이해조를 필자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재물은 당시 이해조가 소개하려 했던 ‘윤리학적 관점’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륵리학」은 현구의 글과 마찬가지로 윤리를 ‘지식’인 동시에 ‘실천’으로 규정한다. “륵리학은 인류의 리치를 궁구하야 그 실행하는 방법을 구하는 학문”³⁸⁹⁾이라는 정의에서 드러나듯, 근대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근본 목적은 선악을 가르치는 표준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가) 문 륵리라는 자는 써 착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함이
니 었던 자가 착하고 었던 자가 악함이노

답 다만 무엇이 착하며 무엇이 악하나 하게되면 사름을 히히
면 악함이 되고 사름을 도으면 착함이 되며 근면함이 착한
바이오 타티함이 악한바되면 리치에 심히 붉은자이라 (중략)
(선악은) 크게 분별하면 대기 두 가지에 지나지 안이히니라
문 그 두 가지가 무엇무엇이노

답 하나는 사름의 형위에 더하야 선악을 의론하며 하나는
사름의 스상에 더하야 선악을 의론함이니 먼저 말흔 바는
보통으로 일으는 바 슈신학이니 기중에 쏘흔 갑을의 두 길로
난호아 갑은 형위의 결과로 세상 사름을 리롭게 하면 착함이
되고 세상 사름을 히롭게 함녀 악함이 된다하나니 이는 일은
바 실리론(實理論)이오 을은 결과의 었더함을 물론하고 그 형

388) 배정상은 그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제국신문』 소재 「륵리학(倫理學)」(1908.6.20.~10.27.)을 정리·공개하고, 이 글 역시 『중등학교 원량씨윤리서』을 저본으로 삼은 글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호홍학회월보』 소재 「윤리학」은 『제국신문』 소재 「륵리학」의 초반 내용과 일치하며, 「륵리학」의 후반은 『기호홍학회월보』가 폐간됨에 따라 미처 실리지 못했던 내용으로 추정된다. -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 2015, 82-84면.

389) 「륵리학」, 『제국신문』, 1908.6.20.(배정상, 앞의 책, 474면에서 재인용)

위가 룬리법칙에 맞는 자는 착하다 하고 맞지 안이한 자는 악하다 흠이며 뒤에 밀흔 바는 곳 스상계에 선악의 표준을 덩흠이니 실리론으로 더부러 크게 갖지 안이하니³⁹⁰⁾

(나) 한가지 주의(主義)를 세워 표준을 삼아 행하면 이는 곳 도덕상의 이른바 착한 것이오 이것을 역의면 스사름이 되나니 이는 곳 도덕상의 이른바 악한 것이라 그러나 세상 사름의 선악을 분별하기를 왕왕 이왕 경험으로 추척해야 소위 격언과 습관 등으로 주의를 삼고 사회가 날로 복잡해야 진보됨이 심히 속한거날 사회에 맞지 안일 것은 분명흔 리치라 그런고로 반다시 여러 가지 룬리의 학설을 비교하고 그 리히를 연구해야 오늘날 스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흔 주의라³⁹¹⁾

(다) 문 사름의 덕성이 몇 가지나 잇나노
답 덕성이 두 가지가 잇스니 하나는 하늘이 품부한심이오 하나는 힘때 비흠이니 (중략)

문 힘으로때 비온 덕성은 엇더한노

답 이는 교육흠을 인해야 서로 달으니 (중략) 교도와 충고의 힘으로 하늘이 품부한심을 변치 못흠이 더러 잇스되 오죽 일덩흔 범위 안에 한덩한야 지나지 안이하면 비로소 효험을 가히 불지니 고로 사름의 성품을 삼청에 난호아 상등 중등 하등이 잇서 상등은 항상 착하고 하등은 항상 악한되 오죽 중등은 가라침을 인해야 올마간다는 말이 잇스되 하우불이라도 만일 하늘이 품부한신 착한 바탕만 잇고보면 가라쳐서 교화의 발달이 쉬웁은 가히 의심할 바 안이니라³⁹²⁾

(가)에서 주목할 바는 윤리학에서 다루는 사람의 선악이 ‘행위’와 ‘사상(법칙, 이론)’의 두 가지 층위로 세분되었다는 점이다. 타인을

390) 「룬리학」, 『제국신문』, 1908.10.23.(위의 책, 565면에서 재인용)

391) 「룬리학」, 『제국신문』, 1908.6.23.(위의 책, 475면에서 재인용)

392) 「룬리학」, 『제국신문』, 1908.7.12.(위의 책, 485면에서 재인용)

이렇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의 선악은 전통적인 감각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수신학’의 대상이다. 한편 ‘사상계에 정해진 선악의 표준’, ‘윤리법칙’에 따라 분간되는 선악은 ‘윤리학’을 궁구함으로써만 접근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 즉 근대 학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표준’이자 ‘법칙’으로서의 ‘윤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나)에 의하면 이 표준은 복잡하게 진보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상 사람이 맹종하는 구시대의 윤리가 아니라, 근대 사회의 사상(事狀)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가 된다.

그리고 (다)에 의하면 이처럼 정립된 표준을 ‘교육’함으로써 근대 사회에 적합한 덕성을 육성할 수 있다. 사람에게에는 ‘하늘이 품부하신 착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교화의 발달’이 가능한 것이다. 이 때 언제나 착한 ‘상등’ 인간과 언제나 악한 ‘하등’ 인간 사이에, ‘교육’에 의해 ‘악함’에서 ‘선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중등’ 인간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전통적 개과천선 모티프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빈상설』에서 개과천선하는 서정길과 개과천선하지 ‘못하는’ 평양집·금분의 차이가 교육의 여부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착하면 복을받고 악하면앙화를 받는다는데 말이야
바로하지 화기동 아씨갓치 착하고무던하신이야 쏘어더잇나
제기 우리가그구박을 당히쓸말이면 승문고라도치고 남산에봉
화라도 들엇슬터이야 남편망신되고 안이되논걸 알비렁방이잇
나 그거조만하고보면 평양집이야모리 구미호갓치 서방님을홀
이드리도 동풍에문다러 썩러지듯홀걸

그아씨는못하시나 아마니가이길로 지소에가서 순검을다려다
복단이송장을뵈이고 전후사설을다홀가보다 평양집경치고 쫓겨
나가는걸 쯔보게 어허 쫓겨만나가 지금세월에 더살은업지만
전중이는 될걸

이렇게도 마음을먹고
 안이 그리홀슈도업서 니가고자질만흐면 평양집을 법소에서
 잡아드려 혼칼혼미에 죽일리는업고 필경혼바탕 문초를바들
 것이니 문초만밧고보면 전후심부림을 다니가헛는디 니말이
 비두에울을결 앓싸도 평양집비위를 맛초아쥬노라고 낮잠자지
 도 안이혼복단이년을 기와쌍슈섬이를끼고 코가썸두러지도록자
 더라고거짓말을헛지 그말인들안이날나고 에라 잘헛던지못헛
 던지 가든길로넙다셔자³⁹³⁾

금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선악을 판별하는 ‘지식’과 선의 ‘실천’을 통합하려는 윤리학적 목적은 서사 내 현실 속에서는 분리되어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금분은 이씨 부인이 ‘착하고 무던’하며 평양집과 자신이 ‘앙화’를 받을 만한 ‘악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선악을 분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평양집을 처벌하여 이씨 부인을 도울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분은 자기 보신과 탐욕에 이끌려 악인이 되기를 선택한다.

이씨 부인과 서정길에 비교해 볼 때, 금분이 선악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은 선을 추구하는 ‘덕성’을 육성함으로써 ‘인식’과 ‘실천’을 연계해 줄 교육·학문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유교적 배경에서 사단(四端)이라는 선천적 도덕감정이 선악의 분간과 선의 실천을 자연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당시 “규식이 엇더한 물건인지 알게 하며 리치가 엇더한 물건인지 분별케 하난”³⁹⁴⁾ 것은 ‘학문’의 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처럼 교육이 선악 판별의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제로 출현했다는 맥락 하에서, 선악을 알고도 악을 선택하는 금분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형상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93) 『빈상설』 16-17면.

394) 「학문으로 사물의 우열을 말함이라」, 『제국신문』, 1907.5.31.(강현조 외 편역, 앞의 책, 51면에서 재인용)

『빈상설』과 마찬가지로 『목단화』에서도 개과천선의 기제는 근대 교육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여자)사회’ 전체로 상정된다.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 개과천선은 근대 교육을 통해 부도덕한 ‘풍속’을 교화한다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목단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행은 부녀자 납치와 인신매매다. 주인공 정숙은 물론 정숙의 피신에 조력하는 최 과부, 정숙을 구해준 황동지 내외의 딸 금순이 모두 납치·인신매매의 위협에 처한다. 정숙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에게 아내감으로 팔려가고, 최 과부는 ‘보쌈’을 당할 뻔 하고, 어떤 이가 ‘꼬여 낸’ 금순은 부녀자를 창기(娼妓)로 만들고 매음을 강요하는 전주집에게 팔려간다. 이처럼 각각의 정황은 상이하지만, 『목단화』에서 이들은 모두 강제적 인신매매의 맥락에서 형상화되어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한 풍속의 문제로 수렴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숙의 개인적 문제는 ‘남자로 태어났다면 겪지 않아도 될’ 여성의 곤경으로, 나아가 자신이 처한 지방의 분위기를 모르는 이상 여성임을 드러내기도 곤란한 ‘풍속’의 문제로 확장된다.³⁹⁵⁾ 이 때문에 정숙은 직접 근대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의 풍속을 교화하고 나서야 남장(男裝)을 풀 수 있었다.

정숙이 서흥학교에 잇스지 즈연 여러달이되미 그근쳐 풍속을 대강시찰호고 심똥에 기탄호야 녀즈스회를 조직홀싱각이잇서 최쥬스와 의론호고 의주경니에 유지신스를 청호야 녀즈교육홀 방침을 간절히 설명호니 의주일경 스릅들이 정숙의 명예를 아는고로 서로권면호야 녀즈학회를 조직호며 동리마다 녀학교를 설립호야 녀즈를 교육호니 몇달이 못되여 요스훈 풍속과 음일훈 귀습이 돌변호야 세계메일등 야만으로 지목밧는 의쥬방면이 문명훈 도훈 인종이된지라³⁹⁶⁾

395) “즈근아씨가 남조로 되어나섯드면 저런일이 잇슬쑈잇나” - 『목단화』, 316면; “나도 처음으로 여귀를와서 이근쳐 풍속을 물으는고로 녀즈인체를 안이호엿소” - 『목단화』, 330면.

396) 『목단화』, 330면.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목단화』에서 근대 교육은 ‘여자교육’의 측면에서 그려진다. 이 ‘여자교육’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요사한 풍속과 음일한 기습’을 돌변시켜 ‘야만’을 ‘문명’으로 개화시켰다는 데서 찾아진다. 여기서 근대 교육은 사회 전반의 도덕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악행들이 근본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조성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도덕적 악의 표상에서 악행을 ‘악한 인성’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은 신소설에 비교적 큰 변화 없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 교육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에 의해 분간되는 것’이었던 개인의 도덕성이 ‘근대 교육에 의해 육성·회복·교정되는 것’으로 이행하여 사유되기 시작한 정후가 개과천선의 기제로 근대 교육이 도입된 양상을 통해 드러났다고 소결할 수 있다.³⁹⁷⁾

397) 이 절의 김교제 소설 분석은 이경림, 「김교제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17의 2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해조의 「윤리학」 분석은 이경림,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의 형상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의 1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V. 식민지-근대 국가 체제와 악의 분기

1. ‘무법’ 상태: 제국에 대한 우회적 비판 가능성

『월하가인』, 『소학령』, 『모란병』, 『목단화』, 『마상루』, 『명월정』, 『추월색』, 『안의성』, 『금강문』 등 1910년대 신소설에서는 ‘건달’, ‘모산지배’, ‘부랑잡류’, ‘불안당’, ‘난류배’, ‘무뢰배’, ‘폭도’ 등으로 불리는 유형의 악인이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전통적 형상화 방식에만 기초하여 만들어진 인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1910년대 근대 국가체제 및 식민지 지배체제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인물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월하가인』(이해조, 『매일신보』, 1911.1.18.~4.5.)과 『소학령』(이해조, 『매일신보』, 1912.5.2.~7.6.)에 등장하는 악인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찍이 이 두 소설은 해외 노동이민의 실상에 주목하여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리얼리즘의 맥락에서 접근되었던 바 있다.³⁹⁸⁾ 그러나 또한 이 소설들은 전통적인 〈가족 이산-재회〉 구조를 통해 현실적 갈등을 가족주의 아래 봉합하려 했다는 한계 외에도, 식민담론의 수용이라는 정치적 한계를 가진다고도 논의되어 왔다.³⁹⁹⁾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398)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 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99) 구장률은 『월하가인』을 조선인의 욕망과 조선 사회의 후진성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고, 조선의 부정적 인정세태에 초점을 맞춘 1910년 이후의 타 신소설과 변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구장률, 「식민지 문화전략과 복고의 식민성: 이해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146-147면) 이해조가 ‘친일소설’을 쓰라는 『매일신보』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본 배경상도 『월하가인』은 ‘보수적 남성 독자’의 취미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소학령』은 일정부분 식민담론을 내면화한 작품으로 읽고 있다.(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 2015) 김중옥은 『소학령』이 노동이민의 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배경이 가진 독립운동기지로서의 정치성을 은폐했다고 보고, 『소학령』을 식민담론에 밀착한 작품으로 보았다.(김중옥, 「『소학령』의 정치적 읽기」,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2016)

본 논문은 이 두 작품이 근대 국가체제=식민지 지배체제를 상대화한 자리에서 구성해낸 악의 표상을 고찰해보려 한다.

이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몰락양반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이 노동자로 전화(轉化)하여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월하가인』에서는 심 진사가 노동자로 ‘전락’했다가 다시 근대적 관리로 지위를 회복하는 서사가 심 진사 부인이 겪는 수난 서사와 함께 작품의 양 축을 이루고 있고, 『소학령』에서는 노동자로 ‘전락’한 강한영 일가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겪는 사건들이 주요 서사를 이루고 있다.

『월하가인』과 『소학령』의 또 다른 공통점은 노동이민의 목적지인 멕시코와 러시아가 일종의 ‘무법지대’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먼저 『월하가인』에서 멕시코의 이미지는 심 진사를 포함한 동양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토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 그찌 심진스는 빈한에속이상하던중에 윤조의 풍치논말을
듯고 큰슈나날듯이 기발회샤모집의 즈원투입(自願投入)하야
평싱에 듯도보도못하던 묵서가짜에를 니르렀는디 그곳은 아
즉도 문명진화(文明進化)가 못다되야셔 인류를우마와 갓치
천하게 더우하논악풍이 그져인논고로 토인(土人)들이 일반
동양에서 건너간사름을 전신에 류혈이랑자하도록 치쪽질을
하야가며 뼈가빠지도록 로동을식이며 사름은 차마견디기어
려온악훈음식을주어 만일 괴로히녀이고 계으른빚이잇스면
무지한발과 우악훈 주먹으로 차고짜리여 모다 죽을디경에
이르렀스나 첫지 언어를통치못하니 이결한마디 희불슈업고
또 단속이 엄하니 타쳐로도망하논슈도업서 다만 두손을묵
고 죽이고살니기를 토인의쳐분만바라논디 그중에 심진스는
칙상물념으로 섬々악질이라 굶은쌍을 파고 무거운 슈레를써러
두손바닥이 먹장가라부은듯하고 두 억기가뒤웅박갓치 부은중
입에 곡기를 여러날 끈어 괴력이 시진하얏것만는 사오나온 밭
가무셔워 억지로 괴동을하야 종일토록 로동을하다가 밤이되미
즈괴쳐소로도라오니 쌀것도업고 덩흠것도업는 우마의 외양싼

갓흔 토굴속이라⁴⁰⁰⁾

(나) 지나스천년이리로 아즉야만의악습은 사름이죽으면 별
노짜에못지안코는느을에너어 산솔에싸아씩이던지 형세벗쳐
그도못호는자는 시신을나무에의지호야세우고 동아줄노 자
두지족짚지 찬찬감아두는것과 〽회송장은 산에던지 들에던
지 거저니여바려 새짐싱들이 쓰더먹게호는것이더라 이 악습
을오히려 곳치지아니호고 조선사름의게실시호기위호야 짜의못
지못게호고 쏘못엇는가 의심호야 몇달마다 철장을가지고 토사
호더라⁴⁰¹⁾

『월하가인』에서 인용한 (가) 대목에는 멕시코의 ‘무법지대’적 성격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개발회사의 풍설’⁴⁰²⁾에 이끌려 ‘노동은 적게 하고’, ‘후한 고가(雇價)로 저축도 하고 공부도 할 희망’⁴⁰³⁾에 부풀어 멕시코로 떠난 심 진사는 ‘전신에 유혈이 낭자하도록 채찍질을’ 하며 노동시키는 현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토인’의 ‘무지한 발과 우악한 주먹’에 놀려 열악한 거처에 기거하며 강제로 노동을 하는 동안, ‘토인’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멕시코에 노동 이민 온 조선인들은 ‘죽이고 살리기’를 오로지 ‘토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처럼 『월하가인』이 노동이민의 종착지를 사적 폭력과 감시가 횡행하는 ‘무법지대’로 그리는 방식은, 서울 출신 몰락양반이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간도로 이주한다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진 『금의쟁

400) 이해조, 『월하가인』, 보급서관, 1911, 53-54면.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월하가인』, 면수로 표기하겠다.

401) 『금의쟁성』, 유일서관, 1914, 18-19면.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금의쟁성』, 면수로 표기하겠다.

402) 『월하가인』, 11면; 최초로 대중에게 공포된 멕시코 농부 모집광고(「농부모집광고」, 『황성신문』, 1904.12.17.)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처럼 ‘문명부강국’이며 풍요한 환경을 가졌다고 광고되고, 먼저 들어간 일본과 청국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되었다. -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墨西哥(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 60, 중앙어문학회, 2014, 216면.

403) 『월하가인』, 10면.

성』이 서간도를 그리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 준다. 두 작품에서 서간도와 멕시코는 모두 ‘문명’과 대조되는 ‘야만’이라는 견지에서 그려지지만, 두 작품이 ‘야만’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대조된다. 폭력과 감시를 통해 드러나는 멕시코의 ‘야만성’은 ‘인류를 우마와 같이 천하게 대우하는 악풍(惡風)’을 규제할 수 있는 ‘문명진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묘사된다. 반면 『금의쟁성』에서 서간도의 ‘야만성’은 시신을 장례지내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조선과 달리 유교적 예절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일상적 풍속의 맥락에서 묘사되는 것이다. 즉 노동(농사)이민의 목적지를 ‘야만’으로 표상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그 ‘야만’의 내용을 규정하는 지점에서 두 텍스트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월하가인』은 멕시코 노동 현장에 횡행하는 폭력과 감시를 ‘문명’적 규범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야만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문명’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주체는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는 심 진사의 탈출 과정을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월하가인』에서 심 진사는 청인 노동자 왕대춘의 도움으로 멕시코를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가) (왕) 그는 걱정말나 가량셋부루이 도망을흐라다는 비단
 몇거름못가서 흥흥놈에게 잡혀죽을욕을당홀뿐안이라 **국경에
 파슈가엄밀흐야 빙표업시는 지나지못홀지라** 나의 스촌이 지
 금미국서울 화성돈에잇서 크게 상업을흐느니 그리로편지 훈장
 에 스정을 귀록흐야 **그 나라정부의 조회롤이나라정부에 보
 니도록쥬션흐야 달나흐앗스면** 필경 나의 형상이 바로밧비힘
 을 쓸지니 조만간 조회만 잇는 동시에는 정부명령으로 우리
 를 **국으로 건너 보넬터인즉 농막 토인이 아모리 보니고십
 지안이흐나 엇지흐리오**⁴⁰⁴⁾

(나) 얼마안이되야 **묵서가정부에서 미국조회롤 인흐야 왕**

404) 『월하가인』, 57-58면.

심 랑인을 미국으로 보니라 명령호니 농막토인이 심진스는
하여호고 왕디춘을 내여노키가 원통호나 정부명령이잇스니
제막음디로 못가게호는 도리가업는지라⁴⁰⁵⁾

(가)와 (나)에서 드러나듯, 국가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력 주체처럼 그려진다. 『월하가인』에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문명국가’는 심 진사를 구해주는 미국으로 암시된다. 여기서 미국은 자기 국민도 아닌 조선인과 청인의 호소에 응답할 만큼 ‘문명진화’된 국가로, 또한 공문 한 장으로 타국 정부를 움직일 실질적 ‘힘’을 가진 국가로 묘사된다. 이처럼 국가만이 폭력과 감시를 실제로 중지시킬 강제력은 가졌다고 보면서도, 멕시코나 일본이 아닌 미국 정부가 이 강제력을 발휘하게끔 설정한 데에서 『월하가인』의 특이성이 도드라진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으며, 지금은 ‘토인’과 같은 악인 유형이 그를 규제할 권력을 가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형상임을 짚고 넘어가겠다.

『월하가인』에서 국가가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주체로 표상되는 방식은 1910년 강제병합을 경유하여서야 비로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근대적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맥락 속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근대 국가와 폭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논해진다.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⁴⁰⁶⁾하려는 지향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특수한 정치체가 요구된다. 구성원이 평등하다는 가정에 기반한 이 특수한 정치체를 ‘근대 국가’라고 부른다. ‘근대 국가’는 “각 구성원을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⁴⁰⁷⁾ 절차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권력은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창출된 근대 국가의 권력은

405) 『월하가인』, 60면.

406)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역, 웅진씽크빅, 2015, 24면.

407) 위의 책, 25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공동사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며, 동시에 내적으로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권력”⁴⁰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성원 보호와 공동선 증진에 필수적 수단인 물리적 강제력(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근대 국가가 ‘타고난’ 특성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이론가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⁴⁰⁹⁾ 이러한 의미에서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사회 내의 정당한 폭력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 대리기구’로 정의했다.⁴¹⁰⁾

1900년대에 대한제국의 목표로 상정되었던 ‘(근대)국가’가 이해되는 방식도 이와 같은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 국가의 대직능(大職能)은 내부의 구이(睽離)와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신민을 보호하는 바라 차(此)와 여(如)히 일체의 사회적 제도는 선악의 각종인(各種人)을 일사회적단체에 결합한 것인데 기(其) 단체는 상적(相適)한 경쟁자와 경쟁하는 일단위라 부(夫) 자연 도태의 제법(諸法)은 차(此) 사회단체상에 행(行)하며 차(此) 단체는 사회진화과정에 중요한 단위라⁴¹¹⁾

(나) ◎蓋國家란 自其獨立을 保存하며 自其主權을 完全하여 以保護臣民之責이 是有故로 國家란 對害其獨立하며 傷其主權者호야 有拒抗之必要하니 爲此拒抗之必要하여 有不得不備其強力하고 欲備強力인턴 不得不依臣民之力而組成之니 此ㅣ國民所以擔負兵役之義務者오 且國家●以保持安寧之秩序하며 增進臣民之幸福으로 爲當然底目的이니⁴¹²⁾

408)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82, 한국서양사학회, 2004, 26면.

409) 황영주, 「초기 근대 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국제관계연구』 15,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226면.

410) 어네스트 겔너, 앞의 책, 11면.

411) 이인직, 「사회학」, 『소년한반도』, 1907.1.

412) 「論說-國家人民依法律成立」, 『황성신문』, 1904.9.1.

(다) 무릇 정부를 조직하여 국가를 견고히 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목적이 어느 마을은 혈후혈 비 안이로되 이런 판탕한 세상을 당하여 가장 관중은 스무를 맞아 전국 흥망이 관계가 되는곳은 군부와 경무청이라 군더는 괴물을 엄숙히 하고 향오를 정제히 하여 국중의 변란이며 외국의 슈모를 방어하는 직책이오 경무는 씨를짜라 이풍역속 하는 방침으로 민심을 효유하여 악한일은 증계하고 착한 일을 권면하는 권리를 담당한 곳이어늘⁴¹³⁾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의 존재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논한 몇 가지 사례를 일별해보면, 국가는 구성원의 보호, 질서 유지,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포괄적 이해(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강조점은 (가)나 (다)에서와 같이 국가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그 구성원(신민/인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 찍혀 있다. 이처럼 국가만이 그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고(가) 또 보호해야 할 책무(나)를 가졌다는 전제로부터 국가가 ‘힘(強力)’을 가져야 할 필요가 설득된다.(나) 그런데 국가의 ‘힘’은 결국 구성원의 ‘힘’에 기대어 창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성원에게는 병역(兵役)의 의무 등이 있다고 간주된다.(나) 그리고 국가가 구성원을 보호하는 ‘힘’은 구체적으로 군대와 경찰(경무청)에 의해 행사된다.(다) 이처럼 국가가 독점한 폭력이 군대와 경찰을 통해 감각되는 것은 근대 국가 체제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하다. 군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억제력, 경찰은 국가 자신의 국민에 대한 강제력이 확보되었음을 상징하고 또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⁴¹⁴⁾

전근대에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군주가 초월자(‘하늘’)로부터 부

413) 『론설』, 『매일신문』, 1898.9.27.

414) Charles Tilly, *Coers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75면(황영주, 앞의 글, 235면에서 재인용)

여 받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 “충군익국위주로라 / 성상덕택산히로다”⁴¹⁵⁾라는 구절에서처럼 국가를 군주와 동일시하고 백성이 사랑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인격체로 비유하는 특유의 ‘말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대상(‘말해지는 것’)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탈신성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구성할 권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인민에게 그 존재의 필요성을 스스로 설득해야 하는 체제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국가를 구성원의 이익·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결사체로 규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사고(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근대 국가는 구성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라는 맥락에서 존재의 의의를 획득한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체제, 즉 백성이 받들고 섬기는 대상으로 표상되는 인격적 국가로부터 인민이 ‘조직하는’ 체제, 즉 인민이 양도한 권력을 통해 통치하는 주체로 표상되는 합리적 국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 폭력은 근대 국가의 이론적 성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다.

근대 국가를 폭력의 독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체제로 규정할 수 있을 때⁴¹⁶⁾,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①대외적으로 국가 자신을 표명하고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②대내적으로 구성원의 법익(法益)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폭력(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것이다.⁴¹⁷⁾ 그러나 폭력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415) 최병희, 「익국가」, 『독립신문』, 1896.9.1.

416)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의 본질을 폭력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근대 국가의 폭력 독점은 사회 내에서 국가 이외의 개인, 집단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행사하는 폭력이 최소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근대 국가는 사회 내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비하여서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폭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원리 상 그 사용은 사회계약론적 합의(시민의 합의)에 의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준석, 『근대 국가』, 책세상, 2011, 16-23면.

417) 황영주는 근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대내적으로는 경찰을 통해 ‘내적 평온화(internal pacification)’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 ‘국가 만들기(state making)’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 황영주, 앞의 글, 224면.

대한제국은 근대 국가 체제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악인 유형이 무리를 지어 백성의 재물을 뺏거나 생명을 해하는 ‘도적’이다.

○ 국중에 비도가 싱긴지가 칠팔삭이 되얏스되 오늘날 썩지 정돈이 아니 되고 언제나 정돈이 될 기한도 업고 또 쳐서 평정 할 방책도 업는 모양이니 이러케 더 쓰러가고야 경향이 통노가 못되고 공납들이 올라 오지를 못 훈즉 탁지 스정 이 어렵게 되고 경군을 각디방에 쏙송 하니 점점 군비만 커지고 또 비도와 싸혼즉 누가 죽든지 죽고 상 호는 사름이 만히 잇는지라 좌우 간에 죽는 사름은 다 조선 사름이니 그역 국가에 손이요 또 잔민들이 비도의게 가산을 니러 버리고 혹 못된 경군의게도 가지고 부닥기논자 만히 잇는지라 엇지 불샹치 안호리오 (중략) 서울 사름들과 이십 삼부 인민들이 만일 대군주 폐하를 스랑 호고 조선을 익기고 동포 형제를 위히 줄 생각 이 잇스면 이비도들을 경군의게만 맞겨 치비 할거시 아니라 동리 마다 법 직히는 빙성들이 민병을 몬드려 그동리를 보호 호면 덩부에서도 도와 줄터 이요 (중략) 농업과 상무를 호며 법 직히고 사는 빙성들은 중간에서 아모 소리도 못 호고 좌우로 다 부닥기기만 호면서 나라히 평안 호야 군민이 궂치 스랑 호고 도와 국명을 보존 호고 스농 공샹이 흥왕 호게 할 도리를 다만 덩부당의게만 맞기고 안저 고심들만 하니 엇지 어리석지 아니 호며 엇지 신민의 도리가 되리요 만일 덩부당과 빙성의 당이 합 호야 서로 돕고 서로 의론 호야 춤 익국 호는 민병을 닐히켜 덩부에 돈 훈푼도 달날 묘리 업시 다만 경군과 서로 응 호기만 호야 이 비도들을 쳐 부슈어 나라히 다시 평안케 되면 이런 사름들은 국가에 큰 공신이요 즈귀의 집안과 동리와 고을에 눕고 스업 혼 사름들이 될지라⁴¹⁸⁾

418) 「논설」, 『독립신문』, 1896.8.6.

위 논설은 국가 재정과 백성의 삶에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비도(匪徒)’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논자는 비도 진압을 경군(京軍)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 지키는’ 백성들이 민병을 조직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권한다. 민병은 정부에 ‘돈 한 푼’ 요구해서도 안 되는데, 이미 비도 때문에 각 지방에 경군을 파견하기 위한 군비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논자는 민병에게 자기 동리만 보호하지 말고 경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비도를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케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가 구성원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대한제국이 폭력을 독점하지 못했고,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울 수 없는 전근대적 체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준다.⁴¹⁹⁾

실제로 대한제국 체제 하에서 폭력은 일본, 러시아 등의 열강에 의해 일부 분점(分占)되어 있었다. 예컨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일본 공사관 경비의 명목으로 주둔하기 시작하여 수비대·헌병대 인원을 점차 증원해 나간 일본군의 경우, 당시 대한제국 군경(軍警)의 무능으로 인해 생겨난 서울 치안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종 이권 사업 및 일본 거류민을 한국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일본 병사가 한국인 순검을 구타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기록은 당시 대한제국 내에서의 폭력 분점 현상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⁴²⁰⁾

러일전쟁 이후 주한 일본군이 군경을 담당하는 단계, 을사조약 이후 ‘보호국’ 체제에 들어선 대한제국에서 군사 부문이 일본군 관리하에 통솔되는 단계⁴²¹⁾를 거쳐 이르게 된 강제병합 단계에서 폭력

419) 이와 같은 상황은 이후 제국이 폭력을 독점함에 따라 역전된다. 『금강문』에서 “촌가에 횡횡하며 지물을 노략하고 부녀를 겁탈하다가 조금만 슈에틀니면 무죄호스름을 함부루 살히 호느”(『금강문』, 115면) ‘폭도(暴徒)’가 “철원군 헌병분견대에 쥬지호 헌병”(『금강문』, 157면)에 의해 진압되는 장면이 이 역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20)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 48,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24-255면.

은 결국 일본제국이 독점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즉 한반도에서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체제의 성립은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체제의 성립과 중첩되었던 것이다. 이 특수성 속에서 ①실질적으로 식민지인은 국가(일본제국)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성원으로 표상되지 않거나, ②실질적으로 식민지인은 국가(일본제국)가 그 안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원으로 표상된다는 두 가지 모순적 경향이 분기한다.⁴²²⁾

이 두 가지 경향 중 ①은 『월하가인』이 심 진사와王大춘의 탈출에서 멕시코 노동이민 당시의 책임주체인 대한제국은 물론 연재시점인 1911년의 일본제국도 생략하고 대신 미국을 내세우는 장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월하가인』에 기입된 이와 같은 시간적 낙차들은 상충하는 해석을 유도한다. 이 대목은 대한제국의 무능력을 수궁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보다 ‘문명진화’된 일본제국의 지배를 긍정하는 식민주의적인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미 대한제국이 해외 유민의 관리를 일본제국에 의탁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제국의 무능력 혹은 위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⁴²³⁾ 이처럼 식민지 지배체제가 성립한 1911년의 시점에 ‘구성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국가)’의 문제를 재론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하여 『월하가인』의 ‘컨텍스트’를 확인케 하는 것이다.⁴²⁴⁾

421) 을사조약은 한국에서 일본이 갖는 권한을 외교·군사상의 지도 관리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적 관계를 밀접하게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 내정 간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 내에 존재했으며, 이는 이후 강제병합으로 실현되었다. - 천지명,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 인식」, 『역사와현실』 66, 한국역사연구회, 2007, 148-149면.

422) ②는 이 장 2절에서 후술하겠다.

423) 황현은 『매천야록』에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윤치호를 멕시코에 파견하여 상황을 살피게 하려 하였지만 그가 재정상의 문제로 하와이까지만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조차 정부가 해외 유민을 관리하는 영사를 파견할 재정이 없어 오히려 일본의 하와이 영사에게 조선인 관리를 의탁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기록했다.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고종황제는 정부가 나서 멕시코 노동자들의 소환 문제를 의논케 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 강진구, 앞의 글, 214-215면.

이와 관련하여 『월하가인』과 『소학령』에서 ‘정부’와 ‘고국’의 의미
 망이 완전히 분기하는 양상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작품
 에서 ‘고국’은 ‘고향’과 ‘부모처자’가 있는 공간, ‘선산분묘’를 모신 공
 간으로 묘사된다.⁴²⁵⁾ 반면 ‘정부’는 구성원을 보호하는 권력을 가진
 ‘국가’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가족·문화를 핵심에 둔 ‘고국’과 변별되
 는 차갑고 사무적인 기관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월
 하가인』에서 조선과 멕시코·(일본)·미국은 ‘고국’과 ‘정부’라는 다른
 선상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국가)’는 텍스트에 생략되어 있는 일본제국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월하가인』과 마찬가지로 『소학령』에도 규제 받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악인이 등장한다.

에그, 큰일났습니다그려, 이곳은인심이흉악하야, 사름죽이기
 를, 파리목숨보다더쉽게하논디, 저지안인지물을, 가지고혼즈
 엇의를, 갓단말습시오

부인의얼굴빛이, 별안간에, 놀리지며,

(부) 이곳에논, 법도업는요, 사름을그러케죽이게오

(쥬) 법이야왜업셔오, 디방이넓은디, 각쳐모산지비가, 모다
 되여드리, 리육에만눈들이별기져셔, 지물가진사름만보면, 으
 슥훈곳에서, 룩혈포나환도로, 경성드뭇하게죽이고, 가진지물
 을, 썩아서가기를두푼쥬고, 썩사먹듯하논터인디, 설혹살인훈
 정덕이, 탈로가된티도, 경관이잡아다가, 감옥에몇달간가두

424) “문학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컨텍스트를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어떤 컨텍스트에 놓는가에 따라서 같은 글이라도 전
 혀 다른 의미로 읽을 수 있다.” - 김종욱, 앞의 글, 270면.

425) “이리히나 더리히나 조상의 루터분묘가계신 고국을 오리썩날수잇소” - 『월하
 가인』, 15면; “고국산천이 언의편인고 어셔 이비가 빨니가셔 부모쳐자를 하로
 맞비 맞나보앗스면” - 『월하가인』, 74면. 『소학령』에서도 ‘고국’은 ‘조상의 누대
 분묘’와 가족, 친지가 있는 곳으로 기술된다. 다만 배경상은 이 표현이 조선과
 타국의 경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배정상, 『이해조의 『소
 학령』 연구-재외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100면) 본 논문의 시각과 거리를 가진다.

엇다가, 방송을하논디, 감옥으로말흐면, 청결호쳐소에잘떡
이고, 잘입히니, 제집에잇논이보다몇비가더나으니, 무슨점
날 것, 무엇잇슴닛가, 발각안이되면, 돈엇으니도코, 발각이된
디도, 편히잘잇다나올터이닛가, 날마다언의날, 살륙이안이나
논날이, 업논고로, 이곳에서오리산사름들은미리아러츠리고,
남보논더지물을, 번썃안이흐고으스흐곳에, 혼즈가단이지를,
안이흐논디, 미양시로온사름들은, 그런물정을모르고, 함부루
흐다가불상호송장이, 번々히된담니다⁴²⁶⁾

『소학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악인인 방인철 형제는 춘천 출신
으로 가세가 빈한하고 “제위인이, 부랑흐야”⁴²⁷⁾ 결식을 하다 우여곡
절 끝에 북간도로 건너와 현재 부두노동자로 행세하며 살인·절도를
일삼는 인물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연해주 조선인 커뮤니티가 마주
치는 악인들은 대개 가난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모여든 ‘부
랑’한 ‘모산지배’로 불린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러시아 연
해주 일대는 지역이 너무 넓어 ‘범이 있어도’ 살인강도가 횡행하고,
감옥의 처우가 더 좋아 징역도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모산지
배’들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무법지대로 그려진다.

하로논, 민회를열고, 깃척이조선사름이라고논, 로약이외
에, 한아빠지々안이흐고모다모혀, 일반동포의심명지산, 보
호호방침을, 회의흐다가, 민장이증거를들어말을흐다가, 강총
각의일과, 흥씨부인의일을일장설명흐다

여보위동포시여, 우리가, 죽도사도못흐야, 리친척기분모흐고,
타국디방에와잇논니 것은 다만생활의곤난힘을, 인힘이라, 그
정경을싱각흐면, 엇의씨지불상호우리동포가안시오, 아모도록,
서로스랑흐고, 서로앗겨서, 각기힘드려, 로동을흐야, 깃디생활
의곤난을면홀지어눌, 스상이, 그러케들지안코, 마음을악독호

426) 이해조, 『소학령』 6회, 『매일신보』, 1912.5.8. 이하 『매일신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소학령』, 회수로 표기한다.

427) 『소학령』, 8회.

게가진동포가, 왕々잇서, 제스지논, 게을니가져, 금전을벌지못
 하고, 부즈런흔동포의, 금전저축흔니 것을 욕심니여참혹히슬
 해하고, 그금전을탈취흔일이, 비々유지하니, 엇지흔심흔바
 이안이리오, 심스를글니품이고, 무죄흔동포를, 살해하면,
 당장에논, 금전을빼아서, 큰리익을얻은듯하나, 복선화음(福
 善禍淫)이, 소소흔신, 하눌리치, 결단코양화를, 안이니리실
 리가업고, 쏘논그폐습이, 점々자라면, 우리오십만명, 남녀
 동포가, 필경은, 서로해하고, 서로죽이어, 씨가남지못할지
 니, 엇지두렵고, 무섭지를안이하니오⁴²⁸⁾

이 ‘모산지배’들의 횡포에 대하여 신개척리의 지도자인 민장은 ‘동
 포의 생명재산 보호할 방침’을 회의하기 위해 민회를 열지만, 이 자
 리에서 그가 내놓은 대책은 ‘복선화음’이라는 ‘하늘의 이치’에 호소하
 여 ‘마음을 악독하게 가진 동포’들에게 설교하고 이들을 윤리적으로
 감화한다는 것이다. ‘모국의 문명’⁴²⁹⁾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써 살인
 절도가 횡행하는 현실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민장의
 ‘윤리학적’ 방식은 그 자신이 피살됨으로써 서사에 의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도 흥평자 거리에서 장씨 부인을 도와주었던
 일본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박 당한다.

그일본사름은, 죠도던대학교, 졸업심으로결심하기를, 만국디
 지를, 교과서로만공부하야, 십분명확지못흔것보다, 즈기눈으
 로실지를보아, 디리박스가, 한번되고야말겟다하야, 구쥬각국
 을, 유람하다가, 희삼위췌지와서, 여러날두류를흔논디, 기척이
 죠션사름의, 정도를시찰하고, 스스로기탄하기를

가이업슨일이로다, 죠션인민들이, 정치의부패와, 사회의문란
 을인하야, 일즉이상당흔지식을, 비오지못하고, 심환의곤궁을,
 못견디여, 남부여디로, 리친척기분묘하고, 타국에를더와갓치,
 류리하야모여와서, 풍설을무릅쓰고, 각즈도심을흔논중, 상당

428) 『소학령』, 14회.

429) 『소학령』, 14회.

호관리가통할호야, 생명과지산을, 보호호야주지못호고, 법
업논턴디가되여, 서로짓밟고, 서로죽이기로능스를삼으니,
엇지가척지안이호고, 내가그위에잇지, 안이호얏스닛가, 그
정치는계획지못호려니와, 기인간, 참혹호사름이잇스면, 내힘
밋치논더로논, 엇의썩지구제호리라⁴³⁰⁾

위 인용문에서 조도전대학 졸업 등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권
위 있는 지식인으로 그려지는 일본인은 연해주 조선인 사회의 상태
에 대해 ‘상당한 관리가 통할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 있는
천지’를 유지함으로써만 통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 『
월하가인』과 마찬가지로 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
가’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학령』에서 방씨 형제를 처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사적인 방식—강한영 형제의 폭력과 민장 부인의 살
인—으로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 국가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 상
황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위 인용문에서 일본인이 장씨 부인에 대한
개인적 ‘구제’의 수준에 머물 뿐, 자신에게는 ‘정치를 계획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하는 부분에 주목할 만하다. 조선인을 도와주는 것은 같
은 ‘동포’라고 호명된 개인화된 일본인으로 나타나며, 서사 내에서도
그 영향력은 한두 사람의 구제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서로 짓밟고
서로 죽이기로 능사를 삼는’ 악인들은 일본인이거나 민장으로 상징되
는 ‘문명’의 상대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들은 더 큰
폭력으로 사적 폭력을 제압할 ‘힘’을 가진 국가가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다.

『월하가인』과 『소학령』에서 폭력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컨대 3장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개별적 악행이나 그 배후

430) 『소학령』, 26회. 한편 『소학령』이 발표되었던 1912년의 시점에 조선인들이
‘정치의 부패와 사회의 문란’으로 인해 결국 타국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언급 자
체도 엘리트 일본인을 통해 발화됨으로써 이중의 뉘앙스를 제공한다. 이 ‘정치
의 부패와 사회의 문란’이 정확히 대한제국기의 것인지, 일본제국기의 것인지
불투명하게 읽히기 때문이다.

에 존재하는 의도·추상적 관념으로 규정되는 악이 아니다.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인철 형제와 ‘토인’의 경우에도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두 텍스트는 ‘이욕에 눈이 멀었다’는 전통적인 수사를 빌려 악인을 처리해 버리고, 폭력의 심층적 동기 혹은 성격을 탐구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폭력의 배후가 아니라 폭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소학령』과 『월하가인』에서 폭력은 이를 용인하는 환경에 대한 탐구에 소용된 모티프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이라는 악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태만과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발표 시점과 텍스트 내 시간의 낙차를 감안하자면, 여기에는 제국=근대 국가가 식민지인에게 드러내는 모종의 ‘악의’가 기입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통치의 결여를 상징하는 무법(無法) 상태는 국가가 구성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⁴³¹⁾ 이러한 의미에서 『월하가인』과 『소학령』의 악인은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하는 ‘범죄자’가 아니라 규범의 유명무실함을 상징하는 ‘무법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법자’ 형상은 일본제국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논리를 상대화한 자리에 출현한다. 강제병합 당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이 독립국으로서 존속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한제국 황제

431) 본 논의에서는 영토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조하기 위해 푸코의 ‘통치(government)’ 개념을 사용했다. 푸코는 구성원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순환’이라는 표현을 빌려 설명했다. “영토를 고정한다거나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문제, 즉 순환을 관리하고,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가려내고, 항상 [그 순환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이 움직이고 계속 이동하면서 꾸준히 어느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문제가 말입니다. 단, 이 순환에 내재하는 위험성은 없애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제야 군주와 그 영토의 안녕이 아니라 인구의 안전, 따라서 인구를 통치하는 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103면) 푸코의 ‘통치’ 개념의 상제에 대해서는 도승연, 『우리 시대가 ‘위험에 빠진 신체’에 대처하는 한 방식: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를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212-213면을 참고.

로부터 통치권을 양여(讓與) 받는 형태를 취했다.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한다는 명분 아래, 조선을 식민지로 명시하지는 않으면서 이미 지리·역사·인종·문화적 근친(近親) 관계에 있었던 조선인과 일본인을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서 병합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⁴³²⁾ 강제병합 전 한국 내정에 간섭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평가 받는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당시 일본의 입장이 표명된 글을 보면, ‘치안’과 ‘문명’의 맥락에서 대한제국의 무능을 주장하고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식민담론의 논리 구조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다.

1907년 8월 『제국신문』은 일본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발표되었던 한 논설의 전문을 번역·게재했다. 「한국통치의 근본주의」라는 제목의 이 글은 현재 군대 해산 후 각지에서 폭도가 창궐하였으나 대한제국이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어 일본인 동포도 피해를 입는다는 배경을 설명한 후, ‘한국경영의 근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오인(吾人)으로 하여금 이를 숨히진던 오늘날 가장 급히 힘 쓸 바는 먼저 한국 백성의 선악을 분간하여 그 양민으로 하여금 우리를 김히 밋게 함에 잇는지라 (중략) 그 인민의 선악을 분별하여 양민 보기를 주식과 갖치하며 또 비도와 교통함을 엄히 금하여 비도로 하여금 숨길 짜이 업게 함이 가장 긴급하다 호노라 (중략) 세상사롭이 잇다감 말호디 한국 백성은 다 놀고 게을너서 돈견(豚犬)과 갓다 하며 오인도 또한 그런 줄로 아나 그러나 그 놀고 게으름은 더의 무리의 텃성이 안이오 비상히 사아나온 정치의 결과로 그러케 됴을 오인은 김히 밋노니 (중략) 이를 인도하여 문명호 국민이 되게 함은 용이호 썸 안이라 이 도야지 갓흔 일천만의 한국 백성을 구제하여 우리 국민과 갓게 함은 호을로 한국의 리익이 될 짜름이 안이오 또한 우리나라의 리익인즉 (중략)

432) 「조칙(詔勅)」, 「칙유(勅諭)」, 「同化의主意」, 『매일신보』, 1910.8.30.

한국은 일기 데국이오 그 데실도 쏘흔 엄연히 잇스나 그러나
그 황실과 인민의 리해가 일치하지 못했스니 그 국민이
 우리에게 복종치 안코야 엇지 소성함을 엇으리오⁴³³⁾

위 글에 의하면 ①폭도가 창궐하여 “량민이 변하야 비도가 되고 일본인을 구슈로 아는 자”⁴³⁴⁾가 많기 때문에 선량한 인민을 비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을 믿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②정치의 부패로 인해 ‘돈견’과 같이 게을러진 인민을 ‘문명’한 국민이 되게 하여야 한국의 이익일 뿐 아니라 일본의 이익이 된다는 맥락에서 일본이 ‘한국 통치’에 나설 정당성을 획득한다. 한국의 이러한 처지는 ‘황실과 인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일본이 황실을 대신해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선량한’ 한국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국민의 ‘복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담론이 조선의 ‘국가’로서의 무능력을 주장하며 치안과 문명의 논리를 내세워 조선인의 이익을 위한 ‘일정 수준의 문명에 도달할 때까지의 통치’⁴³⁵⁾로 병합을 정당화했다고 할 때, 병합 이후에 발표된 『월하가인』과 『소학령』이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된 조선인을 전시함으로써 야기되는 효과는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다.⁴³⁶⁾ 결국 두 텍스트 모두에서 주인공은 귀환의 길을 선택하지만 『월하가인』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탈출에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국가의 명령’은 미국이 제공하였고, 『소학령』의 조선인 사회

433) 「한국통치의 근본주의(속)」, 『제국신문』, 1907.8.30.(강현조 외 편, 앞의 책, 186-187면에서 재인용)

434) 「한국통치의 근본주의」, 『제국신문』, 1907.8.29.(위의 책, 186면에서 재인용)

435)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 동국사학회, 2016, 195면.

436) ‘전시(display)’라는 표현은 ‘전시정치(display politics)’에서 빌려온 것으로 텍스트가 내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다. 사이토 준이치는 ‘전시정치’라는 개념으로 전시된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를 담론으로 번역하고 한편으로 모방하면서 실천으로 전화해나가는 형태의 정치를 의미했다. 이에 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외 역, 이음, 2009, 110-111면을 참고.

가 무법상황을 통제하기만 한다면 ‘자본을 다소간 저축하고 집식구까지 모두 반이시킬’⁴³⁷⁾ 마음을 먹었던 강한영이 굳이 귀국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⁴³⁸⁾

이와 관련해 『소학령』이 국내 역시 일종의 무법 상태로 묘사하는 방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인과 동생 강위영에게 편지를 보낸 후 이들과 엇갈려 조선에 들어온 강한영은 죽마고우인 서 진사와 만났다가 뜻하지 않게 휘말려 옥살이를 하게 된다.

(가) 그때는, 지금궂치기명헌시디가안이라, 횡익에라도, 죄에만걸니면, 변명한마뉘못호고, 섬스속에서쥐잡듯, 우물쭈물호야, 경호면, 덩비위리안치오, 중호면징역쳐교라⁴³⁹⁾

(나) 그때맛춤국스범이나서옥스가크게버러졌는디, 셔진스와, 그정도히지니는친구스오명을, 모다그런루자로무함을호야, 죠령으로, 방장잡으랴호는디 (중략) 괴위잡아갓거던, 얼핏심사를호야, 죄가과연잇는쟈는, 상당호법률을쓰고, 죄가업는쟈는, 하로빔비빅방을호여야, 가호겇거놀한번잡아다, 옥속에다구류호더니, 잊져바렸는지, 말한마뉘뉘지를안이호고, 스오삭을물친히갓우워두니, 죄업시, 그디경당호사름, 누가안이억울호리오마는 (중략) 정부에무슨일이잇서대관이일테로갈니며, 경죄중죄를, 물론호고, 통기옥문호는통에, 비로소퇴어나오니⁴⁴⁰⁾

437) 『소학령』, 35회.

438) “소학령에는조선사름이극히만히모혀드러사니, 이는소학령이, 희삼위보다, 거디가도흔것이아니라, 희삼위는관리의도사가, 빈번호고, 각종세금이다수호야, 좀체버려서는, 견디기가어렵고, 소학령에는, 도사도별로업고, 세금도역시업는중, 일막무제황무디가, 기척곳호면, 극히무성히곡식이되야, 심환이, 심히풍부호곡절로, 하나둘식, 그곳으로만, 모혀드러, 호구가날로만어짐이라” - 『소학령』, 20회.

439) 『소학령』, 35회; 김중옥은 『소학령』의 시간적 배경이 ‘신개척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1911년 이후라고 보고, 강한영이 ‘지금같이 개명한 시대’(35회)가 아닌 때에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서술은 저자의 관습적 서술에서 비롯된 일종의 시간착오라고 보고 있다. - 김중옥, 앞의 글, 276면.

440) 『소학령』, 36회. 강조 인용자.

그런데 (가)와 (나)에서 보이듯 강한영의 체포와 옥살이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섬 속에서 쥐를 잡듯’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무고한 개인들을 ‘죄에 걸리’게 하는가 하면, 체포한 이들을 법률에 따라 처결하는 대신 구류 상태로 방치한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 있어 정부 구성원이 바뀌자 역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경죄중죄를 물론하고’ 범법자들을 모두 방면한다. 즉 『소학령』에서 국외 조선인 사회가 무법상황을 통제해야 할 통치에서 배제된 반면, 국내 조선 사회에는 상황에 따라 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과도한 통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학령』의 국내와 국외는 모두 일종의 무법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월하가인』과 『소학령』의 문제성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주인공을 조형하는 방식에서 도드라진다. 두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구(舊) 교육 배경을 가진 몰락양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먼저 『월하가인』의 심 진사는 충청북도 충주 목계 출신으로 ‘갑오년 동학란’을 당하여 “부랑잡류”⁴⁴¹⁾들이 도당에 입도할 것을 강요하자 간신히 서울의 숙부 부부에게로 도망을 쳐서 이를 모면했지만 숙부 내외도 별안간 죽는 바람에 생활의 곤란이 극심해진 인물이다.

본그집에 남전북답이잇거나 금궤에 저축헌지산이잇서 지내는
 터이안이오 그아들사라 잇슬때에 월급으로만간신이 익과하
 가 련첩변상을 당흐얏스니 그경상이 오죽흐리오 심진스는 동
 리학동을 글ulgat치고 장씨부인은 남의 바느질가지롤하야
 주어 근々히지내더니 (중략) 그중에 학교가 예셔제셔 니러
 나니 강미더전량이나 갖다주고 공부하던오히가 한아스식돌
 식 다헤어져가니 그남아 심계가 마즈찌러져 수중에 돈한푼
 구경홀슈업스니 쇠털갓치 슷호날을 무슨수로살아가며 그동안
 십삭이차서 장씨부인이 몸을푸니⁴⁴²⁾

441) 『월하가인』, 2면.

심 진사는 그를 포섭하려는 ‘부랑잡류’가 횡행하는 지방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변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서울에서 버틸 수도 없는 무능한 몰락양반으로 그려진다. 또한 그는 구(舊) 체제에서 양성된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절이소탈하고 지조가단정”⁴⁴³⁾하더라도 근대 학교의 설립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동리 학동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리조차 잃게 된다. 위 인용문의 이강동 내외의 아들이 ‘월급’으로 간신히 먹고 살았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어느 정도 ‘근대화’되어 있던 서울의 직업세계에 구 교육 배경을 가진 심 진사가 편입하기는 힘들었으리라는 점도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심 진사는 조선 사회의 주변부를 맴돌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남편강한영이가, 본리성품이, 결々호터에부조지업은별
로업고, 책상물념으로, 상업이고, 농업이고, 아모물정을,
모로논디, 허구헌날가난살님을호노라니화가삼시로나서못견디
여흐다가하로는온다간다말이업시홀썩나아가더니인히삼스년쇼
식이업스니⁴⁴⁴⁾

『소학령』의 강한영도 심 진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양주군 송산 출신의 “향곡토반일망정, 씨있는 자식”⁴⁴⁵⁾이다. 강한영이 노동이민을 떠가기 전의 사정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책상물림으로 자라나 세상물정을 모르고 가난한 살림만 했다는 서술로 미루어 볼 때 그도 심 진사와 마찬가지로 구 교육 배경을 가진 빈한한 가문 출신의 양반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월하가인』과 『소학령』의 주인공은 조선 사회의 주변부를 맴돌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442) 『월하가인』, 7면.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월하가인』, 면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443) 『월하가인』, 2면.

444) 『소학령』, 2회.

445) 『소학령』, 2회.

된 몰락양반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신소설에 비교해 볼 때, 두 텍스트가 주인공을 빈한한 몰락양반으로 설정한 점은 상당히 이채롭다. 1900년대 신소설에는 주로 근대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신사’나 ‘사업가’, ‘정치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개화 양반’과 그 대척점에서 선 ‘완고 양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완고 양반’들도 비록 비판받을 지라도 서사에서 항상 개화를 저지할 능력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나타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⁴⁴⁶⁾ 즉 1900년대 신소설에서 양반 형상은 신지식인이 주도하는 ‘근대화’ 프로젝트에 포섭(‘개화 양반’)할 수 없으면 제거해야 하는 강력한 적(‘완고 양반’)으로 분기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월하가인』과 『소학령』의 주인공인 몰락양반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예 배제된 결과로 출현한다. 심 진사와 강한영이 빈한한 향반 출신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한 기득권층으로서의 양반이 아니라 ‘근대화’ 프로젝트에 노출될 기회를 박탈당했던 주변부를 대표한다. 이후에 심 진사가 미국에서 상업야학교에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강한영이 추풍에서 자본을 모아 사업을 이룰 계기를 가졌던 것처럼 두 소설에서 이들은 대한제국 시기에 구상되었던 근대적 사회 계층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품고 그려진다. 그러나 조선 사회 내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몰락양반이라는 인물 설정의 문제성은 1910년 강제병합을 전후한 양반의 위상 변화를 함께 살펴볼 때에 보다 명확해진다. 본래 행정 관료 및 예비 관료층으로 존재해 온 양반 계층의 지위는 강제병합으로 인해 가장 강한 타격을 받았다. 한때 일본제국은 양반 자체를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국권 상실 이후 관직 진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었으므로 양반 계층의 전통적 ‘직업’을 가지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서울의 양반들은 강점을 전후

446) 김현주, 「신소설의 갈등 구조와 근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5면.

하여 대거 망명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보존하려 하였다. 서울에 남아있던 양반들은 귀족 작위를 받는데 성공하여 기득권을 유지한 자들이거나 지방에 연고가 없어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일본인이 관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양반에게 남아있는 활로는 변호사, 대서업, 사무직과 같은 근대적 직업을 갖거나 축적된 자본으로 근대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정도였을 테지만, 실제로 ‘근대화’에 실패한 대다수 양반들은 무직·실업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1912년부터 통계연보 직업란에서는 ‘양반·유생’이 제외되었고, 1913년을 즈음하여 『매일신보』는 양반을 사회의 풍기를 어지럽히는 ‘부랑자(浮浪者)’로 호명하기에 이른다. ‘부랑자’의 중심에 구 양반이 있다고 보는 태도는 191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⁴⁴⁷⁾

1910년대 미디어가 만든 ‘부랑자’ 이미지에서는 몰락양반이 일본제국이 배제하는 ‘삼등국민’을 상징한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강제병합 이후 실시한 교육 정책 기조를 통해 보면, 일본제국이 바라는 식민지인 상(像)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련된 초급 지식을 습득하여 ‘근로의 미풍’과 ‘순량한 품성’을 겸비하고 ‘국어(國語)’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민’으로 떠오른다.⁴⁴⁸⁾ 즉 조선인은 경제 생산 주체인 한, 그리고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한에서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이등국민’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⁴⁴⁹⁾ 그러나 무직 상태에서 사회 여기저기를 떠돌며 불안을 야기할 뿐 ‘국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몰락양반은 ‘이등국민’의 범주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락양반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447)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1910-1930)」,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3』,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10-111면.

448) 일제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혜정·배영희,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교육정책 연구-1910년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4, 교육사학회, 2004, 2장을 참고.

449) 일본은 동화정책을 내세웠으나 합병 후 조선은 ‘특별지역’으로 취급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은 살리면서도 실제적으로(정치적·법제적) 동화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조선이 일정 수준 정도의 문명에 도달할 때까지 통치하는 것이라 합리화했다. - 김신재, 앞의 글, 195면.

국가 구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시간차에 의해 배제되어 온 ‘삼등국민’의 집합을 가리키는 기호로 기능한다.

기발회사라호는것이 별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빈한한사람** 싱
수날자리일세 묵서가디방에 진황디가 썩만흔디 엇지토옥흔지
아모곡식이던지 되로심어 섬으로 추슈호는고로 지금 그나라
즈본가々 제각기 거디호금화톨드려 닛호아기척을호는디 후히
고사가를주고 **로동자**를 모집호는고로 그일에디호야 기발회사
라호는것을 설립호야 동양스롭중 **로동을** **즈원호는자**를 소개
호다네(450)

위의 인용문에서 몰락양반은 먼저 ‘빈한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 ‘노동자’로 호명되면서 근대적 사회 계층·계급으로의 변환 과정에 편입된다. 식민지 체제 하에서 몰락양반이 방씨 형제와 같은 ‘모산지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을 자원하는 자’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을 종합해 볼 때, 『월하가인』과 『소학령』에는 일본 제국이 방치하는 ‘삼등국민’이 근대 국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보호에서 배제된 상태가 드러나 있다고 소결할 수 있다. 상술했던 바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체제의 성립이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체제의 성립과 중첩되었다는 특수성 속에서 ①실질적으로 식민지인은 국가(일본제국)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성원으로 표상되지 않거나, ②실질적으로 식민지인은 국가(일본제국)가 그 안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원으로 표상된다는 모순은 이처럼 식민지인들이 ‘이등’과 ‘삼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월하가인』이나 『소학령』에서 조선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무법자’들에 마주했다고 할 때, 이 폭력에 대한 승리나 극복이라고 할 만한 상승의 서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개별적 악인들은 각

450) 『월하가인』, 9면.

각 서사적 처벌을 받지만, 몰락양반을 노동이주에 나서게 했던 가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멕시코에 남은 한인 노동자들과 연해주 조선인 커뮤니티가 마주한 무법상황은 여전히 존속할 것으로 암시된다. 즉 제국이 '삼등국민'을 방치하는 한, 그 공백에서 악인은 계속하여 출현하리라 예상된다.

2. 식민 지배 체제에 적응한 상상력과 ‘범죄’

범죄를 다른 종류의 악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국가의 처벌(state punishment)”⁴⁵¹⁾의 대상이라는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데 있다. 도덕적 악이나 사회적 악과 대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범죄가 담론이 아니라 국가 통치의 차원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음란·탐욕·시기·무지·이기주의 등 부정적 가치·관념·정서를 표상하는 악인 유형과 달리, 범죄자는 국가가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부과한 법의 위반 그 자체를 형상화한 인물로 나타난다.

범죄는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사욕 추구를 목적으로 수행된 강제적 물리적 또는 사기 행위”⁴⁵²⁾로 정의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형사상의 법규나 법률의 위반”⁴⁵³⁾이라는 법적 맥락에서 정의된다. 전자에 의도의 문제가 포함된 반면, 후자에서는 오로지 ‘법의 위반’이라는 사실만이 문제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의 목적은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각 입법기관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이 상이하므로 그 통제의 범위와 정도는 각 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⁴⁵⁴⁾ 즉 범죄가 “사회나 공동체에서 규범으로 정한 것에 대한 침해 또는 반사회성”⁴⁵⁵⁾의 표현이라고 할 때, 이 ‘가치·규범’은 입법의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범죄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다소 기계적인 인물 유형이라 하더라도, 법 그 자체에 투사되어 있는 ‘가치·규범’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산물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451) Robert Reiner, *Crime*, Polity Press, 2016, 13면.

452) *Out of Control -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edit. Erich Good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6면.

453) 위의 책, 5면.

454) Robert Reiner, 앞의 책, 94면.

455)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141면.

는 어떤 ‘악행’을 범죄로 규정할지, 어떤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적 투쟁이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 투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규범’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간통이라는 특정한 범죄가 더욱 ‘중한’ 것이 되는 과정을 통해 유교적 사회질서가 강화되는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간통은 유부녀의 경우 본부(本夫), 미혼녀의 경우 친부(親父)의 가부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여성이 가부장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性)에 대한 침해가 그 소유주인 가부장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즉 간통한 여성은 가부장으로부터 여성 자신의 성을 절도·손괴(損壞)한 것이다. 따라서 간통한 남녀에게 동일한 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간통 처벌의 초점은 여성에게 놓여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란(淫亂)이 특히 여성적인 악으로 표상되었고, 음란의 정점에 있는 간통이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되었던 것이다.⁴⁵⁶⁾

간통에 대한 징계는 16세기 중종대와 17세기 숙종대를 거치며 형벌 자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가족에 의한 살해를 포함한 사적 징벌까지도 용인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⁴⁵⁷⁾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정황의 객관성 없이 주관적 심증만 가지고도 여성의 ‘나쁜 품행’ 일반을 간통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조선 전기에 주로 사대부 계층 부녀자에게만 간통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반면,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계층을 초월한 여성 일반에

456) 이와 관련해 특이한 것은 근대 이후부터 간통죄가 주로 남편의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성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일처제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성적 문란이 남성의 악으로 표상되기 시작한 점과 연관이 있다. 조혜란에 의하면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일부일처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1960년대까지도 첩을 두는 관행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륜(不倫)이라는 말의 일차적 어의(語義)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음’에서 ‘남녀의 부적절한 혼외관계’로 바뀌었다. (조혜란, 『한국고전문학에 나타난 불륜의 사랑』, 『일본학연구』 49,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0-11면) 현대에 성매매가 주로 성매수자인 남성의 악으로 표상되는 경향 역시 사회적·문화적 변동에 따라 악이 유동적으로 규정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457)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한국사연구회, 2003, 84-85면.

대하여 간통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⁴⁵⁸⁾ 즉 간통죄의 확장과 심화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심화되는 과정과 병행하는 것이다.

간통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규정된 범죄에는 유교적 세계관이 투사되어 있다. 예컨대 순조 22년(1822)부터 고종 30년(1893)까지 형조(刑曹)에서 처결한 사건을 기록한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범죄의 주요 유형은 ①난민(亂民)·난언(亂言) 등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 ②살인·강간 등 인명에 대한 위해, ③사기·절도·강도 등 재산 범죄 및 문서 위조 등 사회적 법익의 침해, ④접간·오인명절(汚人名節) 등 성 풍속 관련 범죄, ⑤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인 사굴(私掘)·투몽(偷冢)·금령위반(禁令違反)·무고(誣告)·사학(邪學) 숭배·능욕사족(凌辱士族)·침학토색(侵虐討索) 등이 있다. 그런데 ⑤로 분류되는 죄인이 남성 유배죄인 전체의 1/3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⁴⁵⁹⁾ 이는 실제로 다른 범죄가 적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유교적 사회규범에 대한 일탈을 단속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유교적 도덕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벌하였다. 국가에 대한 관리의 범죄, 관리에 대한 백성의 범죄, 양반에 대한 평민의 범죄,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범죄 등 강상(綱常)의 위계를 위반한 범죄가 특히 엄벌되었던 것이다.⁴⁶⁰⁾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자는 형법을 통해 표현된 특수한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육화(肉化)한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8) 위의 글, 111-113면.

459) 유승희, 앞의 글, 146-147면.

460) 조선은 유교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유교적 법치주의를 지향하였으며 그 법의 내용은 신분질서와 삼강오륜의 도덕원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형법체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국가기구와 별도로 향약이나 동약 등 사족 중심의 지방자치조직이 사회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조선 왕조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분쟁이나 범죄 행위를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했다. - 허영란, 「관치(官治), 식민지에서 “법의 지배”: 한말, 일제강점기 법과 법치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51, 이화사학연구소, 2015, 37면.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김교제 등 주요 작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무기명 신소설 작품들에 범죄 모티프가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⁴⁶¹⁾ 간통, 폭행, 영아 살해, 청부 살해, 직접적 살해(搏殺) 등 인명의 상해에 관련된 범죄 행위가 거의 전부 등장하는 이인직의 『귀의 성』이 특히 인상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이재선은 신소설에서 “음모와 살인, 재산의 편취와 사기, 유괴, 인신매매·납치·강도·강간 등 범죄적인 요소가 과잉 상태를 이루고”⁴⁶²⁾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소설의 범죄에 접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소설의 창작 방식이 매우 혼호(混淆)적이라 각각의 텍스트에 등장한 범죄자가 정확히 어떤 질서로부터의 일탈인지를 규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성(性)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가장의 소유인 부녀자의 정절을 훼손시켰다는 견지에서 유교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되거나, 자신과 평등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혔다는 견지에서 근대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되는 양상이 공존할 수 있다. 특히 신소설의 레퍼런스는 역사적 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기존 서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티프부터 서사유형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관계 양상이 드러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⁴⁶³⁾

461) 최현주는 자신이 검토한 신소설 70여 편 중 50여 편에서 폭력적 범죄 모티프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다만 최현주가 말하는 ‘범죄와 폭력’은 ‘참혹한 살상’이나 ‘엽기성’ 등 독자의 선정적 취향과 관련된 모티프라는 맥락에 있다. 최현주는 신소설에서 폭력과 범죄가 대두한 주요 배경으로 당시 신문 등 미디어에서 범죄와 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했던 경향, 그리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범죄 서사물에 대한 모방을 들었다. 이에 관해서는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장을 참고.

462) 이재선, 『한국소설사-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149면.

463) 신소설의 범죄 모티프는 조선시대에 창작된 서사물은 물론 청대 공안소설이나 일본의 보구담(報仇談) 등 시기와 문화권을 달리하는 다양한 서사물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재선과 최현주는 청대 서사물과 동시대 일본 서사물의 영향력에 주로 주목했지만(이재선, 앞의 책; 최현주, 앞의 글), 조선시대에도 실제 송사(訟事) 사건 등을 모델로 하여 민형사적 사건의 발생과 동기의 규명, 재판의 전개와 결말을 그린 『정수경전』, 『서대주전』, 『진대방전』, 『장화홍련전』, 『옥낭자전』, 『박문수전』 등의 ‘송사소설(訟事小說)’ 유형이 존재하며, 실

살인, 폭행, 강간, 사기 등은 개인의 생명·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져 온 금지 행위들이다. 사회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형태와 기원을 가진 질서 하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왔던 바 있다. 그러나 범죄의 내용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범죄(자)의 형상화 방식도 답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소설의 범죄(자)에서 주목할 것은 살인, 강간 등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방식(style)’이다. 범죄자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어떤 질서로부터의 일탈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이로써 악인이 상징하는 악의 정체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신소설의 악인들이 저지르는 ‘범행(犯行)’은 전근대 소설의 악인이 저지르는 ‘악행(惡行)’과 유사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악인이 ‘악한 인성(惡性)’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기서 사유되는 악이 개인적 도덕성의 범주에 있음을 암시한다. ‘악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행동’인 ‘악행’이라는 맥락에서 악은 먼저 권위 있는 자가 부도덕을 가려내는 판별의 문제로 다뤄진 이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장화홍련전』이나 『사씨남정기』에서 악인의 처결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죄인은여타자별(與他自別)하니 너임의로쳐결치못하리라하고

즉시좌수와홍녀와장쇠등을 옥에다단々이가도고 이스연을세々이괴록하야 감영에보고하니 순찰식이보장을 보고더경왈

이논고금에업슨큰변괴라하고

이썬으로조정에계달하니 상이 장계를보시고 홍년형제를불상히여기스 즉시하교왈

제 범죄 사건에 바탕을 둔 범죄 서사들도 전기, 야담, 우화, 비망록 등의 형태로 창작되어 읽혔다.(박소현, 「중국과 조선의 법률문화와 범죄소설의 계보학」, 『비교문학』 53, 한국비교문학회, 2011, 66-67면.) 따라서 신소설에 범죄 모티프가 만연하는 현상을 외래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흥녀이죄는만々불측호니 룡지처참(凌遲處斬)호야 후인을
 각별증계호고 그아들장쇠논교(絞)호고 제아비논제원디로방송
 호고 장화형제의혼빚을신원호여 비를세워표호여쥬라호시니
 순찰시하교를밧자와이디로 철산부에관즈호니 부서관자를밧아
 즉시좌기를비설호고죄인을쳐결홀시 흥녀논능지처참호야회시호
 고 그아달장쇠논교호고 좌수논잡아니여 계하에쫄니고 꾸지
 저⁴⁶⁴⁾

(나) 범갓흔 하리(下吏)다라드러 잡아안으로 드러가니 교씨
 혼비백산(魂飛魄散)호여 쓸아리에서 당상을 우러러보니 두부
 인이 쥬벽에안고 샤부인과 류한림이 안젧는디 류씨종족이 열
 좌호엿더라 (중략) 상셔 | 박안대질(拍案大叱)왈 음녀야 네
 죄를아논다 교녀 | 스죄호여왈 엇지모로릿가 첩의터력을
 췌여도죄를속지못호오리니 빌건디 이목숨을 용서호소셔 상
 셔 | 슈죄호여왈 네열두가지큰죄잇스니 (중략) 상셔 | 처참
 호고저호니 샤부인왈 교녀의죄 중호되 상공의 시인되엿던 비
 오니 죽여도 신테논 온전히 호쇼셔 상셔 | 율히녀여 문밧게
 가 목을밧여 죽이라호다⁴⁶⁵⁾

부사가 허씨, 장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결말 (가)나 조정의 중신
 이 된 유한림이 교씨를 사형에 처하는 결말 (나)는 일견 “국가처
 분”⁴⁶⁶⁾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을 ‘범행’으로만 다루는 것 같지
 만, 실제로 이들은 ‘권위 있는 자가 판단하는 악행’으로 나타난다. 『
 장화홍련전』에서 허씨 부인은 쥐 깍질을 벗겨 낙태를 꾸미고 남편
 에게 장화의 축출을 부추기기는 했지만, 실제로 장화를 죽이라는 지
 시는 배 좌수가 주도하여 내린 것이다. 즉 허씨 부인은 ‘악하다’는
 의미에서 ‘죄인’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법에만 의거해서는 임
 의로 처벌할 수 없는 ‘자별(自別)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464) 『장화홍련전』, 43면.

465) 『사씨남정기』, 107-109면.

466) 『장화홍련전』, 45면.

허씨의 ‘악행’은 임금의 권위를 빌려 ‘이루 헤아릴 수 없다(萬萬不測)’는 견지에서 ‘죄’라고 선언된 후에야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범행’이 되는 것이다. 반면 배 좌수의 행위는 ‘범행’이 아니라 계하에 깔리고 꾸짖으면 되는 ‘악행’의 수준으로 몰려난다.

『사씨남정기』의 경우에는 유한림이 교씨를 잡아들여 열두 가지 죄목을 수죄하는 것으로 처결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인 교사나 도둑질, 강상(綱常)의 윤리를 위반한 죄 등 ‘범행’ 외에도 사씨가 음란한 곡조를 경계한 것을 자신에게 참소(讒訴)한 죄, 요술을 지어 장부를 고혹케 한 죄 등 ‘부도덕한’ 행동의 목록이 섞여 있다. 또한 처결 역시 유한림의 지위가 있어 “가녀에 추비훈일노 전파하여 들니”⁴⁶⁷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류씨 종족이 열좌’한 가운데 유한림이 꾸짖고 문 밖에 교(絞)하여 죽인다는 사적(私的)인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결말들에서 악을 가려내어 징치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임금과 유한림에게 부여된 권위이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은 19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가) 악독하구나 황민(黃民)이여! 나쁜 짓에 정신을 잃고 남의 자식의 죽음을 부추겼으니 천하의 악 중에 이보다 크게 있으리오? 천 번 만 번 베고 부수어도 그 죄가 남으리니 살인을 도모했다가 미수에 그치면 그 죄가 교수에 해당됨은 법률이 정해놓은 바이니, 이에 따라 죄를 묻노라. (중략)

“효자로다, 이 아들은! 자식이 이러한데도 외려 죽이려 하다니…… 아, 이 간부(奸婦)를 어찌하랴? 하지만 순우공(淳于公)의 딸이 그 아버지의 육형(肉刑)을 면케 했던 것처럼, 윤씨 자식의 지극한 효성이 그 어미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데 어찌 부족하겠는가?”

이에 판결문 중에 윤씨의 죄안에 해당하는 줄을 지우고 고치더니, 윤씨를 불렀다.

467) 『사씨남정기』, 105면.

“이 음흉하고 독한 부인아! 너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네 아들의 얼굴을 보아 네 목숨만은 살려주느니라. 이제부터 어질 게 처신하되, 만약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때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⁴⁶⁸⁾

(나) “네가 네 죄를 알렀다? 네가 종적을 감추고 여기에 숨어 있으나 하늘의 해가 위에 있어 속일 수 없는 법이니라.”
(중략)

청천자는 말한다.

‘어두운 방에서 남을 속여도 신의 눈이 번개 치듯 하는 법. 누가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가. 심하구나, 악을 행한 화라는 것이! 처음 화는 남에게 미치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나니, 오호라 경계하지 않으랴!’⁴⁶⁹⁾

선악을 분간하는 판관적 권위는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되었던 『신단공안(神斷公案)』(『황성신문』, 1906.5.19.~12.31.)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신단공안』 5화 「요경객설재성간(妖經客設齋成奸) 능옥리구관초공(能獄吏具棺招供)」⁴⁷⁰⁾은 과부인 윤씨가 음심을 품고 중 황경과 정을 통하던 중 아들 계동이 자꾸만 방해가 되자 황경과 윤씨가 공모하여 계동에게 불효의 누명을 씌워 옥살(獄殺)을 도모했지만 군수가 그 진상을 꿰뚫어보았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가)는 군수가 황경과 윤씨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장면과 그 판결문의 전문이다. 군수는 먼저 황경의 행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천하의 악 중에 가장 큰 악’인지를 분별한 후 법률을 이에 적

468)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235-236면.

469) 위의 책, 405-406면.

470) 『신단공안』을 이루는 총 7개 서사 중 1~3화는 16세기 말 명청대 중국 공안소설(公案小說) 『용도공안(龍圖公案)』의 삽화를 각색한 것이고 5~6화는 남송대 판례사(case history) 장르에 속하는 『당음비사(棠陰比事)』에 수록된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납치, 살인, 간통 등의 성범죄를 소재로 하고 있다. -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 6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130면.

용하여 ‘죄’를 정한다. 그리고 이 서사에서 가장 악독한 악인으로 형상화되었던 윤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효성을 보아 ‘죄안’을 판결문에서 삭제하고 꾸짖는 수준으로 물러난다.

여기서 판결의 주안점은 악을 분간하여 공중 앞에서 징계해 보이는 것이며, 법률은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판관의 분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 악인은 ‘범법’이 아니라 ‘부도덕’의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도덕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압도하는 경향 속에서 부도덕(‘악행’)은 판관의 판단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할 대상(‘범행’)이 되거나(황경) 그렇지 않은 대상이 되고(윤씨), 반대로 마땅히 의거할 만한 법률이 없더라도 임의로 ‘범행’으로 선언·처벌할 수 있다.(『장화홍련전』의 허씨) 이러한 맥락에서만 국가를 경유하지 않은 사적 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사씨남정기』)

전근대·외래 장르인 공안소설을 저본으로 삼지 않은 『신단공안』 7화 「치생원구가장용궁(癡生員驅葬龍宮) 열노아의루경악몽(孽奴兒倚樓驚惡夢)」⁴⁷¹⁾에서도 판관의 권위가 여전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종 시대 속량(贖良)의 욕망을 품은 ‘교활한’ 중 어복손의 행동은 상전 오진사를 골려주는 가벼운 것에서 시작하여 오진사의 딸 연옥을 겁탈하고, 사촌을 자기 대신 죽게 하고, 마침내 오진사 가족을 속여 용담(龍潭)에 뛰어들어 죽게 하고 연옥은 칼로 찔러 죽인다는 무거운 것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경중을 막론하고 강상(綱常)의 윤리를 위반했다는 견지에서 유교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묘사된다.

이 서사에서는 어복손이 우연히 잡혀 자백하기 전까지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官)의 무능력이 두드러지지만⁴⁷²⁾, 그럼에도 불

471) 4화와 7화는 전래 구비전승에 기반한 것으로 ‘봉이 김선달’과 ‘피쟁이 하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해제」, 한기형·정환국 역주, 앞의 책, 11면.

472) 어복손의 악행이 69회에 걸쳐 전개되었던 것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70회에 매우 간략하게 묘사된다. 이러한 점은 판관의 수사 과정과 재판의 장면화에 주안점을 두어 판관의 형상을 도드라지게 하는 공안소설의 특징(박소현, 앞

구하고 수령의 판결은 (나)에서 보이듯 ‘하늘의 해’, ‘신의 눈’과 동일시되는 권위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수령이 하늘(天)의 대리인으로 표상됨에 따라,⁴⁷³⁾ 어복손의 행동은 ‘하늘’에 의해 먼저 ‘악행’으로 분간된 이후 “옥에 가두고 충주에 문서를 보내 결국 그를 처단하였다”⁴⁷⁴⁾는 결말을 통해 ‘범행’이 된다.

이처럼 법이 권위의 보조 수단으로 나타나는 전근대적 경향에 비하여, 1910년대 신소설 일군에서는 법이 근대 국가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표상되는 경향이 선명해진다. 이는 1910년 강제병합으로 인해 한반도에 식민지 지배체제와 중첩된 근대 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시행해 왔던 법이 제국에 의해 부여된 법으로 일거에 대체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가 그 권력을 법을 통해 행사하는 ‘법의 지배’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모두 표방했던 ‘근대적 질서’, ‘문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소설에서 대한제국 시기는 “법률이아즉 발달이 못되어 다만량반의시대”⁴⁷⁵⁾, 아직 “문명의 풍조가 드러와서 정치와 법률이 점々 붙아”⁴⁷⁶⁾지지 못한 시대라고 표현되었던 바 있다. 신분질서에 기반한 권위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구 체제가 혁신되지 못한 한편, 관리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법이 있어도 공정하게 실현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법률이 없는 시대’라 표현되는 대한제국의 경험에 비해 식민지 조선에서 ‘법의 지배’는 이중으로 경험된다. 조선인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식민지를 일본제국의회·일본 헌법의 적용

의 글, 67면)과 달리 어복손이라는 특이한 악인 형상을 도드라지게 한다.

473) 상제(上帝)로 표현되는 천(天)은 인간의 화복(禍福)과 운명의 주재자로, 지상에서는 그 대리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관념이 천명(天命)을 받았으므로 왕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통치권 기원설로 이어졌다. 천을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자 통치권의 근거로 여기는 발상은 한민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天) 관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31면.

474) 한기형·정환국 역주, 앞의 책, 405면.

475) 김교제, 『치악산』 하, 동양서원, 1911, 50-51면.

476) 김교제, 『현미경』, 동양서원, 1912, 11-12면.

에서도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천황의 위임을 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⁴⁷⁷⁾ 따라서 식민지 조선은 일본제국의 일부이지만 일본법의 권외 구역으로서, 의회의 합의로 발효된 법이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자의적 법령에 의해 지배되는 구역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에 적용된 법은 왜국된 근대성을 드러낸다.⁴⁷⁸⁾

이러한 맥락에서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범죄자 형상에도 이중의 의미가 기입된다. ‘근대적 질서’와 ‘문명’을 상징하는 근대 법률에 반(反)함으로써 범죄자들은 ‘야만’으로 규정되는 한편⁴⁷⁹⁾, 식민지 행정을 교란하고 법익(法益)을 해함에 따라 식민지 통치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일본제국이 제거해야 할 물리적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일본제국이 식민지에서 범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보호 받는 인물들에는 식민지인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의 치안 활동은 식민지인의 법익 또한 보호하게 된다. 신소설에서 제국이 식민지인을 보호하는 주체로 표상되는 경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77) 허영관, 앞의 글, 49면.

478)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체제 하의 법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진다. ①근대 국가가 보유한 최고 권력은 법을 통해 행사된다. ②법은 의회에서 제정된다. ③법 앞에서 국가 구성원은 모두 평등하다고 가정된다.(엄순영,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프란츠 노이만과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 사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1-43면) 여기에는 평등한 인민이 창출한 권력은 인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인민의 합의는 법으로 표현한다는 원칙, 따라서 국가 권력 행사의 구체적 범위와 한도를 법에 의해 제한한다는 원칙 등 근대적 정치관의 핵심이 반영되어 있다.

479) 이지훈은 최찬식 신소설에서 ‘법률=문명’, ‘욕망=야만’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하였다.(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 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0면) 그러나 이지훈도 지적하고 있듯 욕망이 ‘야만’으로 등치된 이유는 특정한 욕망을 표출하는 특정한 행동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추월색』에서는 강소년이 완력으로 정임을 겁탈하려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전경화시키는 경우와 정임과 영창이 신혼여행을 떠나 “처음으로 정분도 되리 고자호야”(『추월색』, 93면)는 서술을 통해 성적 욕망을 암시하는 경우가 공존한다. 두 경우에 성적 욕망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야만’은 ‘법률의 위반’과 등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행사로서의 법이라는 ‘근대적’ 감각은 『마상루』에 전
면화된 다음과 같은 악인 형상에서 나타난다.

(가) **이왕법강이무셔울씨에는 우리갓튼 사름이 법에눌너
썸작을 못흐여찌니와 지금 란리난세상에 당신갓치 엠썸아
씨를 제가 단속을흐여도 별 이상훈일이 만홀터인데 황츠 나
갓튼 사름의게 억지로 쳐막기다십히 하엿시니 그런숙뭇이 또
엇의잇단말이오**

츠라리 호랑이입에 고기를 너어야낫지 당더가야 계집맛을 못
보든 너게다 당신갓치 엠썸아씨를 혼즈막겨 보닌단말이오⁴⁸⁰⁾

(나) (아희) 허 춤 벌소리마오 **이왕 법이 잇슬때에는 그리못
하엿거니와 지금 란리난세상에** 님즈업시 혼즈나션계집이 무
슨 통썸는수가 잇답더닛가 제가 만일 듯지 안으면 한쥬먹에
평토제를 디니겟소⁴⁸¹⁾

『마상루』는 임오군란으로 혼란한 와중에 명문거족 출신 권 도사와
이씨 부인이 피난을 떠나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피난하다
우연히 만난 말꾼 총각의 계교에 의해 이씨 부인은 권 도사와 떨어
져 겁박을 당하고, 이로부터 도망쳐 나왔음에도 또 다시 총각아이에
게 연달아 겁박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⁴⁸²⁾ 여기서 ‘법강이
무섭다’, ‘법에 눌린다’(가)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법은 국가 권력이
신체에 물질적으로 감각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한편 ‘법이 있
을 때’(나)는 ‘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난리 난 세상’(가, 나)
과 대조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표상 방식은 법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권력 주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 ‘정상적’ 상

480) 김교제 열, 『마상루』, 동양서원, 1912, 19-20면.

481) 『마상루』, 84면.

482) 길에 나선 양반가 부녀의 정조를 위협하는 평민 남성은 『혈의 누』 등 신소설
의 전형적 악인형이라 볼 수 있다. 『마상루』에서는 이씨 부인이 말꾼 총각의 겁
박을 피해 도망쳐 나오지만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마주친 총각아이에 의해 또
다시 겁박을 당한다.

태에서라면 이 악인들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3장에서 살펴본 악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악인 유형에서 악을 규정·설득하려는 해석적 노력이 희박해진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악은 도덕질서 혹은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국가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표상된다. 『마상루』에서의 법은 ‘행사되는 (근대 국가)권력’⁴⁸³⁾ 그 자체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범죄라는 악은 법의 위배라는 사실 이외의 내용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납작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안소설의 전통을 수용한 『고의 성』에서 악인이 법률과 도덕의 차원에서 각각 “범죄한 놈”⁴⁸⁴⁾과 “못된 놈들”⁴⁸⁵⁾로 분기하는 양상과 비교된다. 『고의 성』에서는 어사가 관계자의 “범죄의 유무”⁴⁸⁶⁾를 따지는 법적 차원에 위치한 ‘범죄자’와 “악훈즈의 모범을”⁴⁸⁷⁾ 삼기 위해 공중 앞에서 징계하는 도덕적 차원의 ‘악한 자’가 별개로 나타난다.⁴⁸⁸⁾ 그런데 전자는 법에 의거해 형구를 준비하고 처형하는 등 행정 절차 상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매우 간략한 서술에 의해 정리되어 사라진다.⁴⁸⁹⁾ 반대로 텍스트의 역점은 후자의

483) 미셸 푸코는 근대의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1994, 58면)이라는 관점에서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형벌, 감옥 등의 제도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밝혔던 바 있다. 푸코가 말한 근대의 규율 ‘권력’이 본 논문에서 말하려는 ‘국가권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마상루』의 ‘법강’과 그것에 놀려 지내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는 푸코가 말한 바와 같은 ‘신체에 행사되는 권력’의 감각이 들어있다고 본다.

484) 『고의 성』, 대창서원, 1912, 55면.

485) 『고의 성』, 47면.

486) 『고의 성』, 44면.

487) 『고의 성』, 44면.

488) 실제로 『고의 성』은 이 참봉의 친척들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수사를 쓰지만 이 참봉의 머느리를 강간하려다 칼로 찔려죽이고 도주한 중에 대해서는 “음흉불칙”(『고의 성』, 12면), “행흉”(『고의 성』, 13면)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악한 행위”(『고의 성』, 8면), “악심장의 행사”(『고의 성』, 9면), “못된 놈들”(『고의 성』, 47면), “흉악한 여러 작자들”(『고의 성』, 21면), “악한 족친들”(『고의 성』, 76면) 등 전반적으로 부도덕이 ‘악하다’고 표현된다.

489) “중이즈복함을 다드른뒤에 형구를 준비하였다가 그당장에 처치하여 디살을식이고” - 『고의 성』, 156-157면.

의미화에 놓여 있다. 『고의 성』은 “공변되신 호느님이 구버보시⁴⁹⁰” 아래에서 “악훈즈를 징녀호는 목덕⁴⁹¹”을 가진 어사의 권위에 기대어 ‘악한’ 것이란 “그집것으로 살면서들 항상훈쩍에삐지 못호여셔 그집망호기만⁴⁹²”이라며 “악한죽친들이 제반악행위⁴⁹³”를 했던 것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징치하기 위해 어사는 이들에게 이참봉의 목에 씌워있던 큰 칼을 입과 손으로 직접 감쪽같이 뜯어내되 조금이라도 살에 닿지 않게 하라고 명령한다. 공개적으로 ‘욕을 보이려’ 실시된 이 징계는 어사의 “천동갓흔 위엄⁴⁹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중을 처벌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고의 성』과 비교해보면 『마상루』의 역점이 ‘악한 놈’이 아닌 ‘범죄한 놈’을 탐구하는 데로 기울어져 있음이 선명해진다. 『마상루』의 ‘악인’은 ‘불량’, ‘불측’, ‘위험⁴⁹⁵’이라는 수사를 동반하는 “불안당⁴⁹⁶”, “무뢰비⁴⁹⁷”로 표현된다. ‘떼지어 강도짓을 하는 무리(不汗黨)’나 ‘일정한 직업 없이 나도는 불량한 사람(無賴輩)’이라는 어의(語義)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악인은 위법 혹은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판별된 (잠재적) 위험 이상의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근대 국가의 ‘내부 평정(internal pacification)’을 저해하는 요소로 식별·재현된 인물이라 볼 필요가 있다.⁴⁹⁸ 이들이 ‘하늘’이

490) 『고의 성』, 77면.

491) 『고의 성』, 35면.

492) 『고의 성』, 47면.

493) 『고의 성』, 76면.

494) 『고의 성』, 157면.

495) “불냥흔 마부놈”, “불측흔거동”, “위험흔집욕” - 『마상루』, 51면.

496) 『마상루』, 35면.

497) 『마상루』, 60면.

498) 기든스는 내부 평정(internal pacific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교통, 통신, 통계 등 국경 내 영역을 일괄하여 통합·관리하는 근대 국가의 활동을 가리켰다. 그는 경찰과 사법체제를 근대 국가의 감시(surveillance)라는 내부 평정 활동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서구 전근대 사회에서 ‘질서(order)’는 대개 지역 공동체가 통제하는 것으로서 무력적 개입은 필요할 때에만 요청되었다. 그러나 영토 전체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는 근대 국가에서 ‘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유지에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policing)과 사법절차(imprisonment)에 의해

아니라 “순금에게 들니기만하면 청바지저고리는 쎄여둔당상이라”⁴⁹⁹⁾는 상황을 두려워한다고 묘사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법을 압도하는 도덕〉에서 〈행사되는 권력으로서의 법〉으로 역점이 이동함에 따라, 악의 의미론적 구심이 ‘부도덕’에서 ‘범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소결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도덕’이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해석적 노력을 요구하는 반면, ‘범법’은 해석적 노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⁵⁰⁰⁾

이러한 이행 양상은 『추월색』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녀학성) 여보시오 희외에 유학도하고 신사상도 잇다는이가 이런 금수의 형실을 형코자하면 엇지흐자는 말씀이오 당신은 섬부흔 학문과 우월흔지화가 국가도 빛니고 천하도 경영흐실 터이어늘 지금 일기녀즈의게 **악행위**를 더하고자흐심은 실로 비소망어평일이오구려 어서썰니 도라가 회기흐시고 다시**법률**에 **저촉치안키**를 부더주의흐시오」

(소년) 「**법률이니 도덕이니 그썩짓말은 다히썰디잇는** 쏫갓 혼남녀가 이런조흔곳에서 맛났다가 엇지무료히 그져헤져갈수 잇는.....⁵⁰¹⁾

독점적으로 수행된다. 근대 국가 체제로 이행하며 ‘The criminal’의 의미가 공동체에 대한 ‘반역자(a rebel)’에서 규범(법)으로부터의 ‘일탈자(deviant)’로 축소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존재한다. -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184면

499) 김교제, 『목단화』, 동양서원, 1911.(『신소설전집』 1, 계명문화사, 1987, 247면.) 이후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목단화』, 면수로 약칭한다.

500) 한편 『마상루』에서 이 ‘법의 지배’가 말꾼 총각이나 총각아이처럼 이름도 부여되지 않은 평민·하층민에게만 국한된 “법사”(『마상루』, 56면)로 나타난다는 점을 아울러 짚고 넘어가고 싶다. 『마상루』에서 이씨 부인의 정조를 세 번째로 위협한 것은 양반 홍 진사인데, 홍 진사의 악행에 대한 보응은 ‘신령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마상루』, 78면) 같은 악행에 대한 대응이 이처럼 분기하는 현상은 근대 초기 ‘법의 지배’가 신분질서의 감각을 여전히 일소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상루』가 말하는 ‘법’이란 유효적 가치를 체현한 전근대의 ‘범’일 수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상루』에 표현된 ‘법’이 도덕의 체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신체에 행사될 수 있는 권력과 표리일체로 나타나며, 따라서 주로 권력주체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악인’이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동경에서 유학하던 정임은 동경 상야공원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같은 유학생인 강한영과 마주친다. 그런데 “엇더훈육망”⁵⁰²⁾을 품은 강한영이 완력으로 정임의 손목을 잡고 “음흉란잡훈말”⁵⁰³⁾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되자, 정임은 위와 같이 강한영의 행위가 ‘금수의 행실’이며 ‘법률에 저촉됨’을 들어 ‘악행위’라고 규정한다. 강한영은 부산에서 정임을 납치·인신매매하려던 ‘악인’들과 다름없이 “법률을 무시호는놈”⁵⁰⁴⁾이라는 차원에 위치한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강한영은 정임의 말을 무시하고 강간하려다 결국 칼로 찌른 후 도주하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청년신사’(영창)가 정임의 칼을 빼어든 광경이 ‘행순하던 순사’에 의해 발견·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악행위’의 처리는 경찰서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강한영으로 오인 받은 영창이 누명을 벗는 과정도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화된다. 먼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정임에게 순사가 성명, 주소, 직업, 체류 목적 등을 상세하게 질의하는 조사가 있은 후, 호출장을 받은 정임이 재판소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용의자와 대질 신문을 받는다. 특기할 만한 지점은 텍스트가 조사·신문 과정의 대화를 자세하게 노출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사무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가) (순사) 「당신의성명은누구라호오

(정임) 「리정임이올시다

(순) 「년영은얼마요

(정) 「십구 세올시다

(순) 「당신의집은 어디요

(정) 「조선경성 북부자하동 일빅팔통십호올시다

(순) 「당신의부친은 누구요

501) 최찬식, 『추월색』, 회동서관, 1912, 8-9면.

502) 『추월색』, 5면.

503) 『추월색』, 9면.

504) 『추월색』, 40면.

(정) 「리○○올시다

(순) 「부친의죽업은무엇이오

(정) 「우리부친은 관인이더니 지금은벼슬업고 전죽은시종원시
종이올시다⁵⁰⁵⁾

(나) (정임) 「저이는 그스름이 아니올시다 그러는 저스름의게
훈마디 무려볼말습이 잇스오니 잠쥔 허가흐심을 바랍니다」

(검사) 「무슨말을

(정임) 이사전에디훈일은 아니오나 사사로이 무려볼만훈일
이 잇습니다⁵⁰⁶⁾

공안소설을 포함한 전근대 소설 전통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사건
의 진상을 밝히는 주체에게서 인간성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은 『추
월색』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전근대 소설 전통에서 수령,
군수, 어사 등 선악을 분간하는 권위 있는 주체들은 대개 인간성이
부여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들은 사건 관계자의 조사부터 판결까
지 전체를 파악·통솔하며 악인의 간교를 꿰뚫기 위해 전략을 고안할
수 있는 ‘현명’한 인물, 피해자가 호소하는 바에 공감하고 부도덕에
공분하여 하늘과 임금을 대신하여 ‘의로움’을 실현하는 ‘의인(義人)’
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추월색』에서 ‘악행’을 분간하는 권위를 가진 인격적 주체
는 사라진다. 대신 ‘순사’, ‘검사’와 같이 직책으로만 불리는 무기명
의 인물들이 강한영의 ‘악행위’를 다루는 전체 절차 속에서 파편화되
어 등장하며, 그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는 (가)와 같이 ‘인간적’ 개입
을 자제하는 사무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강한영의 ‘악행위’를 상대하는 ‘법의 지배’ 그 자체의 육화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악행위’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뤄
지는 공적 ‘범죄’로 축소되면서, 피해자인 정임의 사연이 조사에 개

505) 『추월색』, 52면.

506) 『추월색』, 65면.

입할 수 없는 ‘사사로운’ 것으로 변하는 양상(나)은 전근대 소설 전통에서 행위와 그 주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볼 때 시사적이다.

『추월색』에서 새로운 것은 범죄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법의 지배’의 절차 속에서 범죄자를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식민지-근대 국가의 ‘법의 지배’는 당시 처음으로 경험되는 새로운 체제였으며, 일상 속에서 이는 특히 ‘법의 지배’가 구성원의 몸에 물질적으로 접촉하는 사법행정의 경험을 통해 감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소설에서 사법행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악인 형상을 통해 새로이 표면화되는 것은 <근대 국가가 악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지판소에서 그노파를 불너 무려본것은 노파의 쇼장을 접
슈허여돛코 검스국에서 예심을 허는것이라 검스가 그노파
의 공초를드른즉 당범 경원의 외습촌은 고스르고 노파도
역시 종범이되느고로 위선 감옥서에 유치허여두고 경원이
외습촌의게 호출장을 발송후 노파가 리정진의집에가서
이간허던형디를 스실허기위허야 즉시 리정진의 모친을불너
무려보는 말이라

「너는 아달의 혼인을 김경원과 정하고 초례턱일까지 허얏
드가 무슨리유로 별안간 파혼을허엿는뇨」

정진의 모친은 아모작답도 모르고 불너와서 못는디로 디답
는것이라

「다른리유가 아니올시다 그 신부 님경원이가 형실이 부정
하는 소문이 잇기에 파혼을허엿습니다」

검스 「그런소문을 엇던스름의게 들렛서」

정모 「지나가는 방물장스의게 들엇습니다」

(중략) 검스가 이갓치 무려보고 예심을마친후에 정범 전
통과 종범 안동노파를 유죄로 인정허야 즉시 기쇼허지라
판스가 공판을열고 모든변호스와 각신문기즈 열석허압해서
공판을허는디 형법디전 법에의지허야 전떡통은 증역십년으

로 안동노파는 일기년검고로 선고된지라 그잇튼날 각신문에
경원의 익미훈괴스가 쇼상호게 낫더라

지판쇼에서 전떡통과 안동노파를 선고후뒤에 경원의지산
을 일일이 죠스호야 아즉 보관히두고 일변 각경찰서로 통
지호야 경원의종적을 널니 탐문호느⁵⁰⁷⁾

『금강문』의 위 대목에는 고소, 예심 출석, 공초(供招), 유치(留置), 관계자 호출, 증인 신문, 기소, 공판, 법에 의거한 선고 및 집행 등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세부에 대한 관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서술자는 이 절차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함으로써 사법기관·경찰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추월색』과 같이 『금강문』에서도 검사, 순사 등 조사 주체는 사실 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텍스트 내의 다른 대목들에서는 대체로 감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 조사 장면에서만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사무적인 어조로 응답한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사법 행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때, 이 권력이 특히 경찰을 통하여 행사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 적용된 법이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법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 상의 필요에 의해 제국이 자의적으로 부과한 법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한다. 신소설에서 근대 국가의 권력 행사인 ‘법의 지배’로부터 제국-근대 국가의 권력행사인 ‘식민지-법의 지배’로의 역점 이동은 ‘경찰의 지배’라 부를 만한 현상의 출현을 통해 감지될 수 있다.

최찬식의 『추월색』, 『안의 성』, 『금강문』에는 경찰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인물들이 스스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모함한 편지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범인을 색출하려

507) 『금강문』, 93-97면.

하거나⁵⁰⁸⁾, 수상한 인물의 발언의 진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요구하기, 사적인 복수 대신 고소 부추기기⁵⁰⁹⁾ 등 최찬식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간질, 모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선다. 이 때 대부분의 문제가 경찰의 개입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서사 공간이 합리적인 법률·제도를 내세워 식민지를 지배하는 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⁵¹⁰⁾

그러나 최찬식 신소설에서 법률은 공안소설적 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립적 수단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안의 성』에서 상현 모는 상현과 정애의 이별을 강요하고, 나아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민적을 삭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상현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상현 모는 자신이 이혼신고서를 위조·제출했다고 폭로한다.⁵¹¹⁾ 여기서 이혼 관련 법률은 상현과 정애의 결혼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데다, 선불리 취소한다면 위조와 무고 관청의 혐의로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상현을 궁지에 몰아넣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금강문』에서도 외삼촌은 법률을 악용하여 “각은형에 저치훈금익을차져 자괴명의로 다시맛기고 토디가옥등 부동산문권은 일변 디방관청에 청원하야 미미증명으로 곳쳐니여”⁵¹²⁾ 놓는 방식으로 경원의 재산을 탈취한다. 이처럼 법률

508) “제가이편지를경찰서에제출하야 이런작란혼놈은어더까지든지 슈식을 흘터이오니” - 『안의성』, 51면; “장스 「에그 어더라던지 듯고도 이젓습니다 아마 정든 랑군의게 혼편지인가보야요 그리 편지도 밧지아니하랴다가 상관업논일이라도 엇지패썸하고 분혼지 이편지를 가지고가서 경시청에 고발을하랴고 밧아가지고 왔지요」” - 『금강문』, 49면.

509) “노파 「그러면 엇더케 설원을하여줄까요」 / 신부인 「그 녀귀의 외삼촌을 거러서 지판소에 고소를하시오」” - 『금강문』, 81면

510) 최기숙, 「출구 없는 여성, 여성적 시간의 식민화: 1910년대 최찬식 소설의 “여학생”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328면.

511) “모 「내그저 내가 그리홀줄알었다 그러키에 니가몬저너의들의 이혼신고서를 경찰서의 제출하엿다 나도이것이 범법혼일인줄까지 알지만은 (중략) 니가너는이혼신고서의 도장안이칠줄알고 네도장식이고 경의도장식여셔 신고하엿스닛가 나는법률의 범촉혼년이다 니가법률을 범혼것도 너를위혼일이야 그러치만 이년은 도장위조무고관청 두가지죄지으년이니 네가어서고소하려것은헐라 안이고소할것업서 경찰서에서 너의들을 불너물어보거던우리는이혼혼일이업고 우리어머니가 도장을위조히셔 그짓신고를헐다고 하렘으나” - 『안의성』, 97면.

그 자체는 악인이 악용할 수도 있는 중립적 수단으로 나타난다. 범법 사실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헌 모나 경원의 외숙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혼과 재산 탈취라는 현실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법률을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법주체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스름의 심명이 관계되고 처녀의신분이 회손될뿐아니라 국법의 형스상일을 자세히 아라보지도안코 그방물장스를 왜 노아보니섯소 그런 불명훈일은 밋을수업셔오(중략) 니가 경찰관이 아닌터에 자유로 장스흔 스람을 임의로 붓들권리도 업거니와(중략) 이일이 인도상범률상에 중디훈사건인즉 결코 돌파리장스의 쓴말만듯고 소홀이 조처홀일이 못되느것이니 엇지 찌드느것을관계헛겟슴닛가 니권리로 그장스를 붓들수가 업스면 경찰서에 통지하여 그 진위선악을 분명히 조사회본 연후에 법디로 조처흔일이 정디훈일인디 그말드러다는 증거인을 낫치고 다시 아라볼수느 어디잇슴닛가⁵¹²⁾

『금강문』에서 인용한 위 대목에서 드러나듯 ‘범률상에 중대한 사건’을 ‘법대로 조처하는’ ‘권리’는 경찰관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진위선악’을 조사한 후 법을 적용할 권리를 가진 사법기관, 특히 경찰이다. 『금강문』의 시대는 “법률이 어둡고 경찰이 밝지못흔씨”와 대조되어 “경찰기관이 이갓치 밝은씨”⁵¹⁴⁾, “십습도강산이 손살피갓치 기암이흐나 괴여가는것을 은휘흐지못홀 이시디”⁵¹⁵⁾라고 표현된다. 즉 위법의 세부사항까지 살살이 감시하고 조사할 권력을 가진 경찰이 법실현의 주체로 표상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주 모티프로 활용했던

512) 『금강문』, 78면.

513) 『금강문』, 52-53면.

514) 『금강문』, 41면.

515) 『금강문』, 138면.

대한제국 시기 신소설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던 양상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⁵¹⁶⁾

권력 행사 주체로 경찰이 부각되는 양상은 식민지인을 보호하기보다 감시·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식민지-법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1910년대 식민지에 조직되어 면 단위까지 소재했던 헌병경찰기구⁵¹⁷⁾는 치안과 관련된 행정 및 사법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권과 행정권도 직접 행사했다는 특징을 가진다.⁵¹⁸⁾ 실제로 『안의성』에서는 이혼 신고와 같은 민사상 법무(法務)를 접수·처리하는 곳이 경찰서로 나타난다. 이처럼 사소한 일상생활 영역에서까지 경찰이 국가 권력 행사 주체로 가시화됨과 함께,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즉결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경찰의 권한이 확장되는 추세가 나타났다.⁵¹⁹⁾

이러한 국면에서 신소설의 ‘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진 범법 행위뿐만 아니라 범법의 ‘가능성’까지도 포괄하는 범주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부녀자 인신매매, 매음, 위조, 사기 등을 저지르는 “잡류”, “부랑패류”⁵²⁰⁾나 부녀자와 재물을 탈취하거나 인명을 해치는 “불안당”⁵²¹⁾이 비교적 전통적 범죄자 형상이라면, ‘경찰’과의 관계

516) 대한제국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 관해서는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장 1절을 참고.

517) 검사·재판소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찰이 사법권을 대리하여 행사했다. 행정사무의 경우 헌병경찰은 국경의 관세나 세금징수, 산업 장려, 농업지도, 해충구제, 임야 및 어업단속 등 행정기관 사무를 원조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 - 조성택,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 한국행정사학회, 2015, 92면.

518) 허영란, 앞의 글, 54면.

519) 이해조, 『모란병』, 박문서관, 1911, 55면. 『모란병』에는 부패한 지방관이 등장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지만, 범죄자에 맞서 “무죄훈인민을 보호”(『모란병』, 55면)하는 임무는 순검과 경무청에게 있다고 규정된다. 다만 ‘사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인륜을 앞세워 끝내 ‘원범죄인’을 경무청에 보내지 않는 결말에서 잘 드러나듯 이해조에게서는 전반적으로 ‘법을 압도하는 도덕’이라는 전근대적 감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520) 『추야월』, 광덕서관, 1913, 21면. 『추야월』의 ‘불안당’은 지방관이 사법·행정·경찰권을 독점하여 학정하던 시대의 불가피한 산물처럼 묘사된다. ‘백성은 어차피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 둘 모여들어 ‘불안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관의 학정 때문에 ‘불안당’, ‘난민’, ‘폭도’ 등이 출현했다는 인식은 『은세계』에

속에서 등장한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부랑자’와 ‘불량’한 이들이 이 확장을 통해 만들어진 형상에 해당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 신소설의 범죄자 형상에 나타난 변곡점은 『추월색』의 강한영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텍스트 내에서 강한영은 주로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인물이다. 대구 부자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지내며 재산을 탕진한 강한영은 돈이 떨어지자 범죄를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하등인류”⁵²¹⁾라고 표현된다. 조선에서 전답 문권을 위조했다가 관가에 고발되자 강한영은 동경으로 달아났는데, 동경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자 또 다시 그는 ‘경찰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정임을 칼로 찢은 강한영은 다시 귀국하여 “죄진일이 혼두가지 아니미”⁵²²⁾ 성명을 위조하고 서울에서 지내게 된다. 강한영과 마찬가지로 “탕조잡늬”⁵²³⁾인 친구와 밀매음녀 집에서 술을 먹다 싸움이 나자 친구는 “경무청에 고발만 하면 네죄는 경호여야 종신증역이다”⁵²⁴⁾라는 말을 내뱉는다. 그리고 이를 우연히 듣게 된 북부경찰서 총순(總巡)이 강한영을 체포한다.

강한영처럼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기만 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유사한 인물형은 『추야월』에도 등장한다. 판서의 아들인 이상혁은 “부랑”⁵²⁵⁾한 ‘파락호’로 부친이 작고한 후에 재산을 탕진하고 막대한 빚을 져 자살하려다 친구인 서병한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서병한이 도적에게 잡히자 서병한의 가산을 가로채기 위해 편지를 위조하고, 자신과 간통하고 있던 서병한의 첩 해주집과 함께 그를 도적으로 모함하여 죽이려 한다.

『추월색』과 『추야월』에서 강한영·이상혁과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

서도 드러난다.

521) “이지경이되면 지과천선홍설은 모르고 도적질할 생각이 생기는것은 하등인류의 자연호 리치라” - 『추월색』, 87면.

522) 『추월색』, 89면

523) 『추월색』, 90면.

524) 『추월색』, 91면

525) 『추야월』, 8면.

물은 김영창과 서병한이다. 김영창과 서병한이 각각 교육을 받고 ‘출세’하여 ‘명예’를 얻은 인물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묘사되는 반면, 강한영과 이상혁은 부유한 배경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을 축내기만 하는 ‘방탕한’ 성정을 가졌다고 묘사된다. 이처럼 두 텍스트에서는 “두억지가 무겁도록 책임진것은 아모조록 법률범위안에서 행동하여 국민된의무를 다하느”⁵²⁶⁾ 것으로 규정된 “양민(良民)”⁵²⁷⁾ 형상의 대척점에서, 직업 없이 가산만 탕진하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부랑자’=잠재적 범죄자가 등장한다.

1910년대 식민지인에게 부과된 ‘국민’의 이상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성실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양순한 태도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로부터의 이탈은 매우 사소한 수준에서까지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1912년 시행되었던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나 생업 없이 배회하는 것, 화약 등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것, 협력이나 기부를 강요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것, 유언비어를 하는 것 등이 모두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⁵²⁸⁾

특히 이 「경찰범처벌규칙」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들’을 일컫는 ‘부랑자’라 하여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결인, 양반 유생, ‘청년자제’, 대한제국 하층 관료였던 이들, ‘무뢰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신분·경제·계층상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제히 ‘부랑자’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⁵²⁹⁾는 관점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부랑자’들은 일하지 않고

526) 『추야월』, 100면. 『추야월』의 배경은 부패한 관찰사가 존재하는 대한제국 시기이지만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양민’의 규정은 『추야월』이 읽히는 시대에 통용되는 것이다.

527) 『추야월』, 98면.

528) 김철수, 「일제 식민지 시대 치안 관계 법규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 한국사회학회, 1995, 128면.

529)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2014, 43면.

‘유의유식’하는 성향이 있어 풍기문란, 도박, 매음, 음주와 같은 ‘불량상태’를 보여주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은 1910년대에 확산되었다.⁵³⁰⁾

공공의 질서에 적합하지 않는 현상을 사회의 불량상태라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제력 행사는 경찰의 범위에 속한다. (중략) 공공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한 사회의 불량상태도 국가가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제력의 일종인 징벌을 가한다. 이 징벌을 가하는 불량상태를 특히 위경죄 또는 경찰범이라 칭한다.⁵³¹⁾

한편 ‘부랑자’와 함께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 것이 위 인용문에서 ‘사회적 불량상태’라 표현된 것이다. 위 인용문에는 ‘단순한 사회의 불량상태’도 국가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불량상태’란 “가정불화, 무생업, 사통, 걸개부랑, 낭비, 음주” 등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행태들이었다. 특히 ‘부랑’과 ‘매음’이 ‘불량상태’를 기술할 때 거의 함께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⁵³²⁾

『명월정』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바로 이 ‘불량’을 체현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⁵³³⁾ 무가 출신으로 일어를 익혀 통역으로 일하다 “성명지산을 살취하는자들”⁵³⁴⁾을 포박하여 “법률디로쳐치”⁵³⁵⁾하는 토벌대에 자원입대하기도 했던 허원은 송도에서 첩을 얻으려 한다.

530) 위의 글, 45면.

531) 根田專太郎, 「警察犯政策と一般刑事政策とに就て」, 『경무회보』 42, 1913.2. (위의 글, 48면에서 재인용)

532) 위의 글, 48면.

533) 『명월정』은 『금고기관』 26권에 실린 「채소저인욕보구(蔡小姐忍辱報仇)」의 번안임이 밝혀져 있다.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번안양상」, 『국어국문학』 72, 국어국문학회, 1976.) 그러나 『명월정』은 저본의 서사구조를 차용했으나 매우 수려한 수준의 현지화(localization)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534) 박이양, 『명월정』, 유일서관, 1912, 6면.

535) 위와 같음.

이에 그가 머물던 여관 주인이 기생조합소 사장과 짜고 기생을 여염집 여자로 속여 팔아넘기려 한다. 한편 서울에서 여학교에 다니던 채홍은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썼다가 고소를 당하자 낙향하게 되었는데, 이사 가던 배에서 수적 진채보 일행을 만나 가족을 잃고 기생으로 팔려다니다 허원을 만나게 된다.

『명월정』에서 “인명도 살히하고 도적질 흥던놈들”⁵³⁶⁾이라는 모티프 자체는 저본이 된 전근대 중국 소설 『금고기관』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금고기관』에서 서홍의 사정을 알던 주원(朱源)이 과거에 급제한 후 감사가 되어 직접 수적 진소사(陳小四) 일당을 체포·처형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⁵³⁷⁾ 『명월정』에서는 경찰(국가)이 정치 기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채홍의 의인(義人) 허원이 아니라 경찰, 헌병에게 개인적 복수를 모두 위임함으로써 복수는 곧 사법과 동일시된다.⁵³⁸⁾ 실제로 허원은 채홍의 신원을 보호하는 한편 “신법령집(新法令集)”⁵³⁹⁾을 참고하여 “가취(嫁娶) 신고”, “민적법(民籍法)”⁵⁴⁰⁾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기생조합소 사장과 여관 주인 등을 엮어 넣고, 진채보 일행에 대해서는 먼저 ‘강도’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체포하게 한 후 채홍에게 ‘살인강도’의 정식 고소장을 넣도록 하여 신속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 머무른다. 따라서 직접적 복수(악인의 징계)는 피해자인 채홍이나 의인(義人) 허원이 아니라 경성지방법판소의 판사가 형법대로 판결하여 이들을 교수형과 징역에 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살인강도 등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채홍에게 기생

536) 『명월정』, 54면.

537) 서대석, 앞의 글, 329면.

538) “각하피서 더를 화란가온더서 건지섯스니 또헌번 궁홀이 녀이스 경찰셔나 혼병소에 고소호여 더도적놈들을 다잡아 스법디로 처치호게 호여주소셔 (중략) 경찰셔에 고소호고보면 이경찰이붉은시디에 각쳐파주소와 혼병분건소마다 전화(電話)호면 물부어 싹틈업시 멧칠안에 잡을것이니 - 『명월정』, 60면.

539) 『명월정』, 82면.

540) 『명월정』, 83면.

영업을 강요하거나 첩으로 속여 팔아넘기는 등 “적악함”⁵⁴¹⁾이 적지 않았던 인물들—기생조합소 조장, 여관주인, 중매인—이 “살인강도 범에 지나지 못할지라”⁵⁴²⁾고 자탄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기생조합소 조장은 결국 허공에 뜬 채홍의 몸값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양관 주인과 중매인 등을 모두 불러다 놓은 자리에서 ‘부패한 풍속을 속히 개량’해야 한다는 취지를 역설하고 자비로 채홍의 몸값을 치른 후 “선량한 영업”⁵⁴³⁾으로 돌아섰다고 나온다.

이시더는 **죄악시대**인고로 처음에 선한자도 **세상악습**에 물이
드러 악하여 도지고 음란하던자도 문명풍조에 잠을끼여 **순량
한 인민**도 되느니 아주까지 악한 영업하는자들은 더사람을
선성님으로 모본하시오⁵⁴⁴⁾

『명월정』에서 ‘악한 영업’하는 자들은 “불량한 맘”⁵⁴⁵⁾을 먹은 “불량한 사람”⁵⁴⁶⁾으로 기술되었던 바 있다. ‘선한 자’도 ‘죄악시대’의 ‘세상 악습’에 물이 들어 악해질 수 있다는 위의 논리는 ‘불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찰범정책의 논리와 상응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량’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들은 ‘순량한 인민’으로 호칭된다. 이 ‘순량한 인민’이란 『추야월』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법률 범위 안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양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뿐만 아니라 “상풍란속(傷風亂俗)”⁵⁴⁷⁾의 ‘불량’으로 확장된 악의 의미망이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지점에 이르러, 악은 ‘경찰의 지배’로부터의 일탈과 동일시되기에 이른다.⁵⁴⁸⁾

541) 『명월정』, 114면.

542) 『명월정』, 115면.

543) 위와 같음.

544) 『명월정』, 129면.

545) 『명월정』, 61면.

546) 『명월정』, 63면.

547) 『금강문』, 49면.

548) 이 절의 김교제 소설 분석은 이경림, 「김교제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관한 연구-젠더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17의 3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찬식 소설 분석은 이경립, 「‘연애의 시대’ 이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1, 2017의 3장의 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V. 근대 초기 악의 주체성과 미학적 변용

1. 심리의 주체: 기독교적 죄의식과 주체성의 형성

근대 이전 한국에서 선악에 관하여 통용된 대중적 인식의 주요소는 ①공동체적 관점에서 위해(危害)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경향과 ②‘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화를 입는다’는 초월적 이치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특히 그 미학적 반영물인 복선화음(福善禍淫) 구조에는 주체에 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복선화음은 근본적으로 ‘선한 자가 보상을 받고 악한 자는 징치 당한다’는 인과논리를 서사화해 보이는 틀이다. 이 틀을 선택한 전근대 소설에서는 대체로 선한/악한 자가 〈왜〉 선하게/악하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선한/악한 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징치를 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선악 자체의 복잡성에 대하여 고민하려는 경향—예컨대 복을 받지 못하는 선과 징치 당하지 않는 악을 가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복잡성—대신, 선악의 관계에 관한 ‘믿음’을 재확인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진다.

인물 A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①(공동체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악한 것이라면 ②A는 징치될 것이다〉라는 구조 속에서 악은 항상 징치와 관련된 향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악을 그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희박한 이유는 이처럼 악이 ‘징치되(어야하)는 것’으로서 사유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악하면=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징치의 단선적 구조는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가?”, “징치가 필연적이지 않다면 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의 내면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기제는 무엇인

가?” 등의 질문에 담혀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확정된 답들이 텍스트 바깥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라 과정을 중심에 둔 명료한 구조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대 초기의 문제성은 같은 질문이 새로운 답을 요구하며 되풀이 되어야만 했다는 데서 기원한다. 소설의 경우, 이러한 질문들이 통념 위로 재부상하여 개방한 것이 악의 주체성의 영역이다. 근대 초기 몇몇 소설에서는 악이 전통적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국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역점 이동을 통해 ①주체가 스스로 악을 규정하고, ②주체가 스스로 이에 대응할 방안을 고안하며, ③보상 행위를 통해 주체가 스스로 악에서 벗어났다고 믿는다는 새로운 형상화 방식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초기에 악을 주체의 측면에서 사유하도록 매개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죄’ 개념이다. 그러나 기독교와 신소설의 관련성을 다룰 때의 난점은 기독교가 차지했던 복합적 위상에 노정되어 있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 기독교는 두 가지 층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문명’ 층위에서 기독교는 근대적 사상·기술과 동일시되었고, ‘신앙’ 층위에서 기독교는 기존의 한국적 ‘믿음’을 폐기하거나 갱신하는 종교였다.⁵⁴⁹⁾

18세기에 천주교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충돌을 일으키는 ‘외세’로 간주되어 극심한 박해를 겪었다. 반면 19세기에 학교와 병원을 앞세운 문명선교(civilizing mission)의 형태로 들어온 기독교는 당대 지식인·민중에게 ‘문명의 종교’, ‘힘의 종교’로 용이하게 수용되었다. 위기에 처한 민족의 존립을 위해서는 서구 문명의 정수를 담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던 것이다.⁵⁵⁰⁾ 그러나

549) 최원식, 「신소설과 기독교-『성산명경』과 『경세중』을 중심으로」,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최원식은 전자에 역점을 두어 기독교-민족주의의 성격을 강조하고, 기독교를 수용한 작품 중 근대지향적·사회지향적·민족주의적 성격이 뚜렷한 『금수회의록』, 『경세중』을 고평하고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해설한 『성산명경』은 저평가했다.

550) 조경덕, 「기독교 담론의 근대서사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12면.

기독교 선교를 통해 도입된 ‘문명’이 사회적인 것이었던 반면,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통해 도입된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 19세기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은 개인의 영적 구원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사회의 공적 영역과 개인·신앙의 사적 영역을 분리하려 했다. 따라서 선교사 입장에서 신자들의 민족주의적 태도나 일제 당국에 대하여 품는 반감이 모두 사적 영역의 신앙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불온한’ 태도로 간주되기도 하였다.⁵⁵¹⁾

문제는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가 제공한 새로운 ‘답’이 사해 동포주의·평등의식 등 근대 사회적 사상이 아니라 개인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신앙’의 구조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유포되었던 악에 관한 기독교적 ‘믿음’의 요체는 『성산명경』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가) 령지가 잇서 씨 아논거슬 니르논거슨 능히 선악을 분별호는바 | 요 시비의 므음이 잇서 씨 일을 지음은 착훈것 호기를 달게녁이고 악훈것 호기를 달게녁이지 아니호는바 | 며 또 요화흠으로 착훈디 나아가고 뉘워흠으로 악훈 거슬 멀리호며 두려워 흠으로 지앙을 멀리호고 바라는 거스로 복을 엿느니 엿지 하느님이 사롭의게 성품을 품부호샤 그리치를 밍히고 착훈거슬 호야 복을 누리고져 호심이나니노⁵⁵²⁾

(나) 사롭의 텃성은 근본根本하느님피 밝은거시라 지우현 불초智愚賢不肖를 물론호고 다 갓흔 거신즉 일호도 등분의 우열이 업논거시오 그사롭의 지혜와 어리석은거슨 기질淸濁과 심지유무 心才有無에 달닌거시라 엿지 그성품에잇다 호리오 그런즉 사롭이 세상에 날째에 성현과 완악頑惡호자

551) 양진오, 「근대성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담론의 소설화 - 「성산명경」과 「경세중」을 중심으로」,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378면.

552) 최병현, 『성산명경』, 정동황화서재, 1909, 80면. 이하 『성산명경』, 면수로 간략히 표기한다.

를 하느님이 작정⁵⁵³⁾하야 주신거시 아니라 오직 그사람이
턴명을 좇아가논디 잇는거시오⁵⁵³⁾

(다) 인륜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람의게 싱혼⁵⁵⁴⁾生魂과 각혼⁵⁵⁵⁾覺
魂과 령혼⁵⁵⁶⁾靈魂을 주심으로 능히 턴리와 디리도 씨드르며 이왕
에 지나간 상고적과 금세에 당연히 형홀 직분과 리세에 어더
로 도라가는거슬 다 아는지라 사람의 사람됨이 대단히 존귀한
거슨 우흐로 하느님을 존경하고 구세주를 신봉하야 **턴륜天倫**
의 리치를 순종⁵⁵⁷⁾順從하며 아래로 초목금수와 곤충어벌을 제어
하고 다스려 물륜의 리치를 궁구하고 이세상에서 부모의게
효경하며 님군의게 충성하고 타인스랑 형기를 내몸과 궂치
하야 오륜삼강에 도리를 극진히 행하고 슈신제가 修身齊家
와 치국평턴하 治國平天下에 스업을 다하며 리심來生의 령
혼까지 구원하야 턴당복디에 무궁한 영화를 밋는거시 사람
의 당연한 직분이라⁵⁵⁸⁾

(라) 공존 | 굴으사디 션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갑
고 악을 행하는자는 하늘이 양화로써 갑는다하엿스니 이거
슨 하늘이 곳주지이신줄 알미라 하늘턴즈와 상데란글즈가
엇지 궂흔뜻이라 하느릿가 그런고로 량인梁寅의 역주(易註)에
굴으디 帝라 하심은 신의 일홈이오 신神은 상데에 령이니
만물을 주지 하신다하고 즈하子夏역전에 굴아디 帝者는
조화의 주지요 턴디의 조종이라하고 또한 우리성경에 굴으샤
디 티초시에 상데께서 턴디만물을 창조하시다 하엿스니 **하늘**
이 만물을 낳거시 아니라 상데께서 창조하시다 하느니
라⁵⁵⁹⁾

『성산명경』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을지학 소년(신천웅)과 유교, 불
교, 도교를 대변하는 진도, 원각, 백운도사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

553) 『성산명경』, 20면.

554) 『성산명경』, 41면.

555) 『성산명경』, 15-16면.

교리의 우월성과 포괄성을 논증하는 방식을 취한 일종의 교리 해설서다.⁵⁵⁶⁾ 위의 인용문들은 『성산명경』에서 선악의 내포 규정·인식 구조가 잘 드러난 대목들인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이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은 영혼에 속한 선천적 재주(靈材)로 간주된다. 특히 호오(好惡)의 정(情)에 의해 인간은 선행을 기꺼워하고 악행을 기피할 수 있다.(가) 이처럼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동등한 영혼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선악이 교육을 통해 덕(德)을 갖추는 문제 혹은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열등한 성품을 가진 문제와 관련된 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악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된다.(나) 악은 덕의 부족이나 열등한 성품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자유혹논권”⁵⁵⁷⁾에서 유래한다. 즉 선악은 선천적 인식의 문제로, 선악의 실천은 자유의지에 입각한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표상된다.

그런데 『성산명경』은 악의 ‘내용’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성산명경』은 선을 따르게 하고 악을 기피하게 하는 호오의 정이 “교제상에 싱겨난”⁵⁵⁸⁾ 것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교제상에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는 (다)에서 보이듯 삼강오륜 등 기존의 유교적 사회 윤리와 대부분 중첩된다. 『성산명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음부에서 고통 받는 악한 무리’를 살인, 간음, 기인취물(欺人取物), 미신 숭배, 우상숭배, 도둑질을 저지른 자, 후주잡기하는 자, 불충불효한 자, 교만하고 방탕한 자로 규정했다.⁵⁵⁹⁾ 이 악의

556) 『성산명경』이 유·불·도를 포섭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논증 방식에는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려 한 최병헌의 ‘만종일원(萬宗一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는 동양의 전통적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는데, 대체로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조했던 선교 초기 문서들과 달리 최병헌은 동양의 종교적 전통이 기독교와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 신광철, 「탁사 최병헌의 비교종교론적 기독교변증론-『성산명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157-164면.

557) 『성산명경』, 21면.

558) 『성산명경』, 73면.

559) 『성산명경』, 83-84면.

목록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삽입된 새로운 내용이란 실상 우상숭배 외에는 없어 보인다. 반면 ‘천국으로 가는 자’를 통해 제시된 ‘선’의 의미망에서는 보다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천국으로 가는 자’는 구세주를 믿어 인애화평(仁愛和平)한 자, 환란을 인내한 자,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긴 자, 온유하고 순량하며 예수를 좇던 자 등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한 자가 아니라 ‘악을 기피한 자’로 묘사된다.⁵⁶⁰⁾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성은 〈악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을 두고 표상된다.

한편 복선화음의 주재자로 상정되어 있던 전통적 천(天)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매끄럽게 대체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라)에서는 유교적 하늘 개념에 형체로서의 하늘과 만물의 창조자·주재자로서의 ‘상제’가 복합되어 있음을 보이고, 상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논증한다. 선과 악에 각각 복과 양화로써 갚는 주체인 ‘하늘’은 “선악을 심판審判⁵⁶¹⁾하시되 악한자는 디옥 불멸지화 不滅之火에 던지시고 선한자는 텃당락원 樂園으로 보내샤 무궁⁵⁶²⁾한 쾌락을 빚게”⁵⁶¹⁾ 하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즉 복선화음에 대한 전통적 ‘믿음’은 기독교적 신앙의 내부에서도 지속된다.

『성산명경』에서 주목할 바는 악의 형상화 방식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다. 초월적 주체가 주재하는 복선화음에 대한 전통적 ‘믿음’은 기독교적 ‘믿음’으로 계승·지속된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이 동등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은 교육을 통해 덕을 육성하거나 악을 교화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유교적 관점을 배제한다. 대신 인간에게 선악을 좇을 자유가 있다는 관점이 도입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악은 그것을 행할 자유를 가진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사유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죄’와 ‘속죄’는 주체의 관점에서 악을 다루는 새로운 움직임의 반영한 표상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적 ‘죄’의 표상의

560) 『성산명경』, 84면.

561) 『성산명경』, 45면.

특징은 「몽조」와 「월하의 자백」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가) 덩부인이 속으로 생각하되 니가 전심에 죄를 만이 지여 죄가있서 그러한가 전심 후심은 불도에서 중이 말하논것인데 야소교에서도 죄를말하나 니가 이심에서 죄지은일이 무엇인가 죄있다고 하논말에 니가 잘못하야 증남아버니가 아마 도라 갓나 보다 그것이 아마죄가보다⁵⁶²⁾

(나) 이 높은 國家의 亂賊이오 人道의 公敵이오. 萬古에 奸逆으로 이 天地間에 容立치 못홀 높이로다.

아아! 全智全能하시고 萬有의 主人되시는하나님이시여! 이 半島江山에 이 높과 갓흔 兇惡이 잇스오면 聖神의 靈火로 一網撲滅하옵시고 이 世上에서 正義로 하며금 恒常 0悖理를 勝케 하옵소서.

아아 이 半島國 中에 住所를 닐코 도라갈 곳이 업서 流離叫號하논 幾萬의 可憐한 種族이 山野에 遍滿하여습나이다. 아아 하나님이지여. 저 불상한 種族에게 鴻大한 恩惠를 나리우시샤 飢한 者에게 飲食을 주시고 추어하논 者에게 居處와 衣服을 주옵시며 悲哀하논 者에게 깃뵈를 주옵시고 우는 者에게 慰勞를 주시며 渴한 者에게 聖靈의 水를 주시고 惡한 者에게 聖神의 火를 나리우소서.

이 世上에서 一切의 罪惡을 驅逐하시고 地球上에 永遠히 極樂의 天國을 建設하옵소서!!

이 높을 어서 罪惡의 手中에서 滅하시와 永遠한 地獄火에 投하야 주시옵소서.⁵⁶³⁾

「몽조」에서는 양화적 결과를 받게 된 주체가 그 원인을 자신이 저지르고도 알지 못했을 ‘죄’에서 찾아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그려진다. 유학하고 돌아와 사회·정치의 개혁에 힘쓰던 남편 한대흥의 억

562) 「夢潮」 17회, 『황성신문』, 1907.9.6.

563) 장웅진, 「月下의 自白」, 『태극학보』 13, 1907.9., 46-47면.

울한 죽음은 정 부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양화로 받아들여진다. '죄'로 인한 인과응보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인 것이다.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라는 전도부인의 말을 듣고, 정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벌'을 받을만한 '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조경덕이 말했듯 「몽조」의 역점은 '죄'가 아니라 '죄책감'을 가진 주체의 형상을 제시하는 데 있다.⁵⁶⁴⁾ 이러한 의미에서 정 부인의 '죄'는 '회개'로의 연결 선상에 설치된 빈 기호에 해당한다. 정 부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속에 이 몽킨 생각이 다아 푸러지고 근심이 읍깃소”, “잘맞고 구하면 도라갓던 스릅이라두 다시 살아올수가 잇깃소”⁵⁶⁵⁾라고 호소하며 기독교 신앙에 의탁하는 과정은 특이한 전도(顛倒)로 나타난다.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몽킨 생각'과 '근심'이 만일 뚜렷한 원인('죄')에서 비롯한 '죄책감'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이다. 그런데 이 '회개'는 '죄'의 내용과 무관한 심리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심리적 대응은 주체가 '죄'의 내용을 모르거나 심지어 그 내용이 실제로는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다.⁵⁶⁶⁾ 「몽조」에서 '죄'가 고백의 단계에 정지하는 현상은 '죄'가 비어있는 기호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죄'의 내용은 주체가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죄'의 '고백'에 멈추는 「몽조」에 비해, 「월하의 자백」에서는 주체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죄'로 '고백'한 후 '속죄'하는 과정 전체가 형상화되어 있다. 「월하의 자백」의 화자는 '목민(牧民)의 직(職)'을 가지고 학정을 저질러 온 노인이다.⁵⁶⁷⁾ 이로 인해 발생한 민란을

564) 조경덕, 앞의 글, 24면.

565) 「夢潮」 23회, 『황성신문』, 1907.9.14.

566) 이처럼 「몽조」에서 정 부인이 저질렀다고 가정된 '죄'가 실제로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대홍의 죽음으로 상징된 '문명개화에의 실패'를 '민족의 패배'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현실을 '죄'의 대가로 규정하려는 민족주의적 해석(조경덕, 앞의 글, 29면.)이 개입할 수 있다.

567) 조남현이 지적했듯 부패 관리를 주체로 내세우고 그의 내면에 밀착하여 몰락과 참회를 다루는 구도는 개화기 소설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1890~1930』, 문학과지성사, 2012, 134면) 노인 형상을 통해

피해 달아나던 중 노인의 12세 된 어린 아들이 성난 백성의 돌에 맞아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화자 자신은 이 사건을 “惡漢의 狼心蛇恣이 釀出한 結果”⁵⁶⁸⁾, 즉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 서사에서는 인과응보의 실현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데 비하여, 『월하의 자백』의 특이성은 인과응보가 완료된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다. 『월하의 자백』은 주체가 과거의 행동을 ‘국가의 난적이자 인도(人道)의 공적’으로서의 ‘죄’로 규정하고 이를 고백-속죄하는 기독교적 ‘회개’ 과정을 완전히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죄책감’에 의해 추동되는 주체적·내면적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어 전통적인 악의 형상화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선악에 응보가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는 전통적 선악 인식과 기독교적 선악 인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적 ‘믿음’이 새로이 도입한 요소는 인과응보가 실현된 뒤에도 주체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다. 응보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주체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현세에서의 양화로 끝나지 않고 내세에서도 거듭된다고 여겨진 점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죽기 전에 “죄를 속하고 구원함을 얻느니 죄가 업은 후에야 능히 하늘에 갈수가 있”⁵⁶⁹⁾다는 ‘믿음’이 함께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은 복선 화음의 주재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죄’는 그 응보를 다 받기 전에 면제(贖)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아아멘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의게 자알 구하는 스롭은 복을 웃는법이오 하나님의게 몸을밧치시오 몸을밧치면 죄를 다아 사하여

『월하의 자백』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학정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고백을 전면화한 텍스트 상에서 강조되는 것은 ‘악’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죄인’이라는 새로운 형상이다.

568) 장웅진, 앞의 글, 46면.

569) 『성산명경』, 86면.

주시는법이오”⁵⁷⁰⁾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월하의 자백」과 「몽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초월적 주체〉의 형상이다.⁵⁷¹⁾ 근대 초기 한국에 수용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중시하는 영혼 구원적 성격이 두드러진다.⁵⁷²⁾ 이는 종교 의례의 실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적 형식주의를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 내면에서의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프로테스탄티즘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⁵⁷³⁾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양심(良心)’⁵⁷⁴⁾에 비추어 죄인지 아닌지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된다. 중세 교회에서는 이 성찰을 돕기 위해 소죄, 대죄를 명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속 행위를 담은 지침서를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죄’는 주체의 양심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⁵⁷⁵⁾ 이처럼 ‘죄’가 스스로 과거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는 주체의 성찰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죄’는 집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이행한 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악의 필연적 결과를 면할 수 있다는 ‘믿음’ 상에서, 초월자(신)는 정치하는 주체이기보다는 용서하는 주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나타난다.

570) 「夢潮」 17회, 『황성신문』, 1907.9.6.

571) 「월하의 자백」에서 자신을 지옥불에 던져달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 노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죄의 중함을 깊이 깨닫고 있음을 표현하여 회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수사(修辭)의 차원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도 신은 노인의 회개를 들어주고 그 죄의 용서 여부를 결정하는 ‘죄 사함’의 주체로 나타난다.

572) 조재국, 「초기 기독교 수용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신학과 실천』 41, 한국실천신학회, 2014, 508면.

573) 조현범, 「조선 후기 근대적 양심 개념의 도입 경위와 천주교의 역할」, 『코기토』 7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73면.

574) ‘양심’은 본래 유교적 맥락에서 ‘인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그러나 기독교 수용 과정에서 콘쉬엔차(conscientia)의 번역어로 양심이 사용되면서, “천주가 인간의 마음에 부여한 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천주의 계명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인간을 강제하는 내적 성향 또는 고유한 인간 능력”(위의 글, 88면)이라는 어의가 덧씌워졌다. 이는 『성산명경』에서는 영재(靈材), 즉 영혼의 능력이라고 기술되었던 바 있다.

575) 조현범, 앞의 글, 78-79면.

한편 신의 용서(죄 사함)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고 믿어졌다. ‘죄’를 저지른 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실천적 행동”⁵⁷⁶⁾을 통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의 회개는 고백과 속죄(보속)를 통해 신 앞에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⁵⁷⁷⁾ 신소설에서 이는 〈고백-이공속죄(以貢贖罪)〉 구조의 등장을 통해 구현되었다.

(가) **눅고 스랑ㅎ시는 ㅎ나님쫘을 본밧으스 죄악의 침륜한 저의를 도로혀 불상히 녀기스 아모조룩 회기 ㅎ도록 지시 ㅎ시고 쫘지금 청쥬원님이 갓치오신 죠박스 나으리의 아즈씨 벌이되신다던지오 죠박스 나으리가 원님께 간곡히 말쑤을 ㅎ셔々 저의를 즈외로 방송ㅎ야 ㅎ히갓흔 은덕을 넘엇지오 에그 세상에 그런덕턱을 만분에 일분이라도 감즈ㅎ면 저의 들이 그덕에가서 더디로 쫘노릇을ㅎ야도 못다 감흘터이야 요**⁵⁷⁸⁾

(나) **내가엇지ㅎ다가 그런몹슬굴헐에 드러갓던가 항상등에끌 진니갓고 발이차리던 악훈일이지 셤량ㅎ빅성이되여 제힘이밋 논디로 스업ㅎ면 이공속죄(以功贖罪)홀가ㅎ엿더니**
이제김중일씨의 자선심에 감동되여 풍파중에건저넌 리일남은 나를 알고보면 용서치아니ㅎ고 죽을궂으로 보낼사릅이로고나 악형이라도 자복지아니홀이눔의맘이오 **날날이두분의압헤 자 복ㅎ오니 이도적눔의죄를 용서ㅎ시오**⁵⁷⁹⁾

텍스트 바깥의 문화적·담론적 맥락에 의해 주어진 악의 내용을 악인을 통해 표면화하고, 그들에게 닥친 양화·징계를 묘사함으로써 독

576) 존 포트만, 『죄의 역사』, 서순승 역, 리더스북, 2008, 26면: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kapparah는 포로의 ‘몸값(ransom)’, 혹은 ‘보상금(compensation)’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에서 파생되어 후에 속죄라는 신학적 용어로 정착했다. 즉 속죄의 의미론적 핵심은 ‘보상’이다. - 같은 책, 85면.

577) 위의 책, 103면.

578) 이해조, 『고목화』, 동양서원, 1912, 138면.

579) 『금의 갱성』, 유일서관, 1913, 57면.

자를 ‘경계’하려는 것이 신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보이는 태도이다. 그러나 『고목화』와 『금의 쟁성』에서는 악의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태도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목화』에서는 괴산집과 오도령을 정치할 정당성을 가진 ‘복수자’에 가장 가까웠던 권진사가 “조박스의 복음전하는 말을 흐로듯고 이틀들더니 보슈혈 악훈마음이 점々업서지며 괴산집과 오도령이 악훈익빠져 나오지 못함을 돌오혀 불상하야 밝은곳으로 인도하야 영원한 침륜을 면케할 스랑하느마음”⁵⁸⁰⁾을 가지게 되었다고 서술된다. 이처럼 유효한 ‘정치자’가 제거됨에 따라, 『고목화』 후반부에서는 화를 받는 대신 자신의 죄과를 회개한 괴산집과 오도령의 ‘속죄’적 활약이 형상화될 수 있었다.

전통적 형상화 방식에 따르면 악인은 천벌이나 복수 등에 의해 징계되거나 혹은 개과천선하는 결말을 맞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괴산집과 오도령의 경우에 주목할 바는 그들이 단순히 전일의 악행을 뉘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행한 악의 무게에 상응하는 ‘갚음’을 해야 한다는 내적 충동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 방식이다. <개과천선하는 악인>이라는 전통적 형상에 결여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처럼 악을 보상하려는 주체성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목화』의 괴산집, 오도령, 김치문은 물론 ‘선인’ 조 박사까지도 모두 청주집과 권 진사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회개·회과’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는 <속죄하는 악인>으로 나타난다.⁵⁸¹⁾ 위의 인용문 (가)에서 보이듯 괴산집과 오도령의 ‘속죄’는 보은(報恩)이라는 전통적 맥락에도 닿아 있으나, “악훈 형실을그저곳치지 못흐얏슬나고”⁵⁸²⁾라는

580) 『고목화』, 117면.

581) “남의게 적악하기로 회를치던숨씨”(『고목화』, 144면)를 가졌던 김치문은 “그러케 회과를 하얏던지 제몸과 괴산집 걱정은 꿈에도 안이호고 다만 넘려가 청주집구제할 일”(『고목화』, 145면)에 뛰어든다. 조 박사는 과거에 야박하고 경솔하였다가 미국 유학 중 성경 공부를 통해 “전에하던 형실을 낫々치 회지호고 도덕군자가된 사름”(『고목화』, 115면)으로 그려지며, 그의 ‘회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조선덕으로만 스업”(『고목화』, 97면)하는 ‘속죄’적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582) 『고목화』, 139면.

의심 속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청주집을 구하여 자신의 ‘회개’를 증명하는 행동으로 그려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금의쟁성』의 노회심에게서는 고백과 속죄를 통해 회개를 증명한다는 ‘죄’의 형상화 방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회심은 전일 이일남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하여 “히를찌친일”⁵⁸³⁾이 있었다. 그는 이를 후회하여 양민(良民)이 되었으나, “늘 맘에걸녀 잊지호면 이런 죄를면홀고”⁵⁸⁴⁾라는 죄책감을 품고 살아 온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던 중 노회심은 우연히 물에 빠진 이일남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다. 다만 (나)에서 보이듯 노회심은 이일남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김중일의 자선심에 감화되어 그를 구한 것이다. 이일남은 스스로는 자신의 ‘죄’가 ‘선량한 백성이 되어 사업을 하면’ 보상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사 내에서 이일남의 목숨을 위협했던 노회심의 ‘죄’는 이일남의 목숨을 구한 데 더하여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속죄’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고목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기독교적 ‘속죄’의 감각이 뚜렷하게 드러난 지점이라 할 수 있다.⁵⁸⁵⁾

다만 『고목화』를 비롯해 기독교 모티프를 수용한 신소설에서 실제로 온전히 기독교적 표상 체계 속에서 악인(‘죄인’)이 형상화된 경우는 보기 힘들다.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수용 양상을 고찰한 김광순은 기독교 모티프가 드러난 신소설의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예

583) 『금의쟁성』, 58면.

584) 『금의쟁성』, 58면.

585) 『성산명경』보다 현실에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세중』에서 강조되는 것도 회개의 논리다.

586) 김광순은 기독교 사상을 심층적 수준에서 받아들인 작품으로 『성산명경』, 『금수회의록』, 『경세중』, 『고목화』, 『두견성』을 들었다. 김광순은 각 텍스트에서 기독교 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자세한 수용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기독교가 도입한 형상화방식의 특징·구조를 밝히지는 않았다. 위 다섯 작품의 기독교 사상 수용 양상은 김광순, 「신소설 연구: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수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5,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8의 3장을 참고.

- ①하나님이 사롭내실저에 사롭은 다맛창가지々 남녀가 다를거
시무엇잇단말이나(『귀의 성』, 1권, 179면)
- ②그후 숨속만에 세상을 버리고 먼 텃당길을 갔더라(『은세계
』, 3권, 214면)
- ③하나님을 아버지습고 세계인종을 형데갓치스랑호고 야쇼교
를 실심으로 밋는스롭이라 신문을보다가 옥순의남미의게 자선
심이나서 그길로 옥순의 남미를 차자다려다가 몇해던지 공부
홀동안에 학비를디여주마호니……(『은세계』, 3권, 194면)
- ④죄지은 자는 양화를 받고 무죄호사람은 탕척이됨은 소소히
너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리치라(『쌍옥적』, 4권, 532면.)
- ⑤하나님 덕분에 신체가 건강호스 아모걱정이업게 도아줍소서
(『모란병』, 4권, 190면)
- ⑥한곳에 깃드림은 만물을 창조호신 하나님의 죠화로다(『원양
도』, 5권, 237면)
- ⑦감스호신 하느님이 이사롬을 내시미 복선화음호시고 죽는
가온디서 다시사는 리치가 잇스니 우리가 죽고져 호는자는 살
고 살고져호는자는 죽는것을(『명월정』, 8권, 430면)
- ⑧선호자는 하느님이 복으로써갑고 격선호집에 반다시 남저지
경스가 잇겟다(『명월정』, 8권, 487면)
- ⑨들어갈길도업고 방향도업서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호신후에
그 나라에 들어가본 사롬은 결코 업슬터이요(『비행선』, 9권,
240면)
- ⑩마치 하느님이 그두사롬을 위호스 민드신가홀만호더라 (중
략) 감사호신 하느님아버지시여 우리를 도와주시는도다(『비행
선』, 9권, 347면)
- ⑪세상만사에 측량치 못홀일은 하느님의 권능이라(『비행선』,
9권, 351면)
- ⑫죽고살문 하느님이 주심이니 세상에 죽지안는 사롬이 어더
잇겟쇼(『비행선』, 9권, 373면)
- ⑬그싸위 주티 계집을 예수교인의 장례로 지니 준단말인가(『
만인계』, 9권, 525면)

⑭허허 하나님 능력이라논것은 이로치랑키어렵도다 니가 무지
물각호야 범죄를호앗더니 그벌을 주시노라고 그너즈와 혼인을
지내게 인도호스 오날밤에 이광경을 당호도록 호심이로다 니
가 아모조록 복々사과호야 회심을호도록 호리라(『옥호기연』,
10권, 269면)

⑮하늘을 우러러 통곡호여 고평디 거룩호신 하느님은 굽어살
피쇼셔(『완월루』, 10권, 340면) / 하느님은 굽어살피샤 모친
계신곳을 가라쳐 주옵쇼셔……(『완월루』, 10권, 357면)⁵⁸⁷⁾

김광순은 이 구절들을 기독교가 유행 수준에서 파편적으로 반영
된 결과로 보고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볼
때, 이 구절들에서는 대중적 차원에서 통용된 기독교적 악의 표상의
몇 가지 주요 요소가 드러나 있으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구절들은 크게 네 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
해동포주의, 자선심 등 기독교를 사상적·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한 경
우(③), 두 번째는 기독교적 내세관을 언급한 경우(②), 세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전지전능한 초월자라는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하
나님’을 언급한 경우(①, ⑥, ⑨, ⑪, ⑫), 네 번째는 복선화음 주재
자·감응의 대상인 천(天)과 유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경우
(④, ⑤, ⑦, ⑧, ⑩, ⑭, ⑮), 그리고 기타(⑬)이다.

이를 통해 신소설에서 기독교가 주로 전통적 ‘믿음’의 변용이라는
맥락에서 형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
적 악의 표상이 실질적으로 신소설의 서사 구조나 인물 형상화 방
식 상에서 전통적인 복선화음 시나리오를 파괴할 만큼 심층적 영향
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죄’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악의 표상 방식 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서사 내에서 ‘죄’가 주체의 내면성을 돌출시키는 기제
로 사용되는 양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은 변안소설 『장한몽』(『매일

587) 위의 글, 60면. 권수와 면수는 『신소설·변안(역)소설』, 계명문화사, 1987의
해당 부분에 따른 것이다.

신보』, 1913.5.13.~10.1.)이다. 근대 초기 변안소설은 신소설의 강력한 ‘경쟁자’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층을 공유하며 서사 내적 영향을 주고받은 ‘파트너’로 볼 필요가 있으며, 문학사적 관점에서도 후대 소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장한몽』은 ‘신소설에 종언을 고했다’고 표현될 만큼 크게 유행하면서 『무정』을 비롯한 근대소설사 초기의 장편소설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컨대 이광수의 『재생』은 서사 구조부터 세부적 모티프까지 『장한몽』과의 공통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기도 한다.⁵⁸⁸⁾ 변안소설을 경유하여 근대적 장편소설의 형식이 세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장편소설을 소화할 수 있는 독자층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논의나, 변안소설을 통해 대중화된 새로운 감수성의 문제에 주목한 논의 등은 ‘이후의 소설들’의 발생을 가능케 한 토양으로서 신소설과 변안소설이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입증한다.⁵⁸⁹⁾

저본인 『금색야차』를 나란히 놓고 볼 때 『장한몽』의 변안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적 색채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금색야차』에도 간이치에게 보낸 미야의 사죄 편지에 ‘죄’, ‘죄의 대가’, ‘참회’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과거의 행동을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자유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등 기독교적 ‘죄’ 개념과 연관된 수사들은 존재한다.⁵⁹⁰⁾ 그러나 『장한몽』에서 기독교 모티프는 인물 형상화

588) 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 춘원연구학회, 2012, 309-310면.

589) 변안소설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변안소설을 통해 세련된 근대적 장편소설 형식(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 2011)이나 근대 소설 독자층의 형성(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 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변안소설을 통해 대중화된 새로운 감수성(원식,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임형택·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한기형,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권보드래, 「죄, 눈물, 회개-1910년대 변안소설의 감성구조와 서사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에 주목한 연구 등이 있다.

590) 최태원, 「일제 조중환의 변안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3-54면.

방식이나 고백-속죄라는 특유의 서사 구조의 부각에 이르기까지 심층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장한몽』에서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은 고리대금업자 김정연의 아들로 김정연을 회개시키기 위해 애쓰는 예수교 전도사 김도식과 ‘회개’의 논리로 심순애와 이수일을 설득하는 백낙관이다. 기독교 윤리를 내면화한 이들은 텍스트 내에서 황금만능주의로 상징되는 근대 사회의 부도덕을 비판할 권위를 가진 도덕가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인물의 도덕적 권위를 기독교에 의탁하여 형상화하는 방식은 『금색야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⁵⁹¹⁾ 이처럼 변안 과정에서 기독교적 뉘앙스가 강해지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근대 초기 기독교가 상징체계에 끼쳤던 광범위한 영향력과 함께 미션스쿨(경성학당)에서 수학했던 조중환의 이력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⁵⁹²⁾

심순애의 형상화 방식에는 기독교적 ‘회개’와 ‘속죄’의 개념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갈등하고 번민하는 주체, 죄책감을 안고 속죄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춘 『장한몽』은 신소설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악인의 복잡한 내면을 제시해 보였다. 특히 심순애는 근대 장편소설에 가까운 분량을 가진 『장한몽』의 주요인물로, 형상화의 두께 면에서 『장한몽』보다 적은 분량에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경향이 큰 신소설의 악인들을 능가한다. 이 때문에 심순애를 통해 형상화된 악의 층위를 ‘흠’과 ‘허물’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콴르는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행위가 ‘흠’, ‘죄’, ‘허물’이라는 세 가지 기원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는 악의 ‘일차 상징’으로서

591) 이경림, 『『장한몽』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2면.

592) 조중환의 생애는 현재 부분적으로 추적해볼 수 있으나 그 전모가 모두 밝혀져 있지는 않다. 확인되는 주요 이력 중 하나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어 전문교육 학교였던 경성학당을 졸업한 것이다. 경성학당은 일본과 한국 양측에서 지원을 받는 신식 사학(私學)이었으며 미션스쿨이기도 했다. - 박진영, 「일제 조중환과 변안소설의 시대」,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204-206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로부터 후자가 변화되어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행동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은 포개져 나타날 수 있다. ‘흠’은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부정탄 데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걸 씻는 제의”⁵⁹³⁾로부터 기원하는 표상이다. ‘흠’ 의식은 절대자와 개인 사이에 맺어진 (윤리적) 계약 관계와 그것의 위반을 전제로 작동하는 ‘죄’ 의식⁵⁹⁴⁾, 그리고 ‘죄’가 내면화된 것으로서의 ‘허물’ 의식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⁵⁹⁵⁾ 이 세 가지 차원의 차이를 칼 심스는 “흠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죄는 내가 (신에게) 비난당하는 것, 허물은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⁵⁹⁶⁾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던 바 있다.

‘죄’가 절대자와 주체라는 2자 관계를 요구하는 반면, ‘허물’은 주체와 그 양심이라는 1자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비해 ‘흠’은 ‘흠’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라는 2자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표상이다. 어떤 인간에게 묻은 상징적 더러움(‘때’)이 ‘흠’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고 꾸짖는 남의 이목이 필요하다. 또한 ‘흠’은 ‘불순(不純)함’, ‘부정(不淨)함’과 접촉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제의(祭儀)를 요구한다. 이처럼 제의적 청소의 대상이기 때문에 ‘흠’은 악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⁵⁹⁷⁾

리콤피르의 논의를 참조해보면, 심순애의 ‘악’에서는 오히려 신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기독교적 ‘죄’의 성격보다 ‘흠’과 ‘허물’의 성격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장한몽』에서 심순애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신이 아니라 이수일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후술하겠으나 바로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심순애의 ‘회개’에서는 종교성이 제거된다.

593) 폴 리콤피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지성사, 1994, 37면.

594) 위의 책, 60면.

595) ‘죄’와 ‘허물’의 차이는 ‘죄’가 객관적인 범함인 반면 ‘허물’은 주관적 가치 상실이라는 점에 있다. - 위의 책, 132면.

596) 칼 심스, 『해석의 영혼 폴 리콤피르』, 김창환 역, 엘피, 2009, 56면.

597) 위의 책, 45-56면.

『장한몽』에 형상화된 심순애의 악에는 ‘흠’과 ‘허물’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겹쳐져 있다. 그런데 ‘허물’이 주체와 그 양심이라는 1차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죄책감의 해소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반면, ‘흠’은 제거되기 위해서 ‘정화’라는 별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심순애의 ‘허물’ 의식은 정이 깊게 들었던 사이인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를 선택함으로써 생겨난다. 따라서 김중배와의 혼인을 수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근심의 병’ 수준으로 나타나던 그녀의 ‘허물’ 의식은 김중배와 혼인하는 날을 계기로 심화되는 것으로 그려진다.⁵⁹⁸⁾ 그러나 4년 후 이수일과 재회하기 전까지 심순애의 죄책감은 해소해야만 하는 충동으로까지 커지지 않는다. 우연히 박보국의 집에서 이수일과 마주칠 때 심순애가 여전히 금비녀, 금반지, 금귀이개와 금강석 반지 등 ‘화려히 단장하고 극진히 사치한’ 차림새로 나타난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시점까지 그녀의 ‘허물’ 의식은 ‘잊으려 하여도 잊지 못하고 은근히 마음을 태우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녀는 혼인 후에도 김중배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수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 하지만, 이 의지는 ‘재물을 욕심하는 마음’과 ‘부모의 권하는 바’를 이길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⁵⁹⁹⁾ 즉 ‘수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버렸다는 ‘허물’ 의식은 주체를 ‘근심’하게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⁶⁰⁰⁾

598) “대례를지니는날에도, 얼굴에는성적하고, 원삼당의로, 초례청에서々, 김중비와이성지합의, 큰례를일울써찌지도, **가슴속에는, 니가김중비의, 안히라흔는마음은조곰도엮고**, 다만부모의명령을, 억이기어려워, 이려히게되얏스나, 외양으로는, 비록허락흔것갓홀지라도, **마음싸지논, 결단코, 허락흔지안이히리라결심하얏더라**” - 『장한몽』 46회, 『매일신보』, 1913.7.3.; “대례를일운날부터, 순이는더욱, **조귀의허물을뉘웃치며**, 비록정식으로, 레는일우엇슬지라도, 김중비에게, 마음을허락흔남편으로논아지못혼다” - 『장한몽』, 47회, 『매일신보』, 1913.7.4.

599) 『장한몽』, 46회, 1913.7.3.

600) 심순애는 대례를 올린 후 매일 밤 모란대 아래 영명사 앞 부도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수일의 평안을 축원하는 속죄 행위를 한다. 이는 김중배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는 작은 속죄 행위다.

그러나 박보국의 집에서 이수일과 재회하면서부터 그녀의 ‘허물’ 의식은 점차 커져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 충동으로 변화한다.

그러키에나논, 어머니찌이론호고슈일씨를, 엇더케든지호여
서, 집으로, 다시와서잇게호얏스면, 도켓셔요, 지금썻지는
어디잇논지, 잇논곳을몰나셔, 그리호얏거니와, 지금은알앗스
니, 아버지찌셔가보시고, 다시, 드려오도록호얏스면, 도켓셔요
잇논곳을알면셔도, 우리논, 모로논체호고잇스면, 우리가, 인정
업논사롭이안이되오, 그렇게만, 어머니아버지가호여주셧스
면, 나논지검죽어도, 원이업겜셔요⁶⁰¹⁾

심순애는 고리대금업이라는 ‘부정한 영업’을 하는 처지로 전락한 이수일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불러일으킨 결과를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커진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순애는 먼저 부모에게 이수일을 어떻게든 다시 거둬들여달라고 호소한다. 인용한 위 대목에서 그녀의 ‘원’이란 자신으로 인해 후견인 과도 절연하게 된 이수일의 처지를 전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심순애는 먼저 자신으로 인해 관비유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와 출세할 기회를 잃고, 사회의 멸시를 받는 직업을 선택한 이수일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켜 줄 방도를 모색한다. 심순애의 죄책감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그가 추락했음을 실감한 데서 커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수일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이수일의 장래를 기탁함으로써 잠시 부담감을 덜었던 심순애는 ‘오륙 년을 두고 정결히 가지던 몸’을 김중배에게 빼앗기고 만다. 이는 그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수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자위하며 억누르고 있던 ‘허물’ 의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시점에서 ‘허물’ 의식은 “죽는

601) 『장한몽』, 52회, 1913.7.10.

것으로써, 전일죄를, 속흐”⁶⁰²⁾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진 충동으로 존재하며, 결국 심순애는 대동강에 투신하게 된다.

이상의 궤를 따라 자살을 도모할 정도로 커진 심순애의 ‘허물’의식은 ‘회개’를 통해 해소된다. 『장한몽』에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그 어의 상 심순애의 잘못을 절대자 앞에서 개인이 고백하는 ‘죄’에 접근시키지만⁶⁰³⁾, 실제로 텍스트 내에서 ‘회개’는 절대자와 개인이라는 종교적 관계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심순애의 내면에서 수행·완결되는 폐쇄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순의씨—잘싱각흐얏소, 잘회기흐얏소, 비록리슈일이
가, 용서치안이흐며, 또논이빅락관이가,용서를하지안이흐드
럭도, 그더의, 이회기로인흐야, 스스로즈기의므옴은, 용서
홀줄노아오」(중략)

「즈기의므옴으로라도, 용서를받는것은, 남에게용서를, 밋지
못흐느니보다는, 얼마금나을는지, 아지못흐는일이오, 또논스
스로, 즈기므옴의용서를받는것은, 남에게, 용서받을장본이
원다⁶⁰⁴⁾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장한몽』은 ‘회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심순애의 ‘회개’는 심순애 스스로 자신의 ‘허물’로부터 벗어난다는 상징일 뿐 하나님이나 백낙관은 물론

602) 『장한몽』, 66회, 1913.7.27.

603) 리콕르의 표현을 빌려 권보드래는 『장한몽』을 포함한 1910년대 변안소설에서 보이는 감성구조를 ‘허물’에서 ‘죄’로의 진화로 독해했던 바 있다. 욕망이 보편화된 세계에서 인물들은 모두 욕망으로 인한 ‘죄’를 범할 가능성을 타고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죄’가 생겨난다. 이러한 소설에서 주인공은 수동성과 무력성에 의해 ‘죄’를 순결로 전도시키려하며, 이를 실현시키는 문법은 ‘죄’ 지은 자의 회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권보드래, 「죄, 눈물, 회개-1910년대 변안소설의 감성구조와 서사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다만 본 논문은 『장한몽』의 경우 심순애의 ‘회개’는 리콕르가 말하는 ‘죄’보다는 ‘허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604) 『장한몽』, 68회, 1913.8.1.

이수일의 ‘용서’를 받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순이의 회개는, 순이의 일이에요, 내에게야 조금인들, 무산관계가, 잊겠는가”⁶⁰⁵⁾라는 이수일의 말에서도 다시 드러나듯 『장한몽』에서 ‘회개’는 주체와 양심이라는 1차적 관계 속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수용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즉 심순애의 ‘회개’는 리콴드가 말하는 ‘허물’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허물’ 의식에서 주체가 벗어났음을 스스로 표명하는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

「령감이토록, 저논회기를흐얏는디…………이전순의로만, 생각흐시고, 조금이라도도아주소요, 잊지흐면, 요흔논지방범을가라쳐주소요」 (중략)

「여보순이씨그디의흐논말은, 모다니가즈서히, 알아드렸소, 결단코억지의말이, 안인줄로나도아오, 아모조록, 조흔방법이잇스면, 가라쳐주소서, 순이씨의몸에유익훈일이잇도록흐여드리고, 십흔마음이, 엽논것은안이지만은, 그말을, 가르치지못흐다흐논것은, 니가만일순이씨의몸이되엿스면, 이러케흐겟다고싱각흐겟지만은, 그말은, 잠간말흐슈업소, (중략)

「아이고령감잠간만기다려주소요」

흐며순이논, 빅락관의, 두루막이자락을, 붓들고, 밋여달닌다

「그러면니몸은잊지흐면죠틈습니가」

「결심흐기에달엿지」

흐며빅락관은, 비로서, 가라쳐쥬는것갓치말흐마되룰일으고가려흐논것을순이논오히려웃자락을놋치안이흐며

「결심이라논것은, 잊지흐논것이온니가」

「싱각흐여보면알일이지」

흐며, 순이의, 팔을뿌리치고, 디동문안으로, 향흐여, 들어간다⁶⁰⁶⁾

이러한 맥락에서 심순애의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익

605) 『장한몽』, 77회, 1913.8.13.

606) 『장한몽』, 70회, 1913.8.3.

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백낙관의 발화는 '회개' 만으로는 심순애의 잘못을 해소할 수 없다고 심순애와 독자에게 공표하는 말로 독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순애가 '회개'를 하였지만 백낙관이 그녀를 '예전의 순애'로는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악'의 다른 차원을 암시한다.

용서하여달나하면, 용서하여주지 쏘는니가, 용서하지안는다
 하여도, 발서스스로, 용서를받은사람안인가, 제가회기를하
 였다하니, 회기하얏스면, 더욱쫓치, 회기하얏스니용서하여달
 나눈말이나, 니가입으로용서하여주마하기로말하마디가무슨
 필요가잇나, 그말이오느날, 리슈일과 순이스이에, 무슨영향이
 잇슬슈가잇나, 회기하얏다하기로, 너즈의흔번더럽힌몸이다
 시회복될일도안이오, 니가용서하여주마하기로, 김중배에게
 로, 가지안이하얏던전일순이는, 뭇슈업지, 그러나리슈일이
 라하는사람은, 십년전, 이십년전리슈일이로, 쪼곰도다름이, 업
 는사람이다⁶⁰⁷⁾

이수일은 심순애가 '스스로 용서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도 '여자의 한번 더럽힌 몸'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냉소한다. 이를 여성의 순결을 둘러싼 강박적 이데올로기가 구현된 결과로 독해할 수도 있으나⁶⁰⁸⁾, 여기서 '여자의 한번 더럽힌 몸'은 항상 '김중배에게로 가지 않았던 전일 순애'와 겹쳐져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특히 뒤의 대목을 함께 읽어볼 때, 순결의 훼손 자체보다는 이수일은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심순애만은 '예전과 다르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시된다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607) 『장한몽』, 81회, 1913.8.15.

608) 심순애가 혼인한 상태에서도 '순결'을 고수하는 설정이 강제병합 이후 민족성을 사수하려 하는 당대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여성의 신체에 투사한 결과라고 보거나(한광수, 「日本近代小説の韓國における醜案に関する研究: 『己が罪』・『金色夜叉』・『捨小丹』について」, 센슈대학교(専修大) 박사학위논문, 1995), 당대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적 생활 윤리의 반영으로 보는 견해(권두연, 「『장한몽』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가 있다.

이처럼 이수일이 심순애를 ‘예전의 순애’로는 보지 못하게 하는 악의 차원은 ‘흠’이다. ‘흠’의 표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누군가가 ‘봄’으로써 구성된다는 점이다.

순이는, 한번 가슴에받은 **허영(虛榮)의 밋옴**이, 히로쫘츄, 점々성
 햏야, 낫이던지밤이던지, **헝상쑤꾸는것은, 허영심(虛榮心)**이라,
 지금이라도, 귀(貴)헝고부(富)헝고, 명망(名望)잇는사름이, 나를
 마지려, 옥교(玉轎)를보니여, 다려가고져햏는, 인연이, 반드시도
 라올줄을밋엇더라, 그럼으로, 슈일이가순이를, 사랑흠과꺏치, 순
 이는슈일을사랑치못흠은, 모다이와꺏흔, 헛된싱각을, 잊지못햏는
 쑤둑으로인연흠이라, 그러나결코, 슈일을실혀햏야, 반디흠은안이
 오, **헝상싱각햏기를, 슈일과꺏흔, 정다운남즈와, 평싱을지니이면**
그가댕의즐거움이, 엇더타말홀수업스리라햏야, 한편으로논, 허영
의악마(惡魔)를, 싱각햏면셔도, 슈일의위인을, 사랑햏기를마
지안이햏며, 슈일의밋옴에논, 더순이는, 나를사랑햏는외에논, 그
 가슴속에다른물건은, 한아도업논줄로, 싱각햏엇더라⁶⁰⁹⁾

심순애는 자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깨닫고 ‘남자가 재주와 학식으로 입신하듯 여자는 자색(姿色)으로 부귀를 얻을 수 있다’⁶¹⁰⁾고 믿는 ‘허영심’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 ‘허영의 악마’는 ‘수일의 위인을 사랑하기를 마지않는’ 태도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이수일의 지위와 재산이 김중배를 능가했다라면 이 ‘허영심’은 심순애의 내면에서 드러날 일 없이 충족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헝고, 내가또한가지, 싱각햏는일이잇지, 그사름이, 나의
 게햏는것이, 셔어홀제마다, **나를업슈히녀여셔, 그리햏나햏는**
싱각이나지, 나는 이집에, 붓쳐잇는사름이라, 이를터이면, 속
 담에테릴사위라햏닛가, 나를, 업슈히녀이는가햏는싱각이, 일

609) 『장한몽』, 7회, 1913.5.20.

610) 『장한몽』, 6회, 1913.5.18.

다, 만일나를데릴사위라고, 업슈히녀일것갓흐면, 처음부터, 사위로딩홀일이만무흐지, 그러흐기로, 흥상그사름의게, 핀잔을 먹지, 조금이라도, 그눈치로말을흐면, 그사름은대단히, 로여워흐는것을보아도, 나를저의집데릴사위라고흐여서, 멸시흐지안는 일은, 분명흐다, 스스로내가내싱각을흐야도, 즈격지심으로그러흐것이분명흐다, 오히려내가그런싱각을흐는것이, 어리석다, 그러나, 만일더사름의므옴속에, 추호(秋毫)만치라도, 나를그러케, 디점흐는것이보이면, 옥황상제(玉皇上帝)의쫓이, 안히가되엿슬지라도나논, 그인연은끈어브리고, 말터이야사나희즌식으로, 흥동을, 결백(潔白)하게흐지! 나논, 인정(愛情)의스로잡힌자논되엿슬지언명, 결단코, 인정의노레(奴隸)가될므옴은아조업다⁶¹¹⁾

한편 이수일은 데릴사위라는 보잘것없는 처지 때문에 심순애가 자신을 업신여긴다면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했던 바 있다. 문제는 심순애의 허영심이 결국 이수일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다는 점이다. 즉 심순애의 허영심을 ‘연애라 하는 신성한 물건’⁶¹²⁾에 묻은 ‘흠’, ‘예전 순애’에게 묻은 ‘흠’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수일이다. 그녀의 허영심이 김중배나 부모님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이수일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한다. 이수일은 ‘이전 순애’, ‘사년전에 있던 순애’, ‘심택의 딸 순애’⁶¹³⁾라는 말로 “결단코이세상에물들지안이”⁶¹⁴⁾했다고 여겨지던 심순애를 호명하는

611) 『장한몽』, 12회, 1913.5.25.

612)련이(戀愛)라흐는것은, 신성(神聖)호물건이라, 이째에, 순의의가슴가운데에 잇는, 전과갓치비루호희망은, 즈초도업서젓스니, 그어업분눈에는, 다른물건은, 보이논것이업고, 다만리슈일의잠든얼굴을향흐야, 부와귀와, 너지리욕의므옴은, 그무릅에, 씨닷는뺏듯호귀운에, 록아업서지고, 황홀히꿈결갓하야, 취호듯씨논듯, 안자있다 / 그녀즈의, 제반망상(妄想)은, 봄희에눈록듯업서지고, 한집안한방안에, 다만두사름이, 이세상의호울노광명(光明)을엇음갓다 - 『장한몽』 8회, 1913.5.21.

613) 『장한몽』 45회, 1913.7.2.

614) 『장한몽』 14회, 1913.5.28.

것이다. 따라서 심순애의 잘못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허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이수일이 보는 ‘흠’이 씻겨나감을 그에게 직접 증명해보일 필요가 발생한다.

(가) 그디가, 아모짓을호드리도, 그디에게디호니한은, 결단코, 잇지안이호리라고, 밍세를호엿소, 아모리밍세는호엿지만은, 이와갓치, 무참호죽음을, 내눈으로보고나니, 미음던미음도 업서지고, 한되던싱각도, 살아갓소, 여보순익, 이제는용서호엿소, 니가진심으로, 용서호엿소⁶¹⁵⁾

(나) 김중비에게로, 식집갓던순익는, 임의죽어업서지고, 지금여기, 나와한가지로잇는, 순익는, 다시부활(復活)호여, 결빅호순익인고로, 죄도업고, 허물도업서진, 심턱씨의꼴로피츠에우리가서로, 스랑호던심순익가, 다시되얏스니, 전에는근심호던일은, 모다이저바리고, 하로밧비병이, 평복될싱각을호오⁶¹⁶⁾

심순애는 투신 이후 평양을 등지고 서울 친가로 들어와 수일에게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수차례 편지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지만 이수일은 원한을 풀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날 심순애가 용서를 바라며 두 번이나 자살하는 꿈을 꾸 후에 이수일은 (가)와 같이 생각한다. 그의 꿈에서 이 대목 이후에 심순애의 시체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백합꽃으로 변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꿈속의 죽음은 심순애가 정화(淨化)되었음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수일은 심순애의 ‘무참한 죽음’이라는 증거를 묵도한 후에야 진심으로 심순애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흠’은 그것을 가진 자와 보는 자라는 2자 관계를 요구하는 표상이므로, ‘흠’의 씻겨나감도 그것을 보는 자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615) 『장한몽』 92회, 1913.8.28.

616) 『장한몽』 108회, 1913.9.30.

서사 내 현실에서 ‘무참한 죽음’은 심순애의 성광(成狂) 모티프를 통해 재등장하며, 이수일과 직접 대면하고 용서 받음으로써 그녀의 ‘흠’의 제거는 완결된다. 그리고 ‘흠’을 씻은 주체는 이수일의 시선에 의해 ‘심택 씨의 딸’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에서 이수일이 ‘죄도 없고 허물도 없어진’ ‘피차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던 심순애’가 다시 되었다고 선언할 때의 ‘죄’는 ‘흠’에 대응한다.

심순애는 악을 규정·수리·대응하는 주체적 과정을 심리의 극적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장한몽』은 변안 과정에서 전통적 복선화음의 감각에 기대어 비극적 뉘앙스가 강했던 『금색야차』의 결말과 달리 심순애와 이수일의 행복하고 희망찬 후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전근대 소설은 물론 신소설과도 비교해볼 때 『장한몽』의 표면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전례 없이 복잡한 내면을 가진 악인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복선화음 구조는 이 새로운 악인을 소개하기 위해 소용된 틀이라는 부차적 위상으로 물러난다.

근대 초기 소설에서 악이 정치자가 아닌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야기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악이 그것을 저지르는 자의 심리·정서의 차원에서 포착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물의 내면이 진폭과 변곡을 가진 비균질적 입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사건의 연쇄뿐만 아니라 심리의 드라마라는 새로운 차원을 부각시킴으로써, 『장한몽』은 근대 초기 악의 형상화 방식에 유의미한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2. 이성과 감정의 주체: 합리적 악인과 속죄의 역학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은 일정한 스펙트럼 내에 펼쳐져 있다. 신소설이 근대 이전 소설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서사구조, 인물, 배경 설정 등을 포괄하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에 대하여 신소설은 부분적 거부·부분적 수용의 전략을 택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배경을 현대화함으로써 성취되었고, 후자는 현대화된 배경 위에 나머지 ‘관습’을 엮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악의 표상 역시 비교적 유사한 전략을 통해 변용된 결과, 신소설에서는 악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style)보다는 새로워진 배경에서 (재)발견된 새로운 악(subject)을 예시하려는 열망이 더 크게 나타난다. 악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 신소설보다는 변안소설이나 유학생 소설에서 도드라진 점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에서 뚜렷하게 벗어나는 신소설이 이인직의 『귀의 성』이다. 『귀의 성』에서는 전근대 소설의 ‘관습’에 의식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전도시키려는 태도가 매우 도드라진다. 『귀의 성』은 재물·지위에 대한 욕심이라는 ‘익숙한’ 종류의 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형상화해 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멀리 떨어지려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신소설과 달리 새로운 악을 예시하려는 경향이 아니라 ‘익숙한’ 악을 새롭게 말하려는 태도가 돋보이는 것이다. 『귀의 성』에서 이 태도는 악인에 대한 정치자 역시 ‘악인’으로 설정한 데서 특히 도드라진다.

『귀의 성』(『만세보』, 1906.10.14.~1907.5.31.)은 악인을 ‘복수자’로 변모시킴으로써 전통적 복수 모티프를 ‘속죄’라는 기독교적 모티프에 가깝게 변용한다.⁶¹⁷⁾ 이 점속에 의해 『귀의 성』에서는 점

617) 다만 논의에 앞서, 『귀의 성』에 나타나는 ‘속죄’적 구조가 기독교를 직접 수용한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인직의 장례가 ‘평일 신앙하던 바 천리교식’으로 행해졌다는 점(『李仁植氏別世』, 『매일신보』, 1916.11.28.; 『李仁植氏의 葬儀』, 『매일신보』, 1916.12.2.), 1909년 7월경 도일(渡日)이 ‘숭종교(崇宗教)의 취지목적’을 가졌다고 보도되었던 점(『대한매일

순, 강동지, 침모 등의 악행과 속죄를 이성과 감정의 양 축을 통해 해부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앞 절에서 다루었던 소설들이 주로 죄의식을 둘러싼 마음의 움직임(心理)에 주목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귀의 성』의 가장 큰 특징은 복선화음(福善禍淫)이라는 전통적 시나리오를 파탄시켰다는 데 있다. 『귀의 성』에 형상화된 ‘하나님’이나 ‘칠성님’ 등의 신은 복선화음을 주재하는 초월적 주체로, 이러한 표상이 전통적 악에 관한 인지구조와 기독교적 인지구조의 중첩지점에 있음은 앞서 논했던 바와 같다. 특이한 점은 서사의 전체 맥락에서 초월자가 주재하는 복선(福善)이 부정된 반면, 화음(禍淫)은 신을 믿지 않는 인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는 데 있다.

(가) **호느님々々々**

인간에길순이잇는줄을, 아르십넛가

길순이잇는줄을아르시면, 길순의죽는것드, 으르실터이지……

전성에무슨, 궤를짓고, 싱겨느셔, 이성에, 이서름을진, 히고,
저승으로가는지……

미련한인간이라, 제가제궤를모를터이나길순의음에는, **길순이**
가, 아무궤도업습니다어지신, 호나님이, 인간만사를, 굶어
보시고, 짐죽이게실연마는, 엇지호야 길순이논, 이지경에,

신보』, 1909.7.28.), 일본인 아내가 천리교 신자였다는 점(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152면; 류민영, 「한국회곡사 연구 1」, 『연극평론』 6, 한국연극평론가협회, 1972, 28면.) 등에 의거하여 이인직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는 천리교(天理教)라고 알려져 있다. 입문 시기는 대체로 1900~1903년 일본 도쿄정치학교 유학 및 『미야코(都)』 신문사 견습 시절로 추정된다. 천리교는 1838년 나카야마 미키가 창시하여 메이지 말기에는 신도 수가 300만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세를 확장한 일본의 대표적 민중종교로, 그 교의의 특징은 절대신에 의한 인간 구제, 인간의 평등, 개인의 즐거운 삶이라는 ‘낙관적 현세주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천리교가 표명했던 평등한 인간관과 부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관은 당시 막번제(幕藩制)를 지탱하던 이에(家) 제도와 수직적 신분질서를 겨냥한 사회개혁적 사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조현범, 「천리교의 교리적 특성과 역사」, 『한국종교학회』 44, 한국종교학회, 2006, 120면.) 이와 관련하여 이인직의 사회철학을 천리교 교리와의 연관 속에서 해석한 연구(박선영, 「이인직의 사회철학과 ‘친일’의 함의」, 『사회와 역사』 89, 한국사회사학회, 2011)가 있으나, 이인직 신소설과 종교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르게 하시는지……618)

(나) 오냐죽지말고, 참아보자, 천리가, 잇스면, 꺾엿는길순
이가, 몬삭흔비를떨고, 우물귀신되려는거슬흐는님이굽어보
고도아주지아니홀, 리치가엿슬거시라⁶¹⁹⁾

(다) (침모) 어머니가, 고싱하시느싱국을하면, 니가스람을,
쳐죽이고, 도적질이라도하여다가, 어머니고싱을면하게, 할도
리가잇스면, 흐고십소

(로파) 이이그러한싱국, 마러라제가잘되려고, 스람을엇지죽
인단몰이나

(침모) 낙동장신, 리경하, 논, 어진도, 닥그러난, 예수교인을
십이만명이느, 죽였다논디, 엿지하여, 그런악독한스람의게,
벌력이엿섯스니, 원일이오

(로파) 이이, 네몰이, 이상한몰이로구느

제가잘될경륜으로, 스름죽이고, 당장에벌력을입어서, 만리
타국, 감옥서에서, 열두히, 증역하고잇는, 고영근의몰은,
못듯고, 스십년전에, 지느간일을, 몰하느거시이상하고느, 리
경하, 논, 제가스름을죽였다더냐

나라법이, 스름을죽였지

나라에서, 무죄하고, 착한스름을, 몬히죽이면, 그나라가,
망하느법이오, 스름이, 간악한피로스름을죽이면, 그스람이
벌력을입느니라⁶²⁰⁾

『귀의 성』에서는 ‘하나님’, ‘칠성님’, ‘부처’(다-노모) 등 각 인물에 따라 다양한 초월적 주체가 호명된다. (가)와 (나)에서 길순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니 ‘어지신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주리라는 ‘믿음’을 표명하고, (다)에서 침모의 맹인 노모는 ‘간악한 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벌력을 입는다’는 ‘믿음’을 표명하며 침모에게 길순

618) 『귀의 성』 상, 41면.

619) 『귀의 성』 상, 48면.

620) 『귀의 성』 상, 117-118면.

을 죽이는 계획에서 빠져나오라고 호소한다. 즉 서사 내 여러 인물은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화를 입는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표명한다. 그런데 서사는 길순을 무참하게 죽음으로써 이 ‘믿음’을 부정해 보이는 한편으로, “사름을, 죽이고, 벌력을입으려면, 낙동장신, 리경하는, 놀므다벌력몬입다므릿게오……”⁶²¹⁾라며 드러내 놓고 이를 불신하던 점순을 통해서는 화음(禍淫)을 구현하는 모순적 전개를 보인다.

『귀의 성』은 길순의 죽음을 통해 복선화음의 이치인 ‘천리(天理)’를 부정하는 대신 무차별적인 ‘팔자’가 지배하는 세계관을 드러낸다.

우리갓훈상사름이, 슈절이니괴절이니, 그싸위소리느, 햏여무
엇햏느냐, 어더던지, 고 싱이느아니햏곳으로보니쥬마, 느느
사위덕도바라지아니햏다사름만착썰햏면돈햏푼업느 (乞人)겉
인이라도, 겨관업다

(길순) 어머니그말마오, 조은일도팔자에테고나고, 햏한일
도, 팔자에타고느느, 거시니, 니팔자가조햏것갓햏면, 김 승
지집에가셔도, 죠햏거시오, 햏햏것갓햏면어더를가기로그팔
자, 면햏슈잇소

또사람의햏실은, 본상으로의논햏거시오니오, 사족의부너르
도, 제므암부정햏사름도, 잇슬것시오, 불상년, 이라도, 제므암
정열햏사름도, 몬햏터이니, 느느오무리, 시골구석에사느, 상년
이라도, 두번세번, 시집가기느실쇼

시집에가셔조햏일이잇던지, 햏햏일이잇던지, 갈길은햏로뵈
비가고십쇼⁶²²⁾

위의 대목에서 길순은 김 승지를 포기하고 개가하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하며 그 이유를 가장 먼저 ‘햏실’이 아닌 ‘팔자’에서 찾는다. 좋은 일과 햏한 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햏동을 취하든 팔자에 따라 햏햏해지기도 하고 불햏해지기도 햏 것

621) 『귀의 성』 상, 113면.

622) 『귀의 성』 상, 13-14면.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팔자’의 관점에 따르면 복이 선의 결과로 이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禍)는 악의 결과로 이해될 수 없다. 인물이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래의 일은 초월적 인과율과 무관하게 닥쳐오는 개별적 사건들로 경험된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하느님’과 ‘천리’에 희박한 희망을 걸었던 길순에게 비참한 결말을 가져다준 『귀의 성』의 서사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여기서 ‘팔자’란 선과 악이 그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결과와 단절된 채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empirical) 세계의 구성 원리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천리’가 상징하는 ‘당연(當然)’에 대조되는 ‘우연(偶然)’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귀의 성』에서는 복선화음의 서사구조 뿐만 아니라 ‘믿음’도 논리적 파탄을 맞게 된다.

수잔 니먼에 따르면 보편적 이성, 역사, 신과 같은 초월적 주체를 상정한 사유 체계는 인간이 경험하는 혼란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악과 선은 각각 불행과 행복의 원인이 됨으로써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인과율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종류의 초월성도 거부하고 개별적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험적 세계에서, 악은 초월적 인과율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합리화의 계기를 잃는다.⁶²³⁾ 이러한 태도에 의해 『귀의 성』에서 길순이 겪는 곤경은 미덕을 드러내고 복을 얻는 계기인 ‘시련’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곤경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형상화됨으로써 경험적 세계관을 미학적으로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⁶²⁴⁾

623) Susan Neiman, 앞의 책, 109-112면.

624) 18세기 서구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섭리(providence)’라는 개념은 선과 행복, 악과 불행을 인과관계로 주장하고 덕과 행복의 관계가 순전히 우연적일 수 있다는 발상을 거부했다. 경험들의 우연성, 불규칙성, 불완전성을 수용한다는 것은 섭리가 존재하는 조화로운 세계, 인간 경험의 양 극단인 선과 악이 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wholeness)로서의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책, 141-147면 참조.

『귀의 성』은 선악의 인과를 부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덕(德)=선(善)’/‘부덕(不德)=악(惡)’⁶²⁵⁾이라는 전통적 도식을 ‘힘’의 도식으로 변용해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 소설의 코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길순은 ‘선인(善人)’으로 인지된다. “얼굴은, 도다오논분돌갓치, 탐스럽더라”⁶²⁶⁾는 길순의 외모에 대한 관습적 묘사나 “비록상사롤이느, 사족부녀ㄴ, 싸루지못홀헝실이잇던게집”⁶²⁷⁾이라는 직접적 서술은 이 인지를 강화해준다. 그런데 ‘유교적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행실’을 통해 표상되는 길순의 선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특히 『귀의 성』이 길순에게 담지된 유교적 덕(德)을 무용(無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사랑중문बाट게, 궁동지가, 셤겨슬, 보고
(김 승지)왜아니가고거괴섯느
그러호정신업느, 쇼리호느, 중에, 안중문싼으로스람이, 들락
날락호며, 수군수군하느거슬보고, 궁동지의게눈짓을, 쓱호면
서안중문으로드러가다ㄴ보니교군은안중문싼에노혔느디안디청
에서느, 그부인이넉두리호느쇼리가들리고, 교군속에서느, 춘
천집이모괴쇼리갓치, 우느쇼리ㄴ들리느디, 김 승지의두루막이
자락이, 우름쇼리나느교군을시치고지느곤다⁶²⁸⁾

위의 장면에서는 인물 간의 역학관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사랑 중문 밖에 딸을 김승지 집으로 들여보내려는 강동지, 그와 길순을 회피하려는 김승지, 안대청에는 분노한 김승지 부인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길순은 안중문간에 놓인 교군 속에서 움직이지

625) 성리학에서 덕(德)은 직접 실천을 통해 사물의 이치인 도(道)를 주체가 체득한 것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효(孝)는 진실로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비로소 얻어지는 덕이다. 만물의 공통된 이치인 이(理=道)를 인간이 부여받은 것이 성(性)이므로, 성은 항상 선한 것이다.(진순, 앞의 책, 43면; 111-112면.) 따라서 덕을 통해 성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으며, 반대로 악함은 ‘덕이 없는 것’ 혹은 ‘천성을 가리는 것’으로 표상된다.

626) 『귀의 성』 상, 1면.

627) 『귀의 성』 상, 22면.

628) 『귀의 성』 상, 22면.

못한 채 울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배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길순이 『귀의 성』의 인물들 각각이 지닌 욕망들의 교차점이라는 사실이다.

딸을 도구 삼아 재물을 취하려는 아버지 강동지의 욕망, 신분이 낮은 여성을 성적 만족과 아이 낳기의 도구로 간주하면서도 첩으로 인지했을 때 일어날 번거로운 상황은 피하고자 하는 김승지의 욕망, 첩에 대한 질투와 가정 내 지위의 동요에 따른 위기감에 살인을 불사하고 길순을 제거하고자 하는 김승지 부인의 욕망, 그리고 길순의 의사와 관계없이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무난한 삶을 보내기를 바라는 강동지 부인의 욕망 등, 『귀의 성』에서 각 인물의 욕망은 각자의 논리와 동력을 갖춘 자율적인 욕망들로 그려진다.⁶²⁹⁾ 교군에서 나가지 못하는 길순의 신체는 이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길순의 ‘행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귀의 성』은 욕망을 ‘선인’인 길순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가진 보편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욕망이 전통적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약함’과 ‘강함’의 문제로 다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서울양반김 승지가, 춘천군슈로 내려와서, 지방정치에는, 눈이 켜컴흔, 어여썬계집잇다는소문에, 귀가썩밝은스름이라, 술기동내궁동지의딸이, 어여썬단물을듯고, 궁동지를불러서, 고소더갓치, 치켜서우더니, 알싸징이가다된칙방을시켜서궁동지를엇더케살맛던지, 김 승지가죽어라하면죽고시폴만, 흥계된터에, 김 승지가길순이를, 첩으로돌흔, 궁동지의모암에는,

629) 테리 이글턴은 오늘날 ‘악’이라는 개념이 이해불가능한 물자체(物自體)처럼 사용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악’은 합리적인 존재로 그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타인에게의 의존성이라는 인간적 조건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테리 이글턴, 앞의 책, 22면) 『귀의 성』의 인물들의 욕망은 각자의 논리에 의해 추동되며, 상충하는 다른 욕망의 존재는 무시하고 자기의 우선성만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글턴이 말하는 ‘자율성’으로서의 악에 가까워진다.

이제큰수낫다호고, 그쌀을밧쳤논디, 일년이못되야, 군수가갈
런지라세력이업서서, 갈런것도아니오, 시려서니노흔것도아니
라

김 승지의실니논, 서울잇다가, 그남편이춘천가서, 첩을두엇
다논쇼문을듯고, 열길스무길을썩며, 당중에교군을차려서, 춘
천으로너려가려호논디, 원집안이, 논리를당흔것갓치, 창황한
중에, 김 승지의아우가급히통신국에ᄃ서, 춘천으로전보호더
니, 춘천군수ᄃ관찰부, 슈유도못엇고, 서울로올라가서, 비서승
으로올문터이라⁶³⁰⁾

위의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김 승지, 강 동지, 김 승지 부
인, 점순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을 좇아 행동하는 힘을 가진 인물
들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서 이에 상충하는 다른 이의 욕망 실현을 방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
는다. 반면 길순은 이 욕망들의 충돌 속에 존재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능동적 서사를 창출할 동력이 될 만한 욕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길순에게는 재산에 대한 탐욕이나 본처를 해코지하려는
욕망, 김 승지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욕망은 물론 아들을 통해 지위
상승을 도모하려는 욕망 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다.⁶³¹⁾ 그녀가 가
진 가장 강한 욕망은 ‘세월이 어서 지나가 죽고 싶은’ 욕망뿐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⁶³²⁾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도드라지
는 길순의 수동성에서는 남들의 욕망에 휘둘려 ‘속기만’ 하는 타율성
과 무력함이라는 자질이 가장 부각된다.⁶³³⁾

630) 『귀의 성』 상, 17-18면.

631) “우리령굴이, 나를쓴집비치를호여주고, 사흘에흔번식만와서불것갓호면, 나는
더바랄것도업고, 혼될일도, 업슬터이야” - 『귀의 성』 상, 48면.

632) “아가아가우지말고, 젓떡어라, 세월이어서가고, 네가얼는즈라, 어미손을써느
서, 네손으로밧서먹고, 네말로거려당길만하면, 너는죽어도, 눈을꺾고죽찌다마
느, 피쌍어리너를두고죽으면, 네게는적악이라” - 『귀의 성』 상, 53면.

633) “길순이논, 강동지의딸이라, 그애비의게, 속기도, 문히속앗논디, 문일남의게,
그럿케속앗스면, 다시는참몰을드려도, 거진몰로, 드를터이논, 자식이부모를밋는
밋음에, 의심도업시, 또속논드” - 『귀의 성』 상, 8면.

『귀의 성』은 이와 같은 ‘욕망의 결여’가 길순의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가) 춘천집이만일, 산전수전, 덕, 격고것침시업논, 계집, 망논이, 갓하면, 김 승지가, 그당장에, 두군더, 정장을만나고, 더번에, 세송, 물정을으랏슬터이느, **춘천솔기구석에서량본무셔운줄몬, 아든빅성의꼴이라**, 또춘천집은, 비록상사름이느, 사죽부너ㄱ, 짜루지못홀헝실이잇던계집이라⁶³⁴⁾

(나) 춘천솔기동너서, 동구밧계를, 나아가보지못호고, 자라느던, 이너몸이, 오날서울와셔, 이거슬당호니, 자다가, 벼락을마저도, 분수가잇지, 에그, 기믹혀라

너가오날, 교군타고, 김 승지집에드러갈째에, 철업고, 미련^ㅎ느, 이너마음에느, 김 승지집기몬보아도, 본가운마음뿐이라그마음가진, 이너몸이, 그중문싼에, 교군을너러놋코, 안젓다가, 안더청이, 찌느가도록, 야단치느, 은마누라목소리에, 가삼이털겨너려온고정신이앗득하여지면서, 이몸이죽지도몰고살지도말고, 아무형체업시, 살죽녹아져서, 빈교군몬, 남앗스면, 조합듯호성각뿐이라

너싱각그러한줄을, 어느사름이, 아랏스라

그광경을, 덕, 보고, 덕드른, 우리아바지가, 너셔름을, 조금도모르시고저렷케잠드러주무시니호느님이나아르실썸

아바지말숨을드르면, 일싱조흔일몬, 잇슬것갓더니, 이렷케조흔일를, 지여쥬섯고나

오늘저녁에느, 김 승지령감이, 정녕오신다더니, 쇼식도업스니령감이, 아버지를소겅논지, 아버지ㄱ놀을소겅논지.....⁶³⁵⁾

길순은 춘천 솔개 동네에서 나아가보지 못한(나) 탓에 ‘세상물정’(가)을 알지 못한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길순은 기존 관행처럼 ‘양

634) 『귀의 성』 상, 22면.

635) 『귀의 성』 상, 37면.

반 무서운 줄만’(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길순이 갖춘 ‘사족부녀가 따르지 못할 행실’이란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재의의를 획득하려는 능동적인 것이라기보다, ‘양반을 무서워하는’ 상민이 맹목적으로 양반의 행동을 흉내 낸 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은 길순과 마찬가지로 김 승지의 첩 신세가 된 침모가 ‘부녀자의 행실’을 운운하며 순응하는 대신 “나는족박을듣고, 비러먹을지언정, 남의첩노르스, 호고십지으니호오, 남의첩이되얏다가, 춘천집신세갓홀지경이면죽는거시편호지……”⁶³⁶⁾라고 하며 첩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비교된다.

같은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침모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향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데 비해 볼 때, 욕망이 희박한 길순의 무력함은 상당히 도드라진다. 길순의 무지는 일반적으로 신소설에서 말하는 근대 학문·제도·사상 등에 대한 전근대적 무지가 아니라 ‘세상물정’에 대한 무지로,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길순의 ‘욕망의 결여’를 ‘무력함’과 등치시킴으로써, 『귀의 성』은 선악의 문제를 현실에서의 힘의 문제로 변환한다.

길순과 대조되는 악인들은 자기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강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황을 이끌어갈 힘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입된 서사 자체를 추동시키는 동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도 강하다. 『귀의 성』에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새로운 축은 바로 이 욕망의 실천·조정에 관련된 기제로 나타난다.

상술했던 바와 같이 『귀의 성』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제각각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애정을 되돌리기 위해 길순을 없애려는 김 승지 부인의 욕망, 첩과 본처 모두에게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김 승지의 욕망, ‘고생을 면하기 위해’ 점순을 돕는 침모의 욕

636) 『귀의 성』 상, 35면.

망, 길순 모자의 비극적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딸의 안위만을 챙기고 싶은 침모 어머니의 욕망, 딸이 개가하여 첩 신세를 면하게 하고 싶은 강동지 부인의 욕망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가장 두드러지는 악인인 강동지와 점순의 욕망은 전통적인 ‘탐욕’, 즉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묘사된다.⁶³⁷⁾

그런데 『귀의 성』에서 욕망 자체는 악의 표상에서 다소 비껴나 있다. 다시 말해 인물들이 욕망을 가졌다고 모두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기서 악행은 욕망이라는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실현을 위해 계획하는 합리성과 실천에 밀착한 문제로 나타난다. 『귀의 성』에서는 욕망 실현을 위해 ‘생각’, ‘경륜’, ‘경영’을 하는 인물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점순과 강동지가 그들이다.

(가) (동지)압다, 이런답답한물도잇느, 빗갑흔거슨, 무어시며,
그동안먹고쓴거슨, 무엇인가

우리가빅척근두에, 썩, 죽을지경에, 김 승지령감이춘천군수로내려와서, 우리길순이를 첩으로들라흐니, 참농몹썩엇지

나가전에는, 풍언흐느만, 보아도, 설설괴엇더니, 춘천군슈사 위본후에는, 너가읍너를, 드러가면, 동지님동지님호고, 어디를 가던지, 늑회접시, 술잔이찌날씨가, 업섯네

그렇감이, 비서승으로, 갈려드러가지물고, **춘천군슈로, 몇히만, 더잇섯면, 우리가수놓본호얏네**

예편네들은, 아무것도모르면서, 집안에서, 방정을썰고잇스니, **될것도아니되야잠작고, 가마니만잇게, 그냥반덕에, 우리가또수놓째잇느니**⁶³⁸⁾

637) 강동지는 “길순이를, 돈덩어리로보고잇느”(『귀의 성』 상, 6면) 인물이다. 한편 점순에게서는 속량(贖良), 즉 신분 상승 욕망도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속량은 점순의 자발적 욕망이 아니다. 점순은 거북이 젓먹인 공로로 속량을 받고 정부(情夫) 최 서방의 이름으로 황해도 연안의 전장(田莊)을 받았다고 기술된다.(『귀의 성』 상, 144면) 그런데 둘 중 점순이 집착하는 것은 전장이다. 즉 점순의 욕망에서는 신분적 성격보다는 강동지와 마찬가지로 탐욕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638) 『귀의 성』 상, 4-5면.

(나) 최가々 춘천집을 그릇케급히 죽이려논거슨 춘천집을미워서 그리호는거시아니라 **춘천집모자를 죽이면 슈가날일이 있**
논곡절이오⁶³⁹⁾

딸을 첩으로 들여보낸 강동지와 길순 모자 살해를 사주한 점순의 행동은 모두 ‘수가 날 일’이라는 전망 하에 이뤄진 것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즉 ‘수가 날 일’을 계획하는 ‘경륜’, ‘경영’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강동지와 점순은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주체라 부를 수 있으며, 실질적 ‘악행’은 이들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욕망만을 가진 김 승지 부인과 점순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로부터 생겨난다.⁶⁴⁰⁾ 이처럼 악행이 합리적 주체에게 귀속된 행동으로 나타남에 따라, 『귀의 성』에서 악의 문제는 ‘자유의 악한 사용’이라는 문제를 핵심에 두고 악의 주체성을 조망해 온 서구적 구조에 접근한다.

『귀의 성』에서 ‘이성’이 욕망을 실천하는 기제로 나타나는 반면 ‘감정’은 “욕망을 조정”⁶⁴¹⁾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이는 길순을 죽이려는 점순의 계획에 가담하려 했던 침모의 변화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성을면할도리가잇스면아모짓이라도하짓”⁶⁴²⁾다고 결심한 침모는 길순을 죽이려는 점순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다. 그러나 계획 실행이 예정된 날 밤, 침모는 남관황묘에서 장수가 나와 자신을 죽이는

639) 『귀의 성』 상, 144면.

640) 점순은 “마님소원을, 푸러드릴터이니, 마님게서, 춘천마마의일을, 원네의게, 맞기시깃습닛가”(『귀의 성』 상, 77면)이라 김승지 부인을 부추기고, 김승지 부인은 모든 일을 점순에게 일임하여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641)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1, 한국현대문학회, 2002, 58면. 김동식은 길순에게서 드러나는 도덕적 정당성을 ‘욕망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고찰했다. 길순과 김승지 부인의 욕망은 김 승지의 사랑, 재산, 지위와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길순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선인’으로 그려지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동식의 논의는 이 능력을 ‘감정’으로 보는 본 논의와 역점을 달리하지만, 욕망의 실천과 조정에 관한 기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642) 『귀의 성』 상, 117면.

꿈을 꾸다. 꿈에서 “요년, 너갓치요악혼년은, 세상에살려들수가, 업다”⁶⁴³⁾는 장수의 호령을 듣고 불현듯 “무서운마음”⁶⁴⁴⁾을 가지게 된 침모는 결국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점순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가) (점순) 마누라님, **마음이, 약하신고로**, 그런꿈을꾸섯소
걱정므르시오, 사름을, 죽이고, 벌력을입으려면, 낙동장신,
리경하논, 놀므다벌력몬입다므럿게오……⁶⁴⁵⁾

(나) 흥한꿈도이저버리고, **겁느던므암**도업서지고불갓한욕심
이시로싱겨서, 어머니더러, 그런니약이도, 하지몰고, 이길로도
로가서점순이하라논디로하러드럿소

에그내가죄를밧깃네
어머니, 나논이길로, 삼천동가서, 김승지령감더러, 그런몰을
하깃소

(로파) 아셔라그리도므라
김승지가, 그런말을듯고, 일, 조처를잘할사람갓하면, 몰을하
다뿐이깃느냐므논, 정녕그럿치못할것갓다
그말을내고, 보면그흥악한부인과, 고, 악독한점순의숨씨에,
네게만밀고, 벌일이만히, 싱길거시다⁶⁴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귀의 성』에서 욕망을 조정하는 기제는 ‘마음’이라 기술된다. 그리고 이 ‘마음’이란 ‘무서워한다’거나 ‘겁난다’, 는 부연에서 드러나듯 대체로 감정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욕망을 좇는 힘을 가진 악인은 다시 두려움, 불안 등이 존재하는 ‘약한 마음’을 가진 침모와 그러한 감정적 동요가 없는 ‘강한 마음’을 가진 점순으로 분기한다.

643) 『귀의 성』 상, 113면.

644) 『귀의 성』 상, 113면.

645) 『귀의 성』 상, 113면.

646) 『귀의 성』 상, 123면.

그러나 ‘벌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침모의 ‘경륜’에 개입하여 악행을 중지시키는 기제로 나타나는 반면, 죽을 처지에 놓인 길순에 대한 동정은 자신에게 돌아올 음해를 무릅쓰고라도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제로까지는 그러지지 못한다. 두려움·불안을 핵심에 둔 감정의 계열은 악행을 중지시키는 수준으로는 욕망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실천하도록 밀어내는 ‘강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감정의 위상은 ‘선으로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도덕감정에 기초하여 선악을 분간하고 선의 실천을 정당화하려 했던 기독교적·유교적 패러다임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⁶⁴⁷⁾ 예컨대 『금의쟁성』이나 『고목화』에서 회개한 악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등의 모티프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작품들에서 ‘죄책감’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以功贖罪)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서 ‘선에의 지향’까지 담지한 적극적 도덕감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침모를 통해 묘사된 감정의 계열은 ‘선에의 지향’은 불가능하지만 ‘악의 회피’는 가능케 하는 소극적 도덕감정에 가깝다. 특히 『귀의성』과 기독교적·유교적 패러다임의 거리는 ‘죄책감’조차 소극적으로 그려지는 데서 알 수 있다.

악행을 중지시키는 기제인 두려움과 함께 침모에게서는 길순을 돕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도 드러난다. 길순을 살리려 하면 음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혼자서만 몸을 빼낸 침모는

647) 정감(情感)은 전통적으로 중국 철학 내에서 중시되어 왔으며, 성리학에서는 성(性)과 정(情)의 관계를 통해 도덕이성과 도덕감정의 관계를 해명하려 하였다.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과 같은 보편적 정감으로부터 보편적·초월적 도덕이성을 연역하려는 구조 때문에 “유가의 도덕인성론은 정감위에 세워졌다”(몽배원, 앞의 책, 350면)고 말해지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같이 ‘선을 행하는 본성’과 수오지심(羞惡之心)과 같은 ‘악을 기피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따라 선악을 분간하고 선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경향이라는 것이다. 근대 초기 도입된 기독교 교의 상에서도 선과 악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어(『성산명경』), 도덕의 실천을 보편적 감정에서 기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이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경우 선으로의 경사가 ‘당연하게’ 나타나므로, 도덕감정이 곧 선악을 분간하는 도덕이성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후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길순 모자의 무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다만 이 기도가 칠성님께 기원하는 기도인 데서 알 수 있듯, 침모의 죄책감은 근본적으로 신이 내리는 ‘벌역’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원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⁶⁴⁸⁾ 그러나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강동지에게 침모의 ‘어진 마음’을 증명함으로써 강동지의 복수에서 침모 모녀를 제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침모에게서 감정이 악행의 중지·반성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나타나는 데 비해, 강동지의 경우 감정은 ‘속죄’의 기제로 보다 강렬하게 형상화된다. 이는 똑같이 탐욕을 추구하다 길순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끌어냈던 강동지와 점순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사한 동기와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번민·고뇌했던 것은 강동지다. 물론 이는 길순이 딸인데다, 강동지가 딸의 죽음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만으로는 강동지가 최서방은 물론 김승지 부인, 점순, 침모, 침모 어머니 등 모든 관계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복수 서사의 극단적 전개를 이해하기 어렵다.

강동지 자체는 서사 내에서 ‘악인’(점순)을 징치함으로써 복선화음을 구현하는 전통적 ‘복수자’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인물로 보인다. 다만 전통적 레퍼토리 안에서 복수가 의(義)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것인 반면, 강동지의 복수는 이러한 ‘의살(義殺)’의 범주에서 벗어난다.⁶⁴⁹⁾ 예컨대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거나

648) (침모) 칠성님 / 칠성님께, 빚니다 / 미련호인심이, 마음을잠깐잘못먹고, **호마트면, 점순의죄임에, 빠져서, 춘천집을, 죽일번호얏습니다** / 노는우리어머니가, 어지신마음으로, 어지신경을, 호여쥬서々, 못된죄임에, 빠지々아니호얏스니, 너신상에논편호는, 고몄슬점순이란년이, **춘천집을, 참죽일까넘녀되야, 못견더깃습니다 / 칠성님々々々 / 어지신칠성님이, 춘천집을도아쥬서々, 비명에죽지말게호여쥬시스** / 죄업논춘천집과, 철모르논거북이가, 고몄슬점순의손에, 죽으면, 그런불상호고, 악착호일이, 어더잇깃습니까 / **칠성님이굽어보시고, 살펴보서々, 제발덕분, 도아쥬시사** - 『귀의 성』 하, 122-123면.

649) 맹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선한 본심(良心)을 ‘인의지심(人義之心)’이라고 칭했다. 맹자는 정치적 선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자의 인(仁)과 함께 의(義)를 강조했는데, 이 때 의는 선악 선택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특히 맹자는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근거로 의(義)를 구현하려 했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는 전통적 복수 모티프는 유교적 도덕 질서의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되는 것이다.⁶⁵⁰⁾ 특히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유복자의 복수 모티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복수는 자신의 악행을 ‘속죄’하려는 충동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질서가 부과하는 일종의 의무감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다.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당한 피해를 ‘대신’하여 되갚아줌으로써 깨진 도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⁶⁵¹⁾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정당하게 ‘되갚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복수는 정당하다고 여겨졌다. ‘복수자’는 이처럼 ‘무고자’의 복수를 대행해준다는 맥락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인물 유형이다. 그러나 강동지는 ‘무고자’가 아닌 것은 물론 국가권력이나 의인(義人)이라는 전통적 ‘복수자’ 조형에서도 일탈한다.

기존의 도덕질서에 입각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의무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복수에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학령』에서 민장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방씨 형제를 살해하여 복수한 경우

다.(진교훈 외, 『양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33-43면) 의에는 사회적 공정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 서사에서도 주로 ‘사회 정의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복수가 정당화되어 왔다.(리펑페이(李鵬飛), 앞의 글, 355면)

650)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몇 년에 걸쳐 추적한 끝에 죽인 딸의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18~19세기 전(傳), 한문단편, 잡록 등의 서사물로 유행했던 일군의 강상효녀담(江上孝女談) 작품들에서 특히 복수의 공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강상효녀담을 다룬 텍스트 내에서도 국가의 법 질서를 무시한 사적 복수가 부당하다고 보는 관점과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복수는 정당하다는 관점이 충돌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효의 실천과 의(義)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복수는 정당화된다. - 이병직, 「강상효녀담의 창작의식과 소설로의 수용」,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191-193면.

651) 최진옥은 강동지가 ‘관계 윤리의 회복’이라는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길순의 ‘살인’에 대한 ‘복수살인’을 선택했다고 보고, 이를 유교 문화권에서의 복수 인식과 관련하여 독해했다. 유교 문화권에서 가족과 친족을 위한 복수는 ‘정의’로운 사적 폭력으로서 윤리적 의무로 여겨지기도 했다.(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범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2-115면) 한편 이지훈은 『귀의 성』에서 법에 호소하는 언술 차원과 실제로 형상화된 현실이 괴리되어 나타남을 지적하고 강동지의 복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지면서 법적 강제력을 보충하는 수단이므로 완전히 사적(私的)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지훈, 앞의 글, 33면)

를 참고할 수 있다. 민장 부인의 복수는 남편이 당한 바를 자신이 대신하여 갚아주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여겨졌다. 이 복수에 민장 부인의 ‘죄책감’이 개입한다고 볼 지점은 없다. 그런데 방씨 형제를 죽인 민장 부인은 ‘복수’가 아닌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살한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은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이다.⁶⁵²⁾

강동지의 경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행동이 길순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죄책감’을 매개로 ‘악인’에서 징치자인 ‘복수자’로 변모했다는 특이성은 텍스트가 관습적 선인 묘사와 악인 묘사를 번갈아 취하면서 강동지를 묘사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강동지는 “무식한 상사람”으로 딸을 “돈덩어리로 보고” “엉터리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기품 좋고 부지런”하고 “성품은 강하고 힘은 장사”인 인물로도 묘사된다.⁶⁵³⁾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텍스트가 강동지를 선인과 악인 중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동지에게서는 그 악행의 내용보다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악’⁶⁵⁴⁾을 수용하기 위해 분투하는 내면이 부각

652) 이와 유사하게 『명월정』에서 차채홍은 비록 불가항력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던 도덕적 신념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이 때 자살은 삶의 정당성의 근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자기징벌에 해당한다.(김동식, 앞의 글, 61면) 민장 부인과 차채홍에게서 보이는 이와 같은 자기징벌적 자살 모티프에는 ‘허물’ 의식이 드러난다.

653) 『귀의 성』, 5-16면.

654) 리콥르는 도덕적 악(moral evil)과 자연적 악(natural evil)이라는 서양 사유에서의 전통적 ‘악’의 구분을 수용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악의 현상을 주체와의 관계성에 따라 ‘저지르는 악(evil perpetrated; le mal commi)’과 ‘당하는 악(evil suffered; le mal subi)’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저지르는 악’은 그 주체의 측면에서 포착되는 것으로 책임 귀속(imputation), 비난(accusation), 질책(repriman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악을 의미한다. ‘당하는 악’에서 악은 그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포착된다. 이는 인간 사이의 부정의나 폭력 등 비도덕적 행동뿐만 아니라 재해, 질병, 노화, 죽음 등의 자연적 해(害), 비통이나 자기혐오와 같은 정신적인 나약함 등 쾌락의 반대에 위치한 고통(suffering) 일반으로 정의될 수 있다. 리콥르의 구분에 의하면 ‘저지르는 악’이 그 주체를 ‘도덕적 책임자’로 제시하는 반면, ‘당하는 악’은 그 객체를 ‘피해

되게 되었다.

『귀의 성』의 마지막 대목에서 강동지는 김승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⁶⁵⁵⁾

강동지제가, 두가지, 후회하는일을말하얏는디, 혼가지는,
그쌀을남의시앗될곳으로보넌거시오, 혼가지는, 그쌀을다리고,
서울앗슬씨에, 김 승지의부인이, 그럿케투기하는거슬보면서,
그쌀을출천으로, 도로다리고가지아니 혼일이라⁶⁵⁶⁾

강동지의 반성에 의하면 ‘후회되는 일’은 먼저 딸을 남의 첩으로 들여보낸 것, 그리고 서울 김 승지 집에 갔을 때 본처가 투기하는 것을 보고도 딸을 거기에 두고 온 것이다. 『귀의 성』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이 편지를 통해, 강동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강동지 스스로는 가장 큰 책임을 김승지 부인과 점순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수가 끝난 이후에야 ‘후회’된다는 형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⁶⁵⁷⁾

자’로 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 Paul Ricoeur, *Evil-A Challenge to Philosophy and Theology*, John Bowden trans., Continuum, 2007, 35-36면.

655) 리콥르는 ‘고백’을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인 그런 체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고백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느낌을 밖으로 밀어내며, 잘못을 느끼는 의식 밑에 있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낸다. 잘못에 대한 체험은 ‘고백’을 수반한다.(폴 리콥르, 앞의 책, 21-22면) 그리고 주체가 악을 ‘고백’할 가능성이 의식에 떠올랐을 때, 주체가 한 ‘잘못’은 비로소 악으로 인지된다.(칼 심스, 앞의 책, 53면) 이처럼 반성을 통해 과거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는 기독교적 고백-속죄의 구조는 탈종교화된 맥락에서 윤리적 주체를 형성하는 기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656) 이인직, 『귀의 성』 하, 중앙서관, 1908, 124면.

657) 텍스트 표면에서 강동지는 “깨끗한 양반의 여편네인 체 하던 년이 그렇게 쉽게 몸을 허락”(『귀의 성』 하, 120면)했다는 이유로 김승지 부인을 죽이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점순은 모두 토죄시킨 후에 “더 할 말 없다”(『귀의 성』 하, 113면)는 말을 끝으로 죽이는 반면 김 승지 부인의 경우 복수라는 동기표명과 동떨어진데다 서사 내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 연설 투의 대사가 삽입된 것은

그런데 실제로 텍스트를 살펴보면 강동지는 자신의 행동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처음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군수관찰부, 슈유도못엇고, 서울로올라가서, 비서승으로올
문터이라

길순이모녀는, 그러케자세한스정은, 드모르느, 궁동지는조
셔히아는지라

그런괴상야릇한사귀가잇는디

몬일너일썸는다하고, 쏘썸느지아니호고잇다가, 그믄누라가그
사지를말고길순이를췌동호야, 믄암이느변호게홀가, 의심호
야, 식의스가느서, 불고전후호고, 길순이를다리고, 가서김지
지의게, 믱기면, 무슨도리가, 잇스리라호는경영이러라

예컨대 강동지는 길순을 데리고 상경하기 전부터 김 승지 부인이 투기가 심하여 김 승지가 급박하게 서울로 돌아가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그 자신에게도 ‘괴상야릇한 사기(邪氣)’로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길순에게 개가를 원하는 부인 때문에 길순이 정말 ‘마음이 변할까’ 의심이 되어 강동지는 무작정 상경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김 승지가 편지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인의 반발을 무마시킨다. 이처럼 처음부터 자기 행동에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길순이 우물에 빠져 죽으려다 미수한 사건이 있는 후에도 “쌀이, 조슈호려는마음이다, 궁동지를, 원망호는 마음에서싱긴줄을”⁶⁵⁸⁾ 납득하고 딸을 방문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꺼림칙한’ 행동들은 길순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강동지에게서 드러나는 ‘허물’의 성격을 고찰하게 해

양반 부인이라는 지위를 갖춘 인물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자에게 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58) 『귀의 성』 상, 50면.

준다. 리콴르는 절대자 앞의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죄’와 달리, ‘허물’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개인이 일으키는 행위와 그 잘못의 정도를 계측하는 그 자신의 양심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⁶⁵⁹⁾ 절대자의 시점에서 ‘죄’가 있음/없음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것인 반면, 개별 양심이 측정하는 대상인 ‘허물’은 정도(程度)로 판단되는 주관적인 것이다. ‘허물’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만하다고 인식할 때 생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허물’에서 주체의 내면은 양심의 가책과 이를 해소하려는 충동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길순의 죽음은 강동지의 ‘꺼림칙함’을 보다 강렬한 감정인 ‘죄책감’으로 밀어내어 강동지가 과거의 행동을 ‘허물’로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후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괴롭히는 ‘허물’ 의식에서 벗어날 기회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허물’ 의식이 “우리가춘천집을미워서, 죽인것도아니오, 다만, 돈하느바라고, 죽인터”⁶⁶⁰⁾라는 정도에서 자기 행동을 인식하는 데 그치는 전형적 ‘악인’인 점순과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강동지의 반응은 선행으로 악행을 보상하는 이공속죄(以功贖罪)적 과정이 아니라, 당한 악행을 되돌려주는 복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강동지가 취한 수단의 극단성을 ‘허물’ 의식의 정도에 비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허물’ 의식은 밖으로 표출된 감정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동지)여보마누라, 우지말게, 듯괴시려

울어서, 무슨일이된다고, 내가, 사흘안으로, 내쫓의, 원수를
다감폴터이니, 그원수잡흔후에, 집에가서, 실컷울게
만일그전에, 내압헤서, 쭉々울다가는, 화김에, 자네먼져마져,
죽으리

659) 폴 리콴르, 앞의 책, 107-110면.

660) 『귀의 성』 하, 79면.

(중략) 본력강동지논, 공통한사람이라, 김 승지와, 박참봉
 은, 춘천집죽은일에
 참섭업슬줄알면서, 박참봉을그릇케몸시혼을쓰여노흔거슨, 까
 둡이잇섯더라
 강동지가일편정신이, 그딸의원수를, 갑프려논일에골돌흐
 는,
 돈흔푼업시싱소한서울와서, 엇지할수업논터이라, 그런고로,
 박참봉의계점을잔뜩지호려논계교이라⁶⁶¹⁾

길순이 살해당하던 날 밤 강동지 부인은 흉물을 꾸고 강동지에게 상경을 재촉한다. 상경한 강동지 내외는 길순이 정부(情夫)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을 듣고 상심하는데, 그 집에서 우연히 점순과 최 서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길순을 죽였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예감하고 강동지 부인이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반면,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강동지는 시종일관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다. 박참봉을 찾아갔을 때 분노한 기색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는 순수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박참봉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계교’였다는 점이 후술된다.

강동지는 딸의 죽음을 예감한 순간부터 원수를 갚는 일을 ‘골돌’해야 할 ‘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감정은 ‘일’의 원만한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표현된다. 이처럼 강동지의 ‘속은 천 길이라 알 수가 없는’⁶⁶²⁾ 모습은 매우 감정적인 부인과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대응이 길순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으려고 ‘경영’했던 것과 유사하게 냉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점순 역시 강동지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거의 노출하지 않는 냉정한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귀의 성』이 합리적 주체를 성격화하는 방식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661) 『귀의 성』 하, 46-49면.

662) 『귀의 성』 상, 51면.

강동지는, 아무더답업시, 눈만찌셔보거늘, 마누라가그편지를,
북북쫓아서들고강동지를보히논디, 편지속에서, 엄지하나히,
찌러지논지라

강동지의마암은, 철석갓치강호느, 돈을보면, 숙녹비갓치부
드러지논, 사름이라, 김 승지가, 쏘, 돈이느보니쥬논줄로, 아
랏던지, 부스스, 이러느, 안지며편지를바다보더라 (중략)

강동지의눈은, 남다른눈이르, 어려서젓먹을찌논, 울기도호
고눈물도낫슬터이느철논이후에는, 눈물느본일이, 엄던사름
이라, 누가찌리면압과셔느, 울런지, 슬퍼셔느, 울런지, 슬퍼
셔느, 우지아니호던, 눈이라, 그려훈눈으로

김 승지의편지를보더니, 눈물이나오논디, 오십년참앗던,
눈물이, 한번에, 다, 나오던지쪼다지듯나오더라⁶⁶³⁾

점순과 강동지의 변별점은 위와 같이 강동지가 억눌러 왔던 감정을 분출시키는 대목에서 만들어진다. 강동지는 김승지가 박참봉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뜯어보게 되는데, 그 봉투에는 김승지가 산 속에서 길순 모자의 시체를 발견한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엄지(어음을 쓴 종이)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다. ‘마음이 철석 같이 강해도 돈을 보면 부드러워지는’ 강동지가 엄지에 욕심을 내어 편지를 받아 드는 대목까지 강동지를 지배하는 가장 강한 동기는 여전히 탐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동지가 편지를 읽은 후부터 텍스트는 더 이상 강동지를 탐욕과 연관시켜 기술하지 않게 된다.

『귀의 성』에서 강동지는 김 승지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과 길순 모자 시체를 직접 본 순간, 즉 길순 모자의 죽음을 실체로 확인하는 순간 우는 것으로 묘사된다.⁶⁶⁴⁾ 이처럼 딸의 죽음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강동지는 ‘이성’의 주체에서 ‘감정’의 주체로 변모한다. 그러나 텍스트는 강동지의 울음을 촉발한 감정의 성격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감정은

663) 『귀의 성』 하, 57-58면.

664) “강동지우름을, 잔뜩춤앗다가별안간에, 용우름이툭터지논디, 갈범우논소리갓치, 손쉴이울리고,” - 『귀의 성』 하, 68면.

딸에 대한 미안함, 딸을 잃은 애통함이나 딸을 죽게 만든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등 ‘지향적인 것(the intentional)’과 강동지가 계속해서 느껴왔던 꺼림칙함이 명백한 죄책감으로 변화한 순간의 ‘정동적인 것(the affective)’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⁶⁶⁵⁾ 특히 유사한 인물형인 점순과 비교해 볼 때, 점순에게서 ‘지향적인’ 감정이 회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정동적인’ 감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탐욕이 사라진 이후 수행된 강동지의 복수는 자기 내면의 ‘죄책감’에 대한 반응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자신의 ‘허물’을 자각한 주체가 취하는 보상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속죄’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죄책감’으로 상징되는 정동적 감정은 주체가 ‘허물’에서 벗어나 도덕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귀의 성』이 강동지와 침모에게 서사적 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강동지와 침모가 공유하는 ‘속죄하는 주체’로서의 성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⁶⁶⁶⁾ 텍스트가 자신의 ‘허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

665) 리피르르 감정이 ‘지향적인 것(the intentional)’과 ‘정서적인 것(the affective)’의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지향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무엇에 ‘관한’ 것, 무엇을 ‘향한’ 것, 혹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임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체의 내부를 향하기도 한다. 즉 감정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감정이 ‘정동(情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칼 심스, 앞의 책, 49면) 현재 학계에서 affection은 정서, 감정 등 다양한 개념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주의적 배경에서 정동(affect), 감정(emotion)은 주체의 그 자신과의 불연속성, 주체의 의식적 경험과 비의도적인 감정·정동과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스피노자, 앙리 베르그송 등은 정동에 주체가 행동할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힘(bodily forces)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Patricia T. Clough, "The Affective Turn-Political Economy, Biomedicine, and Bodies", *The Affect Theory Reader*, Melissa Gregg and Gregory J. Seigworth ed., Duke University Press, 2010, 206-207면.) 이러한 경우 정동은 사회적 구성물인 감정과는 다른 범주로 규정된다. 정동은 개인이나 집단을 어떤 방식으로 일으킬(arouse)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금방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Megan Watkins, "Desiring Recognition, Accumulating Affect", 같은 책, 269면)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은 비이성적 충동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의에서는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비이성적 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정동이라는 역어를 사용했다.

666) 그러나 ‘허물’이 가장 컸던 강동지는 침모와 달리 원래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삼위로 종적을 감춘다. 이는 강동지의 죄책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음

임을 지려 한 인물들에게 모종의 도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하늘’을 두려워하는 침모가 전근대적 인물 유형에 가깝게 서 있는 반면, 강동지에게서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강동지의 ‘속죄’는 온전히 자신의 양심과 관련된 ‘허물’ 의식에서 비롯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 형상을 통해 우리는 탈신성화된 맥락에서 윤리적 주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관한 단서를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모, 강동지 등에게서 감정이 악행을 중지·반성시키고 나아가 속죄하게 하는 기제로 나타나는 양상과 관련하여, 점순의 형상화 방식에서 ‘감정의 결여’라는 자질이 도드라지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순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 후회 등의 ‘도덕적 감정’⁶⁶⁷⁾을 결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귀의 성』에서는 이 자질이 악인을 ‘열등하고 불쾌한 존재’로 그리는 관습적 태도(style)을 미학적으로 갱신하는 교두보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가) 어린아히는 벵글벵글우스며, 두팔을쭈너미니, 부인이어린
아히의팔을와락잡어더리거늘, 점순이가쌘쌘놀라서
(점순) 에그, 믈님, 그리맙시오
하면서, 어린아히를두루쳐업고, 흔들흔들, 흔들면서
(점순) 이익오늘은, 네가너덕에사랏지
이후에, 니손에죽더럭도, 원통홀것, 업논이라
너는죽을써에, 너의어머니와한놀한시에죽어라
히々々
우스면서, 쏘죽한턱이억개에돏토록, 고개를돌려서, 어린아

암시하는 결말로 독해된다. ‘자기 혼자 모든 악의 멍에’를 지려는 ‘허물’ 의식이 아무리 되풀이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주체를 빠뜨리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허물’ 의식은 ‘단련 의식’이다.(폴 리콕르, 앞의 책, 146면)

667) 사이코패스는 ‘폭력적 정서’의 소유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 죄책감, 후회와 같은 ‘도덕적 감정’을 결여한 인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래리 메이, 『마음과 도덕』, 송영민 역, 울력, 2013, 262-265면.) 점순 역시 ‘폭력적 정서’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감정의 결여’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히를보는, 눈동자가한편으로, 엇지몰넛던지, 본리암송스려
운눈이, 더욱사람을긋칠듯하다

천진이, 쭉쭉뎡는, 어린아히는점순의등에업퍼서, 허덕허덕하
면서, 고사리갓한손으로, 점순의얼굴을헉의논디, 점순이가소
리를바라지르면서

압꾸다, 요것, 누구를할퀴느냐하로빔비뒤여지고시푸나
하면서, 철업논아히더러, 포달스렵고, 악독한똥을하논디김
승지가안마당에도러셔도록모르고, 부인이듯고조아할소리만한
다⁶⁶⁸⁾

(나) (점순) 지금춘천마々님만업스면, 침모마누라님이, 호궁
을하실것시올시다

(침모) 춘천마가가, 업슬썩담이잇는……

(점순) 죽으면업서지논것아니오닛가

(침모) 말곤사름이, 죽기는언제죽논든말인가

(점순) 죽이면죽논거시지요

침모가그소리를듯고가삼이덜겨내려안지며몸이벌々떨니논디한
참을아무소리업시안졌더라

점순이가, 내친거름이라, 말을넛다가, 만일침모가, 듯지아니
하면, 큰일이눌듯하야, 첩々훈말로, 이리찌히고, 저리찌히고,
엇더케되혔던지, 침모의므음이술곳하게드러곤다

흉계를꿈이느라고, 둘이더깁이를, 맞, 더히고, 수군, 거리
논디, 점순의, 무릅우에, 안겨, 잠드럿던, 어린, 아히가,
째여, 우니점순이가, 우논아히를, 말쓰름이드려다보며

(점순) 이이, 네나, 니무릅우에서, 잠도몬히, 잔느니라

일넛을갓스면, 무던하지

오냐, 실컨우러라, 오늘썩이다

하면서젓꼭지를물리니침모가, 그소리를듯고, 다시소름이찌
친다⁶⁶⁹⁾

668) 『귀의 성』 상, 106면.

669) 『귀의 성』 상, 111-112면.

전통적 소설은 물론 동시기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점순의 형상화 방식은 매우 도드라진다. 아기를 안고 얼러주면서 어머니와 함께 죽어버리라는 악담을 하거나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표변하여 ‘포달스럽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장면(가), 길순을 살해할 계획을 모의하면서 그 무릎에 있는 길순의 아기에게는 태연스럽게 젖을 물리는 장면(나)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서 부각되는 것은 행동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이에게 ‘소름이 끼치게’ 하는 악인의 형상이다. 이때 악(행)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도덕, 질서로부터의 이탈 등)으로서가 아니라 독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혹은 ‘잔혹한’ 것이라는 미학적 맥락에서 형상화된다. 이처럼 독자를 경악케 하는 ‘극심한(extreme)’ 것으로 악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악을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밀어내면서 그것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를 급속하게 좁히는 효과를 낸다.

‘잔혹성’은 어떤 경험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가 좁을 때에 부각될 수 있는 미학적 자질이다.⁶⁷⁰⁾ 잔혹성은 독자로 하여금 서사 내 인물을 판단하게 하는 대신 그의 경험에 이입하게 한다. 전자에 초월적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악을 다루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면, 후자에서는 악을 〈불가해한 것〉으로 밀쳐내는 태도가 드러난다. 지젝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주관적(subjective) 폭력에 집중하면 압도적인 공포감과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인해 폭력에 대한 사고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바 있다.⁶⁷¹⁾ 점순에 대한 묘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듯, 『귀의 성』이 악행의 세부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함으로써 그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지젝이 말한 바와 같은 ‘사고의 정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의 표상은 이성의 영역을 초과하여 감수성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조영란은 감수성의 영역에 접근하는 이러한 방

670) Susan Neiman, 앞의 책, 137면.

671)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1, 23면.

식을 통해 표상되는 악이 인물의 도덕성보다는 그 원천인 인물의 심리로 주의를 옮기게 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⁶⁷²⁾ 『귀의 성』 초두에 등장하여 복선 역할을 하는 길순의 꿈이 특히 심리학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양상에서 잘 보이듯⁶⁷³⁾, 『귀의 성』의 전반적 형상화 방식에는 인간의 불가해한 내면성으로 주의를 끄는 그로테스크(grotesque)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⁶⁷⁴⁾

이와 같은 악인 형상의 중심에는 부도덕·질서로부터의 일탈과 같은 질(‘말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함’이라는 양(‘말하는 방식’)의 문제가 존재한다. 마커스 싱어는 일상적·사회적 차원에 위치한 나쁨(badness)을 초과하는 악(evil)에 관해 논의하면서 사악함(wickedness), 잔인함(cruelty), 악의(malevolence)의 요소를 들었던 바 있다.⁶⁷⁵⁾ 의미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이 일반

672) 조영란, 「신소설에 나타난 ‘추(醜)의 인식과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6면.

673) “(길순) 어머니, 니꿈니악이죵, 드러보시오

꿈에는, 니가아들어나서, 두살이도얏논디, 흙박숫갓치, 탐스럽게싱긴것이, 나를보고, 업마업마하면서, 니압해서, 허덕허덕노논디, 우리큰마누라라, 혼는사람이, 상긋상긋우스며, 어린아희를보고, 두손보닥을톡톡치면서,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하니, 천진의어린아희가, 병긋병긋우스며, 고사리갓한자근손을, 니미니큰마누라가와락달려드러서, 어린아희의두억지를담삭옹켜쥐고, 본썩드러니, 어린아희, 더궁이서부터몬창몬창깨미러먹으니니가놀납고, 앓직하야어린아희를째스려하얏더니, 큰마누라가, 본도막집남은호희를집어더지고, 피가발갓게무든조동이를, 짹짜리고, 앙상헌입썩리를, 흔들며, 왈각돌려드논셔술에, 질귀를호야소리를시르며, 잠이깨엿스니, 무슨꿈이그릇케도, 고약호호” - 『귀의 성』 상, 13면. 전통적으로 복선 역할을 하는 꿈은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 앞으로의 일을 일러주는 현몽(現夢)이다. 그러나 길순의 꿈은 그녀의 무의식적 공포가 드러난 심리학적 것으로, 현몽의 전통과 단절되어 있다.

674) 해명하기 어려운 으스스한 것, 극적인 것,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것 등이 프랑스 낭만파에서 발견되는 그로테스크의 특징이다. 낭만주의에서 그로테스크는 심원하고 복잡한 인간의 내적 무한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여겨진다.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적 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 연구 - 프랑스 낭만파적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422면) 다지리 히로유키는 이인적이 일본 유학 시절 프랑스 낭만주의와 직접 접했을 가능성을 탐지했다.

675) Marcus G. Singer, “The Concept of Evil”, *Philosophy* 79,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92면.

적으로 이해가능한 영역을 훨씬 넘어섰음'이라는 양적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질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악에 대하여 공동체의 도덕·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느끼는 '경멸', 권리나 자유 등이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 나쁘다고 여기는 대상에 접촉한 순간 경험하는 불쾌감인 '혐오' 등이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인 데 비하여,⁶⁷⁶⁾ 점순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는 '경악'에 가깝다.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주의할 때, 『귀의 성』은 독보적 위상을 차지한다. 『귀의 성』에 사용된 악의 형상화 방식은 전근대 소설 전통은 물론 동시대의 소설과도 변별되는 특이한 것이다. 『귀의 성』은 인간의 욕망을 선악 구도에서 독립시켜 보편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이성과 감정의 양 축을 통해 욕망의 실천·조정 기제를 탐구했다. 이로써 인물의 내면은 이성과 감정의 역학이 펼쳐지는 지대처럼 표상된다.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악이 '감정의 결여'라는 새로운 자질과 연관되어 표현되는 방식이다. 특히 점순을 통해 잘 드러나는 이 방식은 악인이 도덕성의 기호로 소진되는 수준을 벗어나 자신이 기입되어 있는 '관습'을 미학적으로 갱신하게끔 해준다. 우리는 여기서 악의 '현대적' 변용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676) 김학철, 앞의 글, 468면.

VI. 결론

본 논문은 신소설에서 가장 돋보이는 테마인 ‘악’이 무엇으로 규정되었는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어떤 기능을 행했는가를 규명하였다. 인식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표상(representation)은 사회화·역사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악’의 표상 체계에 일어난 변화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함축한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체계를 통해 부정적인 것에 관한 지식형성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근대 전환기의 대중적 문화 형식으로서 신소설의 의의는 신소설이 자신의 시대에 수행한 지식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소설이 근대 전환기에 유입된 새로운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새로운 ‘악’을 규정해나가는 양상이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의 또 다른 초점은 ‘악’의 표상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신소설과 기존의 문학 ‘관습’이 가지는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었다. 신소설은 이른바 ‘이식문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듯 근대적 사상·서구적 소설 형식을 불완전하나마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만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또한 신소설의 한계를 온전히 ‘구소설의 관습’을 답습한 결과로만 이해하는 단순한 시각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서구적 소설 혹은 리얼리즘 소설과 같은 특정한 미래태로의 단선적 연결만을 상정한다면, 신소설의 어떤 특성들은 영원히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문학 장르로서 신소설의 의의와 한계는 신소설이 ‘말하고자 한 대상’과 그것을 ‘말하는 방식’의 역학을 동시에 해석할 때 보다 정확하게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대어 본 논문은 신소설에 새롭게 나타난 ‘악’의 유형뿐만 아니라 ‘악’의 형상화 방식에 일어난 변화와 지속 모두에 주목하려 했다. 이를 통해 신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에 가려져있던 길을 열어보이자 한 것이 본 논문의 먼 목표였다.

II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신소설의 ‘악’의 표상이 의존하

는 토대인 전근대 ‘악’의 표상 체계를 분석했다. 이는 신소설의 ‘악’의 표상에서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요소와 새로이 ‘변화’하는 요소를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한 예비 작업에 해당한다.

전근대 ‘악’의 표상은 다시 철학과 문화의 층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었다. 전근대 한국에서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행사했던 주요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적 층위에서는 유·불·도 각 사유 체계 내에서 선악의 의미와 쓰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대중적 삶의 층위에서는 이 차이들이 어떤 공통 인식으로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공통 인식의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선악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질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 공동체의 기준에서 개별 행동의 선악을 판별하는 공리주의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선악에 각각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두 특징이 근대 초기 ‘악’의 표상에서도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전근대 소설에서 폭넓게 발견되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은 선악에 관한 문화적 공통 인식의 미학적 변용물에 해당한다. 복선화음은 인물의 형상화 방식 및 주요 갈등 구도, 서사 내에서 인물 유형 간의 상호작용 양상 등이 결정되어 있는 견고한 서사구조다. 신소설이 가져온 문학적 ‘관습’은 많은 부분 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 문제를 중심으로 복선화음 내에 등장하는 악인 유형과 그들을 통해 표상된 악의 내용, 악인과 그 파생인물의 역학적 관계 및 형상화 방식을 분석했다. 가정소설적 악인을 통해 주로 탐구된 것은 인성(人性)의 문제로 나타나는 도덕적 악이다. 한편 영웅소설적 악인을 통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해(害)의 문제인 사회적 악이 탐구되었다. 행동자 차원에서는 악인과 그 파생인물로서 악인의 대상인 ‘무고자’, 악인에 대적하는 ‘영웅’, 악인을 제거하는 ‘복수자’가 복선화음 상의 주요 인물 체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인물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Ⅲ장에서는 근대 전환기에 출현한 신생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제국 시기의 신소설이 ‘발견’한 ‘악’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이 때 신소설이 활용한 전근대 소설 관습은 독자에게 익숙함을 제공함으로써 낯선 것에 대한 충격을 중화하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했다. 전근대 소설이 구축한 논리·감정의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신소설은 전근대 소설에 발을 딛고 있는 ‘경험의 공동체’ 내부에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 주 분석대상이 된 것은 새로운 ‘악’의 유형과 그 형상화 방식에 일어난 변화다. 다만 내용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대한제국 시기 압도적 지배 담론이었던 내셔널리즘의 열망으로 묶여 있다. 이는 이 시기 신소설에서 ‘악’의 규정이 ‘민족’, ‘국민’, ‘국가’와 같은 내셔널리즘적 주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애국계몽 담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공익(公益)이 주요 가치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이기심이 악으로 표상되었다. 근대 초기에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은 개인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동력원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었으나, 주요 가치인 공익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공익과 연결되지 않는 종류의 이기심은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악’으로 표상되었다.

독립 국가를 지향하는 국민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주의가 악으로 표상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 때 이기주의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기심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이라는 공적 정체성이 개인의 삶을 ‘국가’에 모두 헌신한다는 맥락에서 규정됨에 따라, 가족·가문 등 사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행위 일체가 이기주의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이기주의는 곧 비국가주의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대화 담론 속에서 신식 문물·사상·제도에 대한 지향인 ‘개화’는 조선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동선으로 규정되었다. 그

러나 ‘개화’는 일반 인민이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일 뿐만 아니라, 양반 계층이 추구해야 할 특수한 계층적-공동선으로도 인식되었다. 근대적 사회로 변화하며 선천적 신분 대신 후천적 교육·자본·지위·명예 등이 계층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양반 계층이라도 기존 위계질서에서 독점하고 있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위·명예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개화’였다. ‘개화’를 일반 인민의 ‘무지’가 아니라 같은 양반의 ‘완고’와 대조하여 표상하는 체계는 이처럼 특수한 계층적 배경에 입각하여 구성된 것이다.

근대 초기 신생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악’은 그 내용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형상화 방식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근대 교육이 도덕적 악예의 대응 기제로 제시됨에 따라, ‘악인의 개과천선’이라는 전통적 관습이 ‘교육을 통한 교화’로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개과천선은 인간의 본성적 선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모티프로, 기존 소설에서는 대체로 하늘에 의한 급작스러운 개심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근대 교육이 개인의 도덕성을 육성하는 기제로 인식됨에 따라, 개과천선도 교육에 의한 점진적 교화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IV장에서는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체제 성립이라는 역사적 국면 속에서 식민지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이 분기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근대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구성원의 보호를, 대내적으로는 법 질서 확립을 내세움으로써 그 존재를 합리화하고 폭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체제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러한 근대 국가 체제의 성립은 식민지 지배 체제의 성립과 정확히 겹쳐서 나타난다.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의 분기는 이와 같은 이중성과 관련된 것으로, 식민지 지배 체제에의 적응과 저항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주로 해외 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다뤄지는 ‘무법’의 문제는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무능력·태만·방관의 문제로 연결된다. 해외 조선인 사회에서 살인·방화·폭행 등을 저지르는 인물들, 즉 ‘무법자’라는 악인 유형은 사회의 교화적 방침이 아니라 국가의 무력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사적 복수에 의해서만 제거되는 ‘무법자’에 대한 서사는 이들을 통제할 의지·능력이 없는 국가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한다. 여기서 악은 일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무법자’의 무자비한 폭력·잔혹한 인간성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여백에는 이러한 적대적 상황을 방관하는 국가의 문제가 기입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주로 국내를 배경으로 다뤄지는 ‘범죄’의 표상은 국가가 사회에 부과한 규범에 대한 일탈·위반의 지점을 포착한다. 강간·살인·폭행·사기 등 각종 ‘범죄’는 국가가 사회에 부과한 규범인 법의 위반을 구체화한 사례들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곧 제국이었다는 특수성에 의하여, 식민지 시기 신소설에 나타난 ‘범죄’는 특히 경찰·검사·판사 등 일련의 사법 절차 속에서 처리되는 행정적 문제로 형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범죄’ 표상은 법으로 상징되는 합리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의 관점에서 식별된 ‘불안’ 요소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의 의미망이 ‘불량’을 포섭하며 확장되는 양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V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식민지 시기 신소설을 대상으로 ‘악’의 형상화 방식에 일어난 충격이 새로운 ‘악’을 구성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앞 장에서 서술한 변화가 대체로 새로운 ‘대상’의 발견이 형상화 방식에 미친 영향이라면, 여기서 선행하는 것은 새로운 ‘형상화 방식’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악’이 ‘정치’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탐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상화 방식에 일어난 이 변화로 인해 악은 주체와 내면의 문제로 사유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다시 복선화음이라는 전통적 형상화 방식에 충격을 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근대 초기 기독교적 죄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회개·속죄와 같이 악을 주체의 내면적 과정 속에서 표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악은 주체가 스스로 인식하고 응분의 속죄행위

를 통해 보상함으로써 떨쳐낼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죄(악)의 내용은 범죄, 부도덕 등 기존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형상화의 초점은 인간이 악을 저지르고 청산하게 하는 기제를 탐구하는 데 모아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악의 원인으로 욕망의 문제가 부각되는 한편, 악이 욕망을 추구·실현하는 이성과 어긋난 욕망에 대한 보상행위를 하게 하는 감정의 양 축을 통해 표상되는 국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정치자가 축소·소멸하거나 악인이 스스로에 대한 정치자를 겸하는 변화로 인해 전통적 복선화음 구조가 파탄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악의 표상에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이 열린다. 새로운 ‘말하는 방식’은 ‘말해지는 것’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선악을 분간하는 심급이 개별 주체의 내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전에는 선악을 분간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던 기성 사회 질서·기성 사회 윤리·기성 권력 등이 개별 주체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는 기제로 표상될 공간이 창출된다. 즉 선악이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체성의 영역이 열린 것이다.

예컨대 「홍염」(최서해, 『조선문단』, 1927.1.)으로 대표되는 경향 문학에서 방화·살인과 같은 극단적 악행이 지배계급의 폭거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처럼 표상되는 방식⁶⁷⁷⁾, 「광염 소나타」(김동인, 『중외일보』, 1929.1.1.-1.12.)로 대표되는 ‘악마주의’ 문학에서 방화·폭행·살인 등이 기성 사회 질서와 윤리에 대한 ‘도전’이자 자유·

677) 한수영은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는 ‘분노’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감정은 그 의미를 확정하려 하기보다는 맥락(context)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통찰했다. 한수영은 최서해 소설의 ‘분노’가 개인의 결단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맥락으로 전이되는 계기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분노’를 합리적 이성과 연결된 것으로 독해했다.(한수영, 「‘분노’의 공(公)과 사(私) - 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公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한편 손유경도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감정을 이성과 연관된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했다.(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178-179면)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감정은 이성과 마찬가지로 인식의 다른 형식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시각에서 볼 때 『귀의 성』에서 감정과 이성적인 것(합리성)은 상호배제적 대립항으로 나타난다. 이는 1920년대 소설과 구분되는 또 다른 미학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의지에 의한 인간의 (예술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표상되는 방식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악의 표상이 그것의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자율성·능동성의 문제로 역점을 옮기며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소설에서 보였던 가능성을 무시했을 때에는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여 출현한 것으로만, ‘이식’의 징표로만 이해되기 쉽다.

이러한 악의 계보는 문학사적 ‘샛길’을 드러내는 데 소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샛길’을 재구하는 작업은 본 논문의 역량을 아득히 벗어난다. 다만 이 ‘샛길’의 시작점에 신소설이 수용·변화·확장시키고 나아가 마침내 비약할 수 있는 공백을 마련한 악의 전사(前史)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일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5-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 김진영 외 편,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 김유경·이운석 교주, 『세책 고소설 5-유충렬전·정비전』, 이회,
2005.
-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 『샤씨남정괴 상하』, 영풍서관, 1913.
- 『장화홍련(薔花紅蓮) 부(附) 적성의전(積成義傳)』, 세창서관, 1915.
- 『소대성전』, 광문책사, 1916.
- 김교제, 『목단화』, 동양서원, 1911.(『신소설전집』 1, 계명문화사,
1987)
- _____, 『치악산』 하, 동양서원, 1911.
- _____, 『현미경』, 동양서원, 1912.
- 김교제 열, 『마상루』, 동양서원, 1912.
- 박건병, 『광악산』, 박문서관, 1912.(『신소설전집』 3, 계명문화사,
1987)
- 박이양, 『명월정』, 유일서관, 1912.
- 육정수, 『송뢰금』, 박문서관, 1908.
- 이인직, 『귀의 성』 상, 광학서포, 1907,
- _____, 『귀의 성』 하, 중앙서관, 1908.
- _____, 『치악산』 상, 유일서관, 1908.

_____, 『은세계』, 동문사, 1908.
 _____, 『혈의 누』, 광학서포, 1908.
 이해조, 『모란병』, 박문서관, 1911.
 _____, 『빈상설』, 동양서원, 1911.
 _____, 『빈상설』(서울대 소장본), 간기 미상.
 _____, 『월하가인』, 보급서관, 1911.
 _____, 『홍도화』, 동양서원, 1912,
 _____, 『구마검』, 이문당, 1917.
 _____, 「자유중」, 『한국신소설선집 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병헌, 『성산명경』, 정동황화서재, 1909.
 최찬식, 『추월색』, 회동서관, 1912.
 _____, 『안의 성』, 박문서관, 1914.
 _____, 『금강문』, 동미서시, 1916.
 『고의 성』, 대창서원, 1912.
 『금의 쟁성』, 유일서관, 1913.
 『요지경』 3판, 수문서관, 1913.
 『추야월』, 광덕서관, 1913.

『독립신문』 『대한미일신보』 『만세보』 『매일신문』 『매일신보』 『신한
 민보』 『황성신문』

『공수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홍학회월보』 『서우』 『소년한반
 도』 『장학보』 『태극학보』

2. 국내 논저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

- 학교 출판부, 2012.
-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墨西哥(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 60, 중앙어문학회, 2014.
- 강현조,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도일 행적 및 『혈의누』 창작 관련 신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3, 2008.
- _____, 「한국 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 근대 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 강현조 외 편역,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 자료집』, 현실문화, 2014.
- 구장률,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인직과 『혈의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 _____, 「식민지 문화전략과 복고의 식민성: 이해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 권보드래, 「죄, 눈물, 회개-1910년대 번안소설의 감성구조와 서사 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 _____,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 2014.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권탄준,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불교연구』 26, 한국불교연구원, 2007.
- 김광순, 「신소설 연구: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수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5,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8.
- 김경애,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권선징악」,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기란,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대중문화적 의의-신소설과 신연극의 상호참조를 통한 여성의 멜로드라마적 형상화」, 『여

- 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 김기주, 「구한말 제일 한국 유학생의 민족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낙필, 「조선 후기 민간 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문화』 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1.
-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1, 한국현대문학회, 2002.
- _____, 「신소설과 철도의 표상: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 김경애,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권선징악」,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광순, 『고소설사』, 새문사, 2006.
-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82, 한국서양사학회, 2004.
- 김달진 역주, 『법구경』, 문학동네, 2005.
- 김민재, 「근대 수신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도덕과 교육’의 연속성: 『윤리학교과서』와 『고등 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수봉, 『서사문학의 반동인물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 동국사학회, 2016.
-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 김영희, 「반공주의와 일상생활」,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혜안, 2009.
- 김용태,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 _____,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90.
- 김윤식·김현,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 김종욱, 「『소학령』의 정치적 읽기」,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2016.
- 김준석, 『근대 국가』, 책세상, 2011.
- 김창석,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한국역사연구회, 2013.
- 김철수, 「일제 식민지 시대 치안 관계 법규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 한국사회학회, 1995.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 김학철, 「네 이름이 무엇이나?—성서와 신학 속 악의 고고학적 지형도」, 『문학동네』 가을호, 문학동네, 2016.
-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 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다산(茶山)의 『흙흙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 김효전, 「『국가학』 번역」, 『동아법학』 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 김현주, 「신소설의 갈등 구조와 근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4.
- 김현주, 「『서유견문』의 과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수사학」,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 _____, 『사회의 발견: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1910-1925』, 소명, 2013.
-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 김희정, 『굳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 새미, 2006.
- _____, 「이인직 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연구: 프랑스 낭만파적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 도승연, 「우리 시대가 ‘위험에 빠진 신체’에 대처하는 한 방식: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를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편, 『테마 한국불교 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3.
- _____, 『테마 한국불교 2』,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4.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사상개관』,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논어』, 민음사, 2016.
-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맹자』, 민음사, 2016.
- 류민영, 「한국회곡사 연구 1」, 『연극평론』 6, 한국연극평론가협회, 1972.
- 리펑페이(李鵬飛),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 목수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태극기-20세기 전반기의 미주 한인들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8, 2010.
-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 6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_____, 「중국과 조선의 법률문화와 범죄소설의 계보학」, 『비교문학』 53, 한국비교문학회, 2011.
- 박진영, 「일제 조중환과 변안소설의 시대」,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 _____,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 2011.
- 방민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또는 합방 전후의 소설적 거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 배정상, 「이해조의 『소학령』 연구-재외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_____,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 2015.
-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변안양상」, 『국어국문학』 72, 국어국문학회, 1976.
- _____,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 춘원연구학회, 2012.
-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 송민호,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송민호,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 _____,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송현주, 「과정신학과 화엄사상에서 ‘악’의 문제」, 『한국종교연구회회보』 3, 한국종교연구회, 1991.
- 송호근, 『시민의 탄생』, 민음사, 2013.
- 신광철, 「탁사 최병헌의 비교종교론적 기독교변증론-『성산명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신순정, 「자연과 덕 그리고 인간-노·장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19, 새한철학회, 1999.
- 신지연,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 2007.
- 신해영, 『倫理學教科書』, 보성중학교, 1903.
- _____, 『倫理學教科書 下編』, 보성중학교, 1906.

- 안병국, 「귀신과 수용집단 심리기저-불교의 인과응보관과 세속인의
공리성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 동양고전학회,
1995.
- 안옥선, 「불교의 '선악불이(善惡不二)'에 대한 이해-『육조단경』을 중
심으로」, 『불교학연구』 14, 불교학연구회, 2006.
- 안확, 『조선소설사』, 한일서점, 1922.
- 양문규, 「개화기 문학 담당층의 사회·역사적 성격」,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 _____, 『한국 근대소설과 현실 인식의 역사』, 소명, 2002.
- 양진오, 「육정수의 『송퇴금』 연구」,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
학회, 2005.
- _____, 「근대성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담론의 소설화 - 「성산명
경」과 「경세중」을 중심으로」,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 엄순영,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프란츠
노이만과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 사상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유길준, 『서유견문』, 교순사, 1895.
- 유봉희,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이인직과 이해조를 중심으로」, 인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유영렬, 『한국 근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2006.
- 윤찬원, 『도교 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 윤찬원 역주, 『태평경』,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
로」,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2014.
- 이경림, 「『장한몽』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_____, 「『인민사회의 출현 - 이인직의 『혈의누』론」,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_____,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의 형상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_____, 「김교제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에 관한 연구-젠더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17.
- _____, 「‘연애의 시대’ 이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1, 2017.
- 이경재, 「토마스 아퀴나스 형이상학의 원리에 비추어 본 악의 원인 물음」, 『중세철학』 19, 한국중세철학회, 2013.
- 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989.
-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天) 관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병직, 「강상효녀담의 창작의식과 소설로의 수용」,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 이병철,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전개와 서사 구현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이송희,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2011.
-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신파극적 요소와 시각성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9, 2006.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 _____,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1』, 민음사, 2000.
- _____,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 이지수, 『인도 불교철학의 원전적 연구』, 여래, 2014.
- 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 근대 주체의

-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진우 외,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 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철학연구』 56, 대한철학회, 1996.
-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학영,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인문논총』 7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 임화, 『임화 신문학사』, 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 문학예술 전집 2-문학사』, 소명, 2009.
- 임형택·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한국사연구회, 2003.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아카데미, 1996.
-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1910-1930)」, 『한국 근대 사회와 문화 3』,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 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전재성 역주, 『범구경-담마파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8.
- 정용환, 「공맹유학의 도덕 감정론」, 『철학연구』 128, 대한철학회, 2013.
- 정우진, 『노자상이주 역주』, 문사철, 2014.
- 정은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악(惡)의 표상 연구: 김동인과 이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 정호훈, 『조선의 『소학』』, 소명, 2014.
- 정혜정·배영희,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교육정책 연구-1910년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4, 교육사학회, 2004.
-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 유학의 문제-이인직의 「혈의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조경덕, 「기독교 담론의 근대서사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 _____,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 조성면,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 조성택,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 한국행정사학회, 2015.
- 조연현, 『한국신문학교』, 문화당, 1966.
- 조영란, 「신소설에 나타난 ‘추(醜)’의 인식과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용호, 『여영웅-바다로 나간 최초의 여성영웅 이야기』, 민속원, 2012.
- 조재국, 「초기 기독교 수용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신학과 실천』 41, 한국실천신학회, 2014.
- 조현범, 「조선 후기 근대적 양심 개념의 도입 경위와 천주교의 역할」, 『코기토』 7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_____, 「천리교의 교리적 특성과 역사」, 『한국종교학회』 44, 한국종교학회, 2006.
- 조혜란, 「한국고전문학에 나타난 불륜의 사랑」, 『일본학연구』 49,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 진교훈 외, 『양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천지명,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 인식」, 『역사와현실』 66,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최기숙, 「출구 없는 여성, 여성적 시간의 식민화: 1910년대 최찬식 소설의 “여학생”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최기숙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_____,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태원, 「일제 조중환의 변안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최희정,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청년”의 “자조”」, 『한국사상사학』 39, 한국사상사학회, 201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악이란 무엇인가』, 서봉섭 편, 창, 1992.
- 한기형,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 한수영, 「‘분노’의 공(公)과 사(私) - 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公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 함태영, 『1910년대 소설의 역사적 의미』, 소명, 2015.
- 황영주, 「초기 근대 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국제관계연구』 15,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 허영란, 「관치(官治), 식민지에서 “법의 지배”: 한말, 일제강점기 법
과 법치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51, 이화사학연구소, 2015.
-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 48, 조선
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3. 국외 논저

-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9.
- 강상중, 『내셔널리즘』, 임성모 역, 이산, 2004.
- _____,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노수경 역, 사계절, 2017.
- 노드롭 프라이,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이상우 역, 집문당,
1987.
- 넬슨 곤맨, 『예술의 언어들』, 김혜숙·김혜련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2002.
-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2, 장춘익 역, 새물결, 2012.
- 래리 메이, 『마음과 도덕』, 송영민 역, 울력, 2013.
-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화와 사회 1780-1950』, 나영균 역, 이화여
자대학교 출판부, 1988.
- _____,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 류시현, “Multiply-Translated Modernity in Korea: Samuel
Smiles’ Self-Help and its Japanese and Korean
Trans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6,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1.
- 몽배원,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 외 역, 예문서원, 2008.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1994.
- _____,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 베르나르 포르,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김수정 역, 그린비,

- 2011.
- 사토 야스쿠니·미조구치 고헤이 편, 『모럴 아포리아』, 김일방·이승연 역, 글항아리, 2013.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외 역, 이음, 2009.
-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1.
-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 어네스트 겔너,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1988.
- 오오하마 아키라, 『노자의 철학』, 임헌규 역, 인간사랑, 1992.
- 요코야마 고이츠, 『불교의 마음사상』, 김용환·유리 역, 산지니, 2013.
- 움베르토 에코, 『매스컴과 미학』, 윤종태 역, 열린책들, 2009.
-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 유소감, 『노자철학-노자의 연대 고증과 텍스트 분석』, 김용섭 역, 창계, 2000.
-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고영진·임경화 역, 소명, 2006.
- 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박성관 역, 소명, 2002.
-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09.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역, 웅진씽크빅, 2015.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역, 서광사, 1992.
- 제프리 버튼 러셀, 『고대로부터 원시 기독교까지 악의 인격화-데블』, 김영범 역, 르네상스, 2006.
- 존 포트만, 『죄의 역사』, 서순승 역, 리더스북, 2008.
- 주희·유청지 편, 『쉽게 풀어 쓴 소학』, 기주연 역, 박이정, 2007.
- 진고응, 『노장신론』, 최진석 역, 소나무, 1997.
- 진순,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북계 진순의 『성리자 의(性理字義)』 완역』, 박원식 역, 여강출판사, 1993.

테리 이글턴, 『악-우리 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오수원 역, 이매진, 2015.

폴 리콥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지성사, 1994.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외 역, 소명출판, 2013.

칼 심스, 『해석의 영혼 폴 리콥르』, 김창환 역, 엘피, 200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1996.

K. 스리 담마난다, 『불교이야기』, 이병두 역, 미토, 2004.

Amstrong, Nancy,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Barthe, Roland,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Lionel Duisit trans., *New Literary History* 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Card, Claudia, *The Atrocity Paradig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Dews, Peter, *The Idea of Evil*, Blackwell Publishing, 2008.

Fowler, Alastair, *Kinds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Giddens, Anthony,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Goode, Erich ed., *Out of Control -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Goodman, Nelson,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8.

Murray, Cara E., "Self-Help and the Helpless Subject:

- Samuel and Biography's Objects",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6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 Neiman, Susan, *Evil in Modern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Ricoeur, Paul, *Evil-A Challenge to Philosophy and Theology*, John Bowden trans., Continuum, 2007.
- Reiner, Robert, *Crime*, Polity Press, 2016.
- Siegworth, Gregory J. and Gregg, Melissa ed., *The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2010.
- Singer, Marcus G., "The Concept of Evil", *Philosophy* 79,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Tyrrell, Alexander, "Class Consciousness in Early Victorian Britain: Samuel Smiles, Leeds Politics and the Self-Help Creed",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Evil in *Sinsoseol*

Lee Kyung-r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identified what was defined 'Evil' in Sinsoseol[New Novel], how it was shaped and what functions were performed by it. Sinsoseol was one of the most wide read genre in early modern Korea and 'Evil' was the most prominent theme of it. Regarding that representation is a special type of perception constituted under specific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e can trace the changes in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in early modern age by analyzing representation of Evil in Sinsoseol.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of Evil reveals specific historical or social phase in the history of knowledge regarding the negative. As a genre prevailed in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existing value system collapsed rapidly, the significance of Sinsoseol needs to be reevaluated by its function rearranging the knowledge. The main task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way how Sinsoseol visualized new type of Evil while negotiating

the existing representation of Evil.

In Chapter 2, I aimed to identify the ground where representation of Evil in Sinsoseol based on by analyzing representation of Evil in premodern age.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re the most prominent parts of premodern Korean philosophy and culture. In each philosophy, good and evil had different meanings and usages. However, those original differences converged on common/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nception of good and evil was applied to describe quality of human act, especially under social contexts. In this case, good and evil tended to be discern by utilitarian paradigm. And faith in karma was also prominent in cultural conception of good and evil. These two constituents lasted in early modern Korea. The specific narrative structure called Bokseonhwaeum was aesthetic product corresponding to these.

In Chapter 3, I aimed to identify newly developed types of evil in Sinsoseol of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se new types of evil were shaped within newborn discourses in early modern age. As nationalism predominated the period, discerning good from evil was conducted under the name of the nation. Selfishness was identified as evil since it seemed to hinder public interest, which was valued as the most important common good. Selfishness itself was affirmed as a power source to achieve independence of self at that time, but if it would not support to expand public interest, it was regarded as evil. Egoism was identified as evil since it

seemed to prevent people from achieving public 'national' identity. Putting private identities such as self or family higher than the nation on the priority list was criticized. As civilization was recognized as the key task, stubbornness which hinders it was identified as evil. Especially, stubbornness of premodern ruling class, Yangban, was criticized by civilized Yangban as it prevents entire class from succeeding its privileged social status. Lastly, modern education was adapted as means to reform an immoral person and unethical society.

In Chapter 4, I aimed to analyze representation of evil in *Sinsoseol*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Empire was the first modern state which monopolized violence in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 Modern state can be distinguished by its monopolization of violence. In general, modern state justifies monopolization of violence by protecting its member and establishing law and order. However, in case of Korea,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 system was overlapped with that of colonial system. This historical factor divided representation of evil into two parts, the adapting one to colonial system and the resistant one to it. The former was revealed by the criminal figure in which the Japanese Empire could parade its governing power over Korean society. And the latter was implied by the outlaw figure in which texts could expose the Japanese Empire's incompetence or indifference to protect its colonial subjects.

In Chapter 5, I aimed to identify how the expansion of

subjectivity became possible by representing evil in early modern Korea. In premodern contexts, evil was represented in external dimension since it was mainly regarded as target of transcendental punishment. However, as the Christian concept of sin/guilt was introduced, evil came to be represented in internal dimension in which the sinner double the part of its own punisher through repentance and penance. Though these changes in style did not affect the existing list of evil acts, they shifted the concept of evil into the realm of subjectivity. Evil became something to be recognized by oneself, compensated by act of penance, therefore cleared by oneself. As subjectivity became an important theme regarding evil, components on the side of the subject such as desire, rationality and emotion came to be prominent.

Keywords : *Sinsoseol*, good, evil, nationalism, modernization, civilization, nation, state, enlightenment, education, selfishness, egoism, colonialism, crime, Christianity, sin, desire, reason, emotion, subject

Student Number : 2010-30008